

**2022년 전반기 국내학술대회**

## **한국 서원의 로컬리즘(지역성)**

- 일 시 : 2022년 4월 30일(토) 10:00~17:00
- 장 소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ZOOM으로 진행
- 주 최 : 한국서원학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영남대학교

## 학술대회 일정

사회 : 이병훈(영남대)

시 간		주제 및 발표자
개회사	10:00~10:05	■ 개회사 : 조명근[영남대학교 / 민족문화연구소 소장]   ■ 축 사 :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서원학회 회장]
기조발표	10:10~10:30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성격』 ■ 발표 : 이해준[공주대학교]
발표 1	10:30~10:55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 ■ 발표 : 이연숙[한국고전번역원]
발표 2	10:55~10:55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 발표 : 송석현[경북대학교]
휴식	10:55~11:05	
발표 3	11:05~11:30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 운영과 특징-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 발표 : 이경동[공주대학교]
발표 4	11:30~11:55	『17~18세기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도남·홍암서원을 중심으로』 ■ 발표 : 박소희[영남대학교]
발표 5	11:55~12:20	『17~18세기 노강서원과 충청 지역의 소론계 서원』 ■ 발표 :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휴식	12:20~12:30	
발표 6	12:30~12:55	『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상주 옥동서원의 위치사비를 중심으로-』 ■ 발표 : 김순한[영남대학교]
발표 7	12:55~13:20	『논산지역 서원의 교육과 특징』 ■ 발표 : 김자운[공주대학교]
발표 8	13:20~13:55	『尙州 淵嶽書院과 九曲文化』 ■ 발표 : 이구의[경북대학교]
휴식	13:55~14:05	
종합토론	14:05~16:30	■ 좌장 : 이수환[영남대학교] □ 토론 1, 2 :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 채광수[영남대학교] □ 토론 3, 4 : 문광균[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김영나[경북대학교] □ 토론 5, 6 : 고수연[유원대학교] /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 토론 7, 8 :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이정화[동양대학교]
연구윤리교육	16:30~17:00	■ 연구윤리교육 ■ 발표 : 정수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서원학회 총무이사]
폐 회	17:00	■ 폐회

## 목 차

1. 이해준 _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성격 .....	1
2. 이연숙 _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 건립 .....	15
3. 송석현 _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	45
4. 이경동 _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 운영과 특징 -돈암서원·노강서원·죽림서원을 중심으로- .....	67
5. 박소희 _ 17~18세기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 -도남·홍암서원을 중심으로 - .....	87
6. 홍제연 _ 17~18세기 노강서원과 충청지역의 소론계 서원 .....	110
7. 김순한 _ 19세기 상주지역 남인세력의 갈등 -상주 옥동서원의 위치 시비를 중심으로- .....	129
8. 김자운 _ 논산지역 서원의 교육과 특징 .....	156
9. 이구의 _ 상주 연악서원과 구곡문화 .....	173

[기조발표]

##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성격

이 해 준<sup>1)</sup>

1. 머릿말
2. 서원과 향촌사회
3. 서원의 창건과 인맥
4. 서원의 학맥, 지역 네트워크
5. 맺음말

### 1. 머릿말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각각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한국지성문화의 요람이다. 서원에서 지역의 지성들은 여론 및 공론을 결집하고, 사회사적 활동을 했으며, 동시에 교육과 강학·제향 및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지성사적 활동도 펼쳤다. 서원은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역사 현장이자 선비들의 활동 무대였다.

조선의 서원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건립하여, 추송 제향하고, 교육 교류의 장소로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 공간이자 상징적 기구였다. 특히 지식의 일방적 전수교육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의 공론을 결집하는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들의 대표적인 사회사적 활동 장소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학맥별로 다양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향약의 시행과 향음주례, 의병의 결집, 여론형성과 상소 등 문화사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까지 전개하였던 중요한 장소였다. 그런가하면 서원은 도서출판·문화예술 등 각종 사회 교화 활동이 펼쳐졌던 곳이며, 향약과 향음주례가 행해진 곳, 의병의 격문과 정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연명 장소가 작성된 곳, 다양하고 격렬한 학문 토론이 이루어졌던 곳, 서원의 현판과 기문들에서 보듯 당대 석학들의 교류와 활동 현장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의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 전한다. 서원은

---

1) 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목포대 교수(81-94),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공주대 사학과 교수(94-19) 역임

기록물을 소장하는 지식의 창고로 많은 문집과 문헌을 소장하고 있으며, 서적과 판본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출판 및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했다. 서원에는 서원 관리와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인 고문서 등이 다수 보존되고 있어 각 시대 각 지역의 서원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도 한다.

특히 본 발제와 관련하여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조선 서원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잘 보존·정립한 사례로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는데 다음의 표가 바로 그러한 한국의 9개 서원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 등재기준, 속성										
구 분	criterion(iii)					criterion(iv)				
	서원발전	교육체계	강학특성	제향특성	사람활동	건축적 특징	입지	배치	건축물	경관
소수서원	제도도입	●	●	●	◎	건축요소	●	◎	●	●
남계서원	설립주체	●	◎	●	●	배치방식	●	●	●	◎
육산서원	출판활동	●	◎	●	●	누각도입	◎	●	●	●
도산서원	학맥형성	◎	●	●	●	경관구현	◎	●	◎	●
필암서원	운영방식	●	◎	●	◎	평지특성	●	●	◎	◎
도동서원	교육체계	●	◎	●	◎	경사특성	●	●	◎	●
병산서원	사회활동	◎	◎	●	●	누각특화	◎	◎	●	●
무성서원	교회활동	●	◎	◎	●	입지특화	●	◎	◎	◎
돈암서원	예학심화	●	●	●	◎	강당특화	◎	◎	●	◎

● 탁월한 충족

◎ 평균수준의 충족

## 2. 서원과 향촌사회

소수서원이 처음 건립된 이래 조선의 서원은 향촌 사회·정치활동 근거지 기능을 가지며, 지역별로 많은 사람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하였고, 16세기 후반 이후 18세기 초까지 ‘사람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었다. 서원은 그런 점에서 사람의 시대를 있게 한 모태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구였다.

서원은 교육기관으로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식·사적 활동 공간으로, 자연과 학연이 맺어준 교류의 장이었다.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특별한 곳이었고, 지역간, 학맥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회), 소회, 창의 등을 통한 사회활동도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다.

즉 향촌사족 간 결속의 매개체로 자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의 거점이었던 것이며, 서원은 지역별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술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 혹은 향촌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

하여 통문이라는 의사 소통의 방식을 통해 향촌유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림의 집단 활동은 서원의 네트워크에 의해 공론 형성과 수렴이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서원이 담당하였다. 연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때로는 의병의 격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서원은 지방의 사론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향촌사회에서 서원은 지역의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곳이었다.

그런가하면 한국의 서원은 “유교문화의 자료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질 만큼 다양하고 특징적인 유형, 무형의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역사와 교육 전통, 제향, 건축, 경관,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바로 이러한 유교,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원은 자연과 학연별로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성이 집약된 문화유산과 자료들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서원은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 도서 출판 기능도 수행하였다. 출판의 내용은 주로 제향인물의 문집, 저작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출판을 위한 목판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서원에는 서원 교육,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로 강학 규약, 강학 내용, 평가, 그리고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 심원록과 방명록 같은 사회교류의 문서들도 많이 남아 전하고 있다.

이같은 서원의 사회사적 특성은 지역성, 향촌사회의 실제 모습과 연계가 되어 있었다. 서원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각 지역별로 경쟁적으로 건립되어 발전하였고, 학맥과 학파가 형성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세력거점이 되어 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서원의 건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남설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서원 성격도 없지 않아 영조 대에는 173개소의 서원 사우를 휩칠하는 강경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서원의 성격을 중앙 정치세력과 연결시켜 보거나, 서원을 교육과 그 조직만으로 고정시켜 두면, 그 사회사적 의미는 매우 한정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즉 시각을 향촌사회의 지성사적 동향과 연결시켜 보면 해당 지역에서 왜, 그리고 건립주도 세력이 과연 어떠한 배경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 또 이에 대한 다른 향촌세력의 반향이나, 주도세력의 위상변화, 그리고 서원을 통해 이루어진 향촌활동 등도 서원을 바라보는 주요 관심대상인 것이다.<sup>2)</sup>

한·중·일 서원은 향촌사회와의 관련성 측면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일본의 서원이 지닌 기본 성격이 학문 토론, 교육적 전통이라면, 한국의 서원은 향촌사회의 문화거점이자 지성사적 활동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특별하다.

조선 서원은 단순한 교육 강학의 기능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화적 기능을 포괄하는 사족들의 활동 거점이기도 하였다. 특히 학문적 스승을 받들고 학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제향기능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한 것이 조선의 서원이었다. 여론과 공론의 [결집], [소통], [대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점은 중국·

---

2) 정만조, 「한국서원의 발자취」,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일본의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통문, 상소 자료의 시대적 성격과 변천, 그 사회사적 의미는 그런 점에서 중요하며,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서원의 기능도 한국 서원의 부각되는 성격이다. 한편 심원록, 고왕록, 부의록 등을 통한 지역간, 학맥(당론)간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강학(회), 소회, 창의 등등을 통한 서원 활동은 매우 중요한 모습의 하나인 것이다.

첫째로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건립주체이자 핵심세력인 사림이 향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도학을 실천한다는 공통의 특징을 지닌다. 사림세력은 충절과 의리 등을 앞세우고, 민생 등의 향촌사회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층인 훈구적신들을 부정, 공격하였다. 사림의 名分論과 현실대응은 민중의 지지를 얻게 되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로 한국의 서원은 지역, 학맥별로 독특한 서원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서원들은 소수서원이 처음 건립된 이래 그들 세력의 재생산을 위한 학교이며 향촌이나 중앙에서의 사회·정치활동 근거지라는 기능을 가졌다.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림을 양성하여 정계에 공급하였고, 16세기 후반 마침내 집권을 실현한 이후 18세기 초까지 ‘사림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었다. 서원은 그런 점에서 ‘사림의 시대’를 있게 한 모태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핵심기구의 하나였다.

셋째로 조선시대의 사족은 향촌사회의 중심 리더로서 사족 중심의 향촌민 통제와 교화, 그리고 향촌공동체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였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향촌민 교화와 향촌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성리학으로 무장되고 修己에 힘쓰는 사족을 양성할 적절한 기구가 바로 서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서원은 향촌교화, 향촌자치와 직결되는 정치, 교육, 문화적인 모습을 두루 갖춘 지성인들의 문화거점이었던 것이다. 사림세력은 그 뿌리를 향촌사회에 두고 있었고, 향촌사회의 교화 기능이 매우 중시되었다. 조선 초기 소학의 보급과 향약의 실시 등 일련의 노력이 대부분 향교를 기반으로 정착되었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서원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 왔다. 이에 서원은 사회교육을 실현하는 곳으로서 지방의 풍속과 예속의 교화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서원은 또한 향촌 질서를 재편성하고 향촌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간 정신적 지주였다. 즉 서원은 향촌 사람들의 학문 및 장수처로서 지역 선비들이 모여 세상사를 논의하고 여론을 모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 3. 서원의 창건과 인맥

#### · 건립 유서와 기반

서원에 제향된 인물의 성격(지위)은 관념상 서원조직의 다른 어느 것보다 우선하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인물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제향 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한 인물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이를 선양, 추앙하는 세력이 있었을 때 서원이 건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따라서 제향된 인물과 함께 혹은 그 보다 더욱 중요하게 <건립된 시기>와 그 <주체세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3)</sup>

즉 서원 건립이 왜 그 시기에, 그곳에, 그리고 그 인물을 제향하게 되었는지는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대체로 서원 건립의 유서와 기반은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후학의 양성이나 학행으로 모범을 보였던 유적(書齋, 講舍, 遺墟, 影堂, 祠堂 등)이 있어 후대에 이를 토대로 서원을 건립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물론 각 서원은 정밀하게 살필 경우, 이러한 유서 이외에도 창건 시기나, 지원세력의 노력 여부 등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 · 창건 주체

서원을 창건하는 주체들을 모두 논외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있어 본고에서는 도산서원과 돈암서원의 사례를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李滉, 1501~1570)의 강학터였던 도산서당을 토대로 건립되었다. 조선 서원들이 대부분 선현의 출생지나 거주지, 강학터, 유허지에 세워지는데 도산서원은 이중 강학지인 도산서당을 유서로 지은 예이다. 퇴계의 문인들이 도산에 터를 잡아 간청하여 퇴계가 이곳에 서당을 짓기로 결심하고 60세가 되던 1560년에 이곳에 도산서당을 창건한다. 이렇게 건립된 도산서당에서 퇴계는 조목(趙穆), 김성일(金誠一) 류성룡(柳成龍) 등 저명한 후학들을 배출해냈다. 그리고 도산서당은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조선시대 영남 유학자들의 정신적인 고향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이 도산서당을 유서로 하여 퇴계 사후 4년이 지난 1574년에 드디어 도산서원이 건립되며, 그리하여 현재의 도산서원 영역에는 퇴계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영역과 퇴계 사후에 그의 학덕을 기리는 도산서원 영역이 함께 존재한다. 도산서원은 조선시대 내내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총본산으로서 그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하는 곳이었던 것이다.

논산의 돈암서원도 사계 김장생의 강학 기반이 모태가 되어 건립된 서원이다. 김장생의 강학활동은 아버지인 황강 김계휘가 건립한 정회당(靜會堂)에서 비롯된다. 1557년(명종 12) 옥사에 연루되어 연산에 낙향한 김계휘는 정회당을 건립하고 인근의 명망 있는 집안에서 천거된 실력 있는 자제를 받아 강학하였다. 아들 김장생 또한 이곳에서 함께 공부했다. 김계휘는 1573년(선조 6)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300석과 각종 장서 등을 조달해 주기도 하였고, 16세기 말의 정회당 유생명단을 보면 김장생 등 105인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회당의 강학 전통은 임진·정유왜란으로

3)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 국민대한국학연구소, 2006.



중단되었다가 김장생에 의하여 다시 이어졌다.

김장생은 55세가 되던 1602년(선조 35) 연산의 옛 아한정 자리에 ‘양성(養性)’이라는 편액을 걸고 강학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30여 년을 양성당에서 머무르며 학문연구와 후학을 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양성당에서는 수많은 문인들을 배출되어 호서예학의 산실이자 돈암서원 창건의 인적 배경이 되었다.

## · 서원의 건립과 주체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세력들은 지역의 사회조직으로 지역단위 향촌사회의 변천이나 구조, 서원과의 연관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립과정에는 제향인물과 관련된 지역의 사족 세력의 연대와 지방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서원이 지닌 공공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이 네트워크는 제향인물, 혹은 지역과 관련된 학연·지연·혈연 등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4)

서원의 건립주체세력은 대부분 향내의 유림 혹은 도유(道儒)로 나타나고 있지만 내용상 이들은 재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향중공론으로 창건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동세력이 학통, 성씨, 당색, 혹은 이들 세력의 연대에 의한 것 등등 매우 다양하다. 이 주체세력이 누구이며, 건립당시 그들의 지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의 문제는 바로 당시대 그 지방사회구조상 그들 주체세력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정하는 기준점이 되어 준다. 지방사회의 변천이나 그 구조와 서원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조선후기의 향촌사회사 연구에서 서원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서원의 역사적 의미도 바로 이런 데서 부각될 수 있다.

그 모습을 돈암서원의 창건과 사회활동으로 간략히 살펴 정리해 보자. 돈암서원은 1631년(인조 9) 김장생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건립을 추진하여 1634년(인조 12)에 건립된 서원이다. 1632년(인조 10) 김집을 필두로 김장생의 문인들은 충청도 20개 군현의 유림들과 함께 창건을 발의하였다. 당시 실무를 맡은 유사에는 현직관료 6인, 전직관료 9인, 유학 4인, 생원 4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직관료 중에는 천안 군수, 니산 현감이 포함되고 전직관료로는 전군수 윤전, 김정망, 임위,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등이 참가하고 있었다.

한편 열읍 유사는 해당 지역의 지방관 및 향교·서원·사람들에게 통문을 돌려 재력을 모았던 인물들로서 20개 지역, 총 56인인데 열읍 유사의 지역 분포를 보면

공주목(20명) : 공주(4) 니산(3) 연기(3) 전의(2) 회덕(7) 진잠(1)

청주목(26명) : 천안(3) 문의(3) 직산(2) 회인(1) 목천(3) 청산(3) 황간(2)

4) 이수환, 「한국서원의 인적구성과 경제적 기반」,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이해준, 「한국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지역네트워크」,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보은(3) 영동(2) 옥천(4)  
 홍주목(10명) : 온양(3) 신창(2) 아산(3) 평택(2)

등으로 나타나 공주목.청주목.홍주목으로 폭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들의 존재가 바로 김장생의 학맥이나, 호서사림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두 호서지역의 서인 노-소론계 활동의 뿌리들로 모두 사계와 신독재 문하에서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집중도와 연계 속에서 돈암서원은 호서지역 산림과 예학의 산실이자 본거지로서 17세기 전 기간 동안 충청도 서인계의 수원(首院)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1635년 돈암서원 첫 봉안례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모에서도 대동소이하다.

<표> 1635년 돈암서원 봉안례 참석자 거주지별 분포

공주목	니 산	17	공주목	홍 산	1	전주목	진 산	1
	공 주	20	홍주목	정 산	1		익 산	10
	연 산	31		청 양	2		용 안	1
	은 진	16	청주목	옥 천	4		진 안	1
	회 덕	12		영 동	2		전 주	10
	진 잠	2		진 천	2		여 산	6
	부 여	5		보 은	1	고 산	6	
	임 천	1		황 간	1	기 타	서 울	1
	석 성	1	전주목	금 산	1		미 상	5
총 계							164	

돈암서원은 호서 서인계 학맥의 거점으로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인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윤원거, 윤문거, 윤선거 등이 모여 강학과 유희를 열었던 곳이기도 하였고, 17세기 조선 예학의 새로운 전통을 수립한 ‘호서예학’의 마련 주역들이었다.<sup>5)</sup>

#### 4. 서원의 학맥, 지역네트워크

조선시대 서원 본연의 기능은 교육과 교화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서원은 단순히 이러한 기능만 수행했던 것은 아니다. 공론정치를 표방하고 있던 사람들은 16세기 이래 서원을 구심처로 정치·사회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지역 내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5)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제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나아가 정치적으로 향촌유림의 의견을 표출할 때, 그 중심지가 바로 서원이었던 것이다.<sup>6)</sup>

## · 공론과 학맥

서원들은 지역별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학술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 혹은 향촌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통문이라는 의사 소통의 방식을 통해 향촌유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론의 형성과 사회사적 역할이 바로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된 특성이기도 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의 서원들은 정부에 상소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소회하는 것이 불가하였기 때문이다.

서원은 또한 사림의 공론을 형성하고, 사족들의 연명상소를 발의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취회소로서의 역할이 매우 컸다. 즉 향촌사족 간 결속의 매개체로 지연과 학맥, 때로는 정파의 연대와 교류도 서원을 거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영남지방에서는 퇴계의 학통을 이어받은 정구(鄭逋)·정경세(鄭經世)·장현광(張顯光)·장흥효(張興孝)·이현일(李玄逸)·조덕린(趙德隣) 등이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중심으로 도남(道南, 상주)·임고(臨臯, 영천)·옥산(玉山, 안강) 서원 등에서 퇴계가 주장한 주리 중심의 성리설을 강론하거나 퇴계의 예설을 기초로 하여 예학 연구를 심화시켰다.

마찬가지로 호서지역에서는 김장생(金長生),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윤선거(尹宣舉), 유계(兪槩), 윤증(尹拯), 권상하(權尙夏), 박세채(朴世采) 등의 유학자들이 울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성리설에 입각하여 주자학을 이해하고 경전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특히 충청도 연산의 돈암서원은 조선 예학의 태두인 김장생을 제향하는 곳인 만큼 그 문인들에 의한 예학의 연구와 강학이 활발하여서 조선예학의 메카가 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17세기에 서원은 유생 스스로의 분발과 자기 수련인 장수를 기초로 한 위에서 저명한 유학자나 그 문인들에 의한 강학활동이 활발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학파의 확산을 위해 제향기능 역시 강화되는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어서, 장수·강학·제향 기능의 본격적인 가동을 통한 사림 양성기구인 학교의 성격을 확립하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서원은 더 이상 학교로서의 존재에만 머물지 않았다. 사림의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서원은 사림이 정치·사회적 활동을 벌이는 향촌에서의 거점 내지 기반이 된다. 그리하여 정치·사회적 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각 학파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원은 의리명분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 향촌별 사림

6)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수렴하며, 나아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봉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율곡과 우계를 문묘의 제향인물에 포함시키려는 서인측의 움직임과 효종임금의 승하에 따른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서인·남인 사이의 논쟁인 예송에서 자기당의 주장을 지지하는 유생들의 상소가 서원을 근거로 하여 빚발쳤던 것은 그 좋은 예였다. 서원은 이제 본래의 강학·장수·존현의 기능 이외에 사림의 정치활동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도 지역의 경우는 돈암서원이 기호학맥과 연계된 상징적인 곳이었다. 그리하여 기호지역의 학파 활동이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서원은 교육과 제향, 다양한 사회교화활동 외에도 정치적 사회현안에 대하여 당시 최고의 지역지성인인 선비들이 공론을 형성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은 때로는 통문을 통하여 공론 형성과 수렴하는데 서원은 공론 수합처, 여론 형성 주체로서의 서원은 커다란 기능하였다. 사림의 집단 활동은 서원의 네트워크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통문이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였다<sup>7)</sup>. 또 통문을 통해 수렴, 형성된 사람 공론을 국가와 사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서원이 담당하였다. 연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때로는 의병의 격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서원은 지방의 사론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sup>8)</sup>

서원은 교육과 제향, 다양한 사회교화활동 외에도 정치적 사회현안에 대하여 당시 최고의 지역지성인인 선비들이 공론을 형성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은 때로는 연명상소로, 때로는 격렬한 학문토론으로, 때로는 의병의 격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어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 · 옥산서원과 영남유림소

옥산서원 설립 후 이언적의 문묘 배향이 논의될 때 경주사림들은 서원을 중심으로 성균관과 도내의 유림들이 적극 나섰고,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안동·상주권 유림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조 말 광해군 초기에 정인홍을 비롯한 대북세력이 회재와 퇴계를 무휼하고 있을 때 ‘회퇴(晦退)’를 적극 변호하여 남명학파와는 대립하였다. 이때 옥산서원은 유림들의 근거지로 유생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옥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경주유림들은 이후에도 우계, 율곡, 그리고 우암의 승무(陞廡)를 반대하는 영남남인들의 유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런가하면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구하는 상소와 영남만인소, 대원군의 서원철폐 반대, 1884년(고종 21)에는 복제개혁에 반대한 만인소 등에 적극 참여, 또는 주관 역할을 하였다.

7) 박현순, 「공론 주도세력으로서의 사림과 통문 네트워크」,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항아리, 2013.

8)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의 사상과 문화』, 2003.

뿐만 아니라 서원은 의리 명분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 이를 공론화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토론이나 논쟁에 대해 향촌별 사람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수렴하며, 나아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봉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율곡·우계의 문묘종사 찬반논쟁이 그 하나의 예가 된다. 문묘종사란 정통성을 부여받은 유학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이어서 당사자는 물론 그 문인, 학파의 도학적 정통과 정치적 위상까지 크게 강화해 준다. 그동안 남인은 문묘에 종사된 퇴계를 앞세워 서인에 대한 학통상의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이 유생을 앞세워 그 학적 연원인 율곡·우계의 문묘종사를 서둘러, 남인과 특히 영남유생들이 이에 결사적으로 반대한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 필암서원의 노론계 인맥과 활동

필암서원은 제향인물인 하서 김인후에 대한 추송활동과 서원의 인적 교류와 연대가 주목되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는 1차적으로 전라도 및 장성지역의 하서 문인과 후손에 의한 노력이 전제가 되지만, 여기에 중앙 서인노론계의 적극적 지원과 정조의 관심이 부각되는 형태였다.

우선 서인계는 박세채의 1672년 행장찬술, 1675년 김수항의 묘표찬술, 1682년 송시열의 신도비명 찬술 등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을 한다. 이를 통하여 서인 노론계 인사들은 하서와 하서의 문인, 후손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사족세력을 그들의 강고한 지지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하서의 현양과 추송활동을 통하여 보여준 장성지방 노론계의 활동과 강한 결집력은 1725년(영조 원년)에 있었던 전라도 유생 1200여명이 올린 상소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상소는 당시 전주·남원·라주·장성·담양 등지의 노론계 사람들이 송시열(宋時烈)과 그의 적전인 권상하(權尙夏)를 현양시키고자 한 것으로 송시열과 권상하에 대한 무고의 탄핵과 치죄 요청, 그리고 송시열을 배향한 정읍 고암서원(考巖書院)을 복액을 청한 것이었다. 당시의 소두인 김택현(金宅賢)은 김인후(金麟厚)의 5대손이자 송시열의 학맥을 이었던 장성지역의 노론계 중심인물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서의 문묘배향 논의에서 더욱 본격화된다. 1771년 전라도 유생 양학연(梁學淵) 등이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곧바로 승무가 허락되지 않지만, 정조가 사제문을 지어 학덕을 포장하고, 예관 치제하는 특전을 내리자 이에 고무된 8도 유생 박영원(朴盈源) 등과 정헌(鄭櫛) 등이 연이어 하서(河西)의 문묘(文廟)종향을 건의하고, 계속된 6-7차의 상소[1786년 8도유생 박영원 등 문묘배향 건의(불운), 1789년 8도유생 심익현 등 문묘배향 건의(불운), 1790년 8도유생 이악겸 등 문묘배향 건의(불운), 1796년 김무순, 이명채 등의 문묘배향 상소]를 통하여 마침내 1796년 문묘 배향이 결정되고 영의정 증직과 부조묘,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하서집』 간행까지 지원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필암서원의 상소와

통문, 중앙세력과과의 연대 등은 전라도 수원으로서 필암서원의 기능과 위상을 한껏 강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호남지방의 이 계열 인사들의 학문적인 종주으로써, 위치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필암서원은 그러한 세력의 정치적 거점으로써 장성지역은 물론 호남사림의 중심처이기도 하였다.

#### · 무성서원 강학활동과 의병 창의

무성서원은 한국의 여러 서원 중에서도 창건 연혁과 변천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다. 즉 흥학당이라는 서당 강학과 향음주례, 향약의 전통이 합쳐져 오랜 전통을 이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무성서원의 강학례와 향약적 전통은 한국 서원의 특성을 특화할 수 있는 자료로 무성서원 강습례는 기본적으로 향음주례의 예법에 따라 진행된 점과 개최 시기가 전통적인 민속의례인 춘3추9[3월 3일과 9월 9일]에 맞춰져 있는 점 등에서 다른 지역의 강회와 다른 독특한 면을 갖고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경서 강독을 위주로 한 강학 활동에 더하여 고례 습례라는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습례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에서 존치된 무성서원이 전라우도의 수원으로서 ‘강학명도(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1873년부터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특히 무성서원은 한말의 창의지로도 유명한데, 강습례의 시행과 명성이 바로 1906년 병오창의의 거점이 되게 한 요인이었다. 병오창의, 무성창의로 일컬어지는 모성서원의 창의는 강습례를 계기로 모인 사족들이 일으킨 의병이었다. 이는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밖에도 조선시대 서원은 서책의 보관처, 즉 장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의미도 컸다. 그리고 서원은 향촌사회에서 교육과 제향 뿐 아니라 지역의 도서관이자 지역출판문화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면서 지방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서원에는 강학의 도구로써 각종의 교과용 도서나 사전류, 주요 저술이나 각 시기의 대표적 출판물들이 보급·소장되게 마련이었고, 제향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집류, 자료나 사적들이 보존된 도서관이었다. 책의 보급과 열람이 어려웠던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장서(藏書)의 기능은 지역에 커다란 문화적인 기여를 하였다.

서원은 이러한 지방의 도서관적 역할 뿐만 아니라 서적을 직접 출판하기도 하여 지방 출판문화의 중심지로서 문화 창달과 지식보급에 큰 역할을 하였다. 서원은 사설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사서삼경과 같은 자체에서 필요한 교육용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고, 서원에 제향인물의 문집이나 실기 등의 서적을 판각, 출판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는 이러한 유교문화의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남아 전한다. 서원은

강학 의례와 관련된 자료, 당시의 학적부라든가, 학칙, 재정, 인적구조, 교육과정 등을 전해주는 다양한 고문서 자료들이 남겨져 있다. 이들은 각 시대, 각 지역의 서원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들 기록유산 등 유·무형의 서원문화유산들은 한국의 서원이 지닌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5. 맺 음 말

조선시대의 유교문화가 확산·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조선 중·후기 사족활동의 거점은 서원이었다.

한국의 서원은 지역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교류했던 지성들의 집회소이자 상징적인 기구였다. 따라서 서원은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곳이었으며, 교육만이 아닌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여론과 공론을 결집하는 지성들의 집회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원에서 배출한 인물들은 지역 지성들의 선후배 간의 유대와 결속력을 보여주며, 이 토대 위에서 지연·학연을 배경으로 하는 정치세력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가하면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선현들에 대한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향과 교육기능과 함께 서원이 지닌 특징은 바로 지성문화의 거점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학맥과 관련되는 지역네트워크, 때로는 정치적 활동까지 하였던 열린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었다는 점이다. 서원은 학연과 지연에 바탕한 도학자, 스승을 제향하고 그를 멘토로 삼아 선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유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소통하던 곳이었다.

그리고 조선의 서원에는 이러한 모습을 전해주는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이 남아 전하고 있다. 강회, 학문토론과 문답 자료라든가, 공론을 일으켜 논란을 벌이거나 전달하는 통문, 국가에 의견을 전달하는 상소활동도 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시도기나 심원록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인적 교류와 실상이 유추되기도 하고, 또는 창건과 운영에 관련된 지원세력들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아 전한다. 그런가하면 제향인물의 문집을 간행한다든가, 문학적인 교류의 모습을 통하여 서원이 도든 문화의 거점으로 존속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의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것도 서원이었다. 서원에서는 제향인물의 문집이나 실기의 판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회사적 명망과 결속의 정도에 따라서는 향약이나 시회 등 각종 계획 자료들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유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다시 말하면 서원문화는 종합문화이자 그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핵심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서원 문화의 대상·범위·유형도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

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활용하는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상해, 『서원』, 열화당, 2002.  
경기대 소성학술연구원,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국학자료원, 2002.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 경인문화사, 2008.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2014.
- 정만조, 「조선조 서원의 정치·사회적 역할」, 『한국사학』 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이해준, 「조선후기 서원연구와 향촌사회사」, 『한국사론』 21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29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6.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속의 서원』,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2009.
-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이수환, 「영남지역 퇴계문인의 서원건립과 교육활동」, 『국학연구』 18집, 2011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2.
- 박현순, 「공론 주도세력으로서의 사림과 통문 네트워크」,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 향아리, 2013  
최연숙, 「19세기 도산서원의 사회인식과 소통 방식」, 『조선서원을 움직인 사람들』, 글 향아리, 2013  
이해준, 「한국 서원의 지역네트워크와 사회사적 활동」,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이해준, 「한국의 서원,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백서』,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0.

이해준, 「조선 서원의 지성사적 전통과 문화」, 『서원』, 국립전주박물관,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0.

이해준,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이후의 과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국제학술포럼,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

이연숙(한국고전번역원)

1. 머리말
2.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3. 논산지역 서원건립 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4. 맺음말

## 1. 머리말

현재 논산지역은 조선시대 노성현, 연산현, 은진현과 여산현 일부와 석성현 일부로 이루어졌다. 노성현<sup>1)</sup>은 동쪽과 남쪽으로 연산현, 서쪽으로는 석성현, 북쪽으로는 공주와 경계를 이루고, 연산현은 동쪽으로는 진잠현과 전라도 진산군, 남쪽으로는 고산현과 은진현, 북쪽으로는 공주와 경계를 이루고, 은진현은 동쪽으로는 連山縣과, 남쪽으로는 全羅道 礪山郡과, 서쪽으로는 石城縣과 북쪽으로는 尼山縣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1646년(인조 24)년에 土賊 柳濯 등의 모반으로 인해 한 현으로 합하여 恩山縣이라 하였다가 1656년(효종 7)년에 다시 세 현으로 복귀되었다.

지역 단위 서원연구<sup>2)</sup>는 당색, 학맥과 중앙정국의 변화에 따른 동향을 파악하기 좋은 연구 단위이다. 호서, 호남, 영남지역의 재지사족, 서원, 문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호서지역은 지리적으로 근기와 가까운 관계로 사족들이 경제와 향제를 오가며 지냈기 때문에 거주지 이동이 잦은 편이었고, 중앙정국의 변화에 더 민감하였다. 따라서 호서지역은 친여親與 성향이 강했고, 중앙세력과의 연관도 깊었으며 중앙의 정쟁이나 당파적 경향들이 지역에 전이되거나 첨예화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sup>3)</sup>

논산지역은 충청지역(호서지역)의 서남부에 속한 지역으로 호남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산과 노성은 노소분기의 1세대들인 연산의 광산김씨와 노성의 파평윤씨가 거주하였던 지역이고, 그들이 제향되어 있는 서원인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이 있다. 따라서 논산지역은 조선 후기 정파, 학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축소판으로 중앙정국의 판세가 지역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보여주는 곳이다.

논산지역 서원연구는 개별 서원연구가 주를 이루었고,<sup>4)</sup> 연산과 노성의 대표적인 가문의 서

---

1) 조선시대 노성현은 尼山→尼城→魯城으로 음호가 바뀌었다. 본고에서는 노성으로 통일하였다.  
2)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 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한국서원학회, 「경산지역의 서원 현황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7권, 2018.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보』 8권, 2019.  
3) 이해준, 「호서지역의 사족동향과 서원·사우」,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2000.  
4) 이경동,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한국서원학보』 9권, 2019).  
이연숙,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 『민족문화의 제문제』, 권태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3.

원건립을 노소분쟁이라는 시각에 바라 본 연구<sup>5)</sup>가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은진현, 연산현, 노성현이 합해진 논산지역 재지사족과 서원건립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논산지역에 세거하고 있는 가문을 조사, 분석하여 이들 가문의 존재와 동향이 어떻게 서원건립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서원 제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2.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재지사족의 존재를 파악하는 자료는 향안, 청금록, 사마방목 등이다. 향안과 청금록은 현재 남아 있는 지역이 많지 않고, 『사마방목』 입록자를 통해 각 지역의 재지사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다.

재지사족은 사승관계와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학맥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지역 출신의 사족들은 기존 사족들과 학맥과 혼맥 등의 유대관계를 통해 향안에 등재되면서 같은 재지사족으로 동질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촌사회를 운영해 온 주도세력의 재편도 일정하게 이루어져 나갔다. 재지사족의 임란 의병활동 경력은 17세기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재지사족으로서 향촌 내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였다.<sup>6)</sup>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마방목이 유일하고, 연산현만이 유안이 남아 있다. 따라서 논산지역 서원 제향인물의 가문과 사마방목 입록 가문을 중심으로 재지사족의 존재와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논산지역의 지역별, 세기별 입격자 배출현황

		15C	16C전	16C후	17C전	17C후	18C전	18C후	19C전	19C후	계
노성		1	3	5	16	26	26	30	22	22	150
연산		2	0	2	5	20	18	30	22	32	131
은진		1	3	13	7	6	3	8	13	19	73
은산					3	8					11
계		4	6	20	30	60	47	68	57	73	365

세 현이 恩山으로 합해졌을 당시 사마시 입격자는 1650년에 李重蓋, 慶賓, 鄭德昌이 있고, 1651년에 金槩, 金震聲, 閔籲, 尹溟舉, 1654년에 金重昌, 朴鴻遇, 金守煥, 柳煥이 있다. 이 가운데 이중신, 김집의 외손 정덕창, 김장생의 서자 김비와 유후, 민화는 연산 거주자이고, 윤명거와 박홍우는 노성 거주자이고, 광산김씨 김진성, 김중창, 김수환과 경빈은 은진 거주자이다. 이를 반영하여 각 현의 입격자 배출현황을 <표2>, <표3>, <표4>로 나타내었다.

이해준, 「모곡서원(茅谷書院) 창건의 역사적 의미」, 『암청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유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5.

이해준, 「魯岡書院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권, 한국서원학회, 2011.

5) 이정우, 「17~18세기 재지 노·소분쟁과 서원건립의 성격 - 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6) 김훈식, 「『서평』조선시대 재지사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동표, 『조선시대 영남재지사족 연구』, 태학사, 2015-」, 『지역과 역사』 38, 2016.

# 1) 은진현

<표 2> 은진현 세기별, 가문별 입격자 배출현황

		15C	16C전	16C후	17C전	17C후	18C전	18C후	19C전	19C후	계
은진		1	3	13	8	9	3	8	13	19	77
	광산김씨		2		3	7				1	13
	부여서씨		1	2					1	2	6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진현에서 77명의 입격자를 배출하였는데, 전주이씨 11명, 광산김씨 13명, 부여서씨 6명 등 순으로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문과급제자는 광산김씨 3명(金田漑1553, 金秀南1624, 金以壽1684), 부여서씨 1명(徐益1569), 밀양손씨 1명(孫偶1602) 등이다.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가문은 없지만 광산김씨가 연산에 거주하는 광산김씨와 더불어 이 지역의 주도성씨였고, 부여서씨는 이른 시기에 입향한 주도성씨임을 알 수 있다. 은진에서 가장 먼저 사마시에 입격한 사람은 1483년에 입격한 姜應貞이다.

은진에 세거하는 진주강씨는 공목공파(소감공파)인데, 고려시대부터 명망있는 집안으로 啓庸과 引文은 유업으로 현달하였다. 응정의 증조부 姜耆(1339~1400)는 공민왕 때의 문신으로 조선이 건국될 때 직첩을 회수당하고 유배되었다. 그는 회백, 회중, 회순, 淮叔, 淮季<sup>7)</sup> 등 5형제를 두었고 자손이 번성하여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내어 공목공파를 이루었다. 강희순의 아들 姜穀은 1429년 문과에 급제하여 예산현감을 지내다가 은진에 퇴거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강응정은 부모가 병이 났을 때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밤이 새도록 보살폈고, 부모가 죽자 5년 동안이나 廬墓살이하며 술·과실·소금·채소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효행은 1470년 충청도 관찰사가 올린 장계로 조정에 알려져 정문이 내려졌다.<sup>8)</sup> 늦은 나이에 1483년 생원시에 입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어 金用石, 申從濩, 朴演, 孫孝祖, 鄭敬祖, 權柱 등과 함께 향약을 만들고, 『소학』을 강론하여 이들을 ‘小學契’ 또는 孝子契’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李深源과 南孝溫 등과도 교유하였다. 이로써 강응정은 훈구파 가문에서 태어나 신종호, 손효조, 박연, 남효온과 교유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사림의 성향으로 변화시킨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동생 姜應亨은 146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姜啓庸(박사공파) - 引文 - 師瞻 - 昌貴 - 君寶 - 姜耆(공목공파)

姜耆 - 淮伯(통정공파) - 碩德 - 希孟, 希顔

- 淮仲(통계공파)

- 淮順 - 穀 - 應貞 - 寅麟 - 琨 - 齡 - 復中 - 宗孝 - 弼周 - 系 世義.. 彝錫 - 來鎬, 來徵  
- 弼文 - 世義 出

- 弼武

- 弼靖

- 弼昭

- 漑

- 灝麟

- 澣麟

7) 강희계는 공양왕의 부마가 되어 공양왕 폐위로 참수되었다.

8) 『조선왕조실록』 성종 1년 2월 7일.

- 淮叔
- 淮季

강응정의 현손 姜復中(1563~1639)은 성리학에 침잠하거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생활하는 삶을 살지 않고 향촌사대부로서의 삶을 살며 65수의 시조 작품과 2편의 가사 작품을 남겼다.<sup>9)</sup> 또한 그의 묘지명 첫 문장에 표현된 ‘至孝’는 그의 삶과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의 작품을 통해 보면 그는 삶 내내 家禍에 시달렸다. 즉 1574년에 고조부 강응정 묘소가 산송에 휘말렸고, 아버지 이복동생 漑의 무고로 부친이 옥에 갇혔다. 이러한 연이은 소송과 家禍로 1591년에 은진을 떠나 尼山縣으로 이주해 살다가 1602년에 다시 은진으로 돌아왔다. 이산에 살던 시기에 고을 사람들이 연명하여 그의 효행을 조정에 알려 천거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 살면서 이소한, 이명한, 이정구, 이귀, 김장생, 김집 등과 교유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아들 종효가 김장생의 문인이 되었다. 또한 부여서씨 집안과의 인연은 강복중의 어머니가 부여서씨 櫟의 딸이고, 서익의 도움으로 부친의 옥사를 해결하였다. 뒤에 부여서씨 가문이 계축옥사로 일문이 화를 입어 서용갑과 서호갑이 연루되어 유배가자 물품을 보내고, 시를 주고받으며 위로하였으며, 서용갑이 유배지에서 죽자 천리길을 가서 널을 실어와 그의 선산에 장례지내 주었다. 또 호갑의 두 딸이 유배지인 강계에 있었는데 서울에 가서 명문가에 혼례식을 올려 주었다.<sup>10)</sup> 이러한 두 집안의 世誼는 훗날 강응정의 독향사우인 갈산사에 서익을 배향하는 일로 이어진다.

진주강씨 문중은 19세기에 1864년 강응정 정려를 중수하고,<sup>11)</sup> 강응정의 사적이 유실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문적에 기술되어 있는 강응정 관련 글을 수집하였다. 이 일은 13세손 來鎬<sup>12)</sup>가 주도하였는데, 박성양에게 강응정의 묘갈명을 받아 유사와 기문을 모아 『중화재실기』를 1885년 葛山丙舍에서 간행하였다. 『중화재실기』에 현손 姜復中(1563~1639)의 『淸溪遺事』와 5세손 姜宗孝(1603~1660)의 『東隱遺藁』을 부편하였다.<sup>13)</sup>

은진현에 세거한 부여서씨는 奉禮公派이고 입향조는 徐貞壽이다. 서정수는 세조조에 예산현감 재임 중에 임금행차를 따라 온양에 왔었는데 당시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아픈 장인 閔孝悅을 위해 술을 올린 죄로 은진에 유배되었다. 유배 중에 부친 奉禮公 悅이 돌아가자 1468년에 은진현 江村里에 밭자리를 정하였고,<sup>14)</sup> 이듬해 1469년에 해배되면서<sup>15)</sup> 은진 육곡리 일대에 정착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은진의 토착성씨였던 남양홍씨나 장수황씨, 진주강씨 등과 인척으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였다. 은진에 세거한 부여서씨의 분파도는 다음과 같다.

存 - 淸習 - 椿 - 詹 - 好德 - 益明 - 俊豪 - 希積(사마방목: 한성)

9) 육민수, 「강복중 시가문학의 담론 양상」, 『국제어문』 제74집, 2017 / 박영주, 「가사작가 인물전 - 향촌 사족의 집념을 진술한 청계 강복중」,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2019.

10) 湖西儒生金在龍等請葛山祠追享疏 庚申

11) 정려기는 강내호의 부탁으로 송병선이 지음.

12) 강내호는 서원이 휘철된 후에 <葛山書院前後異兆>와 <書葛山尋院錄後>를 1868년에 지었고, 1868년에 <敬題葛山書院講堂>, <<撤院後登遺墟發嘆> 등 시를 지어 서원 휘철에 안타까운 감회를 나타내었다.

13) 강호중의 묘지명은 서용갑, 서호갑과 도의지교를 맺었던 인연으로 그 후손 徐榮澤에게 받고, 강종효의 묘지명은 스승인 김장생의 후손 金志洙에게 받았다.

14) 봉례공 묘지, 예산공묘지(『부여서씨세보』)

15) 『예종실록』 1년 4월 10일 기사.

(시조) - 俊英 일파 연산 거주  
 - 樸 - 孝理 - 贊 - 希八 - 進 - 悅 - 貞壽 - 熙 - 季孫 - 寬  
 (입향조)  
 寬 - 震南 - 益 - 龍甲 - 雲駿 - 後聖 無后 (龍甲 : 蘇湖公派)  
 - 後遠 - 敬一(系) 은진거주  
 - 行遠 - 敬始 함열거주  
 - 敬一(出)  
 - 尙遠 은진거주  
 - 得遠 고부거주  
 - 雲驥 - 必遠 - 敬祖 은진, 양주, 전주 거주 (必遠 : 貞毅公派)  
 - 虎甲 參議公派 은진, 익산, 홍산 거주  
 - 庶 寅甲 通政公派 석성, 은진거주  
 - 庶 羊甲 石仙公派 은진, 회덕거주  
 - 庶 永甲 萬竹派  
 - 庶 玉甲 學生公派 석성거주  
 - 盛 - 愛孫 용안, 여산, 은진 거주 (盛 : 校尉公派)  
 - 俊孫 - 樺 - 景福 은진 거주  
 - 種 상주거주  
 - 信孫 - 秩 진산거주

입향조의 증손 徐寬이 1531년에 진사시에 입격하여 은진 정착 이후 첫 입격자를 배출하였다. 이후 경복이 1561년 생원시에 입격하였다. 경복은 당시 사마시 입격자인 金田漑, 金燮, 崔應參 등과 함께 미암 유희춘과 교유하였다.<sup>16)</sup> 입향 후 지역에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것은 입향조의 5세손 徐益(1542~1587)대이다. 서익은 호가 萬竹 또는 萬竹軒이며 1569년(선조 2) 別試文科에 급제하였다. 서익의 외조부는 李若海로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유관을 섬겼다는 죄목으로 羅淑·羅湜·鄭源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였다.<sup>17)</sup> 서익은 문장과 도덕 그리고 氣節이 뛰어나 李珥·鄭澈로부터 志友로 인정받았으며 의주목사로 있을 때에는 鄭汝立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이이와 정철을 변호하는 소를 올렸다가 파직되기도 하였다.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은진현에 聚奎齋라는 서재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처럼 서익은 부친 서관의 재지적 기반, 외조부 이약해의 사림으로서의 입지와 자신의 능력과 활동으로 은진현은 물론 중앙정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자손들은 현달하여 은진현의 중심사족으로 성장하였다. 서익의 장남 서용갑은 어려서부터 조현을 종유하였으며, 임진왜란에 가솔을 이끌고 강릉으로 피했다가, 난이 평정된 후에는 은진으로 돌아와 蘇湖山에 醉吟亭이라는 독서처를 짓고 ‘蘇湖’로 자호하며 소유했다.<sup>18)</sup>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계로 진출한 부여서씨 가문에 시련이 닥쳤다. 익의 서자 羊甲이 계축년 七庶의 獄에 연루되어 장살되었는데, 이 여파로 서용갑과 서진익이 理山郡으로 유배를 갔다. 그리하여 이 가문은 1623년 신원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을 암흑기로 보냈다.

16) 『미암일기』

17) 이약해는 李中悅의 子로 묘소가 은진에 있다(『乙巳傳聞錄』, 李若海傳)

18) 蘇湖山一名馬山在縣南十里 其上有醉吟亭基址 卽縣人徐龍甲讀書所 東有藥泉(『여지도서』 상, 은진현)

常時篤於奉先。其在謫所。或值忌日。謹於致齋。以身不與祭爲至痛。其訓子弟。主於敦本勉學。少時常從重峰趙先生遊。得聞避兵之所。挈家入江陵。後值壬辰之亂。飽經艱險而得全性命。實異事也。亂定後還于恩鄉。築亭湖上。以爲暮年逍遙。扁以醉吟。自號曰蘇湖。性又坦易。待人接物。不設畦畛。世利紛華。不以經心。御衆莅下。咸得歡心。平生酷好山水。詩酒自娛。與趙竹陰, 鄭畸庵諸公相友善。遞筒唱酬。以公才德。若將有爲。而拘幽荒裔。竟以樞歸。天不假年。未及見更化之清時。士流至今歎惜矣。以孫貴累贈公吏曹參判。公所著述散失殆盡。只有數卷遺稿藏于家(『錦谷集』 권17, 묘표, <贈參判徐公墓表>)

김전개와 같은 해에 金燮(?~?)이 진사시에 입격하였는데, 그의 아들 秀南이 1610년 진사시와 1624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金秀南(1576~1636)의 자는 汝一이고, 호는 萬痴堂으로 김장생 문인이다. 그는 문과 급제 후 감찰 등을 역임하였고, 1630년에 冬至使의 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634년에는 돈암서원 창건할 때 출문유사로 참여하였다. 병자호란 때 廟社를 따라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적군이 침입하자 洪命亨과 같이 金尙容을 따라 南樓에 올라 焚死하였다. 이들 감찰어사공 양수파의 가계도는 다음과 같다.<sup>20)</sup> 이를 보면 전개와 수남이 같은 집안으로 되어 있는데, 수남의 방목에는 본관이 광산으로 되어 있고, 聲振의 『무과방목』에 본관이 은진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는 渭原으로 되어 있다. 이들 가계가 은진으로 분관한 것은 성진 대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연산현 세기별, 가문별 입격자 배출현황

		15C	16C전	16C후	17C전	17C후	18C전	18C후	19C전	19C후	계
연산		2	0	2	7	23	18	30	22	32	136
	광산김씨				2	5	3	11	14	12	47
	안동권씨	1				1	1	1	3	1	8
	파평윤씨					3	1	2	1		7
	나주인씨					1	2	3		1	7

연산 사마시 입격자 가운데 광산김씨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도성씨임을 알 수 있고, 안동권씨 8명, 전주이씨 8명, 파평윤씨와 나주임씨는 각각 7명을 배출하였는데, 파평윤씨와 나주임씨는 17세기 후반부터 배출하고 있다. 문과급제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광산김씨 2명(김희, 김영기), 파평윤씨 2명(윤서교, 윤광승), 안동권씨 2명(권수, 권적 부자)가 있다.

광산김씨는 조선초기에 약재가 연산에 정착하면서 그의 장자 문의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國光, 謙光의 자손들이 연산에 세거하였고, 많은 현달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6세기까지 근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환생활을 하였으므로 이 시기 사마시 입격자들의 거주지가 한성으로 되어 있다. 이후 김장생이 연산으로 낙향하여 본격적으로 강학하면서 연산 거주 입격자가 17세기에 들어서 나오게 되었다. 김장생 직계 가문 외에도 겸광, 克羞, 克愧, 殷輝 자손들이 연산에 세거하여 광산김씨는 연산의 대표적인 사족으로서 회덕의 은진송씨, 니산의 파평윤씨와 함께 호서의 명족으로 지칭되었다.<sup>24)</sup>

金若采 - 問 - 鐵山 - 國光 - 克忸 - 宗胤 - 錫 - 殷輝 - 善生 - 梁 - 益秋  
- 堦尹拊  
- 伯生  
- 鍾  
- 鎬 - 繼輝 - 長生 - 槩  
- 集 - 益炯  
- 益煉 - 萬城  
- 萬堤  
- 榮  
- 榮(庶)  
- 殷輝 出  
- 鍛  
- 謙光 - 克恢 - 錫胤  
- 克耻 - 愛胤  
- 寧胤  
- 克幅 - 明胤 ---> 양주  
- 弘胤  
- 懿胤  
- 克愷 - 憲胤  
- 顯胤  
- 克悌

김장생의 적자 가운데 장자 瓘은 임진왜란 때 요절하였고, 차자 集은 산림으로 자처하며 부

24) 『懷德鄉校誌』〈鄉案序〉 宋時烈 撰。

친의 예학을 계승하고 뒷날 호서사림의 핵심인물로 성장하는 인물들을 제자로 길러내어 호서사림의 영수가 되고 돈암서원에 배향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가계를 서자 益炯으로 대를 잇게 하여 支派가 되었으며 문원공파의 승중은 槃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집의 후손은 名賢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열이 가계를 이었으므로 호서사족 사회에서 門地와 명망이 높지 못하였다. 반면 반은 문과 출신의 정통관료로 성장하였고, 집안의 승중을 계승하여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고 현달하여 대문벌을 형성하였다.

- 槃 - 益烈(南原公派)
- 益熙(文貞公派)
- 益兼(忠正公派)
- 益勳(忠獻公派)
- 益熙(正字公派)
- 益炆(都憲公派)

이 가운데 익렬과 익희 후손만 충청도 일대에 세거하였고, 익겸, 익훈, 익후, 익경 후손들은 사환가로 현달하면서 서울 근교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연산 일대에 남은 재지파와 서울 근교로 옮겨간 京派로 나뉘었지만, 호서지역과 중앙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파는 당쟁기 그들의 정국운영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호서사림 세력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고, 연산 일대의 재지파는 그들의 가문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하게 관직의 경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남원공파와 문정공파는 자신들의 문벌적 기반 때문에 호서지역에서 이러한 관계를 매개로 유지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5)</sup>

이처럼 광산김씨 가운데 가장 현달하였던 가문인 문원공파 내부에서 당시 중앙정국의 주권과 관련하여 경화사족화가 빨리 진행되었기 때문에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 사마시 입격자와 문과 합격자 수에서 연산거주 광산김씨의 비중이 노성의 파평윤씨에 비해 현저히 적다. 반면에 노성의 파평윤씨는 노성, 석성 등지를 기반으로 한 재지적 성격이 강하였다. 파평윤씨는 순거, 문거, 선거 등이 노성으로 돌아와 종계를 설립하고 종학을 세운 후에 擧字 行렬의 아들 세대인 才변 行렬과 손자 세대인 敎字 行렬에서 번성하여 사마시 입격자를 배출하였다.<sup>26)</sup>

연산에서 세거하는 김장생의 문인은 전의이씨, 청주한씨, 문화유씨 등이 있다. 전의이씨는 고려 초 태사공 棹의 후예로 그 후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많은 현달자를 내었다. 이 가문 중 찬성공파와 양호공파가 연산에 세거하였다. 찬성공파의 입향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익하, 필하는 연산현 유안, 청금록, 좌목에 입록되어 있다. 이 집안의 壻로 광산김문의 金萬採, 金自南, 金廷冕이 있다.

양호공파는 惟顏(7세)에 이르러 파주에서 연산으로 이거해 김장생과 이웃에 살면서 자주 강

25) 이영춘, 「호서 사족사회에서의 광산김씨 문벌」, 『중원문화연구』 1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1997.

26)

<표 4> 광산김씨, 노성거주 파평윤씨 입격자 배출현황 비교

	15C	16C전	16C후	17C전	17C후	18C전	18C후	19C전	19C후	계
광산김씨				2	4	3	11	14	12	46
파평윤씨					12	10	17	16	12	67

이는 문과합격자 배출에서는 더 확연히 드러난다. 연산거주 광산김씨 문과합격자는 2명, 연산거주 파평윤씨 합격자는 2명, 노성거주 파평윤씨 문과합격자는 13명이다.



- 恕教 - 東善 - 光顯
- 東美 - 光顏 -
- 光閔
- 拊 - 欽教 -
- 仲舉
- 叔舉
- 季舉(出)

윤원거의 후손 가운데 문과방목과 사마방목 상 거주지를 보면 崑敎와 그 아들 東寬, 東厚, 東春은 한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 부, 일교, 광승, 광유 등은 연산으로, 淳敎의 손자 光暹과 증손 宗基, 恕敎의 손자 光顏, 光閔은 한성에 등재되어 있다.

나주임씨는 會津의 ‘詩店’이라고 불릴 만큼 임복은 강호에 묻혀 살면서 일생을 시인으로 살아갔고, 아들 임서는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고관인데 시인으로 알려졌다. 조카 白湖 林悌(1549~1587) 사형제 모두 시인들이었으며, 백호의 아우 임환은 김천일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면서 시인으로 큰 이름을 얻었다. 한 마을에서 배출한 시인들 때문에 그 마을을 ‘시점’으로 부를만 하다는 것이다.<sup>30)</sup>

- 林鵬 - 益
  - 復 - 悃 - 棟 - 系 宗儒 - 世溫 - 象德 ---> 무안세거
    - 世良
    - 世恭
    - 世儉
  - 壇 - 宗儒 出
    - 宏儒 - 世讓 - 象九 ---> 연산 세거
      - 婿 金天澤
      - 世謙 - 象載
      - 世諱 - 象元 - 濬浩
        - 淵浩
        - 漢浩
    - 衆中 - 淳浩 ---> 연산
      - 沔浩 ---> 연산
      - 源浩
  - 定儒
  - 悋 - 端 - 長儒 - 治
- 晉 - 悌(백호)
  - 愼
  - 恂 - 塚 - 長儒 - 治 - 夔 - 道憲 - 泰遠 ---> 노성 세거
    - 濟遠
    - 迪憲 - 會遠
    - 命遠
    - ? - 述憲 - 晚遠
  - 婿 尹峇敎
- 權
- 恠

연산과 노성에 세거하는 나주임씨는 임봉의 후손이다. 林鵬(1486~1553)은 기묘명현 가운데 한 명인데, 그는 기묘사화 때 태학생 疏首가 되어 정암 조광조를 구출하려 하였고, 문과 급제자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시문에도 뛰어났지만, 한림·옥당을 거쳐 승지와 경주부

30) 鄭夏汀, 『18세기 전반 羅州 林氏 家門 文人의 散文 研究 - 林象鼎, 林象德, 林象元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운 및 광주목사 등의 화려한 벼슬을 지내고 기묘명현이라는 절의를 지킨 인물로 큰 명성을 얻었다.

林棟(1589~1648)은 문과 급제해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무안으로 낙향하여 식영정을 짓고 명사들과 교유하였고 병자호란에는 의병을 일으켜 남한산성에서 임금을 호종했다. 동생 堦의 장남 임종유(1615~1659)를 입후하여 그의 아들 4형제가 가문의 학덕을 이었다. 임세온(1641~1711)과 임세량(1651~1709)은 생원시에 합격했고, 임세공(1653~1703)은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넷째 임세검(1657~1709)은 문과급제해 현감, 사간원사간을 지냈다. 이들 계파는 무안에 세거하였다.

나주임씨는 연산과 노성에 세거하였는데, 『사마방목』에 따르면 연산 거주자는 7명, 노성 거주자는 5명이 등재되어 있다. 즉 임복은 한성, 愼, 堦, 堦은 나주, 연에게 입후한 종유와 그 아들 세온, 세량, 세공, 세검은 무안, 세양, 세검, 세집, 준호는 연산, 연호와 한호는 한성으로 나타난다. 나주임씨와 파평윤씨의 통혼이 눈에 띄는데 윤원거의 맏손자 시교가 林治의 딸과 혼인하였고, 임치의 아들 임기는 尹智敎(尹舜擧의 손자)의 딸과 혼인하였고, 광산김씨와도 통혼하여 임세양의 사위가 김천택이다.

연산에 세거한 계파는 林堦(1596~1652)의 후손이다. 손자 3명이 모두 사마시에 입격하였는데 연산이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다. 담은 문과급제해 대사간, 도승지, 이조판서를 역임하였고, 경상도관찰사로서 ‘서원의 사당화’ 폐습에 대해 상소하였다. 1652년 반송사로 다녀오다 사망해 왕명에 따라 국장으로 예우받았다. 광유는 삼년상을 마치고 여러 교우들과 사업을 다했으나 진출할 뜻이 없었고, 연산 안곡으로 돌아와 노후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sup>31)</sup>

연산에 세거하는 가문들의 향촌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즉 정회당 유생들이 1600년부터 1695년까지 총 8회 올린 儒狀, 돈암서원 봉안시 유생도기(1634, 1658, 1681, 1695년), 연산현 유안(1654), 청금록(1656), 향교좌목에 등에 등재된 인물들을 분석한 결과 광산김씨, 文化柳氏, 全義李氏, 驪興閔氏, 全州李氏, 淸州韓氏 등이 있다.<sup>32)</sup> 이들 가문의 입향시기와 동기는 잘 알 수 없으나, 연산에 세거하면서 광산김문의 서재, 돈암서원, 향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노강서원 봉안에도 참여하였다.

따라서 사마시 입격자 수를 두고 볼 때는 광산김씨, 파평윤씨, 나주임씨가 주도적인 성씨이지만 향촌활동의 참여도로 볼 때 연산의 대표적인 사족은 광산김씨, 안동권씨, 가평이씨, 전주이씨, 전의이씨, 문화유씨, 청주한씨 등이다.

### 3) 노성현

노성현 사마시 입격자 배출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노성현 세기별, 가문별 입격자 배출현황

		15C	16C전	16C후	17C전	17C후	18C전	18C후	19C전	19C후	계
노성		1	3	5	16	28	26	30	22	22	152
	파평					13	10	17	16	12	68

31) 『歸鹿集』 권14, 墓碣銘, 「察訪林公碣銘」

『滄溪集』 권 1, 詩, 「次韻奉呈安谷族叔 宏儒」

32) 김장생 문인 중 연산 거주자는 김정망, 이항길, 이희영 류지하, 류성하, 김자빈, 최필, 김사립, 이공회, 류정민, 이후, 김원립, 홍사도, 도호민, 오삼성, 이봉주 등이다.

	윤씨										
	남양홍씨	1	1		4		4			1	11
	무안박씨				1	4	3			1	9
	나주임씨						1	4			5

노성현 재지사족 가운데 조선전기부터 사마시 입격자를 낸 가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성관은 남양홍씨이다. 남양홍씨<sup>33)</sup>는 15세기부터 입격자를 배출하고 있어 노성현 입향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472년에 입격하 洪珣는 洪燕山인데 사헌부 감찰을 지냈으며 姜淮伯의 아들 姜碩德이 字說을 지어준 바 있다. 1566년 노성에 건립한 보인당 기문을 이이에게 가서 받아 온 洪允軾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이들 가문은 노강서원 관련 시도기, 청금록에 많은 인물이 등재되어 있고, 1723년 귀산서원 청액소를 올린 소두가 진사 洪南斗, 참여한 유생 진사 홍하석, 홍하채 모두 남양홍씨로 17세기 전반에 진사시에 입격한 인물들이다.

그 다음으로 무안박씨를 들 수 있다. 무안박씨 노성 입향조 朴增은 성삼문의 외손이다. 박증 아버지 박임경은 연안김씨와 혼인하여 아들 坪을 낳고, 첫 부인과 사별하고 성삼문의 딸과 결혼하여 아들 增, 壕, 埤를 두었다. 성삼문의 피화 이후 향리에서 살다가 1485년에 죽고, 부인 창녕성씨도 1489년에 죽었다. 坪(1458~1528)은 고창현감을 지내고, 增(1461~1517)은 현 논산시 상월면 학당리에 은거하여 노성파의 파조가 되었다. 壕(1466~1536)는 정간공파의 파조가 되고, 埤는 함열현감을 지냈으며 함열공파의 파조가 된다.

朴臨卿 - 坪  
 - 增 - 大成 - 尹 - 宗憲  
     - 宗元 - 訓  
       - 謙 - 尙魯 - 尙文 - 壽泰[生]  
         - 壽衡  
         - 壽華  
         - 壽岡[生]  
         - 壽台[生] - 공주거주  
 - 尙義 - 壽斗  
     - 壽山[生]  
     - 壽玄  
     - 壽聃  
     - 壽大  
     - 壽咸  
 - 尙信  
 - 尙周  
 - 尙彬 - 壽仁[生]  
     - 壽民  
     - 壽麟  
     - 壽齊  
     - 壽春  
  
 - 大鵬  
 - 大德 出  
 - 大倫 無後  
 - 壕 - 大德  
 - 埤  
 朴應祿 - 誠誠[進]

33) 남양홍씨의 입향시기와 가계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하여 보완할 계획임.

증은 어머니 창녕성씨의 3년 시묘를 마친 1492년 노성의 암천으로 들어와 은거하였다. 박증이 연고없는 노성 암천에 은거한 것은 외조부 성삼문의 별장이 있는 연산 한양촌(부적면 충곡리), 성삼문의 일지촌이 있는 은진(가야곡면 양촌리), 사육신을 모신 계룡사 숙모전, 생육신 김시습이 말년에 머물렀던 부여 무량사와 가까운 위치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sup>34)</sup> 증은 아들 大成, 大鵬, 大德, 大倫을 두었는데, 大成(1497~1545)과 대봉은 노성에 세거하면서 자손이 번성하였고, 大德(1503~1553)은 숙부 호에게 출계하여 정간공파가 되었고, 大倫은 후사가 없었다. 증은 1517년에 성삼문에 대한 외손봉사와 사환에 대한 유훈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 유허지에 1560년대에 니산현감 유몽렬이 寺院을 수리하여 보인당을 건립하였다. 무안박씨 가운데 보인당에 출입한 이는 宗憲(1562~1582)과 宗元(1570~1633)으로 김장생의 문인이다. 宗元은 정묘호란 때 군량을 운송하는 일을 도왔으며, 號召使 沙溪 김장생이 여러 대신들과 더불어 표창할 것을 아뢰어 군수에 임명되었다. 종원의 아들 訓(1599~1650)과 謙(1611~1639)은 보인당에 출입하면서 윤순거, 윤선거, 송준길, 송시열 등과 교류하였다. 특히 겸은 은진송씨 宋希遠의 녀와 혼인하여 宋奎濂의 고모부가 되어 송규림이 묘지명을 짓게 되었다.

노성현의 대표적인 재지사족은 파평윤씨이다. 파평윤씨의 노성입향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파평윤씨의 노성 입향은 윤돈(1519~1577)으로부터 비롯된다. 尹嗽은 尹先智(1501~1568)의 둘째 아들로, 형과 아우는 경기도 파주에서 살았는데, 자신은 처가가 있는 니산현 득운면 당후촌으로 내려와 살았다. 윤돈은 장인 柳淵으로부터 전답 174마지기와 노비 17구를 상속받아 삶의 터전이 되었다. 윤돈의 아들 昌世는 慶渾(1498~1568)의 딸과 혼인하여 처가의 기반이 있는 현재의 노성면 병사리비봉산 자락으로 터전을 옮겼다.

윤창세(1543~1593)는 1574년에 병사에 孝廉齋와 誠敬齋를 건립하였고, 성남과 노성 양쪽을 왕래하며 아들과 손자들의 교육에 힘썼다. 윤창세는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아들과 손자들은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주로 성남 집에서 거주하여 학문에 힘써 5형제 중 燧(1562~1617), 煌(1571~1639)고 烱(1575~1636)이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었다. 황의 둘째 아들 舜舉(1596~1668)는 할머니 청주경씨의 지목으로 종가의 사손이 되어 할머니의 유지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였다. 파평윤씨 중심 인물들이 본격적으 노성에 거주한 것은 병자호란으로 국가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후에 은거하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 순거를 비롯한 여러 형제, 종형제들은 노성에 모여 살면서 종약, 종학을 마련하는 등 문중의 결속과 자제들의 교육에 치중하였다.

노성에 정착한 파평윤문은 자손이 번성하여 舉字 향렬에서 21명(季舉는 장단종중으로 출계), 才변 향렬은 51명, 敎字 향렬은 106명, 東字 향렬은 173명, 光字 향렬은 307명으로 번성하였고, 거주지도 노성현 장구동면 유봉, 가시라, 장구리, 죽림리를 비로하여 공주, 연산, 진잠, 석성 등지로 거주지를 확대하여 갔다. 그리하여 파평윤씨의 노성 입향조인 윤돈 이하의 자손을 칭할 때에는 ‘魯宗派’라고 하고, 창세의 아들 5형제 자손을 일컬을 때는 ‘五房派’라고 한다.<sup>35)</sup>

倬 - 先智 - 嗽 - 昌世 - 燧(설봉공파) - 系 舜舉 - 哲

34) 김경수, 「무안박문과 호서사림의 교류」, 『암천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 유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5.

35) 이연숙,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52집, 호서사학회, 2009.

- 摺
- (庶) 摺, 指, 措, 摺
- 庶 後舉
- 煌(문정공파) - 勛舉 - 攄, 摠
- 舜舉 出
- 商舉 - 播, 摠
- 文舉 - 搏, 掄
- 成舉
- 宣舉 - 拯, 推
- (서) 民舉, 耕舉, 時舉
- 烱(충헌공파)
- 燾(서운공파) - 雲舉
- 鴻舉
- 溟舉
- 海舉
- 鳳舉 出
- 燾(전부공파) - 系 鳳舉

또한 파평윤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가문으로 반남박씨가 있는데, 문강공 朴紹의 후손 가운데 상월 牛谷에 세거한 가문이 있다. 박응천의 다섯째 아들 朴東民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노모를 모시고 노성 명학동으로 피난왔다가 이듬해 병으로 졸하였다. 그리하여 동민의 후손들이 노성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 朴紹 - 應川 - 東賢
- (文康公) - 東豪
- 東老
- 東俊
- 東民 - 輝 - 世耆 - 泰興 - 弼商 - 師德
- 弼康 - 師修
- 世耆
- 東善 - 烜 - 世圭 - 泰素 - 弼思
- 婿:尹行教, 洪友行
- 世堅 - 泰尙 - 弼純, 弼健
- 泰素 出
- 世堽
- 世堂 - 泰維
- 泰輔
- 泰翰
- 婿: 李永輝 - 澤, 濟, 浚
- 婿:洪受績
- 應順 - 東彦
- 應男
- 應福 - 東尹
- 東說
- 東望
- 東亮 - 瀾 - 世來
- 世采
- 漪
- 서:李明漢
- 洪處深 - 洪受晉, 洪受泰, 洪受濟, 洪受漸
- 柳誠吾 - 柳尙運, 柳尙載
- 應寅



우곡에 거주하는 반남박씨는 파평윤씨, 남양홍씨와 통혼하였고, 노소분기 이후에는 소론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이들 가문은 노강서원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sup>36)</sup> 박동선의 손자 박세견은 경유사로 참여하였고, 세기와 세구<sup>37)</sup>는 노강서원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동선의 孫壻 李永輝는 노강서원 건립 당시 석성현감에 재임하면서 물질적 부조를 3회에 걸쳐 보내 온 인물이고, 박동량의 남양홍씨 외손들은 노강서원 봉안시도기, 청금록에 등재되어 있고, 노강서원과 구산서원 관련 상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반남박씨는 봉안 시도기에 4명이 들어 있다. 이 가문은 일찌기 현달한 경화사족으로 사마, 문과에 대거 급제하였지만 거의 한성, 양주를 근거지로 두고 있다. 니산 거주로 사마방목에 등재한 인물은 박사덕, 박기양 뿐이다.

청주양씨가 노성 상월 주곡리에 정착한 것은 9세 春健(1448~1509)부터로 서원백파가 세거하고 있다. 『사마방목』에 등재된 니산 거주의 인물은 양진행, 양진형이고, 여필, 여찬, 진행, 진시 등은 보인당에 출입하면서 강학하였다.<sup>38)</sup> 또한 무안박씨와 통혼을 하였다. 후손 啓鵬이 松禾에서 楊起<sup>39)</sup>의 遺像을 개모하여 와서 상월 酒谷에 사우를 건립하고 楊治, 楊熙止, 楊應春, 楊暉 등을 함께 봉안하였다.<sup>40)</sup> 이것이 바로 忠憲祠이다.

(8세)

麟 - 春健 - - 震衡 - 정수

- 春遇

- 春遂

- 春茂 - 植 - 震行(1607~?) 1633생원시, 1642 문과급제, 니산거주

- 震亨(1629~?) 1650생원시, 노강서원 시도기

노성에 세거하는 파평윤씨는 단일 종파로서 전체 입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문과급제자 역시 전체 18명 가운데 파평윤씨가 13명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여 노성의 주도성씨임을 알 수 있다. 남양홍씨는 15세기부터 사마시 입격자를 배출한 가문으로 노강서원 유생도기나 청금록에, 노강서원과 구산서원 관련 유소에 소두나 유생으로 적극 참여하였다. 무안박씨 역시 보인당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높고 노강서원에 적극 참여하여 노성의 주도적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청주양씨와 입격자를 2명 배출한 의령남씨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던 청주한씨 가문 인물들이 노강서원 도기와 청금록에 다수 등재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 3. 서원건립 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

논산지역 사족들은 조선전기부터 서재를 건립하여 강학을 하였는데, 연산의 정회당과 양성당, 은진의 취성당, 노성의 보인당이 그 사례이다. 은진의 聚星堂은 선조조에 정량을 지낸 金

36) 박동선의 신도비명은 윤증이, 박사덕의 묘지명은 윤광소가, 박사수의 家狀은 윤홍규가 지었다. 박사덕과 윤광소는 이종형제간이고, 박사수의 외손이 윤홍규이다.

37) 박세구는 김집과 윤선거의 문인이다.

38) <보인당 제생록>

39) 楊起(?~?)로 고려 충선왕 때의 문신이다. 청주 양씨의 시조로 자는 可尹이고, 호는 巖谷이며, 시호는 忠憲이다. 원나라 사람으로 魯國大長公主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이후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많은 외교적 공헌을 하여 三韓昌國功臣으로 上巖伯에 봉해졌고, 청주를 관적으로 하사받았으므로 후손들이 본관을 청주로 삼았다.

40) 『華山集』 권5, 기, <巖谷楊先生影堂記>

田漑가 창건하여 여러 유생들과 강학하였던 곳으로 이이가 ‘취성당’이라 편액하였다고 한다.<sup>41)</sup> 남아 있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당시 은진의 사족으로 비슷한 시기에 사마시에 입격한 서관, 김섭, 서경복 등이 중심이 되어 강학하였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은진현에는 조선전기부터 사족들의 교류가 있었고, 취성당에서 강학과 회합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세기에는 이유태가 은진에 우거하면서 강학을 하였다.<sup>42)</sup> 이유태는 은진 花山에 작은 별업이 있었고, 동생 有謙이 거주하였는데, 1664년에 어머니 청풍김씨를 모시고 동생과 같이 은진 화산으로 돌아와 1669년 공주로 이거할 때까지 거주하였다.<sup>43)</sup> 이러한 연유로 『여지도서』 인물조에 이유태와 그의 동생 李惟謙이 등재되어 있다.

연산의 정회당과 양성당은 광산김문의 서재이다. 정회당은 연산 김계휘가 1557년에 건립하여 다시 출사하는 1563년까지 6여년 간 후학양성과 향촌교화에 전념하였던 서재이다. 양성당 자리에 최창강의 별업인 雅閑亭이 있었다. 이를 金錫이 매입하였고, 훗날 계후자인 김은휘에게 물려 주었다. 金殷輝(1541~1611)는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鄭澈의 종사관이 되었고, 아한정을 중심으로 송익필과 교유하였다. 이에 김장생은 송익필에게 예학을 수학하여 호서에 학파의 종장이 되었고, 김계휘, 김은휘의 학문적인 성향, 교유관계와 자신의 학문과 향촌활동으로 서인의 영수가 되었다. 아한정이 정유년 왜란 때 불 타 없어지자 김장생이 그 터에 養性堂을 건립하였다. 초창기 양성당에서 수학한 자들이 최명룡, 유즙, 김동준, 장유, 정홍명, 박미 등이다. 또한 양성당에서 교유를 말해 주는 양성당의 제영이 남아 있는데, 김상용, 정엽, 조익, 소광진, 심광세, 신희, 김상헌, 이정구 등의 것으로 이들은 동문수학한 교우이거나 문인으로 서인의 중추적인 인물들이다.

또한 김장생은 1606년 문인 宋興周, 崔命龍(1567~1621), 尹雲衢 등이 김장생과 상의하여 礪山 黃山江 가에 서당을 지어 강학하는 장소로 삼고 울곡의 사당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이루지 못하였다.<sup>44)</sup> 황산은 兩湖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江山의 景勝이 있으며, 연산의 溪上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로 여겼던 것이다. 김장생과 문인들은 다시 서원 건립을 추진하여 1626년에 황산서원을 세웠다. 그 후 김장생은 1627년 양호호소사로서 ‘의병을 규합하여 勤王하라’는 유지를 받고 황산서원에 머물면서 막부를 구성하였고, 의병이 파한 다음에도 황산서원에 머물면서 의병과 군량에 대해 처리하고 출납 장부를 정리하였다. 황산서원은 처음 이이와 성혼을 배향하였고, 1648년에 김장생을, 1663년에 조광조와 이항을 향사하였고, 1665년에 ‘竹林’으로 사액되었으며 1695년에 송시열을 추향하였다. 곧 김장생의 영향력이 미친 곳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취성당, 정회당과 양성당이 개인의 서재인 것과 달리 노성의 보인당은 현감의 주도로 건립된 서당이다. 현감 柳夢說은 1566년에 박증의 유허지 명학당에 보인당을 건립하였다. 건립 후

41) 聚星堂在縣東二十里 宣廟朝邑人正郎金田漑與一邑諸儒合議爲章甫藏修之所栗谷李珣扁其堂曰聚星今廢(『여지도서』 상, <은진현>, 고적)

金田漑 ; 官至正郎創修縣星堂獎進後學 (『여지도서』 상, <은진현>)

42) 李惟泰 ; 少志學 早被孝廟禮遇 官至吏曹參判 號草廬 文元公沙溪金長生門人 尤菴宋時烈同春宋俊吉爲道義交 講學于皇華城內(『여지도서』 상, <은진현>)

43) 『초려집』 연보.

44) 이 즈음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 송익필의 시 <次金希元黃山亭韻>이 있다(『구봉집』 권1, 詩). 이 때 황산정이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장생이 다녀갔고, 후에 임리정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45) 서원 건립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송홍주와 최명룡은 전주와 김제에 거주하는 유생을 양성당 초기에 문하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송홍주는 정묘호란 당시 양호호소사 막부의 副使로 역할하였다. 임리정, 황산은 양호 사립들, 특히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윤선거 등의 강학처이자 회합처였다. 이들의 회합 중에서 특히 1653년 송시열과 윤선거가 만나 윤희를 두고 논쟁을 벌였던 곳으로 훗날 노소분기까지 이르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에 洪允軾이 이이에게 가서 보인당 기문을 받아 온 후 8월부터 강학이 시작되었다고 한다.<sup>46)</sup> 이후 강회는 임진왜란으로 중지되었다가 1617년에 재개되었다. 이 해에 작성된 講案을 보면, 講長은 김상헌이고, 김집, 윤황, 李緯<sup>47)</sup>, 宋國澤 등이 강학을 인도하였으며 윤순거, 송준길, 송시열, 김익희, 윤원거 등이 유생으로 입교하였다. 이들은 17세기 호서사림의 핵심인물로 성장하였다. 이 즈음 尹舜舉가 다시 옛 규례대로 정비하였다.<sup>48)</sup>

보인당<sup>49)</sup>은 훗날 호서사림의 핵심인물들이 유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강회에 참여하였다. 주로 회덕의 송준길, 송시열, 연산의 김집 등 광산김문, 노성의 윤순거, 문거, 원거 등 파평윤문과 무안박씨, 청주양씨, 남양홍씨 등이 참여하였다.

보인당과 양성당은 노성현과 연산현이라는 지역 범위를 넘어 호서지역, 더 나아가 호남, 근기지역 인사들도 모여 강학하고 학문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서재에서의 강학활동과 교유로 사승관계가 형성되어 도학연원을 같이하는 학파로 성장하였고, 정파=학파의 등식이 형성되면서 17세기 중앙정국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인근 유생들과 강학, 회합을 통해 향촌사회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 서원건립으로 이어졌다.

조선시대 논산지역에 해당하는 노성현, 연산현, 은진현에 건립된 서원은 <표 6>과 같다.

<표 6> 논산지역 서원현황

지역	서원명	배향인물-제향시기	건립, 사액, 黽철시기, 黽철, 복설시기
노성현	노강서원	尹煌(1571~1639) - 1675년 尹宣舉(1610~1669) - 1675년 尹文舉(1606~1672) - 1682년 尹拯(1629~1714) - 1723년	1675년 건립, 1682년 사액 1717년 현판철거 1723년 현판복액 1781년 중수
	茅谷書院	朴增 李必泰 <sup>50)</sup> - 1809년 成三問 - 1861년, 主享	1774 모곡별칭 창건 1805년 서원 재창건 1871년 黽철
연산현	돈암서원	金長生(1548~1631)-1634년 金集(1574~1656)-1658년 宋浚吉(1606~1672)-1688년 宋時烈(1607~1689)-1695년	1634년 건립 1659년 사액 1881년 이건
	구산서원 <sup>51)</sup>	尹元舉(1601~1672)-1702년 尹焄(1575~1637) - 1710년 尹舜舉(1596~1668) - 1710년	1700년 건립 1710년 위차변경 1870년 黽철
	충곡서원	階伯(?~660), 朴彭年(1417~1456), 成三問(1418~1456), 李塏(?~1456), 柳誠源(?~1456), 河緯地(1387~1456), 俞應孚(?~1456), 金益兼(1614~1636)	1692년 건립 1871년 黽철 1935년 복원

46) 『栗谷全書』 卷13, 記, <輔仁堂記>

47) 이위(1590~?)는 여주이씨로 1624년 생원시에 입격하였고, 거주지가 니산으로 되어 있다.

48) 『童土集』 附錄, <童土先生尹公行狀>

49) 현재 보인당은 노성 종학당 내에 보인당의 현판을 걸어 놓아 파평윤문의 서재였던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 이에 무안박씨의 후손의 노력으로 『암천 박증과 모곡서원』(2003)의 단행본이 있고, 2004년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에서 특집으로 『암천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 유적』을 발간하여 보인당은 박증의 유허지에 현감 유몽열이 세운 서재임을 알리고, 모곡서원 창건과 무안박씨의 교유 등에 대한 연구를 수록하였다.

		朴增 - 1817년	
	휴정서원	柳懋-1699년 柳文遠-추배 李恒吉-1735년 金廷望(1594~1656) - 1751년 權수(1656~1718)-1751년	1699년 건립 1871년 훼손 1919년 복원
은진현	금곡서원	金秀南(1576~1637)-1687년 成三問(1418~1456)-1781년 , 曹 繼明(1568~1641)-1781년?	1687년 건립, 1690년 이건 1868년 훼손 1901년 壇所복설
	효암서원	姜應貞(14??~15??) - 1713년 徐益(1542~1587) - 1734년 金文起(1399~1456) -1853년 金成輝(1535~1629) -1856년 楊應春(15??~1592) -1794년 南俊, 金必泰(1728~1792)- 1858년	1592년 소실 1713년 복설 1871년 훼손 1925년 복원
	행림서원	徐益(1542~1587) - 1867년	1867년 건립, 1871년 훼손 1926년 복원

당시 서인 사람의 종장이던 김장생이 1631년에 돌아가자, 연산 양성당 옆에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김장생은 연산지역에서 세거한 광산김문으로 부친 김계휘 때부터 정회당에서 강학활동을 펼쳤고,<sup>52)</sup> 김장생은 양성당에서 강학과 성리학 연구에 전념하였고, 정묘호란에 호소사로서 활동을 하여 그의 학문적, 재지적 기반과 그의 문인들이 중앙정계에 포진해 있어서 서원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634년에 건립되었고, 1659년에 ‘돈암’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돈암서원 창건을 추진한 실무진이라고 볼 수 있는 出文有司는 前郡守 尹烱, 天安郡守 趙慶起, 玉果縣監 李尙馨, 尼山縣監 朴大健<sup>53)</sup>, 前縣監 閔後騫、金秀男, 茂朱縣監 金壽昌, 前參奉 柳泰亨、金東準、李恒吉、金廷望, 濟原察訪 趙平, 前別坐 林埴, 前洗馬 宋浚吉, 監役 尹雲舉, 幼學 金峻業、柳支廈、金自鍵(1600~1671)、宋時烈, 生員 金坤寶、趙相禹、柳必昌、李惟泰 등이다. 이들은 주로 김장생의 문인으로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는 소위 ‘충청오현’이고, 노성의 파평윤씨 윤전과 윤운거, 전라도지역의 유생 이상형, 유태형, 김동준, 임위, 김준업 등이 있고, 이항길, 류지하는 연산, 김정망, 김곤보는 은진에 거주하는 유생들이다.

돈암서원의 배향인물은 연산, 은진 일대에 세거하는 광산김문의 후손으로 이 지역에서의 재지적 기반 위에 자신의 학문적·정치적 위상으로 서인의 종장으로 추앙받아 왔던 김장생, 김집과 그들의 고제로서 17세기 중앙정계, 학계의 종장으로 추앙을 받았던 송준길, 송시열이다. 배향인물의 정치, 학문적인 위상은 곧 그 서원의 위상과 직결된다. 즉 당시 호서지역 서원의 수선지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0) 이필태(1627~1692)는 본관이 하음이고, 노성에서 출생하였다. 윤원거와 윤선거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1650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사마방목』 거주지 한성) 과거 공부를 폐하고 은거하여 강학을 하며 지냈다. 1730년에 從孫 李惟吉과 儒生 南敬寬 等の 주도로 묘표를 세웠다(『소곡집』 권5, 묘표, <懶翁李公墓表>). 1732년 南鶴齡의 주도로 향현사를 건립하여 제향하였는데(『서원등록』 1741년 8월 26일), 1741년 조정에 보고되어 훼손되고 1809년 모곡서원에 추배된 것으로 보인다.

51) 『충남의 서원사』 등에 윤문거를 추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추배 관련 통문, 제문, 축문 등이 남아 있지 않고, 『연려실기술』이나 1816년에 올린 구산서원 청액소에 따르면 윤문거의 추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2) 돈암서원의 전반적인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이연숙의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민족문화의 제문제』, 권태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3.)을 참고하였다.

53) 나주박씨, 朴璣의 아들, 이정구의 생질.

돈암서원에 배향된 김장생, 김집, 송준길, 송시열은 호서지역 일대의 서원건립에도 적극적으로 간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집, 송준길, 송시열은 김장생의 문인으로 강화에서 순절한 김수남과 효자 강응정 서원건립에 제안을 하거나 건립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김수남은 광산김씨이고, 김장생의 문인으로 돈암서원 창건 출문유사로 서원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1610년에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서인으로서 大北에 반대하여 두문불출하다가, 1624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636년에 남한산성이 청군에 포위되자 형조 分司의 正郎으로 강화에 들어가 이듬해 정월에 성이 함락되자 洪命亨, 金尙容과 南門樓에 올라가 焚死하였다. 이 때 같이 죽은 자는 金益兼, 權順長, 李尙吉, 李時稷, 宋時榮, 尹烜, 沈諤 등이 다.<sup>54)</sup> 그러나 그가 절의를 지켜 죽은 지 백년이 되도록 그 일을 아뢰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오랜 뒤에 송준길이 절개를 지켜 죽은 상황을 알리어 비로소 승정원 동부승지에 추증되었고,<sup>55)</sup> 송시열의 주청으로 旌表되었다.<sup>56)</sup>

서원 건립은 처음 신독재 김집이 발의하였고, 그 후 송시열이 사육신인 성삼문과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순국한 조현,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김상응과 함께 순국한 김수남을 병향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57)</sup> 이후 송준길, 지방사림과 더불어 은진현 동쪽 鈞亭里(가야곡면 조정리)에 사우를 건립하였고, 김수남을 독향하였다.<sup>58)</sup> 이는 숙종대 서원첩설 금지령에 따라 조현은 금산의 사우에 봉안되어 있고, 성삼문 다른 서원에 제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수남만이 제향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1689년에 송시열이 은진의 유림들에게 김수남의 유허지인 金谷으로 이건할 것을 제안하자 은진현 진사 李之綱와 유생들이 받아들여 1690년에 금곡으로 이건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돈암서원유생이 은진향교에 보낸 통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예전에 귀향에서 서원을 창건하여 성삼문, 강응정, 조현, 김수남을 병향하는 일로 여러 번 모의하고 丈席에 품의하였습니다. 때문에 그간의 사정을 저희들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를 金谷으로 이설하였고 제사하는 예를 행하고자하였는데 다만 김수남만 삼선생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내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인가? 성삼문과 조현은 두 선생님은 귀향이 서식지소가 아니고 열읍의 장보들이 또한 모두 사우를 건립하여 존송하여 선생의 도를 발휘함으로써 남은 감회가 있지 아니하고 비록 귀원에 합향하지 않았더라도 흠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로 보아 은진 유생들은 일찍부터 성삼문, 강응정, 조현, 김수남을 병향하는 일을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성삼문과 조현은 은진이 서식지소가 아니고 열읍의 장보들이 다른 지역에 사우를 건립하여 존송하고 있으므로 금곡서원에 합향하지 않았더라도 흠사가 아님으로 김수남만을 제향하였던 것이다.<sup>59)</sup>

영조대에 은진의 유생들이 조정에 보고 없이 성삼문, 조현, 양응춘을 제향하는 사우를 건립하였다가 서원남설을 금지하는 첩설금지령에 따라 유생들이 정거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1781년에 성삼문을 금곡서원에 추향하였다. 성삼문은 사육신으로 절의를 지킨 인물로 은진 성삼문의 사체 중 일부분이 묻혀 있다는 이유로 제향을 추진하였던 것이다.<sup>60)</sup> 성삼문 추향시 위차는 성삼문의 나이가 훨씬 많지만 은진이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

54) 『사계전서』 부록, 문인록 / 『강한집』 권28, 傳, <明陪臣傳>

55) 효종실록 8년 12월 4일

56) 숙종실록 7년 1월 14일

57) 『금곡서원지』 <鈞亭建祠時疏草> 송시열 撰.

58) 김수남의 봉안 제문과 춘추향 축문을 윤증이 지었다.

59) 통문에서는 곧바로 강응정을 제향하는 서원을 중건할 것을 제안하였다(효암서원에서 후술할 예정).

향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예의이므로 주향의 자리는 김수남으로 위치가 변화가 없었다.

효암서원은 처음 효자 강응정<sup>61)</sup>을 제향한 갈산사에서 비롯되었다. 갈산사가 처음 건립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강응정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성종 때에 旋閭하라는 명을 받고 향촌의 유생들이 사당을 세워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강응정의 현손 姜復中이 은진에 거주하면서 서용갑, 서호갑과 교유하였고, 그의 아들 宗孝는 김장생의 문인으로 병자정묘 호란에 「勤王文」을 짓고 백의로 나아가 임금을 지키고자 하였던 인물이다.<sup>62)</sup> 강응정의 효행과 후손들의 향촌 활동, 사우관계에 힘입어 임진왜란 때 소실된 갈산사에 대한 중건의 움직임이 있었다. 김계휘가 소를 올려 묘지기를 두어 보호할 것을 청하였고, 송시열이 사당을 다시 세우고 영령을 편안히 모시는 것이 마땅하고 하였다고 한다.

갈산사의 중건이 본격화되는 것은 1692년 돈암서원 유생 김진망 등이 은진향교에 통문을 올리면서부터이다. 이 통문에서 강응정은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이곳에서 遊息하였으니 山嶽의 정기를 받아 하늘에 통할 만한 효행으로 先朝에 그 택리에 정표과 특별히 더 숭상하였음을 강조하며 강응정을 다시 제향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듬해 은진유생 安紀 등이 충청도의 유생들에 통문을 보내면서 중건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sup>63)</sup> 이러한 노력으로 1713년 강응정을 제향하는 葛山祠를 은진현 葛麻山 아래로 옮겨 중건하였다.<sup>64)</sup> 1715년에는 호서유생 柳鼎 등이 청액소를 올려, 본원은 중건이고 첩설이 아니므로 새로 반포된 朝令과 사체가 다르니 사액을 회복해 달라고 청원하였다.<sup>65)</sup>

이후 강응정의 독향서원이었던 갈산서원에 많은 인물들이 추향되었다. 서익이 가장 먼저 추향되었는데, 추향 통문이 전하지 않아 저간의 사정은 잘 알 수 없다.<sup>66)</sup> 서익은 鄭汝立으로부터 탄핵받은 이이와 정철을 변호하다가 파직된 인물로 서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그의 행보, 부여서씨의 재지적 기반과 진주강씨와 부여서씨 가문의 세력으로 추향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후 은진현 유생들은 1744년에 서원의 왼쪽에 강응정 정려를 改建하고, 강응정의 증직과 사액을 청하였다.<sup>67)</sup>

60) 塚在縣東二十里 九老峴邑人相傳古時 有金僦過天于此夜宿雙溪寺夢見一丈夫來言 何汚我所居 覺而問諸寺僧 對言 成承旨一體瘞于此 遂偕往發視有骨在焉 乃解衫裹而理之刻木爲表 後縣監鄭孝成爲文祭之歲久凌夷 縣監呂善長往覓而不得 其詳 丙辰縣監李道善 因土人指示就加封築鄉儒李端堦發論建祠于論山 以忠臣楊應春竝享 以甲午後設立 毀撤(『여지도서』 上)

61) 姜應貞은 일찍이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에 3년 동안 피를 풀지 않았고 약은 반드시 직접 맛보았다.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는 한결같이 『가례』를 따랐고, 겨울에도 맨발로 다녀서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그는 젊은 날 태학에서 유학할 때에 서울의 준수한 선비들과 더불어 朱文公 故事에 의거하여 鄉約을 만들고, 매달 초하루에 『소학』을 강론하였다. 이 때 같이 강론한 사람은 金用石, 申從濩, 朴演, 孫孝祖, 鄭敬祖, 權柱, 丁碩亨, 康伯珍, 金允濟 등이다. 시골에서 불우하게 지내며 늙도록 과거를 보지 않다가 1483년에 생원시에 입격하여 訓導가 되었다(『秋江集』 권7, 雜著, <師友名行錄>. 이외에도 강응정에 관한 사적은 『三綱錄』, 『대동지지』, 야사 등에 실려 있다).

62) 『중화재실기』 / 『강재집』, 권??, 序, <中和齋姜公事蹟序>

63) <遯巖書院儒生金鎮望等通恩津鄉校文> 壬申, <恩津儒生安紀等通本道文> 癸酉(『중화재실기』, 『효암서원지』)

64) 중건상량문은 尹楡(1647~1721)가 1713년에 지었다. 이듬해 강응정을 봉안하였는데, 봉안제문은 윤증의 문인 梁得中(1665~1742)가 지었다.

65) <湖西儒生柳鼎等請院額疏> 乙未

66) 李緯가 1734년에 서익봉안제문을 지었고, 『만죽집』 서문도 지었다. 양득중이 <恩津葛山書院春秋享祝文 萬竹軒徐益上疏救栗谷斥汝立>을 지었다.

67) 1747년에 기호유생 진사 李齊恒 등이 강응정의 증직과 사액을 청하는 장문을 품고 서울로 올라가 예조에 올리고 돌아왔다. 소의 내용은 산삭하여 없고 연명한 유생의 이름만 남아 있다. 소두 李齊恒(1694~?)은 자는 允之, 본관이 加平이고 李夏翼의 아들이다. 1729년 진사시에 입격하였다. 거주지는

또한 은진현에서 성삼문과 양응춘을 제향하는 향현사를 조정에 품의하지 않고 1736년에 건립하였는데, 숙종 40년 첩설금령 이후로 이미 제향된 인물들을 다시 중첩 제향하는 것을 엄금하는 서원억제정책에 따라 금령을 어겨 주도한 수령은 파출되고 유생들이 정거당하는 일이 있었다.<sup>68)</sup> 조정의 서원억제정책은 영조 17년(1741)에 이르러서는 첩설 금령 이후로 건립된 서원은 모두 철거하고 관련 지방관은 문책하며 앞장서서 건립을 수창한 유생은 정거케 하는 등 강력한 억제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은진현 유생들은 새로운 사당 건립은 포기하고 기존의 서원에 추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양응정<sup>69)</sup>의 제향논의는 연산, 금산, 회덕, 돈암서원의 유생들이 발문하여 논의를 주도하였는데 어느 사우에 종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임천향교 유생들과 부여향교 유생<sup>70)</sup>들이 금산의 조현 사우에 종향하는 것은 幕佐의 열에 해당되어 의리에 위배됨이 크고, 은진의 금곡과 갈산은 양응정의 桑梓의 鄉인데, 금곡서원은 주향자인 김수남과 세대차이가 있어서 위치를 바꿀 수 없지만 갈산사는 충효가 두 개의 이치가 아니고 세대차이는 멀지 않기 때문에 갈산사에 추향을 청하여 1794년에 이루어졌다.

양응정 추향 이후 19세기 후반에 들어 다시 추향의 바람이 불어 1853년 金文起<sup>71)</sup>, 1856년 金成輝, 1858년 南俊<sup>72)</sup>과 金必泰(1728~1792)<sup>73)</sup>가 추향되었다. 연이어 1860년에 강복중과 강종효의 추향을 시도하였으나<sup>74)</sup> 이들의 추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원은 1868년에 훼철되었

연산이다.

68) 1736년에 은진의 유생 安廷稷과 李瑞堧 등이 성삼문과 양응춘을 합하여 제사지내는 사당을 창건하였는데, 조정에 품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건립하였으므로 서원 남설 금지 정책에 따라 당시 재임한 수령과 유생을 논죄하여 수령은 大興郡守로 재임 중이던 前 恩津縣監 李道善을 事目에 따라 罷黜 시켰으며 주도한 유생 安廷稷과 이서후 등은 3년간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정지하였는데 이 조치를 그대로 둘 것인지 예조에 품의하여 분부하라는 공홍도 감사 李普赫의 장계가 있었다(『서원등록』 영조 14년(1738) 7월 24일). 그런데 영조 17년 8월 26일에 올린 啓本에는 1736년에 재임한 감사는 柳儼이고, 현감은 李道善이며, 그 일을 앞장서서 주도한 유생은 趙復命이라고 하였다.

69) 양응춘은 회덕현감을 지내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장 趙憲을 따라 청주에서 왜군을 무찔렀고, 이어서 금산 전투에 참가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양응춘은 이조참의로 증직되고, 1720년 충신으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70) 扶餘鄉校儒生 俞錫基, 具文泓, 金濡, 俞彦沃, 李始周, 李挺麟, 金德恒, 尹昌華, 白尙益, 金甲基, 金滄, 尹昌任, 李聖龜, 俞彦博, 金德徽, 俞漢昇, 姜震望, 俞彦昌, 俞彦朝, 俞漢謙

71) 김문기는 1731년에 후손 金爾輝가 걱정하여 선조 金文起가 死六臣과 함께 죽은 것이 명백해졌으니 신원해 줄 것을 복계하였다. 이에 관작을 회복하고 定屬된 그의 자손들을 풀어 주고 軍保를 모두 탈면하고 적몰된 田民을 내주는 등의 일을 일체로 시행하도록 하였다(『영조실록』 7년(1731) 3월 25일). 1778년에 ‘忠毅’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에 1786년에 황해도의 유학 李亨中 등이 俞應孚의 사우에 김문기를 배향하게 해 달라는 상언하였으나 유응부를 홀로 제사 지내는 사우에 오직 김문기만을 배식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일성록』 정조10년(1786) 2월 26일). 또 1787년 鳳山의 忠義衛 金光曄이 11대조인 김문기를 六臣祠에 추가 배향하거나 혹 자손들이 사는 고향에 사당을 세워 달라는 상언에 육신사에 추가 배향하는 것은 결코 오늘날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당을 세워 받드는 것도 조정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일성록』 정조11년(1787) 2월 6일). 1788년 황해도의 유학 俞漢聖 등이 김문기를 鄉祠에 배향하는 일을 품쳐하게 해달라는 상언에 향사이고 賜額한 서원이 아니므로 조정에서 무어라 지휘할 바가 아니고 士林의 公議를 따라 처리하라는 전교를 내렸다(『일성록』 정조12년(1788) 4월 4일).

72) 남준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다 본관은 의령(宜寧), 호는 매계(梅溪)이다. 장예원판결사를 역임하고,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현(趙憲)의 휘하에 들어가 청주전투에서 왜군을 무찌르는데 공을 세웠다. 이어 금산전투에서 왜군과 교전하다가 조현과 함께 전사하였다.

73) 광산김씨로 金元行과 宋煥箕(1728~1807)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향리에서 후학들을 교육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여 돌아가신 뒤에도 성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안 감사의 추천으로 사헌부감찰과 영릉령을 지냈다. 1811년(순조 11) 문인인 황언진(黃彦鎭) 등의 편집을 거쳐 손자인 김광옥(金光鈺)에 의해 간행된 『둔암집(屯庵集)』이 있다.

74) <湖西儒生金在龍等請葛山祠追享疏> 庚申

다.<sup>75)</sup> 김문기 추향은 사육신의 복권 이후 김문기를 제향하는 서원이 없는 상황에서 1852년 청주의 화양서원, 회덕의 종회사, 연산의 돈암서원 재임과 유생들이 통문<sup>76)</sup>을 보내면서 추향이 추진되었다. 金成輝<sup>77)</sup> 추향은 금산향교, 고산향교, 금산 종용사, 임피 鳳巖書院<sup>78)</sup>, 옥천 향교와 표충사, 익산 華山書院<sup>79)</sup>, 노성 향교와 闕里祠, 공주 忠賢書院<sup>80)</sup>, 연산 향교와 휴정서원, 회덕 宗晦祠, 여산 향교, 연산 돈암서원 등에서 통문을 보내어 추향을 추진하였다. 이들 서원과 사우는 김장생, 김집, 송시열을 배향하는 서인·노론계 서원이다.

그런데 봉안과정에서 서익과의 위치문제가 발생하였다. 위치에 대한 판단을 서원에서는 도백에게 일임하였고, 도백은 예조판서에게, 예조판서는 山長 宋來熙에게, 송내희는 다시 예조판서에게 그 결정의 책임을 미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익의 본손이 위판을 받들어 돌아가 사람들이 六谷에 서원을 건립하여 杏林書院이라 하였다. 효암서원에 제향한 지 100여년이 되었는데 김성희 추배 후에 위치 고치려는 논의가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서익이 六谷에 오래 거주하였으므로 이곳에 專祠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많은 유생들과 후손이 사우를 건립하고 이봉하여 행림서원이라 하였다. 후손 文錄과 廷勳이 서원에 杏林祠碑를 세웠다.<sup>81)</sup>

1691년 사육신에 대한 복관<sup>82)</sup> 이후 노은서원에 ‘綠雲’이라는 사액을 내리고, 1712년 ‘魯雲’이라고 재사액되었다. 1692년에 영월 彰節書院(1699년 사액), 대구의 洛濱書院, 연산의 충곡서원이 창건되었다. 연산에서는 서원 창건 이전에 유허비가 먼저 1673년에 세워졌는데, 이 때 일을 감독했던 사람은 洪友周·金光老·金萬竣이다. 송상기는 충곡서원 상량문<sup>83)</sup>에서 연산이 계백장군과 성삼문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으로 제향을 모시기에 적합한 곳이며 선비들이 정한 의론에 따라 일을 주선하였음을 강조하였다.

#### 75) <葛山書院前後異兆>

효암서원은 처음에 강응정을 제향한 후에 효암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중건 이후에는 사액이 복구되지 않아 갈산사로 칭해졌다. 중건이후의 추향통문이나 추향봉안문에 갈산서원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1868년에 사액서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훼손되었다. 훼손 조령이 있는 후 서원 유생들이 位版을 서원 동쪽에 매안하였다.

76) - 華陽書院 齋任 金永述, 李源麟, 權思益

- 宗晦祠 齋任 宋命圭, 成元植, 宋灝仁, 李陽來, 宋敬洙, 金重鉉, 金在萬, 宋一恕, 金箕采, 趙漢明, 徐志仁, 朴萬壽, 金亨根

- 遯巖書院會儒 金在學, 柳景勳, 金厚鉉, 任聖模, 柳景一, 金邦鉉, 金在述, 張漢龍, 李承溥, 金箕祚, 李愚容

77) 김성희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광산김씨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현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하는데 많은 재산을 희사하였다. 임진왜란 후 林川 군수와 동래부사를 제수하였으나 취임치 않았다. 그 후 조정에서 포상하여 刑曹參議에 증직되었다.

78) 봉암서원은 1664년 鄭始昌, 김집 제향, 1666년 金絳(1488~1534) 추배, 1695년 사액.

79) 화산서원은 1657년 김장생 봉안, 1662년 사액, 1695년 송시열 추배하였다.

80) 충현서원은 1581년 서기가 건립하여 주자, 이존오, 성제원, 이목 배향, 1610년 조현 추배, 1625년 사액,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 추배함.

81) 『錦谷集』 권13, 碑, <杏林祠碑>

82) 송시열 찬, 「연산유허비」(『성근보집』, 『송자대전』)

사육신에 대한 신원 논의는 仁宗朝에 筵臣이 六臣의 일을 진달한 것을 시작으로 이때부터 연달아 그 절의를 포상하자고 청하는 이가 있었고, 宣祖 때에 朴彭年의 遺腹 손자가 錄用되었다. 孝宗朝에서는 宋浚吉과 李厚源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자는 주청하였다. 1658년 『육선생유고』를 간행하고, 1668년 민유중이 충청감사로 부임하여 홍주에 있는 성삼문의 구택을 수리, 봉안하였다. 그리고 회덕에 박선생유허비, 홍주에 성선생유허비, 연산에 성선생유허비를 세웠는데 宋時烈이 찬하였다. 1676년에 魯恩書院을 건립, 제향하였고, 1685년에 나머지 다섯분을 제향하였으며 閔鎭厚에 의해 ‘魯恩’이라고 改額되었다. 1681년 노산군이 端宗으로 추존되고, 이 해에 과천에 愍節書院을 건립하였다. 1691년에 사육신에 대하여 復宣, 致祭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83) 『玉吾齋集』 권12, 上樑文, 連山六臣書院上樑文)



충곡서원은 1692년에 건립되어 계백과 사육신(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김익겸 등 8인을 제향하였다. 김익겸은 김장생의 손자, 槃의 아들로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절하였다. 따라서 의리를 지켜 순절한 행의에 광산김문의 탄탄한 재지적 기반, 조부의 후광, 자손의 번성과 현달로 서원에 제향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8년 후 1700년에 연산의 유학 金得兼 등은 사액을 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84)</sup> 사액의 길이 막히자 1701년 이관명이 몰수한 성삼문의 전답을 홍주에 있는 서원으로 출급하도한 한 전례와 마찬가지로 연산 서원에 출급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하다고 아뢰어<sup>85)</sup> 허락을 받았다. 1817년에 성삼문의 외손자 박증을 추배하였다.<sup>86)</sup>

휴정서원은 1699년에 건립되어 柳懋, 柳文遠, 李恒吉, 金廷望, 權憺을 배향하였다. 류무, 이항길, 김정망은 사계 문하에서 수업하였고, 류문원은 류무는 연산의 대표 사족인 문화류씨이다. 그의 백조부 위의 증손이고, 그의 숙부 濟民과 定民은 사계, 신독재의 문인이다. 또한 반계 柳馨遠과도 재종숙간이다. 유무는 후진양성에 힘써 연산사족 가운데 그의 문하에서 수학한 자들이 많이 있다.<sup>87)</sup> 이처럼 휴정서원의 배향인물은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자 연산현의 대표적인 재지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휴정서원은 돈암서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서원의 배향인물, 건립과정에서 김장생과 돈암서원의 영향권 내에 있는 서원의 건립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이제는 노소분기 이후 돈암서원과 노론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서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강서원<sup>88)</sup>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을 배향하여 문종서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소론의 학문적 연원이 되는 인물들이 배향되어 있다. 노강서원 창건할 시에는 정치적으로 노소분기가 있기 전이었고, 이들 인물이 보인당, 양성당, 죽림서원 등지에서 함께 강론하고 회합했던 호서사림의 핵심인물이었기 때문에 서원 건립에는 중앙관료와 지역 사족들의 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소분기 이후에는 정국의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노강서원은 金壽恒이 창건할 때 발문을 지었는데, 이때 京有司로 같이 건립을 추진한 인물들이 閔維重, 金萬基, 朴世堅(1619~1683), 呂聖齊, 李選, 金萬重, 申翼相, 趙師錫, 鄭維岳, 趙根(1631~1690) 등이다. 이들은 각 지역의 파평윤씨 지방관, 서원, 향교, 유림 등이 보내 온 물자를 수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부조록」에 ‘京有司 鄭維岳 收送’과 ‘京有司 收送’이 있어 경유사가 물품을 수합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다.

니산에서는 유생 朴世壽<sup>89)</sup>, 李師吉<sup>90)</sup> 등의 주도로 1675년에 건립되었다. 박세견과 박세구

84) 상소 내용은 “백제의 장군 階伯과 조선의 成三問 등 여섯 신하와 贈領議政 臣 金益兼 등 여덟 先賢은 흑자는 변란의 때에 절개를 지켜 죽었으며 흑자는 禪授하실 때에 목숨을 바쳤으니, 그들이 지킨 義는 비록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殺身成仁한 아름다움은 시대는 다르나 서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고을의 黃嶺은 바로 계백이 순절한 곳이자, 성삼문이 卜築한 터가 남아 있습니다. 김익겸은 대대로 이 고을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節士와 충신들의 遺風과 餘烈이 여전히 남아 있어, 湖南의 人士들이 8, 90년 전에 이미 사우를 건립하여 여덟 신하를 並享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節義의 사우가 여전히 사액을 받지 못하여 사람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가의 欠典이 되니, 특별히 새로운 편액을 하사하여 주소서.”이다(『서원등록』 숙종 26년(1700) 11월 초5일).

85) 『서원등록』 숙종 27년(1701) 2월 27일.

86) 『담정유고』 보유집, <巖川朴處士 增 忠谷書院奉安文>

『화산집』 권6, 축문, <巖川朴處士 增 配享忠谷書院祝文>

87) 李東翼, 李夏翼, 李後膺, 李湜, 李滄이다.

88) 이해준, 「魯岡書院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권, 한국서원학회, 2011.

89) 朴世壽는 반남박씨로 윤선거의 제자이고, 노성 우곡에 은거하였으므로 牛谷處士로 불렸다(『明齋遺稿』 卷40, <四山監役李君墓碣銘>).

朴世壽는 반남박씨)로, 朴輝의 아들이고, 호는 漣村이다.

는 반남박씨로 파평윤씨 가문과 통혼을 하고 노소분기에 소론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 가문이다. 건립 후 바로 윤항과 윤선거를 배향하였다. 이때 <봉안시도기>에 따르면 전체 258명이 참석하였고, 그 가운데 니산거주자가 113명이었다. 가문별로 보면 파평윤씨 23명, 남양홍씨 13명, 무안박씨 7명, 하음이씨 6명, 청주양씨 5명 등이다. 1682년에 京有司 羅良佐, 金昌協, 趙得重, 李師吉 等の 주도로 윤문거 배향과 請額을 추진하여 5도의 유생들이 상소에 힘입어 윤문거의 추향과 사액이 이루어졌다.<sup>91)</sup> 이때에도 전국 각 지역의 지방관, 향교, 서원으로부터 부조를 받았다. 나양좌, 전라감사 趙世煥, 평안감사 柳尙運, 충청감사 尹敬教, 전라감사 申翼相, 경상감사 李秀彦, 강원감사 鄭始成, 함경감사 尹趾善, 충현서원 재임, 돈암서원 재임, 죽림서원 재임, 鳳鳴書院 재임, 莘巷書院 재임, 深谷書院 재임이 부조하였다.

부조한 지방관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은 황해감사 黃俊耆, 전라감사 李東稷, 충청감사 南二星, 경상감사 李翻, 황해감사 李之翼, 능주목사 尹播, 헌릉참봉 李迪吉, 함경감사 呂聖齊 등과 私人으로 과천 羅良佐가 있다. 이들은 노소분당 이후에는 주로 소론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여산 죽림서원, 죽림서원 유사 尹播, 蘇梯元, 石室書院, 공주의 충현서원, 창강서원 등에서 부조하였다.<sup>92)</sup> 이후 중앙정치 주도세력 변화에 따라 1717년 현판이 철거되었고, 1723년 소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 현판이 복액되고 윤증의 추향이 이루어졌다.

노성의 파평윤씨와 무안박씨는 보인당 재정비와 강학에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무안박씨는 노소분기 이전에 노성의 노강서원 뿐 아니라 돈암서원에 봉안시도기에도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나 돈암서원 송시열 추향시도기에는 노성거주 파평윤씨와 무안박씨 등 주요 사족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무안박씨는 파평윤씨와 같이 소론의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산 충곡서원에 박증이 추향되고, 성삼문과 박증을 제향한 茅谷書院<sup>93)</sup>의 고유문과 성삼문 춘추향 축문을 송내희가 지은 것으로 보아<sup>94)</sup> 성삼문과 박증은 노론, 소론에서 다 같이 추송하는 인물이므로 모곡서원은 노론계 서원, 소론계 서원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중앙정국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져 정국이 경색되기 시작한 이후, 노론과 소론의 각축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연산과 노성에 각각 구산서원(1700년)과 궐리사(1716년)가 건립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구산서원을 소론계 서원으로 규정짓고, 노론계 텃밭인 연산에 소론계 서원인 구산서원을 건립하여 파평윤씨 일문을 제향하여 견제하고자 한다는 시각이 있다.<sup>95)</sup> 이러한 시각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서원 건립과 운영을 주도한 인물<sup>96)</sup>들을 볼 때

90) 함평이씨로 니산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윤선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89년에는 疏頭가 되어 우계변무소를 올렸다(『명재유고』 권40, 묘갈명, <四山監役李君墓碣銘 癸巳>)

91) 五十五年 肅宗大王八年 壬戌. 從享魯岡書院. 四月. 賜額. 遣禮官. 致祭. 先是. 士林建院祠於魯城縣西五岡之村. 享八松魯西兩先生. 其後京師有司羅良佐, 金昌協, 趙得重, 李師吉等. 以配享先生及請額事. 發文. 通諭京外. 因有五道儒生. 陳疏之舉. 疏下禮曹. 禮曹判書呂聖齊啓稟. 上命賜額. 遣禮曹正郎李立中. 諭祭于三先生. 後又以明齋先生追配. 致祭文及奉安祭文春秋享祝文. 竝見下(『석호유고』, 부록, 연보).

92) 물자는 주로 白米, 曲子, 正鐵, 白紙, 炭, 石魚, 常木, 正木, 甘醬, 古里, 箕, 行擔, 加乃 등 쌀, 종이류, 무명류, 기구류 등이다.

93) 이해준, 「모곡서원(茅谷書院) 창건의 역사적 의의」, 『암청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유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5.

94) 『금곡집』 권12, 축문, <魯城茅谷書院告由文>, <魯城茅谷祠. 梅竹堂成先生春秋享祝文>

95) 이정우, 「17~18세기 재지 노·소론의 분쟁과 서원건립의 성격 - 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1999.

96) 윤증은 <龜山書院龍西先生春秋享祝文>과 윤전과 윤순거 춘추향 축문인 <龜山書院春秋享祝文>을 지었고, 양득중은 1710년에 <龜山書院追享後村童士兩先生通文>과 <連山龜山書院追享後村童士祭文>을 지었다.

다분히 설득력이 있다. 구산서원 관련 자료가 없어서, 구산서원 건립에 광산김씨를 비롯한 연산 사족들의 참여여부 등을 알 수는 없다.

구산서원은 1700년 창건하고, 1702년에 尹元擧를 독향하였다. 그리고 무슨 연유인지 1707년에는 충청도 진사 李萬誠 등이 상소하여 윤전, 윤원거, 윤순거를 니산의 윤항 서원에 추할 것을 청하였다.<sup>97)</sup> 이 상소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1710년에 尹烜과 윤순거를 추배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윤전을 주향으로 봉안하였다. 1723년 노성의 진사 尹南斗 등이 구산서원 청액소를 올렸다.<sup>98)</sup> 1816년에 충청도, 전라도 양도 유생 등이 소를 올려 김상용, 이시직, 송시영 등은 윤전과 동시에 순절하였는데 그들을 제향한 祠院은 사액의 은전을 입었는데 유독 윤전의 사원만이 성전을 입지 못하였으니 華額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sup>99)</sup>

윤전은 율곡, 우계 문인으로 김장생과 동문수학하였고, 김장생이 양호호소사에 임명되어 의병을 규합하여 막부를 구성하였는데, 이 때 종사관이 되어 군읍을 돌아다니며 의병과 군량을 모았다. 그리고 의병이 파한 뒤에도 김장생과 함께 입조하였다. 이러한 김장생과의 깊은 교류로 돈암서원 창건 출문유사로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弼善으로서 세자빈을 보필하고 江都에 들어가 성이 함락되자 자결하였다. 당시 강화에서 순절한 인물들 가운데 宋時榮은 영동 초강서원(1665년)에, 김수남은 은진 금곡서원(1687년)에, 김익겸은 연산 충곡서원(1692년)에, 이시직은 회덕 송현서원 별사에 제향되었는데 윤전만이 자신의 고향에 제향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윤순거와 윤원거는 모두 모두 김장생, 김집의 문인으로 송준길, 송시열, 이유태, 유계 등과 황산의 임리정, 양성당 등에서 강학과 학문교류를 한 대표적인 서인학자이다. 윤원거는 돈암서원 창건 통문 출문유사로 참여하였고, 순거의 아들 晳이 돈암서원 청액소에 대표로 활약하였으며 원거의 아들 揄와 拊가 돈암서원 봉안 등 서원의 일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두 집안 사이에 통혼이 많이 이루어졌다.<sup>100)</sup>

이로 보아 구산서원은 소론계 주도로 건립되었지만, 윤전이 강화에서 순절한 인물이라는 점, 연산의 광산김문, 노성의 파평윤문과 회덕의 은진송씨가 사승관계와 혼인관계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하였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연산을 비롯한 인근의 사족들이나 돈암서원에서 구산서원 건립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노강서원에 이들의 합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파평윤씨 가문 내에 여의치 않았던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sup>101)</sup>

97) 『속종실록』 33년 9월 2일.

98) 『승정원일기』 1723년 3월 13일.

상소에 참가한 儒生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進士洪南斗, 幼學閔衡魯·李命錫, 進士洪夏錫, 幼學金志成, 進士金杞, 生員金震剛, 進士林泓, 幼學韓斗一·趙鼎夏·柳星文·金老成·柳長遠, 進士任以大, 幼學呂必諤·金垠·洪南挺·韓斗文, 生員崔燾, 幼學李漢章·朴始鳴·任大厦·金挺·韓震明·閔珽·韓弘慶·柳德興·李春茂·趙榮迪·安相經·柳增·楊世泰·朴祖慶, 進士洪夏埰, 幼學南鶴徵·洪世陽·申達和·楊世榮·南鶴應·洪南弼·柳炯·閔璜·南鶴興·李再沆·洪南輔·楊世衡·閔百昌·李漢達·趙詡夏·洪南慶·安邦說·都星徵·柳憬·金宗澤·安相綱·金球·安相績·金重·洪挺陽·成爾晚·楊世復·朴壽星·愼師聖·李漢緯·都世基·韓穎錫·金宗鎰·金瑜·都星台·韓弘履·金量·朴就文·都重基·洪有陽·朴虎文·李希文·李時彩·朴昌文·安明瑞·南鶴恒·閔琮·都永基·金克成·趙榮益·金宗曄·洪以元·趙一夏·金宗得·李喜禰·尹相殷.

99) 『승정원일기』 1816년 9월 26일.

100) 윤순거의 아들 指의 壻가 김장생의 증손인 金萬塤(부:益顯, 조:규)이고, 윤원거의 세 번째 부인이 광산김씨로 灝의 딸이고, 그의 아들 拊의 부인이 梁(부:善生)의 딸이고, 사위가 金世聲(洛의 孫)이다. 윤문거의 장남 搏의 부인이 송시열의 딸이다.

101) 노강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문정공파인데, 윤전과 윤원거는 충헌공파, 윤순거는 설봉공파라는 점, 윤전은 강화에서 순절하였는데, 윤선거는 살아 돌아왔다는 점 등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역으로 노론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존재와 동향을 사마시 입격자 배출현황과 서원 유생도기 등을 통해 향촌사회 참여 가문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가문을 확인하였고, 이 가문 인물들이 어떻게 서원을 건립하고 제향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각 현의 사마시 입격자 가문과 향촌사회 내에서 향교,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향촌활동 참여도는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각 현에서 사마시 입격자를 많이 배출하고 향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문은 서원 건립을 주도하였고, 자기 가문 인물을 제향하였다. 즉 연산의 진주강씨, 부여서씨, 광산김씨 등이고, 연산의 광산김씨, 파평윤씨, 전의이씨 등이고, 노성의 파평윤씨, 무안박씨 등이다. 또한 입격자를 많이 배출하였지만 향촌활동에는 미미한 가문이 있고, 반대로 입격자를 배출하지 못하였거나 극소수인데도 향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문도 있다. 예를 들면 은진의 의령남씨, 연산의 청주한씨, 여흥민씨, 성주도씨, 노성의 청주양씨, 의령남씨, 청주한씨 등이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족들의 경제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향촌활동 참여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논산지역 재지사족은 입향 후에 서로 학맥과 혼맥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서재, 서원, 향교를 중심으로 교유하면서 주도적인 가문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의병활동과 순절 경력이 더해져 향촌사회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며 서원 건립과 제향으로 이어졌다.

서원 건립을 주도한 인물과 제향인물을 통하여 보면 은진현 서원 건립에 김장생, 송준길, 송시열 등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추향은 돈암서원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 서원 유생들의 동조와 협조로 이루어졌다. 제향된 인물 역시 효자, 사육신 성삼문, 임진왜란 의병으로 목숨을 바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광산김씨 인물 등으로 학문이 깊어 도학적 측면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아닌 충신, 효자 등을 제향하였다.

연산현 서원에 제향된 인물은 연산현의 대표적인 재지사족 가문인 광산김씨이고, 강화활동과 의병활동으로 인한 사승관계와 재지적 기반이 있는 김장생과 그의 동족, 문인들과 사육신이 제향되었다. 서원 배향인물의 위상은 곧 서원의 위상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돈암서원은 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 송시열로 이어지는 도학적 연원의인물을 배향한 서원으로 서인, 노론계 서원의 중심 서원이었다. 노강서원 역시 성혼-윤항-윤선거-윤증으로 이어지는 소론의 학문 연원이 되는 인물을 배향한 서원으로 소론계 서원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연산의 광산김문과 노성의 파평윤문은 근기지역에 거주하면서 사환생활을 하다가 동서분당 과정에서 서인의 입장에 서게 되고, 호란을 겪으면서 향촌으로 돌아와 문중을 정비하고, 강화활동, 재지적 기반을 다지며 학연과 혈연, 지연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노소분기 후에는 광산김문과 파평윤문,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의 협력관계에 균열이 일어나 갈등관계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연산과 노성은 당시 중앙정국의 판세가 그대로 반영되는 중앙정국의 축소판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입장에서는 강화에서 순절한 윤전을 연산 구산서원에 제향함으로써 노성의 파평윤씨를 자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서원등록

여지도서

돈암서원지

노강서원지

금곡서원지

효암서원지

율곡전서

사계전서

용서집

童土集

초려집

玉吾齋集

명재유고

歸鹿集

滄溪集

금곡집

중화재실기

華山集

미암일기

광산김씨족보

부여서씨세보

충남의 서원·사우

암청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유적

김경수, 「무안박문과 호서사림의 교유」, 『암청 박증의 도학정신과 유물 유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5.

김훈식, 「【서평】조선시대 재지사족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장동표, 『조선시대 영남재지사족 연구』, 태학사, 2015-」, 『지역과 역사』 38, 2016.

육민수, 「강북중 시가문학의 담론 양상」, 『국제어문』 제74집, 2017 / 박영주, 「가사작가 인물전 -향촌 사족의 집념을 진술한 청계 강북중」, 『오늘의 가사문학』 제2호, 2019.

이경동,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한국서원학보』 9권, 2019.

이연숙, 『돈암서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이연숙, 「돈암서원의 건립과 성격」, 『민족문화의 제문제』, 권태원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3.

이연숙,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52집, 호서사학회, 2009.

이영춘, 「호서 사족사회에서의 광산김씨 문벌」, 『중원문화연구』 1권,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

## 「조선시대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과 서원건립」에 대한 토론문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이연숙 선생님의 논문은 현재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재지사족의 동향과 그들의 서원 건립에 대한 전체상을 제시한 연구입니다. 논산은 광산김문과 파평윤문의 세거지이며 遯巖書院과 魯岡書院이 위치한 곳으로 노소분기의 과정이 서원에서도 가시적으로 들어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논산은 사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정파의 분쟁과 학맥의 분화에 대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지역의 서원은 주로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의 미진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사승관계와 혼인관계, 입격자를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지역의 대표적인 성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논산지역 서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대표 성관의 서원 건립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논산지역의 재지사족에 대한 전체상을 확인하고, 그들의 존재 양상과 동향이 서원 건립으로 이어지게 된 이유와 함께 서원의 제향인물의 성격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 역시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과 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체 논문의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본문을 ‘2장 논산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3장 논산지역 서원 건립 추이와 제향인물의 성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은진현, 연산현, 노성현)을 나누고 사마방목의 입록 가문을 중심으로 살핀 후 그들이 건립한 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산지역 전역을 아울러 재지사족의 특징과 그들이 주도적으로 건립하는 서원을 확인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여 논지를 전개하면서 연대기자료, 文集, 實記, 고문서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道統論(도학적 계보)이 내포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원은 도통의식과 사승의식이 연결되었을 때 지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논산지역에서 학문 계보가 정립된 내용이 수록된 서적이거나, 학파를 결집하게 하는 문집 등의 도서 간행 사업은 없었는지요. 논산지역 가문 및 학파의 도통의식이 체계화된 문헌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보다 직관적으로 서원 건립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서원을 건립한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논산지역의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까지를 주로 분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립을 주도했던 가문과 이후 해당 서원에서 주로 활동하고, 서원을 운영했던 가문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더불어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은 지역의 首院에 해당하는 서원입니다. 따라서 그 운영 방식도 논산지역의 다른 서원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이 강학활동이나 향사의례 등에서 실제 다른 서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면 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파평윤문의 종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연산현과 노성현의 재지사족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파평윤문이 운영한 종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학은 문중에서 가문의 자제들을 교육하기 위한 운영되는 곳으로 강학활동과 함께 향음주례 등의 의례도 시행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학과 향사가 이루어지는 서원과도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학에서 발전하여 陞院된 사례는 없었는지, 개별 가문에서 운영한 종학과 서원에서 상호간 유사한 學規 및 운영 규정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

송석현(경북대)

- I. 머리말
- II. 17세기의 서원의 건립 양상
- III. 18세기 서원의 건립과 운영
- IV. 맺음말

## I. 머리말

서원은 조선시대 교육기관이자 향촌 사족들의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서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서원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반 사항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개 서원의 구체적인 실체 역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sup>2)</sup>

다만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 성과에 비해 하나의 군현 단위에서 서원의 전반적인 양상을 정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배층인 사족들의 활동 중심으로 서원의 건립에서 운영, 변화 등 전반적인 모습에서 사족들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서원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군현 단위의 지역에서 서원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서원의 건립을 주도하는 사족들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서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영남에서도 상주지역의 서원 건립 양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영남은 가장 많은 서원이 건립되었으며 자료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많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영남 지역 서원에 대한 연구가 서원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개별서원의 사례연구는 대부분 영남지역의 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sup>3)</sup>

그 가운데 상주는 안동과 함께 영남의 대읍으로 인조반정 이후에는 한동안 정치적·학문적으로 영남을 대표하기도 하였다.<sup>4)</sup> 동시에 환국 이후 서인계·노론계 사족들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기도 하였다.<sup>5)</sup> 그러나 상주 지역 개별 서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서원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다.<sup>6)</sup>

1)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景仁文化社, 2007;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정순우, 『서원의 사회사』, 태학사, 2013 등이 있다.

2)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129~130쪽.

3)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120쪽.

4) 오수창,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한국사론』 13, 1985;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5) 김학수, 앞의 글, 2007;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6) 상주 서원 연구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 사학보』 79, 2016;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17~18세기 상주지역 서원들의 건립과 운영 양상을 정리하여 상주 지역 서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만 서원의 특징을 정리할 때에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서원의 건립과 제향 및 추향, 궐첩과 복설 등의 사항에 중점을 두고 다루도록 하겠다.

## II. 17세기의 서원 건립 양상

조선시대 상주는 읍의 규모에 비해 사족들의 성장이 늦었다. 특히 지역의 토성 사족들보다는 타읍에서 이주한 사족들이 많았다.<sup>7)</sup> 이 때문인지 서원의 건립 역시 늦어져서 1606년이 되어서야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이 건립되었다. 서원이 향촌 사족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sup>8)</sup> 상주 사족들의 결집이 다른 지역보다는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상주의 서원>

명칭	건립연대	제향자	추향	사액	위치(상산지)	비고
道南書院	1606 (선조39)	鄭夢周, 金宏弼, 鄭汝昌, 李彦迪, 李滉	盧守愼(1617), 柳 成龍(1631), 鄭經 世(1636)	1676 (숙종2)	주 동쪽으로 20리	
玉成書院	1631 (인조9)	金得培, 申潛	金範(1647), 李垸 (1647) 李堧(1710)		주 남쪽 30리 西山 북쪽 기 슭	
近岳書院	1664 (현종5)	洪彦忠, 李德馨	金弘敏(1693), 洪 汝河(1693) 李渠(1786), 李萬 敷(1786), 權相一 (1786)		주 북쪽 樹介 村	
花岩書院	1692 (숙종18)	金安節, 金濤	成灝(1747~69), 申碩蕃		주 동쪽 20리	
興岩書院	1702 (숙종28)	宋浚吉		1705 (숙종31)	露岳 동쪽 기 슭	
淵嶽書院	1702 (숙종28)	朴彦誠, 金彦健, 康應哲	金覺, 趙光璧, 康 用良(1726)		주 남쪽 陽山 리	
涑水	1703	孫仲墩, 申祐	金宇宏(1730), 趙		단밀현 서북	

-], 『한국서원학보』 12, 2021; 이병훈, 「16~18세기 近岳書院의 변천-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 71, 2019; 이병훈,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嶺南學』 73, 2020;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2019; 김순한,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2019; 김순한, 「조선후기 사주 白玉洞影堂의 운영과 陞院」, 『민족문화논총』 79, 2021; 채광수, 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7)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79, 92~95쪽.

8) 정만조, 앞의 책, 1997.

書院	(숙종29)		靖(1703), 趙翊 (1826)		1리	
鳳山 書院	1708 (숙종34)	盧守愼, 沈喜壽, 成允諧	丁好善, 金弘微, 曹友仁, 黃翼再		주 서쪽 鳳凰 山 아래	정 호 선 상 주 목 사
西山 書院	1708 (숙종34)	金尙容, 金尙憲	金祖淳(1855)		주 서북쪽 수 리	
雲溪 書院	1711 (숙종37)	成灝, 申碩蕃, 趙根, 申碩亨, 成汝樞, 金三樂	成灝(1784~86)		주 서쪽 50리	
玉洞 書院	1714 (숙종40)	黃喜, 全湜	黃孝憲(1746), 黃 紐(1746)	1789 (정조13)	牟東 白玉峰 아래, 주 서쪽 60리	
孝谷 書院	1724 (경종4)	宋亮, 金冲, 高 仁繼, 金光斗			주 남쪽 孝谷 山아래	
芝岡 書院	1745 (영조21)	鄭國成, 趙又新, 曹希仁, 趙挺融			주 북쪽 30리	
洛巖 書院	1745 (영조21)	金聃壽, 金廷龍, 金廷堅			주 동쪽 20리	
愚山 書院	1796 (정조20)	鄭經世	鄭宗魯			
熊淵 書院	1798 (정조22)	蔡貴河, 蔡壽, 蔡紹權, 蔡得沂			주 북쪽 60리	
鳳崗 書院	1817 (순조17)	姜淮衆, 姜詞				

서원들의 건립 양상을 보면 17세기에는 도남서원, 옥성서원, 근암서원이 3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건립되었다. 화암서원은 1692년에 건립되었지만 이후 서원 건립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18세기 서원 건립의 양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의 세 서원을 17세기 건립 서원으로 분석하고, 이후의 서원들은 18세기 서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상주의 사족들은 16세기 중반부터 각종 계를 결성하였다.<sup>9)</sup> 그러나 향촌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로 보인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쟁 기간의 의병 활동은 사족들에게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이 되었고, 전후 복구과정을 주도하며 사족의 결집과 향촌사회의 주도권 장악을 이룰 수 있었다.<sup>10)</sup>

상주에서는 16세기에 계를 결성한 사족 가문들이 주축이 되어 洛社契를 결성하였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는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인 存愛院 건립을 주도하였다.<sup>11)</sup> 이들은 주로 상주 읍치의 남쪽인 남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향사당 건립, 향안의 복구 등을 주도하였다. 이들 낙사계 사족들이 주도가 되어 상주 최초의 서원인 도남서원을 건립되었

9) 존애원 관련 자료를 보면 병인계, 무인계, 낙사계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 상주문화연구소, 『存愛院』, 文昌社, 2005.

10) 정진영, 임란 전후 상주지방사족의 동향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1998

11) 한기문,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 설치의 배경과 의의」, 『尙州文化研究』 10, 2000; 우인수,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 기능」, 『대구사학』 104, 2011.

다.

도남서원의 건립은 1605년 4월 송량, 김각, 윤진, 정경세, 조정, 이전, 이준, 강응철 8인이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의 5현을 모시는 서원을 건립하기 위해 논의한 이후 정경세가 통문을 돌리면서 시작되었다.<sup>12)</sup> 이때의 8인 가운데 조정을 제외하면 모두 낙사계에 함께 참여한 인물들이다. 이후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면서 참여하는 인원은 계속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30여명이 함께하였다.<sup>13)</sup>

상주에서 최초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인 만큼 지역 사족들의 공론이 결집하였다. 창건을 알리는 통문은 정경세가 짓고, 서원의 규약은 낙사계의 규약을 만든 송량이 작성을 주도하였다.<sup>14)</sup> 서원의 위치와 배치, 이름 등은 유성룡과 협의하여 정하였다. 건물이 완성된 이후 사당의 상량문은 정경세가 짓고, 강당의 상량문은 이준이 지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경세는 도남서원을 통해 서애계를 결집하고 퇴계의 문인들 가운데 그 위상을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15)</sup> 하지만 표면적으로 상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서원에 상주 사족의 공론이 합치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도남서원은 이후 추향의 과정에서 사족들 사이에 견해차가 발생하였다. 1617년 노수신을 입향하는 과정에서 노수신의 위차 등의 문제로 강좌 사람들이 반발하였고, 상주 사족 중에서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결국 정경세의 중재로 배향으로 이루어졌다.<sup>16)</sup> 1631년에는 유성룡을 배향하고 1635년에는 정경세가 추향된다.

정경세의 추향 과정에서도 정경세 문인들의 독단적이고 돌발적인 진행으로 인해 강좌의 사람 뿐만이 아니라 조정을 대표로 하는 상주 지역내에서의 반대 여론도 있었다.<sup>17)</sup> 당시 상주 사족들의 다수가 유성룡의 문인이라는 점에서 학봉 김성일과 가까운 조정은 다른 사족들과는 견해를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그렇지만 정경세의 학문적, 정치적 위상으로 추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도남서원 제향 과정에서 제문을 작성한 인물들을 보면 5현을 봉안하는 봉안문은 정경세가 직접 작성하였다. 이후의 추향에서 노수신과 유성룡의 고유문은 이준이 쓰고, 정경세의 배향 제문은 전식이 작성하였다. 스승인 유성룡의 조언이 있다고는 하지만 서원 건립의 발의와 진행, 이후의 문자 작성에서 상주 사족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12) 『愚伏集』 卷14, 雜著「道南建院通文」, ‘士子進學之功, 莫甚益於群居講習, 後生崇道之典, 莫甚大於尊事先賢, 此書院之所以設, 而今古之所共由也, 吾南書院之盛, 甲於吾東, 殆至於比邑有之, 而吾鄉獨闕焉, 豈不爲一邦之大欠事而多士之所深歎耶, 恭惟國朝儒賢, 四先生之出皆在是道, 後生末學, 雖不及樞衣親炙於函丈之間, 而聞見敬慕之誠, 比之遠方, 尤益親切, 今欲選地於有洛之涘, 營立書院, 以寓羹牆瞻想之懷, 此係斯文大舉, 須與同志共議, 以重其謀始之事, 茲就各面別定有司, 文到宜徧告面內諸君子, 以五月初七日來會于玉成洞書堂, 幸甚, 嗚呼, 秉彝好德, 有生之所同, 會友輔仁, 吾儒之至樂, 想所樂聞, 故茲奉告’

13) 도남서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道南書院創設稷案」에는 1605년 238명의 인물이 참여하였다. 이후 1656년까지 추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총 423명이 기록되었다.

14) 『愚伏集』 卷14, 雜著「道南建院通文」

15) 김학수, 앞의 글, 2007.

16) 『愚伏集』 卷13, 書「答道南山長丁已」, ‘承示諭, 斯文盛禮, 一鄉大事, 乃生出一節拍, 極爲未安. 但反復令城主書則非有他意, 但慮寒岡之意實不快於從享, 而故爲宛轉於已定之鄉論耳. 若然則寒岡之意必不如此. 而又安有不悅者相唱和之理. 恐牧令公親切之情過爲疑慮耳. 今既稟問於隣邑. 通諭於一鄉, 盛禮之舉只隔一宿. 而遽爲停止, 則傳播之說, 紛紜百端, 不可以戶說, 而開端作矣. 豈非不幸之甚乎. 令公之意果歉於從享, 而使之姑停, 則決然行之果爲未安. 今既無此語則何可揣探其意而停止耶. 今但以必無是慮之意洞陳於前, 繼以遽停生聞之意詳說於後. 則令城主過慮之疑將必釋然. 何嘗有固必耶. 淺見如此, 惟願熟思細商, 使無後悔, 至善至善. 未由面論, 脈脈’

17) 『溪巖日錄』, 「乙亥 10月 1日」

18) 일반적으로 조정은 김성일의 문인으로 보고 있으며, 김성일의 형인 김극일의 사위이다.

초반 영남에서 상주 사족들의 학문적,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상황과 사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도남서원의 성격은 이후로도 계속 유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 상주에 많은 서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도남서원은 상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기능하였고, 여러 사족 가문의 참여가 계속 이루어졌다.<sup>19)</sup>

도남서원에 유성룡을 추향하던 1631년 상주 읍치의 남쪽 지역인 청리에 옥성서원이 건립되었다. 옥성서원은 김득배와 신잠을 제향하였다. 김득배는 상산김씨 가문으로 고려 말 홍건적을 토벌하여 공신에 책봉되었다. 이후 모함에 빠져 상주에서 효수되었으나 누명이 벗겨지고 上洛君에 봉해졌다. 신잠은 1553년부터 상주목사로 재직하며 18개의 서당을 건립하였다. 이 서당들은 조선 후기 상주 사족들의 활동 중심지가 되고 서원으로 승원하거나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주 사족들에게는 유성룡과 함께 상주의 학풍을 진작시킨 인물로 숭상받았다.

서원 건립은 홍양이씨 이전, 이준 형제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은 당시 정경세와 함께 상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었다.<sup>20)</sup> 서원 건립이 논의된 수선서당이 두 형제가 강학 등의 활동을 하던 곳이며 서원의 위치 역시 홍양이씨 가문의 세거지와 가까운 청리지역이었다. 이 가문은 형제의 부친인 이수인(李守仁)이 상산김씨와 혼인을 하며 상주 사족들의 계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런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홍양이씨 가문이 김득배를 제향한 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옥성서원과 관련된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건립의 명분이나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건립 과정에서 일어난 논의를 통해 일부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옥성서원 건립 논의는 1630년 首善書堂에 신잠의 사당을 세우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준이 작성한 기문에 의하면 신잠은 상주목사로 재직하며 서당을 창건하여 향촌 사회에서 학문을 일으켰다는 명분이 있었다. 김득배의 경우에는 왜적을 토벌하는 공로가 가장 크며 무엇보다 지역 출신의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이준은 ‘우리 고을은 文物의 고향인데 지금까지 전대의 현인을 정려한 곳이 없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여 상주 출신의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 건립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sup>21)</sup>

신잠은 수령으로서 학문을 일으킨 공로로 서원 제향의 명분이 뚜렷하였고 당시 신잠의 외손인 이명(李溟)이 경상감사로 재직하며 사당의 건립에 경비와 노비 등을 지원하여 사족들의 여론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2)</sup> 하지만 김득배의 경우 상주 사족의 일부가 반대한 정황이 보인다.

반대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은 강응철로 정경세, 이준 등과 함께 유성룡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의병, 낙사계, 준애원, 도남서원 건립 등의 주요 활동을 함께 한 인물이다. 강응철은 김득배가 서원에 제향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명분으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은 강응철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금의 사당에 모시는 도는 하나가 아니어서 혹은 효행 · 충직 · 절의 · 도학으로 하기도 하고, 혹은 국가에 공이 있거나 백성들에게 은택이 있

19)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20) 이준은 사당의 기문과 신잠과 김득배의 봉안문, 축문을 작성하였고, 이후의 논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21) 『蒼石集』 卷10, 書「答康明甫」, ‘以吾州文物之鄉, 至今無前賢旋異之地, 非此地之無人也’

22) 『洛史彙纂』 「兩先生祠記」 ‘崇禎辛未秋, 方伯李公溟以書而抵愚伏諸公曰, 聞本州諸老, 欲爲先賢立祠, 而患財力之詘, 敢以若干財而佐其經費, 且將應役之隸爲廟僕, 盖公於靈川爲外孫也’

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득배의) 고사를 살펴보면 그 사항이 하나가 아니며 후세에게 모범이 되어 일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서원 제향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sup>23)</sup> 동시에 조정에게도 같은 논지의 편지를 보내어 강응철을 설득하기를 청하였다.<sup>24)</sup>

정경세는 기본적으로 제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신잠의 외손인 이명이 감사를 그만둔 후에 추진하는 것을 권하였다.<sup>25)</sup> 무엇보다도 정경세는 당시 유성룡의 도남서원 제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주의 향론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시 상주를 대표하는 이전, 이준, 전식 등의 노력에도 논의가 시작된 이후 3년이 지난 1633년에야 서원이 건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득배의 제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김득배의 후손인 김범을 서원에 추향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김범은 상주 사족들에게 있어서는 학문의 스승이자 혼인 관계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sup>26)</sup> 따라서 일부 사족들은 김범의 제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인 김득배의 아래에 김범을 모실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서원 건립 당시의 반대 역시 김득배는 무인이라는 인식이 큰 장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은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김학사는 무인이다'라고 한 것을 두고 학사라는 용어 자체가 유학자인 관리가 칭환직의 후보로 뽑힌 것을 말하는 것이니 무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정몽주가 문하생을 칭하였다고 반박하였다. 동시에 정경세 등이 사당을 세우기로 논의한 것이 김득배의 사업과 충절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sup>27)</sup>

전식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김득배를 변론하는 글을 지었다. 김득배의 관직이 정당문학이니 무인이 아니고, 정몽주의 시를 근거로 하여 유학자로서 도원수가 되었으며 이미 제향이 되었는데 저렇게 시끄러운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sup>28)</sup>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 김범의 추향은 이준과 함께 1647년에서야 이루어졌다. 옥성서원은 1648년 서산의 산사태로 인해 건물이 문혀 위판만 보전하여 수선서당으로 이안하였다. 1710년 다시 중건하면서 이전을 추향하였다.<sup>29)</sup>

서원의 창건을 사실상 주도한 이준은 사당의 기문을 작성하고, 김득배와 신잠의 봉안문과 축문을 직접 작성하였다. 김범과 이준을 추향할 때에는 한극창(韓克昌)이 봉안문을 쓰고 강용량(康用良)이 축문을 썼다.

한극창은 존애원 건립과 운영에 함께 참여한 한서(韓瑞)의 아들이고, 강용량은 강응철의 아들이다. 청주한씨 가문은 향사당 건립, 의병 참여, 낙사계와 존애원 참여 등 상주 사족으

23) 『蒼石集』卷10, 書「答康明甫」, '古今之祠, 非一道, 或以孝行, 或以忠直, 或以節義, 或以道學, 或有勲業於國家, 或有惠澤於生民, 考諸古事, 其類非一, 無不標表一世以矜式後人'

24) 『蒼石集』卷10, 書「與趙安仲」, '近聞康明甫有入享未妥之語, 或恐不識先生之大忠大功大冤者, 亦偶有此見欲望兄將此議說破也'

25) 『洛史彙纂』「愚伏先生言行錄」, '且有遺愛, 父老有享祀之議, 全沙西在慶州, 致書先生, 叩以此事, 先生亦以爲可, 而以非其時答之, 時靈川外孫李溟爲南帥, 先生之意, 蓋欲待李之歸而從容爲之也'

26) 권태을, 「后溪·西臺·愚谷·石川 先生の 敎學이 尙州儒學史에 끼친 영향」, 『后溪 金範·西臺 金沖·愚谷 宋亮·石川 金覺 先生の 尙州儒學史上 存在意義』, 2012; 姜貞和, 「后溪 金範의 學問性向과 士意識」, 『南冥學研究』10, 2000.

27) 『月澗集』卷2, 書「與全淨遠」, '所謂學士, 乃是儒官之清選, 非武人之所得稱也, 又圃隱先生乃其門生, 而其詩又有書生合討文之句, 事蹟明白如此, 當初愚伏諸公之議立祠尊奉者, 以其事業忠節之可觀也'

28) 『洛史彙纂』〈辨疑〉戊寅 '金蘭溪得培入賢祠之後, 俗儒或以爲武人而譏之, 譏其位次亦在靈川之上云云, 其官是政堂文學, 則非武人明矣, 況鄭圃隱詩曰, 公本書生合討文, 柰何提劍掌三軍, 忠魂毅魄今安在, 回首青山空白雲, 則以儒而爲都元帥者也, 忠魂毅魄字, 亦甚有力, 況今已享之事, 不當如彼囂囂也'

29) 『洛史彙纂』「謹書玉成事蹟後」

로서의 지위가 굳건하였다. 하지만 1710년 이전을 추향할 때에는 봉안문은 안동의 권두인이 쓰고 축문은 안동 출신으로 상주 산양지역으로 이거한 김해가 썼다.

옥성서원을 건립은 이준의 글에서도 나타나듯 상주 출신의 인물을 제향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도남서원은 영남 출신의 5현을 제향하며 1636년 정경세의 추향 이전까지는 상주라는 지역을 상징하는 면모가 오히려 약했다면 옥성서원은 지역 출신의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라는 정체성이 강하였다.

근암서원은 옥성서원 건립 후 약 30년이 지난 1664년 상주의 북쪽이자 현재의 문경 지역인 山陽에 건립되었다. 임진왜란 도중에 불타버린 근암서당을 산양지역의 학풍을 일으키기 위해 1615년 복원하였다. 1653년 이구(李渠)가 우암(寓庵) 홍언충을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는 내용의 통문을 상주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서원 건립의 논의가 시작되었다.<sup>30)</sup>

당시 산양지역의 사족들을 제외한 상주의 사족들은 이미 도남서원과 옥성서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서원 건립은 편하지 않으니 옥성서원에 합향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1)</sup> 이때 향교의 상유사는 한극성과 황빈이고, 도남서원 원장은 전극녕, 옥성서원 원장은 정현세이다. 모두 낙사계에 함께 참여하면서 도남서원과 옥성서원의 건립과 운영을 주도하던 가문들의 후손들이었다.

이들과 달리 근암서원의 건립을 주도하던 사족들은 상주 북쪽의 산양지역에 세거하는 가문들이었다. 다만 산양지역의 사족 가문은 부림홍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7세기 초반에 이주하였다. 장수황씨는 상주의 대표적인 사족 가문이나 17세기 초반 황정간(黃廷幹) 대에 산양지역에 자리를 잡았으며 전주이씨 이구는 황정간의 외손자로 병자호란 이후 산양에 정착하였다. 안동권씨 권구 역시 17세기 중반에 산양으로 이주하였다. 산양의 사족 가문들과 주변 함창, 용궁의 인천채씨, 옥천전씨 등이 근암서원의 건립에 참여하였다.

결국 상주 사족들의 반대로 인해 사당 건립 논의는 1664년에야 다시 시작되었다. 이를 주도하던 전명룡은 목사에게 글을 보내 지금 짓는 것은 조정에서 금지한 서원이 아니라 복원된 서당에 사당을 짓는 것이니 일꾼의 지원을 요청하였다.<sup>32)</sup> 서당 완공 이후에는 묘지기와 고지기의 면역을 위한 완문을 요청하고 있다.<sup>33)</sup> 다만 실제적인 서원으로의 승원은 1669년 이덕형을 제향하면서 예조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당이 완공 된 이후 그 상황을 향촌에 알리는 통문에서 홍언충의 후손인 홍여하는 ‘우리 고을의 서원은 도남서원 이외에 옥성서원이 있는데 事體로써 말하자면 우암의 사당이 옥성의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서원의 건립을 반대한 도남서원과 옥성서원 측에 대해 산양지역의 사족으로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건물이 완성되고 홍언충의 봉안문은 김응조(金應祖)가 이덕형의 봉안문은 홍여하가 작성하였다. 홍여하는 사당의 상량문도 직접 작성하고, 서원의 향사에 앞서 허목에게 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34)</sup> 본인의 선조를 모시는 서당의 건립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나

30) 『近嵩書院創建錄』 「癸巳四月通本州文」

31) 『近嵩書院創建錄』 「答通」 “第念一州三處立祀事，涉未安，似不可別設，願是玉成，亦一鄉賢奉安之地，他日合享，未知如何”.

32) 『近嵩書院創建錄』 「甲辰七月日呈牧伯文」

33) 『近嵩書院創建錄』 「甲辰十月呈牧伯文」.

34) 『木齋集』 권4 書 「擬上許眉叟」 ‘某白，鄉曲疏闊，未遂納拜之願，傾嚮則有素矣，伏惟a124\_390d秋涼，尊道體起居加衛，煩恐，尙州山陽縣近岳地，有水石之勝，申靈川牧尙時，就建書堂，頃年，構廟屋，祀寓庵洪先生，因號近岳書院，寓庵，乃某高叔祖，茲者，尙之儒士，謂漢陰李先生，亦吾鄉人也，鄉諸老與李先生同時者，皆有尸祝之所，而獨李先生無之，寔儒林欠事，與寓庵并祀近岳爲宜，議以克合，將以

서지는 않았지만 건립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흥여하는 1693년 김홍민과 함께 추향이 이루어진다. 이때 봉안문은 안동인 권유(權愈)가 짓고 고유문은 예안인 김태일(金兌一)이 작성하였다. 1786년 이구, 이만부, 권상일을 동시에 추향할 때에는 조식철, 유종춘 등이 제문을 작성하였다. 서원 건립과 추향 과정에서 안동권 사족들의 참여가 많이 보이고 있다.

근암서원은 건립 이후 상주 북쪽 지역 사족들의 결집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남서원이 상주를 대표하는 서원이라는 상징성으로 향교와 함께 사론의 통합을 이루는 곳이라면 옥성서원은 남쪽 지역의 사족을 대표하고 근암서원은 북쪽 지역의 사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였다.<sup>35)</sup>

도남서원과 옥성서원의 건립과 추향 등의 과정에서 그 주체는 상주의 사족들이었다. 논의가 발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상주 사족들 사이의 의견 수렴과 대립이 중점이었다. 하지만 근암서원의 경우 상주 읍치에서의 거리가 멀고 사족들의 정착과 확산이 상주의 다른 지역보다는 늦은 만큼 산양 주변의 사족들과 함께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안동지역 사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른 서원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 III. 18세기 서원의 건립과 운영

17세기 상주에서는 1606년 도남서원이 건립된 이후 1692년 화암서원이 건립되기까지 옥성서원과 근암서원만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화암서원 건립 이후 1725년까지 30여년 사이에 임호서원, 홍암서원, 연악서원, 속수서원, 봉산서원, 운계서원, 서산서원, 옥동서원, 효곡서원이 연달아 건립된다. 이후에도 18세기에는 지강서원, 낙암서원, 우산서원, 봉강서원이 꾸준히 건립되었다. 사실상 상주의 서원 대다수가 18세기에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상주에서는 서원 건립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인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건립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는 문중서원들이 건립되는 가운데 서원의 운영과 추향, 사액 등에서 가문을 연계로 하여 중앙 관료의 지원을 받는 서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17세기에 건립된 도남서원, 옥성서원, 근암서원은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주향으로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sup>36)</sup> 이후 상주 사족들은 지역 인물들을 제향하는 祠宇의 건설에 집중하였다. 1653년에는 홍언충을 제향한 鄉賢祠, 1656년에는 손중돈의 생사당을 복원하며 신우을 함께 모신 景賢祠, 1685년에는 송량을 제향한 世德祠를 건립하였다. 그리고 1688년에는 봉산서당에 노수신의 사당을 건립하였다.

이때 건립된 사당 가운데 17세기에 서원으로 승원된 것은 홍언충을 제향한 향현사뿐이다. 향현사는 근암서원으로 승원을 추진하면서 일부 상주 사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후 이덕형을 함께 제향하며 서원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는 사족층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37)</sup>

---

今十一月上丁，舉緦禮，而侑食之文，需執事屬筆，然後慊於多士之心，故使某敢再拜以請，伏惟執事，特賜肯諾，惠以高文，以賁斯文盛舉，如何，不勝懇祈之至’

35) 청대일기를 보면 강학 등과 함께 상주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두 서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인다.

36) 도남서원은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이언적, 이황, 옥성서원은 김득배, 신잠, 근암서원은 홍언충, 이덕형을 제향하면서 건립되었다.

37)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2005.을 보면 근암서

이렇듯 상주의 기존 서원들은 지역 인물을 제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건립된 사당들도 17세기 동안은 서원으로 승원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서원의 건립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692년에야 화암서원의 건립을 기점으로 다수의 서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화암서원 이후에 건립된 서원들은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주향으로 하고 있다. 주로 중종대 사림정치가 활동한 인물들과 선조-인조대 활약한 인물들이 그 대상이다. 1692년 건립된 화암서원은 상산김씨 김안절(金安節)과 김도(金濤)를 제향하였다. 1702년에는 연악서원과 홍암서원이 동시에 건립되었다. 상주 중심의 갑장산 인근에 위치한 연악서원은 박언성(朴彦誠), 김언건(金彦健), 강응철(康應哲)을 제향하였고, 홍암서원은 정경세의 사위인 송준길(宋浚吉)의 독향처였다. 1703년에는 단밀 지역에 손중돈(孫仲墩)과 신우(申祐)를 제향한 속수서원이 건립되었다. 1714년에 건립된 옥동서원에는 황희(黃喜)와 전식(全湜)을 제향하였고, 효곡서원에는 송량(宋亮), 김충(金冲), 고인계(高仁繼)를 제향하였다. 제향인을 보면 홍암서원의 송준길과 속수서원의 손중돈을 제외하면 모두 상주 출신으로 사화와 관련이 있거나 선조-인조대 활동한 인물들이었다.

새로운 서원의 건립과 함께 추향도 여러 서원에서 진행되었다. 17세기 전반에 건립된 옥성서원은 1710년 이전을 추향하였고, 근암서원에서는 1693년 김홍민, 홍여하를 추향하였다. 뒤늦게 건립된 서원들에서도 추향이 이루어졌다. 연악서원은 1726년 김각, 조광벽, 강용량을 추향하였고, 속수서원은 1730년 김우평과 조정을 추향하였다. 옥동서원은 1746년 황효헌과 황뉴, 효곡서원은 1786년 김광두를 추향하였다. 이때 추향된 인물들은 대부분 선조-인조대 활동한 사족들로 17세기 이후 상주 사족의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가문 출신들이다.

도남서원 이후 옥성서원과 근암서원의 건립을 거치며 상주 사족들은 더 이상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서 도남서원과 같은 지역 사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는 어렵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서원 건립 양상은 17세기와는 차이가 있다. 거주지가 비슷한 몇몇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 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주라는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서인계 사족들이 영남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서원을 건립할 수 있게 하였다.

상주지역은 17세기 후반 예송과 문묘종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남에서 서인계 사족들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sup>38)</sup> 상주의 서인계 사족은 17세기 초반부터 정착하여 재지적 기반이 굳건하였으며 다른 사족들과의 교유 관계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은 17세기 후반 당파간의 대립 상황에서 영남 서인계 사족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특히 숙종대에는 원사 건립의 남설현상이 나타났고, 1694년 갑술환국 이후에는 서인계 서원에 대한 사액이 남발되었다.<sup>39)</sup> 상주 서인계 사족은 중앙 서인계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시행된 시기에 향촌 사회의 기반과 17세기 정치적 활동을 통한 서인계 집권층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상주에 서인계 서원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1692년 건립된 화암서원은 상주에서 서원 건립이 확산되는 시기의 첫 번째 서원으로 서인계 사족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주에서 상산김씨는 많은 분파가 존재하였고 다양한 가문과 혼인을 하였다. 그 가운데 김안절과 김도가 속한 전서공파는 인천채씨,

---

원 건립에 부조를 한 사족들은 산양 주변의 사족들뿐으로 재원의 부족으로 목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8) 김학수, 『17세기 영남학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39)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141~154쪽.



창녕성씨, 평산신씨와의 교유와 혼인이 두드러졌다.<sup>40)</sup> 서원을 건립하며 봉안문은 성만징(成萬徵)이 작성하였고, 상량문과 축문은 채하징(蔡河徵)이 작성하였다.<sup>41)</sup> 성만징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이자 강문8학사의 한 사람으로 1704년 만동묘의 향사를 둘러싼 문제에서 송시열을 변론하였다.<sup>42)</sup> 채하징은 송시열의 예론을 옹호하는 상소의 대표자로 이 상소로 인해 경흥으로 귀양을 다녀온 인물이었다.<sup>43)</sup> 이들은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계 가문 출신으로 특히 성만징은 당시 상주만이 아니라 영남의 대표적인 서인계 사족이라 할 수 있다.<sup>44)</sup> 상산김씨는 상주의 대표적인 토성 사족으로 상주에서 다양한 계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제향된 김안절과 김도는 당색과는 무관하지만 김안절이 판곡 성윤해(成允諧)와 교유가 있는 것으로 창녕성씨가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재지적 기반이 굳건한 상산김씨와 당시 관과 중앙과의 교유관계가 넓은 서인계 사족들이 함께 서원을 건립한 것이다. 화암서원은 18세기 중반에 성람과 신석번을 추향하며 서인계 가문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서원을 건립하게 된다. 1702년 홍암서원의 건립은 화암서원 건립에 참여한 바 있는 성만징을 중심으로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이 주도하였고, 송시열과 함께 양송(兩宋)으로 일컬어지는 송준길을 제향하는 만큼 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졌다.<sup>45)</sup> 특히 성만징은 권상하와 협의하며 서원 건립 논의에서부터 봉안과 사액, 경원장 위촉 등을 주도하였다.<sup>46)</sup> 홍암서원은 원장직을 권상하, 이재, 유척기 등 송시열의 문인들이던 중앙의 고위 관직자가 맡고 일유사·이유사가 존재하는 등 전형적인 서인계 서원의 운영을 보이고 있다.<sup>47)</sup> 홍암서원의 운영에는 창녕 성씨가 많이 참여하게 되며 18세기 후반에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진다.

홍암서원을 기반으로 서인계 사족들은 곧바로 1711년에 지역 출신인 성람(成瀾)과 신석번(申碩蕃)을 제향하는 윤계서원을 건립하였고, 2년 뒤에는 김상용과 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산서원을 건립하였다.

윤계서원은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계 가문인 창녕성씨와 평산신씨가 자신들의 선조를 모신 서원이다. 성람은 정경세, 이준 등과 함께 활동한 창녕성씨의 상주 입향조이며, 신석번은 정경세의 문인으로 17세기 중반 송준길에 의해 산림으로 추천되기까지 한 인물이다.<sup>48)</sup> 결국 윤계서원은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이 선조의 현창을 통해 지역에서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중앙의 서인 관료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윤계서원의 상량문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문인인 임방(任墜)이 작성하였다.<sup>49)</sup> 성람의 봉안문과 축문은 송시열의 5대손인 송환기(宋煥箕)가 작성하였고, 신석번의 봉안문은 세마(洗馬)를 역임한 이담(李檀), 축문은 권상하(權尙夏)가 작성하였다. 송환기가 쓴 봉안문에서는

40) 『商山金氏大同譜』

41) 『洛涯遺稿』, 「花巖書院事蹟」

42) 『秋潭集』, 「萬東祠是非辨」

43) 『肅宗實錄』 4년 7월 2일, 7월 5일 기사

44)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45) 홍암서원의 건립과정에 대해서는 채광수, 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참조

46)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2007, 108~109쪽.

47) 홍충보준위원회, 『홍암서원지』, 「임원록」

48) 우인수, 『조선후기 산림세력 연구』, 일조각, 1999; 송준길은 이조판서, 좌찬참으로 있으면서 영남의 인물로서 신석번을 여러 차례 추천하였다.

49) 임방의 모친은 상산김씨 김상(金商)의 딸이기도 하다.

성암 학문의 연원을 이이에게 두고, 그가 상주에 정착함으로 자손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하여 상주에 대한 애정과 지역성을 강조하였다.<sup>50)</sup> 임방의 상량문에서도 신석번의 학문이 성혼과 이이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동시에 정경세, 이준과의 종유를 언급하고 있다.<sup>51)</sup> 두 사람 모두 학문으로는 이이에게 연원이 있음을 밝히면서도 상주 향촌 사회와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당시 상주 서인계 사족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산서원에 제향된 김상용과 김상헌은 상주와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김상용은 정경세, 이준과 함께 문과에 합격한 동방으로 1604년 상주목사로 재직하며 상주 사족들과 많은 교유를 하였다. 김상헌은 존애원에서 도를 닦고 유교를 장려하였으며, 이러한 명분을 통해 두 사람을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될 수 있었다.<sup>52)</sup>

서산서원의 건립에는 청도김씨가 주축이 되고 창녕성씨의 지원 속에 관의 후원이 있었다. 1708년 처음으로 서원 창건을 발의한 김필천(金必千), 서원이 건립된 직후인 1713년 청액소를 올린 김필수(金必粹)는 모두 김삼락(金三樂)의 아들이다.<sup>53)</sup> 김삼락은 정경세의 문인인 김백일의 후손이지만 신석번, 신석형 형제와 교유하고 창녕성씨를 후처로 맞으며 서인계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창녕성씨의 참여는 서산서원의 이건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1797년 김상용의 7대손인 목사 김재순(金在淳)의 지원 속에 송명흥(宋明欽)의 문인인 성최열(成最烈)과 성재열(成載烈)이 이건을 주관하였다.<sup>54)</sup> 오히려 서산서원은 이 과정에서 창녕성씨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된다. 19세기 사액을 받을 때에는 목사가 겸직하는 일유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창녕성씨가 맡고 있으며, 성달원은 홍암서원과 서산서원의 원임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서인계 사족들은 세 서원을 연이어 건립하며 지역에서 활동 거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앙의 관료들과 지방관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다만 세 서원의 위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홍암서원은 중앙 정부에서나 지방에서나 그 위상이 확고하였고, 서산서원은 중앙의 인식이 높았으며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액도 받았다.

반면 운계서원은 두 서원에 비해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1719년 서원 훼철에 대한 논의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예조판서 민진후는 3월 28일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 이후에 새로 건립한 서원에 대한 폐단을 아뢰었고, 이후 영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민진후는 상주에서 충렬사, 연악사 등은 철거하기로 하고, 서산서원과 운계서원의 처분에 대해 왕에게 묻자 영조는 서산서원은 보존하고 운계서원은 철거하라고 하였다.<sup>55)</sup> 이에 운계서원은 훼철된 것으로 보이며 성암과 신석번은 화암서원 등 다른 서원에 추향을 하는 등 주향 서원이 없다가 1784년 운계서원이 복원되면서 다시 북향한 것으로 보인다.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에게 운계서원은 향촌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서원이었지만 중앙의 인식은 여러 남설된 서원들과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서산서원이 선정신(先正臣)을 배향했다는 명목으로 남을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차이가 상주 서인계 사족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남인계 사족들 역시 서원 건립에 적극적이었다. 먼저 속수서원은 1703년 상주의 동쪽인

50) 『聽竹先生遺稿』, 「雲溪書院奉安文」

51) 『百源集』 권6, 부록, 「上樑文[判書任堊撰]」 ‘私淑淵源 傳襲牛溪栗谷之後, 請益浸灌, 從遊愚伏, 蒼石之間’

52) 『西山書院事實』(국립중앙도서관소장).

53) 김학수, 앞의 글, 114~115쪽.

54) 채광수, 앞의 글, 63~65쪽.

55) 『書院臚錄』 숙종 45년 4월 초1일.

단밀 지역에 건립되었다. 속수서원에는 상주목사를 지낸 손중돈(孫仲墩)과 여말선초 인물인 신우(申祐)를 제향하였다.

손중돈은 그 후손인 손등이 상주에 정착한 경주손씨의 상주 입향조이며, 신우 역시 단밀 지역에 정착한 아주신씨의 입향조이다. 경주손씨는 이후 상주 사족으로서 활발히 활동하지만 아주신씨는 의성과 인접한 단밀의 특성으로 인해 의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sup>56)</sup>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건립된 상주의 서원들이 서원 주변 지역 상주권 사족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속수서원은 의성의 아주신씨들과 관련된 인물들도 참여하였다.

먼저 1656년 경현사를 건립한 이후 봉안문을 풍산의 김응조(金應祖)가 지었다. 이후 서원으로 승원하면서 상량문은 이준의 아들인 이원규가 지었다. 축문과 고유문은 신우의 후손인 신열도(申悅道)와 신적도(申適道)가 지었다.<sup>57)</sup> 특히 신열도는 장현광의 제자로 그의 권유로 의성의 읍지인 문소지를 지은 인물이다. 속수서원이 건립될 당시에는 상주의 사족들도 참여하였으나 의성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한 아주신씨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속수서원은 1730년 김우평과 조정을 추향한다. 이 과정에서 풍양조씨들이 서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풍양조씨는 일찍부터 상주에 정착한 유력 사족으로 폭넓은 관계망을 갖고 있었지만 서원에 제향인물은 아직 없는 상황이었다. 가문을 대표하는 조정, 조익 형제는 선조에서 인조대에 걸쳐 향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였지만 다시 상주 사족들이 대부분 유성룡의 제자로 인식되는 반면 조정은 김성일의 형인 김극일의 사위이자 김성일의 제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조정을 속수서원에 추향하며 봉안문은 이현일의 아들인 이재(李裁)와 17세기 후반에 상주의 노곡에 정착한 이만부가 작성하게 된다.<sup>58)</sup> 이러한 관계는 속수서원이 안동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었고, 17세기 안동에서 학봉계를 아우른 이현일과의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풍양조씨는 1730년 경상감사로 부임한 조현명(趙顯命)에게 조정의 증손인 조대운(趙大胤)의 묘표를 새로 받았다.<sup>59)</sup> 당대 세도가문인 풍양조씨와 일족이라는 명분으로 묘표를 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계는 1760년 풍양조씨 대종중의 족보를 상주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대 세도가의 지원과 안동, 의성 지역의 학봉계와의 관계망을 바탕으로 풍양조씨는 속수서원에 조정을 추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세기에는 조익의 추향도 이루어졌다. 풍양조씨의 상주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조석철(趙錫喆)은 속수서원을 중심으로 강학을 하며, 만년에는 도남서원에서도 강학을 하고, 다른 서원의 운영에도 참여한게 된다.

속수서원은 상주와 의성의 경계에 위치하여 의성의 아주신씨가 주도하였지만 18세기 중반 조정과 김우평을 추향하며 풍양 조씨를 중심으로 한 상주 사족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sup>60)</sup> 동시에 학봉계열의 안동권 사족들과의 연계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연약서원은 16세기 상주 인물인 박언성, 김언건, 강응철을 제향하였다. 강응철은 유성룡의 제자로 정경세와 동시대에 사족으로서의 활동을 한 인물이며, 박언성과 김언건은 그들의 한세대 이전의 인물들이다.

이들 가문인 상주박씨, 영산김씨, 재령강씨는 일찍부터 상주에 정착하거나 상주의 토성으로서 17세기 상주지역의 사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18세기에는 상산박씨와

56) 장필기, 「조선후기 의성 아주신씨가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한국사학회』 88, 2007.

57) 『退齋先生實記』 「奉安文」.

58) 『密菴集』, 「涑水書院奉安文」; 『息山集』, 「涑水書院奉安享賢文」.

59) 『歸鹿集』, 「處士趙公墓表」.

60) 『청대일기』에는 도남서원 재임과 속수서원 재임의 중복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영산김씨는 상주에서의 활동이 줄어들었다. 따라서 1702년 연악서원의 건립은 강응철의 후손인 재령강씨와 이준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악서원은 건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훼손이 된다. 1702년 전라감사인 민진원은 서원이 남설되는 상황에서 서원의 건립을 억제할 것을 상소로 올리게 되고 1703년에는 서원의 남설이 금지되었다.<sup>61)</sup>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앞서 언급한 1719년 예조판서인 민진후의 건의로 1703년 서원금령 이후 건립된 서원에 대해 조사하게 되고 1725년에 경상도에서 16개 서원이 훼손되었다. 연악서원이 이 때 훼손 대상에 들게 되었다.

당시 사림들이 유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직접 상언을 올리게 되었다. 상주 사족인 강만정, 성덕징, 이시우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상언은 1719년 조사 당시 훼손하지 말 것을 관리들이 정하였으나 관리들이 교체되며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이후에 훼손 대상으로 들어갔으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sup>62)</sup> 이에 예조판서 심택현(沈宅賢)은 보존하는 것으로 비변사에 계를 올렸고 연악서원은 복원할 수 있었다.<sup>63)</sup>

이 무렵인 1726년 연악서원에는 김각, 조광벽, 강용량이 추향되고 있다. 상황을 볼 때 복원과 함께 추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각은 상산김씨, 조광벽은 풍양조씨의 인물들로 모두 김언건, 강응철과 함께 활동한 인물들이며 강용량은 강응철의 후손으로 17세기 후반 활동한 인물이다. 연악서원은 상주 낙동의 주요 가문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으며 추향하는 과정에서 봉안문과 축문을 모두 풍양조씨 조석철이 작성하여 풍양조씨 가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향 이후 김언건은 그 행장을 이익에게 받고, 묘갈문은 안동의 이상정, 묘갈음기는 유주목이 작성하였다.<sup>64)</sup>

연악서원의 복향 상언에 참여한 인물을 보면 강만정은 강응철의 후손이고 이시우는 이준의 후손이다. 특이한 것은 성덕징으로 창녕 성씨인 그는 상주의 대표적인 서인계 사족이다. 1718년 송시열, 송준길의 문묘종사 상소를 올렸으며, 1725년에는 송시열의 도봉서원 복향을 청하는 상소에 참여하였다.<sup>65)</sup> 1726년과 1735년에도 중앙의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노론을 지지하는 영남의 유소에 참여한 인물이었다.<sup>66)</sup>

결국 연악서원의 복원에는 성덕징과 창녕성씨를 통한 중앙과의 인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악서원은 상주 일부 가문들이 중심이 되어 서원을 건립, 운영하였으나 18세기 서원의 난립 상황에서 운영의 한계로 인해 더 많은 가문이 참여하였고, 관이나 중앙 남인들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하였다.

갑술환국 이후 서인의 집권으로 중앙의 정계에서 소외되어 관료로의 진출이 어려웠던 영남 남인들에게 이인좌의 난은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sup>67)</sup> 그러나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통하여 남인을 등용하기 시작하면서 영남 남인들도 중앙과의 관계를 새롭게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주지역에서 18세기 전반 사족들간의 대립은 남인과 서인이라는 정치적 입장 차이를 배경으로 향촌 사회의 문제들을 두고 대립하였다. 따라서 서로 간의 세력 확장과 결집을 위해

61) 『承政院日記』 숙종29년 4월 4일 기묘.

62) 『芸亭集』, 「淵嶽書院復享時上言」

63) 『芸亭集』, 「禮曹 啓辭」

64) 『星湖全集』, 「芸亭金先生行狀」

65) 『肅宗實錄』 卷62, 11월 8일.

66) 『華齋集』 卷5 「素患錄」의 戊申日記를 보면 이증업, 이인지, 조천경, 성덕징, 성이흥 등 사족들이 참여하였다.

67) 이증환, 『擇里志』 권7, 慶尙道, ‘仁廟與栗谷李珥, 牛溪成渾 白沙李恒福門生子弟靖難, 自是扁用京城世家, 今百年之間, 自嶺南爲正卿者二人, 亞卿四五人, 無拜相者, 高不過三品, 下不過州縣’

여러 가문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서인들의 정권 유지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앙의 정치적 대립은 서인 내부의 사안이었고, 이인좌의 난 이후 영남지역에서 남인계 사족들의 정치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방 향촌에서는 중앙의 정치 상황에 대한 활동을 17세기만큼 활발히 할 수 없었으며, 상주의 각 가문들은 정치적 대립보다는 각자 가문의 현창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서원은 향촌공동체적 연대관계보다는 문중적인 분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68)</sup> 따라서 상주의 사족들도 향촌사회의 활동에서 가문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선조들의 문집을 간행하고, 서원의 운영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서원에 대한 추향이 지속되는 와중에 단일 가문이 주도하는 서원이 건립되어 문중의 선조를 제향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가문의 강조로 인한 문중화는 영남이라는 지역과 남인이라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하나의 종중을 통한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앙의 세도 가문이 대중중의 족보를 편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의 세도 가문들은 족보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문중들의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지역의 사족들은 이를 통해 중앙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된 유대는 지역사회에서 서원의 운영이나 선조의 현창 사업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상주에서 기존 서원의 추향 작업은 그 과정을 보면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추향을 통해 다양한 가문을 참여시켜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추향 과정에서 서원의 주도권이 바뀌거나 가문들끼리 대립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다양한 가문들이 참여하며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양상은 근암서원의 추향 과정에서 볼 수 있다. 산양지역의 근암서원은 1786년 이구(李渠), 이만부(李萬敷), 권상일(權相一)을 추향하게 된다. 근암서원은 홍언충과 홍여하를 제향한 부림홍씨와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주이씨, 안동권씨가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이 되어 산양의 사족인 전주이씨와 안동권씨가 자신들의 선조를 서원에 추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구는 17세기 초반 활동한 인물로 근암서원의 건립 당시 本州에 상황을 알리는 통문을 작성하며 서원의 창건을 주도한 인물이다.<sup>69)</sup> 이만부는 권상일과 함께 18세기 전반 상주를 대표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권상일은 산양지역 출신으로 상주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관료였다.<sup>70)</sup> 이구와 권상일은 17세기 초반 산양지역에 정착하여 근암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전주이씨와 안동권씨 가문 출신으로 근암서원 추향의 명분이 충분하였다. 이만부의 경우에는 지역적 연고는 부족하였으나 유학을 계승하여 상주에서 향약을 펴고 학문을 가르쳐 그 중심을 잡은 것을 강조하였다.<sup>71)</sup>

각각의 선조들을 추향하는 데 성공한 가문들은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구의 문집인 『活齋集』은 손자 이사번과 증손 이유춘 등이 가장사초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이만

68)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43쪽.

69) 『近岳書院創建錄』, 「癸巳四月通本州文」

70) 18세기 권상일과 근암서원의 활동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 62, 2016을 참조.

71) 『息山集』, 附錄 上 「近岳書院奉安文」, 「吾道之南, 師儒世作, 抽關啓鍵, 牖我蒙學, 斯我先生, 應期挺生, 承襲前人, 詩禮鯉庭, 弱齡志願, 已在閩洛, 無文不涉, 無理不覈, 博而積之, 既涵既秩, 亦既蹈之, 見卓行立, 卷而南遷, 山與俱息, 日工時程, 敬準誠的, 文編道東, 受用之切, 精發易統, 究竟之法, 旋招一謝, 歸袂翩然, 樂我初服, 與道周旋, 山頽一夕, 士淚沾裳, 德有其鄰, 學不異方, 推身及物, 礪世磨俗, 鄉申呂約, 塾邊程目, 名教之中, 砥柱功卓, 畏墨議起, 疇不曰宜, 惟茲岳院, 四賢舊祠, 時雖相後, 道則揆一, 同堂揭虔, 曠世休匹, 羣謀允叶, 鄰牖齊發, 辰良日吉, 衿佩紛集, 像位有儼, 德將在斯, 靈應啓佑, 庶幾格思」

부가 서문을 쓰고, 1723년에는 안동의 권두경(權斗經)에게도 서문을 받았다. 따라서 18세기 초반 문집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간행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활재집』은 이구가 근암서원에 추향된 이후인 1805년 정종로가 행장을 쓰고, 남한조가 묘갈명을 작성하여 부록을 추가하고 간행하였다. 이만부의 문집인 『息山集』은 1740년 이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나 후손들이 가난하여 간행하지 못하던 것을 1798년 영남의 유립과 향교에서 비용을 대어 간행하기로 논의가 일어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1813년 정종로를 중심으로 상주 갑장산 북장사에서 교정을 마치고 간행하였다고 한다.<sup>72)</sup>

권상일은 1783년에 죽림정사에 먼저 봉안을 하였다. 그리고 1786년 근암서원에 추향하고, 4년 후인 1790년에는 僖靖이라는 시호를 받았다.<sup>73)</sup> 권상일의 문인인 조석철과 그 후손들은 1796년 그동안 모은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편집하였고, 1797년 정종로에게 서문을 받아 간행하였다.

근암서원 추향 과정의 특징은 서원의 창건과 운영에 관여하던 산양 사족들의 선조들이 제향되고, 새롭게 이만부가 제향되면서 기존 사족들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가문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안동권 사족들과의 관계가 두드러진다. 이구의 봉안문과 축문은 권상일의 문인인 조석철이 지었고, 이만부와 권상일의 봉안문과 축문은 유성룡의 5대손인 안동 풍산의 유종춘(柳宗春, 1720~1795)이 작성하였다. 이는 이만부와 권상일의 혼인에서도 볼 수 있다. 이만부는 첫 번째 부인인 의성김씨 김이해의 딸이 죽고 유성룡의 증손인 유천지(柳千之)의 딸과 혼인하였다. 권상일은 첫 번째 부인 선성김씨 김가주의 딸이 죽고 난 이후 혼인한 여흥이씨 이만영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유성화(柳聖和)의 딸과 혼인시켰다. 유성화는 유성룡의 5세손으로 풍산유씨의 적장자이다. 권상일이 여흥이씨가 죽고 난 후 맞은 세 번째 부인은 예안의 진성이씨 이유(李柔)의 딸이다.

근암서원은 17세기 중반 건립된 이후 지속적인 추향을 거쳐 도남서원과 함께 상주 남인계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잡게 된다.<sup>74)</sup> 그러나 참여하는 가문들의 성격과 서원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보면 상주의 산양지역 사족들을 중심으로 안동권 사족들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황희와 전식을 제향하고 있던 옥동서원은 1746년 황효헌(黃孝獻)과 황뉴(黃紐)를 추향한다. 옥동서원은 장수황씨와 옥천전씨 가문의 인물이 제향되었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상 장수황씨가 주도하고 있었다. 옥동서원에 제향된 전식은 정경세의 제자로 인조대 대사간을 지내면서 17세기 중반 상주를 대표하는 사족이었다. 전식의 아들 전극항(全克恒)은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한양을 지키다가 죽었다.<sup>75)</sup> 전식은 황덕유(黃德柔)를 사위로 삼아 장수황씨와의 관계를 맺었으나 전식의 아버지 전여립 대에 상주에 정착한 옥천전씨는 15세기에 이미 상주에 정착한 장수황씨에 비해 상주에서의 기반이 약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옥동서원의 운영과 사액 과정에서 드러난다.<sup>76)</sup> 18세기 옥동서원 원장의 가문별 상황을 보면 장수황씨 22명, 풍양조씨 16명, 홍양이씨 13명, 진주강씨 10명, 상산김씨 5명, 부림홍씨 5명, 신천강씨 3명, 경주손씨 3명, 성산여씨 3명 등이다. 앞의 네 가문이 원장을 번갈아 가며 맡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수황씨는 다른 가문들보다 훨씬 많

72) 『息山集』, 「息山集跋」

73) 『正祖實錄』 권30 14년 4월 11일.

74) 이병훈, 「16~18세기 近岳書院의 변천-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 71, 2019.

75) 『正祖實錄』 권21 10년 2월 2일.

76) 이후 옥동서원의 사액과정은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2019 참조.

은 숫자가 보인다. 그러나 옥천전씨는 1761년 전시형(全始亨)과 1763년 전기화(全氣和) 두 명만 원장을 역임하였다.<sup>77)</sup>

1788년 옥동서원 청액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청액의 과정은 상주의 여러 서원들과 장수황씨 문중을 중심으로 발의하고, 중앙의 황희 본손이 지원하는 형태였다. 이 과정에서 옥천전씨의 참여가 크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7월 상소문의 초안을 작성하며 주향을 황희만 기록한 것을 두고 한양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sup>78)</sup> 이 사건은 11월까지 계속되며 상주에서 논의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결국 옥동서원에 제향된 4현의 사적을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sup>79)</sup> 그러나 이후 4현의 사적을 책자로 만들면서 순서를 위패의 순서가 아닌 나이 순으로 기록하여 황효현이 전식의 앞에 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 양 가문의 충돌이 해결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1789년 사액이 결정되고 예식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각지에 부조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 장수황씨 문중의 부조를 제외하고는 풍양조씨와 진주강씨가 많은 부조를 하였고, 이 양 문중을 제외한 타 문중의 부조 실적은 저조하였다. 전식 문중에서 보내온 부조는 동전 1관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태였다.<sup>80)</sup> 이는 18세기 상주에서 옥천전씨의 위상이 많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옥동서원은 18세기 후반 추향과 사액을 거치면서 장수황씨 문중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문중서원화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장수황씨는 지역 사족인 옥천전씨보다 중앙 문중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상주 장수황씨 문중과 한양의 장수황씨 문중의 유대는 당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족보의 간행이나 옥동서원에 대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81)</sup>

1780년 상주의 황계희(黃啓熙)가 옥동서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원의 재정이 어려울 때 의령현감을 지내던 황창원(黃昌源)이 여러 물품을 보내어 서원의 운영을 도와주었다.<sup>82)</sup> 1781년 중앙에서 장수황씨 족보를 간행할 때에는 황계희가 상주 문중을 대표하여 시일이 촉박하니 조금 늦추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용을 당시 우참찬이자 족보 편찬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황경원(黃景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sup>83)</sup> 황경원은 도암 이재(李穡)의 문인으로 영조와 정조대에 각종 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한 인물이다. 황창원은 황경원의 사촌으로 청풍부사 등을 지냈다.

황계희는 대산 이상정이 ‘우리 도를 맡길 만하다’라고 평가하였으며 1777년 사마시에 합격한 후로는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1783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이병모(李秉模, 1742~1806)는 그에게 『講義』의 편집과 교정을 부탁할 정도로 영남에서 유망한 인물이었다.<sup>84)</sup> 황계희는 이러한 지방에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장수황씨 종중을 통해

77) 『玉洞書院任員錄』, 1714~1800년.

78) 『疏廳日記』 ‘七月初一日, 黃聖休趙奎鎮黃夏鎮黃弼熙, 訪金典籍, 則疏草已成, 但疏中只舉元位, 不及配位, 蓋以京議, 援據近例, 而嶺人爭之, 不得故也, 雖曲從京議, 而心甚未安, 卽袖來就質京中諸處計’

79) 『疏廳日記』 ‘己酉正月初一日, 二十四日, 疏首與黃聖休將往宋別檢家, 歷訪鄭監察於霜臺直房而來, 捧疏蒙批之後, 雖有傳便於本院, 而不可無直便通奇之道, 且自上有親撰祭文之教, 則親撰之時, 或慮有採錄正配位事蹟之命, 故上來之日, 雖已略略修錄, 而自疏廳猝難詳記精書, 罔夜走人于尙州, 以爲修錄四賢事蹟之地, 納疏之後, 留在關外, 事體如何, 故夕後還接於板井洞舊館’

80) 김순한, 앞의 글, 2019, 117쪽.

81) 일반적으로 족보 편찬은 17세기부터 본격화되었고, 18~19세기에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본다. 김명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81쪽.

82) 『審幾堂集』 권1 書, 「答黃宜寧」

83) 『審幾堂集』 권1 書, 「與黃判書」

84) 『審幾堂集』 권1 書, 「答李方伯」

중앙의 관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문중의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상주의 장수황씨는 옥동서원의 사액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89년 청액소 당시의 임원으로 참여한 인물이 옥동서원의 원장 황성휴(黃聖休), 재임 황필희(黃弼熙), 황택곤(黃宅坤)이었으며, 한양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도 종친인 감찰 황원(黃瑗), 종손 황도원(黃道源)과 성균관의 영남 유생들을 만나 청액소에 대해 의논하고,<sup>85)</sup> 당시 우의정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만나 청탁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sup>86)</sup>

옥동서원은 두 가문의 선조가 제향된 서원이었나 18세기 문중의 영향이 강해지며 그 운영을 둘러싸고 두 가문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결국 상주에서의 기반이 크고 중앙 문중과의 유대를 이룬 장수황씨가 서원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sup>87)</sup>

지방과 중앙 문중의 유대는 풍양조씨에게서도 보인다. 1730년 조현명(趙顯命)이 경상감사로 재직하며 풍양조씨 대동보 창간보를 간행하고, 그 목판을 상주 호군공과 자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계사(淸溪寺)에 보관하고 보각 수호답을 사서 두었다. 1760년 족보를 중간한 후에는 갑장산 남장사(南長寺)에 보각을 짓고 창간보와 중간보를 함께 보관하였다. 이후 수호답을 지속적으로 보충하여 보각 수리와 추간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호군공과 자손 2인을 보각 유사로 정하였다.<sup>88)</sup> 풍양조씨는 1826년에도 조인영(趙寅永)이 경상도 감사로 왔을 때 역시 남장사에서 종회를 열어 족보의 보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sup>89)</sup>

조선시대 족보의 지역적 편간 사정을 살펴보면 15~17세기까지는 안동권을 비롯한 영남의 재지사족들에 의해 많이 간행되었고, 17~19세기 전반까지는 서울의 별열가문을 비롯하여 기호지방에서 많이 간행되었다.<sup>90)</sup> 족보는 지속적인 추가 간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이렇게 문중의 족보를 통해 형성된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경술환국으로 중앙에서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단락되고, 이인좌의 난 이후 영남에 대한 유화책이 시행되자 향촌 사회에서는 정치적 대립도 줄어들었다. 이는 상주 서인계 사족들의 활동에도 중앙과의 관계망 유지와 지원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상황의 변화는 서인계 사족이 중앙의 지원 속에 다수의 서원을 건립할 수 있었던 18세기 전반과 달리 서원의 남설로 인한 훼손 문제에서 중앙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 화암서원과 운계서원의 훼손과 복원, 그리고 추향 과정은 서인계 사족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향촌 인물을 제향한 운계서원이 문벌가문을 제향한 서산서원에 밀려 훼손되고 이 과정에서 서인계 사족들은 선조들의 위패를 두 서원에 번갈아 가며 모시며 대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692년 건립된 화암서원은 상주의 토성 사족인 상산김씨 김안절과 김도를 제향하였다.

85) 『疏廳日記』 6월 초4일~8일.

86) 『疏廳日記』 6월 9일, ‘九日, 朝前趙奎鎮黃聖休, 往見俞承旨恒柱, 借得下人, 因往蔡相濟恭家以闢阻, 先見其胤子弘遠, 黃緣納啣, 而進拜乘間, 言請額事顯末, 蔡相答曰, 士林之事, 吾何知之云云, 奎鎮起而請曰, 今日儒生之上來者, 專恃於大監, 大監若不指揮, 則嶺土於何稟質, 蔡相賜顏, 無甚落落, 奎鎮又起而請曰, 京中諸議多言, 非特今日設疏與否, 一聽大監指揮而決之, 蔡相答曰, 須爲之也’

87) 현재 19세기 옥동서원의 임원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20세기의 임원록을 보면 黃氏 96명, 李氏 42명, 趙氏 40명, 全氏 10명 등으로 18세기에 임원을 맡은 문중들과 비슷한 구성을 보이지만 황씨의 비중이 좀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玉洞書院任員錄』, 1900~1962년.

88) 이연숙, 「18~19세기 풍양조씨의 대중중 형성과 족보간행」, 『민족문화』 43, 2014, 341쪽.

89) 『南長寺宗會時日記』(상주박물관 소장).

90) 이수건, 『한국의 성씨와 족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3, 66쪽.



그러나 건립 과정에서는 서인계인 창녕성씨와 인천채씨가 주도하였다. 이어서 상주 서인계 사족들은 선조를 제향한 운계서원을 창건하며 활동의 중심이 화암서원, 운계서원이 되었다.

1725년 채지홍(蔡之洪)이 쓴 봉안문에 의하면 운계서원을 건립하며 화암서원에서 김안절과 김도의 위패도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91)</sup> 하지만 운계서원이 1742년 서원금령으로 인해 훼손되면서 두 사람의 위패는 화암서원으로 돌아왔다.<sup>92)</sup> 이때 성람과 신석번의 위패는 화암서원으로 옮기지 못하였다. 1747년 화암서원을 옥산 아래쪽으로 이건하면서 두 사람을 추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769년 다시 조정의 명령으로 두 사람을 철향할 수밖에 없었고, 1784년 운계서원을 복원하면서 다시 제향하게 되었다.<sup>93)</sup>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제향인을 옮기는 과정은 대부분 창녕성씨와 인천채씨, 평산신씨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운계서원으로 함향할 때 봉안문을 쓴 채지홍은 권상하의 문인으로 성만징과 동문 관계이다. 화암서원으로 돌아올 때의 환안문은 채명보가 쓰고, 고유문과 축문은 성만징의 아들인 성이홍이 작성하였다. 화암서원은 건립부터 이후 추향에 있어서까지 서인계 사족들이 계속 주도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상주의 동쪽에 위치한 화암서원보다 자신들의 세거지와 가까운 운계서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서원이 훼손되자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화암서원에 선조들의 추향을 시도한 것이다.

김안절을 운계서원으로 옮기면서 봉안문의 순서를 둘러싸고 옥동서원에서 사액을 청하면서 생긴 것과 같은 문제도 있었다. 한원진의 문인인 권진응(權震應)이 「雲溪祠奉安文」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김안절과 신석번의 순서에 대해 화암서원의 사림들이 원망을 품게 되었다.姜潤(姜潤)은 나이는 김안절이 많지만 서원의 건립은 화암서원이 빠르니 주객과 선후를 잘 헤아려서 서로 간에 원망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sup>94)</sup>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하던 서인계 사족들의 청탁을 받은 권진응이 신석번을 김안절보다 먼저 언급하려고 하였고, 이에 상산김씨들이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과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상황을 보면 서인계 사족들이 서원 운영을 주도하면서도 상산김씨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서인계 사족들이 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토성 사족으로 정착한지 오래된 상산김씨의 의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두 서원의 제향을 둘러싼 복잡한 과정은 18세기 후반 상주에서 서원의 운영과 제향을 둘러싼 가문간의 충돌이 서인계와 남인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으며, 운계서원의 훼손은 서인계 서원도 중앙에서 전폭적인 지원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은 운계서원을 복원하면서 조근(趙根), 신석형(申碩亨), 성여훈(成汝樞), 김삼락(金三樂)을 추향하였다.<sup>95)</sup> 조근은 본관이 함안으로 송시열의 문인이다. 1662년 지방의 유림들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를 올릴 때 영남에서는 성만징과 신석형 등이 주도하였다면 경기지역을 주도한 사람이 조근이었다.<sup>96)</sup> 예론에서도 송시열을 지지하여 경흥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sup>97)</sup> 그는 어릴 때 상주 無量洞에서 10여년을 지냈으며, 35세인 1665년에는 낙동역으로 유배를 오기도 하였다.<sup>98)</sup> 상주에 연고가 있으면서 정치

91) 『洛涯遺稿』附錄 事實 奉安文, ‘乙巳○合享雲溪書院時○諮議鳳巖蔡之洪撰’

92) 『洛涯遺稿』附錄 事實 還安文, ‘是歲 復還安花巖 朝家有甲午後令甲 而雲溪毀撤 故多士呈文巡相 還安舊廟, 還安文’

93) 『聽竹先生遺稿』卷下 「雲溪書院事實」 ‘己丑又因朝令撤享 其後享於雲溪書院’

94) 『法川集』 권1 書 「與權諮議亨叔」

95) 『嶠南誌』 권8 尙州郡 敎院, ‘府使成濫 進善申碩蕃 校理趙根 侍直申碩亨 郡守成汝樞 牧使金三樂’

96) 『현종실록』 권6, 3년 12월 19일 무오; 『승정원일기』 177책 12월 20일.

97) 『승정원일기』 269책 3월 25일 경신.

98) 『損庵集』 「年譜」

적으로 창녕성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신석형은 신석번은 동생으로 영남의 우윤문묘종사 반대소를 비판하는 상소를 주도하였다.<sup>99)</sup> 성여훈(成汝樞)은 성람의 셋째 아들로 처는 인천채씨 채유종의 딸이다. 어려서 김상헌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권상하가 그의 묘갈명을 지었다.<sup>100)</sup> 김삼락(金三樂)의 본관은 청도로 후처가 창녕성씨이며 상주의 서인계가문이다. 1639년 문과에 합격하고 청도부사, 익산군수 등을 지냈다. 운계서원 복원 과정에서 다수의 인물들이 추향되는 것은 중앙 관료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주 서인계 사족들의 결집이라고 볼 수 있다.

1745년 건립된 지강서원은 진양정씨 정국성과 창녕조씨 조희인, 조우신, 조정용을 제향하였다. 1752년 건립된 청암서원은 陶溪精祠와 雅谷精祠를 합사하여 유포(柳砲), 유달준(柳達尊), 박눌(朴訥), 이겸(李謙), 유종인(柳宗仁), 홍약창(洪約昌), 남영(南嶸), 정윤해(鄭允諧), 박성민(朴成敏), 이영갑(李英甲), 남근명(南近明)을 제향하였다. 1796년 건립된 우산서원에는 진양정씨가 정경세를 독향으로 제향하였다가 1835년에 정종로를 추향하였다. 1796년 건립된 낙암서원에는 의성김씨 김담수 김정룡, 김정건을 제향하였다. 1798년 건립된 용연서원에는 인천채씨 채귀하, 채수, 채소권, 채득기를 제향하였다. 1817년 건립된 봉강서원[경덕사]은 진주강씨 강희중, 강형을 제향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전형적인 문중서원들이 건립되는 것이다. 서원외에도 사당의 건립도 활발하였다. 1783년 청도김씨 김우태, 김시태를 모신 道安祠, 1784년에는 상산김씨 김선치, 김혜와 경주손씨 손만웅을 모신 龜湖祠, 1794년에는 산양의 장수황씨 황시간, 황상중을 모신 道川祠, 1824년에는 창녕성씨 성진승, 성진항을 모신 東華祠, 1844년에는 개성고씨 고윤중, 고흥운, 고인계, 고유를 모신 竹谷祠가 건립되었다.

이 서원들은 중앙의 서원 금령 이후에 건립된 만큼 향촌사회의 공론을 얻거나 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sup>101)</sup> 따라서 더욱 문중 중심의 건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IV. 맺음말

조선시대 상주는 읍격에 비해 사족들의 활동이 늦었고 서원의 건립 역시 늦게 이루어졌다. 17세기에는 도남서원, 옥성서원, 근암서원이 30여년의 간격을 두고 건립되었다. 상주 사족들이 향론을 결집하여 건립한 도남서원과 달리 옥성서원은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근암서원은 서원이 건립된 산양 주변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건립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근암서원은 도남서원, 옥성서원에 비해 산양 주변 지역 사족들의 참여가 많이 보인다. 이들 세 서원은 이후 상주의 중심 서원으로 기능하였다.

18세기에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원의 건립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상주지역은 영남에서 서인계 서원의 건립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창녕성씨, 평산신씨와 같은 상주의 서인계 사족들은 서인계 산림, 관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홍암서원, 서산서원, 운계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몇몇 가문들의 연계를 통해 서원을 건립하였으나 17세기 서원들과 같은 다수 사족들의

99) 『효종실록』 권4 5월 1일 계축.

100) 『한수재집』 권26 묘갈 「郡守成公汝樞墓碣銘并序」

101) 이 때 건립된 서원들은 대부분 중앙의 지리지나 서원 관련 기록에서는 누락 되어 있다.

참여와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서원의 남설을 금지하려는 조정의 상황은 서원의 건립과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남인계와 서인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하였다.

상주 사족들은 참여 가문들의 확대를 통하거나 대종중이라는 연계망을 통해 중앙 세도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원 일반적인 양상에 따라 문중서원화 되었다.

## 참고문헌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2001.
- 이수환,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국사편찬위원회, 1999.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景仁文化社, 2007.
-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 강상택, 『朝鮮後期 嶺南地域의 書院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성운, 「영남의 유교문화권과 지역학과의 전개-안동권·상주권·성주권을 통해 본 영남학과 사유체계의 지역적 특징과 그 전승과정에 나타난 문화 양상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37, 2006.
- 김순한, 「18세기 후반 상주 玉洞書院 청액활동과 사액의 의미」, 『민족문화논총』 72, 2019.
- 김순한, 「상주 玉洞書院 소장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9, 2019.
- 김순한, 「조선후기 사주 白玉洞影堂」의 운영과 陞院」, 『민족문화논총』 79, 2021.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 「영남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사회적 성격」,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성과 정치적 성격』, 2007.
- , 「18세기 한 鄉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7, 2016.
-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 7, 2005.
- 송석현, 「17세기 상주 지역 사족의 동향」, 『嶺南學』 제27호, 2015.
- ,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이병훈, 「16~18세기 近岳書院의 변천-조선후기 서원 변천의 한 사례」, 『영남학』 71, 2019.
- 이병훈, 「조선후기 향촌운영기구의 건립 추이-문경지역 院祠와 書堂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이병훈, 「조선후기 영남지역 원사의 건립과 변화 검토」, 『한국서원학보』 6, 2018.
- 이병훈, 「17~18세기 문경 근암서원의 운영 실태」, 『嶺南學』 73, 2020.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民族文化論叢』 第62輯, 2016.
- 정만조, 「英祖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한국학연구』 1, 1982.
- 채광수, 이수환, 「昌寧成氏 聽竹公派의 상주 정착과 노론계 院宇 건립 활동」, 『조선시대사학보』 79, 2016.
- 채광수, 「조선후기 영남지역 노론계 가문의 분포와 서원 건립 추이」, 『한국서원학회』 8, 2019.
-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상주 道南書院의 詩會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 채광수, 『18세기 영남지역 노론계 서원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조선시대 상주지역 서원의 동향》의 토론문

채광수(영남대)

#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이 경 동(공주대)

## 목 차

1. 머리말
2. 원입의 선발과 운영
3. 원생의 선발과 운영
4. 재정 운영과 관리
5. 맺음말

## 1. 머리말

論山은 조선시대 恩津, 魯城, 連山, 石城, 礪山 등의 군현이 분리되어 있다가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다양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호남과 호서의 경계 지점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17세기 서인계 대표적 山林이었던 金長生, 金集, 尹宣舉와 少論의 거두인 尹拯이 활동하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점에서 논산은 조선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역사적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17세기 논산 지역에도 서원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sup>1)</sup>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인계 인물들이 배향하는 서원들이 주로 건립되었으며, 운영 또한 서인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논산에 건립된 서원들은 양호지역의 공론을 형성하는 기점으로 작용하거나 노론과 소론계 서원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각기 향중 여론을 형성하면서 다채로운 발전 양상이 확인된다.

논산지역 서원에 대한 연구는 호서 지역 서원 연구의 과정에서 분석되었다.<sup>2)</sup> 이를 통해

1) 논산지역에 건립된 서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서원	건립	사액	배향자
恩津	孝岩書院	1713	－	姜應貞, 梁應春, 金文起, 金成輝, 楊應春, 南俊, 金必泰
	金谷書院	－	－	金秀南, 成三問, 曹繼明
	杏林書院	1570	－	徐益
魯城(尼城)	魯岡書院	1675	1682	尹煌, 尹文學, 尹宣舉, 尹拯
連山	遯巖書院	1634	1659	金長生, 金集, 宋浚吉, 宋時烈
	龜山書院	1702	－	尹烜, 尹舜舉, 尹元舉
	忠谷書院	1688	－	階伯, 朴彭年, 成三問, 李塏, 柳誠源, 河緯地, 兪應孚
	休亭書院	1699	－	柳懋, 柳文遠, 李恒吉, 金廷望, 權慤
石城	蓬湖書院	1693	－	尹文學
礪山	竹林書院	1626	1663	趙光祖, 李滉, 李珥, 成渾, 金長生, 宋時烈
	봉곡서원	1712	－	李繼孟, 李純仁, 南溟翰, 南斗健

2) 전용우, 1994,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16~1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

호서 지역 서원은 사족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전개되었음이 밝혀졌다. 논산지역에 소재하는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은 소·소분기와 관련하여 서원의 시대적 성격이 분석되기도 하였다.<sup>3)</sup> 이를 통해 서원의 건립이 당대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개별 서원 연구는 돈암서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돈암서원에 대한 개괄적 연구를 비롯하여,<sup>4)</sup> 건립경위, 강학활동, 이건과정, 책판 등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되었다.<sup>5)</sup> 돈암서원에 대한 연구의 집중은 『遯巖書院誌』를 비롯한 고문서 자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2010년부터 추진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과정과 연동되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노강서원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 노강서원 고문서 자료를 통해 재정 및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6)</sup> 노강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sup>7)</sup> 여산 죽림서원에 대한 사액과 운영과정을 토대로 양호지역 여론의 중심지로서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이 분석되기도 하였다.<sup>8)</sup>

이상의 연구들은 논산과 서인계 서원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특히 현존하는 서원 관련 자료가 영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명할 여지가 많은 호서 지역 서원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산 지역 서원에 대한 분석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논산은 조선시대 여러 군현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산김씨·과평윤씨와 같이 당시 봉당을 주도했던 가문이 자체적으로 서원을 운영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논산 지역 서원의 운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역적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자료적 한계로 인해 분석 대상은 연산 돈암서원, 노성 노강서원, 여산 죽림서원으로 한정하였다. 해당 서원은 논산 지역 내 사액 서원일 뿐만 아니라 서원지를 비롯한 고문서 자료가 남아있어 서원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각기 다른 군현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적 성격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논산지역 서원 운영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지역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원임의 선발과 운영

조선시대 논산은 은진, 노성, 연산, 석성, 여산의 6개의 군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 지역에 정착하며 강학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대체로 서인계 인물을 중심으로 활동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黃岡 金繼輝는 정회당을 중심으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해준, 2000, 「호서지역의 사족동향과 서원·사우」,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이해준,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3) 李政祐, 1999,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建立의 성격」, 『震檀學報』 88

4) 이연숙, 1994, 「遯巖書院의 建立과 性格」,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 民族文化의 諸問題』,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

5) 임선빈, 2018, 「遯巖書院의 건립배경과 賜額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5 ; 김문준, 2018,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58 ; 이철성, 2018, 「1880년 論山 遯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 김소희, 2021,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87.

6) 朴連淑, 1988, 「朝鮮後期 書院經濟에 대한 一考察-魯岡書院의 財政構造分析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원, 1997, 「明齋 尹拯의 教育과 鄉村 教育活動」, 『역사와 역사교육』 2.

7) 이해준, 2011, 「노강서원(魯岡書院) 자료(資料)의 유형(類型)과 성격(性格)」, 『한국서원학보』 1.

8) 이경동, 2019,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韓國書院學報』 9.

로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을 병행하였다. 김계휘를 이어 그의 아들 김장생은 지역의 대표적 山林으로서 명성을 획득하면서 연산을 중심으로 한 논산 지역은 점차 서인계의 영향을 받았다. 김장생은 인조반정 이후 산림으로 중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묘호란 당시 兩湖號召使로서 호서와 호남의 의병을 규합하는데 이르기기도 하였다.<sup>9)</sup> 연산을 중심으로 김장생은 후학을 양성하게 되는데, 養性堂을 건립하면서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유계, 윤선거 등의 문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sup>10)</sup>

김장생을 중심으로 논산지역은 서인계의 영향이 작용하게 되면서 서원 또한 김장생 및 문인을 중심으로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건립된 것은 礪山의 竹林書院이다.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주도로 1626년 건립되었다. 죽림서원은 은병정사를 모태로 건립된 해주 紹賢書院을 따라 조광조, 이황, 이이, 성혼을 배향하였으며, 서원 운영에 있어서도 소헌서원의 사례를 따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산 지역은 이이와의 지역적 연고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건립된 것은 김장생을 비롯한 문인들이 율곡학과로서의 학통을 명확히 하고 지역적 거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11)</sup> 김장생 사후 그가 운영하였던 養性堂을 모태로 連山에 遯巖書院이 건립되면서 논산 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인계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후 논산지역에 해당하는 연산, 은진, 노성, 여산, 석성 등에 건립된 대부분의 서원들은 서인계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서인계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인계 서원의 院任은 院長-掌議-有司-直月 체제로 구성된다.<sup>12)</sup> 이러한 형태는 이이가 제정했던 「隱屏精舍學規」에서 연유한 것이다. 은병정사에서는 堂長(1)-掌議(1)-有司(2)-直月(2) 체제로 구성된다. 당장, 장의, 유사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직월은 월별로 교체하였다. 당장은 정사 전체를 총괄하며, 장의는 齋內 의논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유사는 使喚과 집기의 유무를 주관하고 齋直을 처벌할 수 있었으며, 직월은 재정과 강론, 齋生의 행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sup>13)</sup> 은병정사의 운영 원칙은 이후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의 토대로 작용하였으며, 실제 원임의 구성이나 명칭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죽림서원, 돈암서원, 노강서원 등에서도 동일하다. 서원별 원임의 선발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遯巖書院은 원장-장의-유사-직월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해당 원임들의 역할은 은병정사 학규에서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였다. 돈암서원의 전신인 정회당 立議에도 유사의 직무가 일부 기재되어 있는데, 유사 2인이 문서를 전장하되, 유사 1인이 田畝所出를 담당하여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맡았다. 또한 유사는 매년 용도를 파악하고 서책을 구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4)</sup> 유사의 직무는 장의와 달리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하였으며 재정 운영을 집중적으로 수행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遯巖書院誌』에 수록된 「院長錄」에 의하면 院長은 宋浚吉, 李緯, 朴弼周, 李箕鎭, 閔遇洙, 俞拓基, 宋煥箕, 金履陽 등 서인-노론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재임하였다.<sup>15)</sup> 해당 인물들의

9) 우인수, 2011,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號召使의 활동과 그 의미」, 『朝鮮史研究』 20.

10) 한기범, 1989, 「沙溪 金長生의 生涯와 禮學思想」, 『백제연구』 20.

11) 죽림서원의 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이경동, 2019,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韓國書院學報』 9., 227-233쪽

12) 이수환,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118-127쪽.

13) 『栗谷先生全書』 卷15, 雜著, 「隱屏精舍學規」.

14) 「靜會堂誌」 「立議」.

15) 『遯巖書院誌』 上, 「院長錄」.



이력을 보건데 실제 돈암서원에 기거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돈암서원의 원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遯巖書院 齋任案』에는 1847년부터 1886년까지 약 40여년간 掌議, 有司, 直月の 재임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掌議는 連山縣監을 비롯한 인근 군현의 지방관 1명이 담당하였다. 대체로 돈암서원이 속해있는 연산현감의 재임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恩津縣監과 魯城縣監의 사례도 확인된다. 은진현감과 노성현감의 경우는 연산현감의 공석 등의 이유로 장의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장의의 임기는 지방관 재임 기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임 기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장의를 지방관으로 선임한 이유는 재정적 이유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원 운영에 있어 재정적 필요를 요구로 하는 사항에 있어 지방관의 도움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장의로서 서원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이와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했다.<sup>16)</sup>

유사는 일반적으로 2인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2년을 임기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사의 구성으로 미루어보면, 주향자의 가문인 광산김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관의 인물들이 유사로 참여하고 있어 문중서원의 운영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유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는데, 창건시에 出文有司와 列邑有司의 직함들이 확인된다. 출문유사는 창건을 발의하는 역할을 했던 유사들이며, 열읍유사는 각 군현별로 존재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유사로 이해된다.<sup>17)</sup>

직월은 일반적으로 1원이 구성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수의 직월이 재임하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은병정사의 사례와 같이 월별 교체되지는 않으며, 유사와 마찬가지로 2년을 재임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 다만 유사에 비해서 교체의 주기가 빈번하며, 재임 기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유사와 직월은 ‘在任’이라고 하여 이전에 같은 원임을 수행했으나, 이후 다시 재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그 계열성은 높지 않으며 전체 사례 중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魯岡書院도 원장-장의-유사-직월의 체제를 따랐다. 원장은 학규에 의하면 齋中年長者 즉 서원 내에 연장자를 선택하여 삼기로 되어 있다.<sup>18)</sup> 그러나 「院中記事」에 따르면 실제 원장은 당대의 명망가를 선임함으로써 돈암서원과 마찬가지로 운영된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초대 원장인 金壽恒부터 崔奎瑞, 李羲發, 李宗城의 순으로 재임하였으며, 이후에는 원장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sup>19)</sup> 『魯岡書院誌』에 의하면, 18세기 중반 이후 중단되었던 원장의 자리는 19세기에 李相璜, 鄭元容 등三公에 해당되는 고위관료들이 역임하였다.<sup>20)</sup> 이들의 재임기간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되며 정월용의 경우는 1848년부터 1868년까지 약 20여년간을 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이 대체로 중앙조정에서 실직을 역임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원장이 노강서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되었으며 실제 서원의 운영은 장의 및 유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魯岡書院誌』에는 1808년 이후 역대 장의와 유사, 직월에 대한 정보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장의는 돈암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원 소재지의 魯城縣監이 주로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16) 이연숙, 1994, 「遯巖書院의 建立과 性格」,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民族文化의 諸問題』,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

17) 『遯巖書院誌』上, 「創建通文」.

18) 『魯岡書院誌』卷3, 「魯岡書院齋規」.

19) 『魯岡書院院中記事』 「院長」 建院之初 請于文谷先生 文谷之後 請于良齋崔公 良齋之後 請于雲谷李公 雲谷之後 請于梧川李公 李公之後 院規士氣 漸不如古 更無請院長之事

20) 『魯岡書院誌』卷4, 「歷代齋任案」.

扶餘縣監, 韓山郡守, 懷德縣監 등 인근 군현의 수령이 장의를 맡았다. 혹은 道伯에 해당하는 충청감사가 道掌議를 역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의 임기는 지방관 재임기간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돈암서원과 유사하면서도 연산현감의 장의 재임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비해 재임 범위가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장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京掌議이다. 承旨나 判書·參判에 해당되는 인사들이 경장의를 수행하였다. 경장 의, 도장 의와 같은 제도는 서인계 서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대체로 중앙과 지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掌議案에는 1873년 이후 祭掌議라는 직함도 확인된다. 제장 의는 명칭으로 미루어 향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임으로 추정되는데 1~2명으로 구성된다. 제장 의는 참봉, 감역, 군수 등의 관료 이외에도 진사 등 비관료들도 선임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유사는 2인, 직월은 1인으로 교대로 운영되었다. 유사 및 직월의 명단을 검토해보면 파평윤씨 이외에도 다양한 성관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 외에 別有司라는 직함이 별도로 부여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파평윤씨가 재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노강서원 내에서 문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가 추정된다. 都有司의 직함도 간헐적으로 확인되는데, 工曹判書·魯城縣監이 이를 구성한다. 아마도 장의에 해당되는 인물보다 직급이 낮으나 서원 원임에 참여할 경우 해당 직함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와 직월은 향사와 관련된 8월과 2월에 교체되었다. 학규에 의하면, 유사는 1년마다 직월은 1개월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하였는데,<sup>21)</sup> 원임안을 토대로 살펴보면 유사는 1년의 주기로 이해되며, 직월은 인원의 부족으로 1개월은 아니지만 그 교체 주기가 빈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직월에서 유사로 활동하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유사와 직월은 서원 운영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강서원의 학규는 은병정사의 학규를 사용하여 이를 가감하였는데, 원임의 구성 인원과 역할 등이 동일하다.<sup>22)</sup> 장의는 院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서원의 재정을 비롯한 관리 일반에 대한 것은 유사가 전담하였다. 직월은 유사를 보좌하되 서원 내의 모든 물품의 장부를 정리하고, 師弟 및 朋友 사이에 강론한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書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竹林書院은 원임의 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의 사례와 같이 원장-장의-유사-직월 체제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장의 경우 초기에는 창건의 주체였던 김장생이 역임했으며, 이후 그의 문인들에 의해 원장을 역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으로 유계는 죽림서원의 원장(山長)으로 재직하며 「절목」을 제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sup>23)</sup> 18세기에는 이재가 죽림서원의 강학을 권장하거나, 직접

21) 『魯岡書院誌』卷3, 「魯岡書院齋規」 有司則一年相遞 直月則一月相遞(次月朔會改完)

22) 『魯岡書院誌』卷3. 「魯岡書院齋規」. 『노강서원지』에 수록된 것은 현재 노강서원 강당에 ‘學規’로 기재되어 있고, 이미 원생의 강학을 위한 목적에서 尹拯이 「魯岡書院齋規」를 제정하기도 하였다(『明齋遺稿』卷30, 雜著, 「魯岡書院齋規」). 윤증은 1675년 3월 노강서원 건립과 함께 재규를 함께 제정하였다(『明齋先生年譜』卷1, 四十八年(肅宗大王元年)乙卯……○三月 定魯岡書院齋規(時湖西士林建院于尼山之魯岡 享八松魯西兩先生 以爲藏修之所 先生爲定齋規五條 揭栗翁石潭齋規退翁十圖以訓之)), 윤증은 1682년 노강서원의 학규와 「초학획일도」를 제정하였다. (『明齋先生年譜』卷1, 五十五年壬戌……○作初學畫一圖 示諸生(時先生往往魯岡院齋 諸生講業者甚多 先生爲定學規 以夙興日用野味爲摠名曰初學畫一圖 以示諸生曰 學者日用 自朝至暮之間不過此四事而已 苟能眞知其理而實踐之 則上可以爲聖爲賢 下猶不失爲清修之古士矣 又爲說以勉之 其爲圖 規模詳備 工夫切察 爲後世學者法程云)) 현재 노강서원 학규는 1688년 後學 李養源이 쓴 것이라고 한다(이해준, 2011, 「魯岡書院 資料의 類型과 性格」, 『韓國書院學報』1, 163쪽).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는 齋規가 아닌 學規로 표현하기로 한다.

도봉서원 강규를 참작하여 규례를 제정하기도 하는 등 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4)</sup> 『竹林書院誌』를 비롯한 죽림서원 관련 자료에는 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돈암서원 및 노강서원의 규례와 같이 책임자가 있을 경우에 초빙의 형태로 원장직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림서원의 운영 초기에는 원임이 장의(1), 本官有司(1), 他官有司(1), 直月(1)로 운영되었다. 장의는 직접적으로 소관하는 업무가 있지는 않았으며, 본관유사는 財穀 관리, 타관유사는 簿籍, 직월은 焚香을 담당하였다. 유사 2인과 함께 필요시 전곡유사와 별유사를 두었다. 전곡유사는 別廳穀을 관리하고, 별유사는 추가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1~2명을 선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sup>25)</sup> 유사는 본관과 타관의 구분이 운영되다가 타관유사가 외지에 있어 서원에서 발행되는 문서의 着名하는 것 이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본관유사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장의는 서원이 위치한 100리 내의 수령, 散官, 章甫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會圈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원내의 각 인원이 輪圈으로 1명씩 黑筆하고, 齋任이 朱筆로 권점하였는데 朱筆이 없는 경우 흑필이 있다 하더라도 후보에서 제외되었다. 대체로 장의의 후보군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의는 인근의 수령이 맡는 것이 관례였다.<sup>26)</sup> 회권과 관련한 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서원에 1부는 장의가 보관하였다.<sup>27)</sup>

유사는 章甫 중에서 士望이 있는 2인을 선발하되 1명은 湖西, 1명은 湖南에서 선발하였다. 도별로 1인씩 유사를 선임하는 규례는 죽림서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인데, 죽림서원이 위치한 여산의 위치가 호서와 호남의 경계선으로 두 지역의 공론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유사는 『薦錄』<sup>28)</sup>을 토대로 전임 유사가 自代하고, 이를 장의가 다시 살펴서 최종적으로 선임되는 과정을 거쳤다. 전임 유사의 유고시에는 장의가 공론에 따라 신임 유사를 선임하였다. 직월은 유사와 마찬가지로 章甫 중에서 士望이 있는 1인을 선발하되 2명의 유사가 『천록』에 따라 1명을 추천하고, 이를 장의가 다시 살펴 최종 선임하는 과정을 거쳤다.<sup>29)</sup>

장의의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유사의 임기는 1周年 직월의 임기는 半年으로 하였다. 장의는 일반적으로 인근의 지방관이 역임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지방관의 임기 중에는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사와 직월의 경우 대부분의 서원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춘향과 추향에 걸쳐 교체가 이루어졌다. 유사는 추향에 1번 교체되고 직월은 춘향과 추향에 각각 교체되었다.<sup>30)</sup>

논산지역 서원의 원임은 원장-장의-유사-직월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원장은 당대의 명망이 있는 인사를 위주로 선발하였으며,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원장은 적합한 인물이 있을 경우에 선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장의는 소재하는 인근 지역의 지방관을 삼

23) 『宋子大全』 卷171, 碑, 「竹林書院廟庭碑」; 『市南先生文集』 卷7, 雜著, 「竹林書院節目」.

24) 『陶菴集』 卷10, 書, 「與俞子恭(肅基○甲子)」; 『白水集』 「年譜」 乙丑年 5月條.

25) 『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齋薦條.

26) 『陶菴集』 卷10, 書, 「與俞子恭(肅基○甲子)」 竹林書院介在兩湖之間 海山奇勝 固罕其匹 事體嚴重 有非他院之比……似聞院規自前以隣近邑宰差掌議

27) 『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齋薦條.

28) 『薦錄』은 매 間年 2월 講會에서 각 인원이 재임을 감당할 자 3인을 추천하는 형태로 작성되었다. 3원 중에서 2원은 호서, 1원은 호남을 추천하도록 하여 인재 추천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齋薦條).

29) 『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齋薦條.

30) 『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齋薦條.

았다. 유사는 2인으로 정해졌으며 서원 운영의 주체로 이해할 수 있다. 죽림서원의 경우만 지역적 특성으로 호서와 호남의 각 1인씩으로 차정하였다. 직월은 장부작성이나 분향과 같은 서원의 말단행정을 담당하였다. 이외에 경장의·경유사와 같이 서울에 소재하는 원임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논산지역의 서원의 원임의 구성과 운영은 전형적인 서인계 서원의 양상을 보이면서도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원생의 선발과 운영

서원은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피교육자인 원생은 서원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16세기에 건립되었던 초기 서원부터 원생은 『入院錄』을 작성하여 특별히 관리되었으며, 원규를 비롯한 서원 운영의 제반 사항들은 원생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 서원 교육의 주체로서 원생은 17세기 이후 避役의 목적으로 투숙하는 경향도 발생하는데, 이는 원생이 서원 내에서 의무와 특권을 동시에 가지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서원 원생의 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논산지역 강학의 초기 형태로 精會堂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회당은 김장생의 부친인 金繼輝가 강학하던 장소로 16세기 논산지역의 강학활동을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회당 「立議」에 의하면, 儒生入屬의 자격으로 初試入格者 혹은 文理該通하여 여러 사람들이 共知한 자의 경우 허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입속시 내부의 추천을 통하여야 하며 잘못된 추천일 경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sup>31)</sup>

초시입격자를 기준으로 강학 참여자격을 준 것은 16세기 건립된 서원의 입원자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소수서원에서 주세붕은 입원 자격과 관련하여 초시입격자를 기본으로 하되 미입격자는 학행을 토대로 유사가 입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sup>32)</sup> 그 결과 실제로 소수서원의 초기 입원생들은 초시입격자가 높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다.<sup>33)</sup> 이는 초기 서원들이 과거학습을 비롯한 관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수서원 이외에도 지방관에 의해 건립된 많은 서원들에서 관학적 목적과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김계희의 정회당의 유생 참여 기준 또한 이러한 시대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서원이 점차 전국적으로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서원의 입원자격도 초시입격자에서 한층 완화된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를 추동한 것은 이황의 「伊山書院院規」에서 부터였다. 이황은 서원의 본래 목적이 과거 학습이 아닌 道學에 있다고 이해했으며, 이에 따라 서원을 운영하고자 하였다.<sup>35)</sup> 원칙적으로 과거 학습을 서원 교육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입원 자격에 있어 초시 입격과 같은 사항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이이의 은병정사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隱屏精舍學規」에는 入齋 원칙에 있어 士族·庶類를 구분하지 않고 학문에 뜻이 있는 자의 경우 모두 입재를 허

31) 『精會堂誌』 「立議」.

32) 『竹溪志』 雜錄後, 「院規」.

33) 송정숙, 「『紹修書院 入院錄』 분석-16.17세기를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34, 2006.

34) 대표적인 사례로 星州의 迎鳳書院과 안동의 廬江書院을 들 수 있다. 영봉서원은 입원 자격에 있어서 소수서원의 내용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초순·중순·종순의 평가기준을 두어 교관이 試講을 하도록 하였다. 여강서원도 소수서원과 같이 생원·진사시 입격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미입격자의 입원 방식을 추가하였다. 대체로 16세기 건립된 서원들에서 초시입격여부는 입원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경동, 2022,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35) 정만조, 1997, 「退溪 李滉의 書院論-그의 敎化論과 관련하여」,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용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과거 학습을 할 경우에는 他處에 가서 익히도록 하였다.<sup>36)</sup> 이러한 점은 과거학습을 일정부분 허용했던 이황의 서원관에 비해 한층 도학 중심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sup>37)</sup>

17세기 논산지역에 건립되는 서원들이 대체로 율곡학과에 해당되는 서인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기 때문에 원생의 입원자격과 관련하여 이이의 「은병정사학규」를 차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이이의 서원관에 따라 서원들이 운영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竹林書院은 서원 운영에 있어 「隱屏精舍學規」를 따랐으며 이에 따라 입원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書儒 2인이 추천을 하고 이를 유사 2인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타 지역에서 온 경우에는 「은병정사학규」를 따라 居齋를 허용하고 서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8)</sup>

遯巖書院의 입원자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정회당 「입의」보다는 「은병정사학규」를 준용하여 입원자격의 폭을 확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69년 송준길과 윤증이 논의했던 돈암서원의 학규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학규는 은병정사학규를 준용하고, 원근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입학할 허락하여 학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39)</sup> 돈암서원 『入院錄』이 현전하지 않아 전체적인 원생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634년 김장생 봉안시에 28개 지역 155명, 1659년 김집 봉안시에 50개 지역 28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돈암서원에서 강학활동을 했거나 돈암서원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40)</sup> 또한, 연산현 내에서 돈암서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현내에 속한 대부분의 유생들이 돈암서원의 원생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魯岡書院은 입원자격에서 初試入格을 제외하고 貴賤에 구애받지 않으며, 학문에 뜻이 있고, 심행의 단정함을 기준으로 共知 즉 모든 사람이 허여하는 자로 입원자격을 변화하였다. 다만 추천의 방식에 있어서 齋儒 10인의 完議를 얻어야 하였다.<sup>41)</sup> 노강서원은 입원자격에서 「은병정사학규」를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추천제에 입각한 입원 자격을 명시하여 입원의 자율성과 함께 공론을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원생은 입원에 따른 강회 및 향사 준비 및 참석, 학업 평가와 같은 의무와 함께 특혜가 함께 제공되었다. 특히 17세기 이래로 강화된 儒生考講과 관련하여 서원 원생의 경우 관례적으로 면제되었기 때문에 사족들은 서원에 입원하여 이를 면제받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원칙적으로 서원 원생 또한 고강의 대상이기는 하였지만, 향교와 달리 고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서원에 입원하거나 고강을 피하기 위한 수

36) 『栗谷先生全書』 卷15, 雜著, 「隱屏精舍學規(戊寅)」.

37) 이에 대해 도학과 과거와 관련하여 이황을 본말론, 이이를 배제론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박종배, 2010,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45-46쪽).

38) 『竹林書院誌』 上編, 「居齋條」.

39) 『明齋遺稿』 卷9, 書, 「上同春堂」 ○一曰 許入之規也 學規曰 不論遠近許入……○二則籍名之規也 學規曰 不論貴賤 許入云 今貴賤之別大約有四等 曰士族也 曰庶族也(栗谷集鄉約位次註 庶族謂非士族而稱兩班 如校生忠贊別侍衛之類) 曰庶孽也 曰良民也 似當各爲一行 不相夾雜 而竊見靜會堂座目 雖庶孽 既爲生進者 則以齒序列 此規可以通行而無礙耶 若然則亦當定爲永規曰 庶族庶孽良民爲生進者 則與士族以齒列書 其餘則各爲一行書之 俾絕後日之爭端如何

40) 봉안시 지역적 분포는 이연숙, 1994, 「遯巖書院의 建立과 性格」,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 民族文化의 諸問題』, 干江權兌遠教授定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 679-681쪽 참조.

41) 『魯岡書院誌』 卷3, 「魯岡書院齋規」.

단으로 서원을 건립하여 입원생으로 등록하는 경우들도 발생했으며, 서원에 미포 등을 납부하고 그 대가로 額外 원생으로 활동하며 군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sup>42)</sup>

조정에서도 서원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院額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가장 근원적인 조치는 서원별 원생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숙종 33년(1707) 문묘에 종향된 인물일 경우 30인, 사액서원일 경우 15인으로 원생을 제한하였고, 숙종 39년(1713)에는 문묘 종향을 배향하는 서원의 원생을 30인에서 20인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sup>43)</sup> 이러한 배경은 서원이 입속된 원생들에 대한 특혜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물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서원 입속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생 인원의 제한은 18세기 후반 이후 논산지역 서원의 원액 운영에서도 적용되었다. 죽림서원은 본래 본관 30원 타관 20원의 액내 원생이 정해져 있었다.<sup>44)</sup> 이는 양호 지역의 사이에 위치한 죽림서원의 특수성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원생의 침학을 막기 위해 成貼하여 該邑에 발송하기도 하였다. 총 50원의 액내원생의 규모는 1791년 『礪山縣邑誌』에 의하면 30원으로 변경되었다.<sup>45)</sup> 이는 영조대에 규정된 30원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감액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돈암서원은 초기 액내 유생의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기 어렵고 1802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遯巖書院可考續錄』에 의하면, 돈암서원은 본래 액내 30, 액외 30인의 常例를 준용하였으며, 액외의 경우에는 액내원생에 유고가 있을 경우 보충되었다.<sup>46)</sup> 노강서원은 현존하는 자료로는 원생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죽림서원과 돈암서원의 사례와 같이 사액서원의 기준에 따라 액내 원생과 액외 원생을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국가에서 규정하는 액내 원생을 바탕으로 액외 원생을 탄력적으로 운영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생들은 원규를 포함한 내부 규정에 따라 원내의 생활이 규정되었다.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강학이다. 서원에서 원생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도학 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 건립 당시 강학활동은 특히나 중시되었다. 강학은 서원 내에서 체류하며 학문에 전념하는 居齋·居接과 정기적인 講會로 구분된다. 죽림서원·돈암서원·노강서원 모두 거재유생과 강회를 동시에 운영하였다.

거재유생은 실제 서원에서 기거하며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일과 전체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 규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시각과 예법에 맞는 행위가 요구되었으며, 학업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생각이나 행동은 금지되었다. 이들의 일과를 「魯岡書院學規」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매일 해가 뜨기 전에 기상하여 침구를 정리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 세수하고 빗을 빗고 해가 뜨면 모두 常服을 입고서 【갓은 直領 혹은 申直領 따위를 사용한다.】 廟庭에 가서 中門을 열지 않는 상태로 再拜하고 廟門을 나가는데, 사람들은 묘정의 동서로 서

42) 윤희면, 2004, 「額內院生の 사회적 성격과 신분」,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52-259쪽.

43) 『春官志』 先是仁祖甲申, 禮曹以入院儒生, 多不學冗雜之徒, 啓請一院毋過二十人。上非時急之事, 姑令置之。至肅廟丁亥, 又定式, 文廟從享大賢之院則三十人, 賜額書院十五人, 其後癸巳, 又故(改)令減三十人爲二十人。又有院奴定額法, 孝宗初年庚寅, 定制, 賜額書院, 給保奴七人, 未賜額則五人, 鄉賢祠則二人。其後額數漸滋, 肅廟乙卯, 戶曹判書吳挺緯, 劄論鄉校書院, 作一逋逃藪, 院奴米布, 徒作儒生酒食之資, 保布負木定式外濫屬者, 一切搜括, 充良丁兒弱之代。時又有書院募入之名, 丁亥, 因憲臣劄子, 定式, 已賜額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44) 『竹林書院誌』 上編, 「規約」 西齋條.

45) 『礪山縣邑誌』 「書院」 竹林書院(……掌議一人 有司二人 院生三十人)

46) 『遯巖書院可考續錄』

서 읍례를 마치고 독서할 장소로 나아간다. 【諸生 중에서 타 지역에서 처음 서원에 왔거나 혹은 서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반드시 묘정에 가서 재배한다.】 독서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게拱手한 상태에서 꿇어앉아 專心致知하여 義趣를 함께 궁구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 几案, 書冊, 筆硯 도구들은 모두 원래의 장소에 정리하여 두고 어지러이 섞이게 해서는 안된다.

- 식사할 때에는 나이 순서대로 앉아 먹고 마시고 이것저것 골라서 먹지 않으며 항상 배부르게 먹는 것으로 마음을 삼아서는 안된다.

-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는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스스로 편한 자리만을 골라서는 안된다. 坐中에 10살 이상된 자가 나가면 나이 어린 자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 식후에 혹은 溪上에서 遊詠할 적에는 모두 사물을 보고 이치를 궁구해야 하며, 遊戲나 雜談을 해서는 안된다.

- 걸음걸이는 천천히 걸으며 질서가 있어야 하고, 어지럽게 걸으면서 정돈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 언어는 반드시 신중하여야 하며 문자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니 공자께서 괴력난신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법으로 삼고 또 범조우의 七戒를 마음과 눈에 간직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거재 원생은 하루 일과의 전체를 규율에 따라 지켜야 했다. 이러한 점은 서원에서의 학습이 단순히 경전의 이해를 넘어서서 경전에 나타난 다양한 사항들을 실천하고 이를 체득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재 원생에 대한 생활 규정은 서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분향 방식이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서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후 윤증은 추가적으로 『魯岡書院齋規』를 제정하여 입재생의 강학 및 생활방식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기도 하였다.<sup>47)</sup> 거재 원생의 학업 성취를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존재했는데, 죽림서원의 경우는 過客들이 함부로 서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단하였다.<sup>48)</sup> 女巫와 雜色の 출입 등도 함께 금지하였다.<sup>49)</sup> 그러나 거재 원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供饋를 비롯한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재 원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9세기에는 거재 원생을 유지하는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거재와 함께 講會가 운영되었다. 강회는 정기와 비정기로 구분되는데, 정기 강회에서는 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죽림서원에서는 별도로 講學掌議를 兩湖에서 1~2인 선정하여 강학을 운영하였고, 매월 15일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sup>50)</sup> 또한 18세기에 李緯에 의해 도봉서원 강규를 참조하여 강학례를 포함한 세부적인 원칙이 마련되었다.<sup>51)</sup>

원칙적인 사항으로 강회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 했지만, 실제로 강회가 지속되는 것은 여러 여건상 한계가 있었다. 강회 또한 비용의 문제와 함께 원임을 비롯한 원생들의 적극적

47) 『明齋遺稿』卷30, 雜著, 「魯岡書院齋規」.

48) 『竹林書院誌』上編, 「規約」居齋條.

49) 『市南先生別集』卷7, 雜著, 「竹林書院節目」.

50) 『竹林書院誌』上編, 「規約」講學條.

51) 『竹林書院誌』上編, 「規約」講學條.

인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강회는 춘추 향사와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표적으로 19세기 돈암서원의 사례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춘하추동의 첫달 초하루와 향사를 시행하는 양정일에 課講을 시행하였다. 각 과강에는 평가 내용에 따른 상벌이 적용되었다.<sup>52)</sup> 1870년에는 講學契가 만들어져서 매년 9월 20일에 「白鹿洞規」를 敬讀하고 진강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53)</sup> 이러한 점은 기존의 거재유생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강회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강학 사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향 위주로 운영되는 서원에서 강학과 같이 서원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재정운영과 관리

원임과 원생이 서원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라면, 서원전·서원노비를 비롯한 재정적 사항들은 서원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서원의 전체적인 재정 사항과 지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서원의 운영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서원 재정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서원전, 서원노비, 屬寺, 부조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서원전과 서원노비는 서원 재정의 다수를 차지한다. 서원전은 매득, 속공, 상환, 노비 記上 등을 통해 확대되어 갔다. 서원노비는 관노비의 給屬, 매득, 상납, 출생 등의 방법을 통해 확보·확대되었다. 부조는 서원에 소속되어 있는 원임이나 원생뿐만 아니라 중앙 및 지방 관료 혹은 타서원 및 향교 등에서 享祀나 건물 중수, 문집 간행 등으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죽림서원, 돈암서원, 노강서원 등도 이러한 형태로 서원의 재정을 확보하였다.

서원 재정은 원임인 유사와 직월이 관리하였다. 유사는 서원내 물품의 出納을 관리하였으며, 직월은 장부를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sup>54)</sup> 이들이 작성 및 관리하는 서원 재정과 관련 장부는 田畓案·傳掌記·賭地記·書冊簿 등이 있으며 현재에도 논산 소재 서원들에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있다.

서원전의 경우 서원전의 면적을 파악하는 量案과 서원전의 수취액과 지출처를 명기한 賭地記·捧賭記가 있다. 量案은 1841년 작성된 『遯巖書院田畓量案』이 있다. 『돈암서원전답양안』에는 지번에 따른 田畓의 면적(四方尺數 및 陳·起 포함)과 형태(直·方·句·梯·圭) 그리고 면세여부가 확인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遯巖書院田畓量案』에 기재된 字號별 면적과 내용

字號	전체	起田畓	陳田畓	免稅田畓	買得	放賣	비고
伐	0-23-7	0-23-7	-	0-23-7	-	-	
大	2-25-4	0-63-3	1-62-1	0-63-3	-	-	
被	0-22-6	0-22-6	-	0-22-6	-	-	
草	0-73-3	0-73-3	-	0-73-3	-	-	
萬	0-32-0	0-32-0	-	0-32-0	-	0-06-1	1820년(庚辰) 防川과 관련하여 放賣
蓋	0-32-6	0-32-6	-	-	-	-	

52) 『遯巖書院可考續錄』.

53) 김자운, 2012,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3차 워크숍)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한국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44쪽.

54) 『魯岡書院誌』 卷3, 「魯岡書院齋規」.



字號	전체	起田畝	陳田畝	免稅田畝	買得	放賣	비고
此	0-10-8	0-10-8	-	0-10-8	-	-	
身	0-20-5	0-20-5	-	-	-	-	
常	0-17-0	0-17-0	-	0-17-0	-	-	
恭	0-24-0	0-24-0	-	-	-	0-24-0	1820년(庚辰) 防川과 관련하여 放賣
鞠	0-40-0	0-37-7	0-02-3	0-37-7	-	-	
鳴	0-40-0	0-40-0	-	-	-	-	
鳳	0-97-1	0-97-1	-	-	-	0-51-9	1819년(己卯) 放賣
毀	0-31-7	0-30-2	0-01-5	0-30-2	-	0-31-7	1820년(庚辰) 防川과 관련하여 放賣
才	0-07-7	0-07-7	-	0-07-7	-	-	
良	0-54-2	-	0-54-2	-	-	-	
過	0-06-5	0-06-5	-	0-06-5	-	-	
必	0-83-0	0-06-3	0-76-7	-	-	0-09-5	
靡	0-26-1	0-26-1	-	-	-	-	
建	0-24-0	0-24-0	-	-	-	-	
重	0-31-3	0-31-3	-	-	-	-	
弔	0-17-8	0-17-8	-	-	-	-	1821년(辛巳) 車字畝 20부 5속을 弔字畝를 上納
拱	0-18-4	0-18-4	-	-	-	-	
虛	0-08-4	0-08-4	-	-	-	-	
斯	0-29-5	0-29-5	-	-	-	-	
資	0-05-0	0-05-0	-	-	-	-	
競	0-15-8	0-15-8	-	-	-	0-15-8	1820년(庚辰) 防川과 관련하여 放賣
與	0-47-2	-	0-47-2	-	-	-	
上	0-14-6	0-14-6	-	-	-	-	祭田
訓	0-31-0	0-31-0	-	-	-	-	祭田
澄	0-30-1	0-30-1	-	-	-	-	1840년(庚子) 22부 4속 放賣
帝	0-21-9	0-21-9	-	-	-	-	1814년(甲戌) 本孫이 位土를 마련한 이후 還退
育	0-27-6	0-27-6	-	-	0-15-7	0-15-7	1820년(庚辰) 7부 7속 放賣 같은해 8부 防川 사유로 放賣
黎	0-20-0	0-20-0	-	-	-	-	
伐	0-32-0	0-32-0	-	-	0-29-7	0-29-7	1802년(壬戌) 29부 7속 放賣 후 還退
罪	0-14-6	0-14-6	-	-	0-14-6	0-14-6	1802년(壬戌) 전체 放賣 후 還退
周	0-03-7	0-03-7	-	-	-	-	
章	0-76-4	0-76-4	-	-	-	-	
愛	-	-	-	-	-	-	
총계	13-37-5	9-93-5	3-44-0	3-24-8	0-60-0	1-99-0	

※ 면적은 結-負-東으로 표현하였음 (예: 1결 2부 3속 →1-02-3)

<표 1>에서와 같이 1841년 돈암서원의 서원전은 38개의 지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3결 37부 5속으로 확인된다. 해당 규모는 상주 도남서원의 결수와 비교하여 유사하다.<sup>55)</sup> 돈암서원의 토지는 대부분 연산현 내의 토지로 추정된다. 기전과 진전의 비율은 대략 3:1 정도로 서원의 전체 토지 중에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는 起田은 대략 75%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대체로 서원의 운영과 관련한 토지들로 구성되는데, 특별히 上字와 訓字에 속하는 45부 6속에 해당되는 토지는 祭田으로 특별히 관리되었다. 이외에는 서원 재정 일반으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원전 중에서 3결 24부 8속에 해당되는 免稅田이 있다. 경종 연간에 논의되기 시작하여 영조대 최종적으로 서원전은 각 서원에서 自備하고 民結로 충당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액

55) 이수환, 2001,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169쪽.

서원은 3결, 미사액 서원은 무면세로 확정되어 『續大典』에 규정되었다.<sup>56)</sup> 돈암서원의 면세전은 『속대전』에서 규정된 3결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규정에 따라 면세전이 확립되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같은 字號 중에서도 陳田은 제외하고 면세전을 구성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면세에 해당되는 토지가 고정되어 있다기 보다는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續大典』 규정에 따라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할당된 면세전의 면적에 맞추어 면세결을 정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원전이라 하더라도 일반 民田과 마찬가지로 매득과 방매는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돈암서원의 경우 매득보다는 방매의 사례가 많다. 매득의 사례도 기존에 방매한 것을 還退 즉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존 서원전을 유지하려는 방향도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防川 즉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방매한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해당 시기는 1820년에 집중되는데, 돈암서원이 위치한 林里 인근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보수정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준다.<sup>57)</sup>

그렇다면 당시 서원전의 면적과 소출 그리고 지출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1858년에 돈암서원에서 작성된 「院中賭地記」에 의하면 전체 도지 면적은 14석 10두 락이고, 도지액은 118석 4두, 頗下額은 10석 15두로 실수입은 107석 9두로 나타난다.<sup>58)</sup> 전체 도지액 중에서 8% 정도만이 탈하되어 원도지액과 실수입의 차이는 크지 않다. 탈하의 사례는 화재를 비롯한 災結로 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전체적인 지출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사우중수·防川·庫直價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경상지출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기재했다.

노강서원의 「捧賭記」는 돈암서원에 비해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sup>59)</sup> 토지의 면적과 함께 지출처를 제시하고 있어 수입과 지출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魯岡書院捧賭記』에 나타난 서원전의 실도조액 및 지출 내역

연도	면적	실도조액	지출													잔여
			書記	庫直	使令	柴價	鹽價	醴價	蓐價	祭享供祀	祭官食床	酒米	舍音	기타		
1833	9석1두락	43석7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5석	2두4도5합	1두	－	18석	2석7두	
1834	9석6두락	36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5석	6도	－	10두	8석	5석	
1835	9석6두락	32석18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2석	5도3합	1두5도	10두	7석	4석	
1836	9석6두락	25석14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7석	5도	1두	10두	3석	3석	
1837	9석2두락	37석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8석	5도	1두	10두	11석	6석	
1838	9석2두락	39석14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1석	5도	1두	10두	10석	5석	
1839	9석2두락	40석16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6석	5도	1두	10두	9석	7석	

56) 『書院謄錄』 5冊, 경종 원년 5월 25일·영조 원년 2월 16일 ; 『英祖實錄』 卷21, 5년 정월 甲寅 ; 『續大典』 戶田, 「諸田」, 「學田」 書院田 本院自備 雖未滿三結 勿以民結充給……賜額書院 三結(未賜額 則無免稅位)

57) 19세기부터 임리 인근의 하천 범람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연지형이나 하상계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1860년대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돈암서원은 현재의 위치로 불가피하게 이건설 수 밖에 없었다. 19세기 후반 돈암서원의 이건설 과정에 대해서는 이철성, 2018, 「1880년 論山 遯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참조.

58) 『院中賭地記』

59) 『魯岡書院捧賭記』

연도	면적	실도조액	지출												잔여
			書記	庫直	使令	柴價	鹽價	鹽價	薄價	祭享供祀	祭官食床	酒米	舍音	기타	
1840	5석18두락	39석14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5석	5도	1두	10두	11석	4석
1841	11석6두락	26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7석	5도	1두	10두	1석	1석
1842	11석2두락	39석3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	5두	19석	5도	1두5도	10두	2석	3석
1843	10석15두락	39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4	5도	1두	10두	10석	4석
1844	10석19두락	44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13석	5도	1두	10두	18석	5석
1845	10석19두락	17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8석	5도	1두	10두	7석	1석
1846	10석12두락	64석1두	2석	3석	1석10두	-	-	-	-	17석	5도	1두	10두	18석	10석
1847	10석12두락	68석15두	2석	1석10두	2석	1석	1석	10두	5두	15석	5도	1두	10두	21석	15석
1848	10석19두락	67석5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25석10두	5도	1두	10두	18석	10석
1849	10석11두락	65석17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24석10두	5도	1두	10두	22석	12석
1850	10석11두락	55석18두	2석	1석10두	1석	1석	1석	10두	5두	20석	5도	1두	10두	15석	10석

※ 위 표는 朴連淑, 1988, 「朝鮮後期 書院經濟에 대한 一考察」의 <표 4>, <표 5>, <표 6>을 재편집하였다.

노강서원 서원전의 면적은 평균 10석 내외로 추정되며, 도조액은 평균 43석 10두이다. 서원전은 현재 논산에 해당하는 長久洞面, 素沙面, 得潤面, 廣石面, 可也谷面에 분포해 있으며, 부여와 공주 등에도 일부 서원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서원이 위치한 인근을 중심으로 서원전이 분포해 있었다. 도조액은 1858년 돈암서원과 비교하여 단위면적에 비해 실 도조액이 낮다. 이는 지형 및 환경적 요인으로 추정되는데, 1845년 수해로 인해 실도조액에 맞게 수취를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노강서원의 서원전에서는 頗下 즉 실제 도조액에서 면제받는 부분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1833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도지액이 95석 10두이지만 탈하가 52석 3두에 달해 실도지액인 43석 7두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노강서원 운영에 있어서 도지액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이는 실제 서원 운영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노강서원의 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지출에 대한 항목이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이 향사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기적 지출항목인 기타를 제외하고, 祭享供祀를 포함한 향사에서 절반 이상의 지출이 확인된다. 이외에 書記, 庫直, 使令과 같이 서원 운영의 말단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보수의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柴價, 鹽價 등 일상 생활과 관련한 비용들이 지출되었다.

노강서원의 지출 경향을 살펴보면 19세기 서원 운영에 있어 강학보다는 향사를 위주로 서원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학과 관련한 지출항목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향사를 중심으로 한 비용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서원 운영을 위한 도조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데, 상기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미곡이 1석~15석으로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예산으로는 거제 원생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서원노비는 서원전의 경작 및 身貢의 의무와 함께 서원 운영의 말단 실무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서원전과 함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다. 노비의 규모는 역동서원 등이 10~30구였던 것에서부터 도산서원과 같이 2,000여구를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원노비는 매득·기진·납상과 같이 서원 자체에서 마련한 것과 중앙 및 지방관청에서 屬公奴婢를 획급해 주는 것으로 확보되었다. 또한 이들은 거주지에 따라 院中差役者, 院底奴婢, 他官奴婢로 구분

되며 시기가 내려올수록 신공을 납부하는 타관노비화되는 경향이 많았다.<sup>60)</sup>

논산지역 서원에서도 노비 소유 사례가 확인된다. 죽림서원에서는 保奴가 祠宇直 20명, 享祀保奴 30명, 院中保奴 30명으로 총 80명의 保奴를 운영하였다.<sup>61)</sup> 돈암서원에서는 保奴 60명이 존재했다.<sup>62)</sup> 이들은 사우관리, 향사운영, 원중 잡역 등에 종사하면서 서원의 제반 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魯岡書院有司便覽』에는 노강서원의 1773년, 1785년, 1810년 노비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魯岡書院有司便覽』奴婢案에 기재된 서원노비 현황

연도	尼山(魯城)			石城			林川	定山	미상	총계
	院底	邑底	廣石	院公里	立石里	烟火				
1773	13		1	3	1	4	—	2	17	41
1785	37	2	1	8	7	6	—	2	33	96
1810	15	1	1	2	6	2	1	—	80	108

<표 3>과 같이 서원노비들은 노강서원이 위치한 노성 인근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서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노비의 총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출생으로 인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노비를 제외하고 院底 즉 서원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들은 서원과 관련한 잡역에 종사하고 서원전의 경작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이해된다.

서원 노비와 함께 院保라 하여 양인 중에서 서원에 소속되어 잡역을 수행하고 군역을 포함한 국가의 부역에 면제받는 부류가 있었다. 실제로 서원의 원보가 되는 것이 군역의 부담보다 험하다는 장점도 투속을 촉진하는 경향을 야기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양정의 일부는 私募屬을 통해 피역이 이루어진 방식과 유사하게 피역 수단으로서 서원의 원보로 투속하였다. 이에 사액서원으로 한정하여 원보를 20명으로 정하고 이것이 『續大典』에 법제화되었다.<sup>63)</sup>

원보에 소속되면 기본적으로 관찰사·수령이 지시하는 각종 부역에서 면제되고 서원에 보호를 받았다. 죽림서원의 경우 원보를 成貼하여 관청에 보내고 원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감영에 보고하여 해당 邑吏를 처벌하고 面任에게는 원보의 부역을 대신하여 충당하도록 하였다.<sup>64)</sup> 이러한 원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죽림서원 뿐만 아니라 타 서원에서도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의 입장에서 원보는 서원에서 소요되는 각종 잡역과 물품 마련에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에 중시되었다. 노강서원의 경우 1773년 良保奴 20인은 1년에 白米 13두를 私保奴 47인은 1년에 柴 2駄, 生蟹 17개, 小炬 2병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堆牲匠人이라는 항목에는 石城의 小船 3척과 林川의 小船 1척에 乾石魚를 포함한 물종을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였다.<sup>65)</sup> 원보는 서원 노비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돈암서

60) 이수환, 2001, 위의 책, 170-181쪽.

61) 『竹林書院誌』上編, 「院隸條」.

62) 『遯巖書院可考續錄』.

63) 『續大典』禮典, 「雜令」募入人. 募入人 鄉校四十名 賜額書院二十名 定額

64) 『竹林書院誌』上編, 「規約」院隸條.

원의 경우 배정된 보노의 본수는 60명이었는데, 이들을 서원노비로 충정하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양인인 원보로 채우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sup>66)</sup> 결과적으로 원보는 입속하는 良丁의 피역 수단이자 서원의 주요 재원으로 기능하였다.

서원전과 서원노비 그리고 원보는 서원을 구성하는 기본 재원이라면, 비정기로 발생하는 부조 등도 서원을 운영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기능하였다. 특히 서원에 불시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였다.

대체로 서원의 부조가 가장 많이 진행된 경우는 창건이나 추향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서원지 및 관련 기록을 통해 서원 건립이나 위패 봉안 등과 관련한 행사에서 100~300여명의 참석인원이 확인되며 참석자의 지역적 분포도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참석자의 인원과 분포는 결과적으로 부조의 범위와 물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해당 서원들의 부조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부조액의 범위도 확인되는데 노강서원 창건당시 부조록에 의하면 (京)有司 전국 각지의 관료와 향교, 서원, 사우, 향약, 개인 등 약 200여소에서 쌀, 종이, 붓, 소금 등 다양한 물품을 부조한 것이 확인된다.<sup>68)</sup> 1791년에는 중수에 따른 부조가 이루어졌는데, 전국 각지의 약 320여 곳에서 부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부조 총액은 錢文 1,931냥, 白米 100석, 기타 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sup>69)</sup> 중수에 따른 부조에는 창건 당시의 부조에 비해 파평 윤씨를 중심으로 한 소론계 가문의 부조가 일반화 되고 있으며, 이후 진행된 追配 및 重修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서원 부조에 있어서도 당색별·문중별로 계열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up>70)</sup>

서원 내 정기 지출 이외에 추향, 중수, 문집 간행 등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관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였다. 재정 지원은 지방관청이 일반적으로 담당했으며, 예외적으로 중앙에서 사패지의 지급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죽림서원은 성균관에 소속되어 있는 靈光의 角耳島를 賜牌地로 이속받았다.<sup>71)</sup> 이속된 각이도의 재원을 바탕으로 享祀의 수용을 비롯한 제반 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sup>72)</sup> 이러한 경향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지방관청의 서원 지원이 일상적이었다. 죽림서원, 돈암서원, 노강서원의 원임 구성에서 掌議를 인근의 지방관으로 선임한 것은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인근 군현의 수령뿐만 아니라, 감영에서도 서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886년 돈암서원에서 조직된 講學契에는 300냥을 지원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비와 庫直을

65) 『魯岡書院有司便覽』 癸巳五月改修正 良保奴·私保奴·堆牲匠人

66) 『遯巖書院可考續錄』.

67) 죽림서원은 창건 당시 上樑에서 전라감사 閔聖徽를 포함하여 70~80여명이 참여하였으며(『沙溪全書』 卷44, 附錄, 「年譜」 丙寅年條), 1663년 趙光祖·李滉의 추향시에는 1,000여명 가까운 인원이 참석하고 송시열의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宋子大全附錄』 卷5, 「年譜(四)」). 돈암서원은 배향자의 봉안례에 155명(김장생), 282명(김집), 177명(송준길), 160명(송시열)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충청도뿐만 아니라 타도의 유생들도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68) 『魯岡書院誌』 卷3, 「本營營建時扶助錄」

69) 『魯岡書院誌』 卷3, 「魯岡書院歷代重修時扶助錄」.

70) 이해준,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징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43-44쪽 ; 이해준, 2011, 위 논문, 172-173쪽. 물론 노강서원에서도 타 서원에 부조하는 사례들이 확인된다. 『魯岡書院有司便覽』 「應求·致聘記」에 의하면 타 서원의 부조 사례가 나타난다. 해당 서원은 交河 新谷書院(尹宣舉 배향), 靈光 龍巖書院(尹拯 배향), 石城 蓬湖書院(尹文舉 배향), 連山 龜山書院(尹焞 등 배향) 등 파평윤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서원들이다(朴連淑, 1988, 위 논문, 29-31쪽). 이를 통해 소론계 서원으로서 노강서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71) 『承政院日記』 351冊, 숙종 19년 2월 7일(辛巳) ; 『承政院日記』 352冊, 숙종 19년 5월 27일(庚午).

72) 『竹林書院誌』 上編, 「靈光角耳島事蹟(己巳三月初三日)」.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sup>73)</sup> 이러한 점은 지방관청이 서원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논산지역에 소재한 서원의 운영과 그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문헌 자료가 풍부한 영남지역에 비해 호서·호남지역 연구는 사액이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한 사항 이외에는 크게 연구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논산 지역에 위치한 서원들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지역 공론을 주도하거나 학파의 首院으로 기능하면서 비교적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현존하고 있고, 해당 자료들을 중심으로 서원들의 운영 실태를 분석할 수 있었다.

원임은 서원 관리의 주체로서 원장-장의-유사-직월의 구조로 운영되었다. 원장은 대체로 외부의 명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되었으며,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장의는 서원소재 및 인근지역 군현의 수령이 임명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道伯인 감사가 역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유사는 일반적으로 2인으로 서원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의 유생이 임명되었으며, 1년 혹은 2년의 임기를 수행하였다. 18세기 이래로 점차적으로 서원이 문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의 유사들은 여러 성관의 인물들이 순환적으로 역임하였다. 직월도 유사와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 유생으로 임명되었다. 서원의 말단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연령이 낮고 교체 주기도 가장 빈번하였다.

원생은 서원의 피교육자로서 강학과 제향활동의 주축을 담당하는 층위였다. 서원이 건립되기 이전인 16세기에는 서당 등 입회조건으로 초시입격여부가 중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학행을 중심으로 하고 입원 자격도 사족 이하로 확대되었다. 17세기 이후로 원생이 피역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액서원일 경우 액내원생을 30명으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논산 지역 서원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원생들은 거재와 강회의 이원화된 학습을 운영하였으나, 재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거재보다는 강회를 중심으로 한 서원 강학활동이 진행되었다.

서원의 재정을 구성하는 요소로 서원전, 서원노비, 원보, 부조 등을 들 수 있다. 논산지역 서원들은 賭租를 바탕으로 서원전을 운영했으며, 서원전의 주요한 소용처는 향사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서원노비는 서원의 관리를 위한 잡역이나 서원전의 경작 등을 담당하였다. 원보는 양정 피역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또한 서원 재정의 중요한 요소였다. 서원의 영향력과 특징은 부조에서 확인되었다. 봉당의 분화 및 문중의 발달 등으로 인해 서원별 부조의 경향이 계열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논산지역 서원은 조선후기 서원 운영의 공통점과 함께 다채로운 측면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유사한 지역에 존재하는 서원이라 하더라도 각 서원별 운영 양상은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하며, 논산 서원의 사례와 같이 봉당과 문중의 차이에 따라 그 차이점은 더 두드러진다. 추가적으로 논산지역에 소재한 문중 내 서원 관련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서원 운영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73) 『遼巖書院學契案』 「巡營甘結」. 돈암서원의 학계 구성은 연산향교의 講學契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李政祐, 1999, 「19세기 論山地方 儒林의 書院활동과 學契設置」, 『史學研究』 58:59, 912-914쪽 참조.

## <참고문헌>

### 1. 고문헌

『肅宗實錄』 『英祖實錄』 『承政院日記』  
『續大典』 『春官志』 『書院謄錄』 『礪山縣邑誌』  
『魯岡書院誌』 『遯巖書院誌』 『竹溪志』 『竹林書院誌』 『精會堂誌』  
『遯巖書院可考續錄』 『遯巖書院學契案』 『院中賭地記』  
『魯岡書院捧賭記』 『魯岡書院院中記事』 『魯岡書院有司便覽』  
『陶菴集』 『明齋遺稿』 『沙溪全書』 『宋子大全』 『市南集』 『栗谷全書』

### 2. 저서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이수환, 2001, 『朝鮮後期 書院研究』, 일조각  
정만조, 1997,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 3. 논문

- 김소희, 2021, 「논산 돈암서원 책판의 현황과 활용방안」, 『서지학연구』 87.  
김문준, 2018, 「돈암서원의 강학 활동」, 『한국철학논집』 58.  
朴連淑, 1988, 「朝鮮後期 書院經濟에 대한 一考察-魯岡書院의 財政構造分析을 中心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배, 2010, 「學規에 나타난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이념과 실제」, 『한국학논총』 33  
우인수, 2011,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號召使의 활동과 그 의미」, 『朝鮮史研究』 20.  
이경동, 2019, 「조선후기 礪山 竹林書院의 운영과 위상」, 『韓國書院學報』 9.  
이경동, 2022, 「16세기~17세기 초 영남지역 서원 원규의 구조와 변화」, 『중앙사론』 55.  
이연숙, 1994, 「遯巖書院의 建立과 性格」, 『干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民族文化의 諸問題』, 干江權允遠教授定年紀念論叢 刊行委員會.  
李政祐, 1999,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建立의 성격」, 『震檀學報』 88.  
李政祐, 1999, 「19세기 論山地方 儒林의 書院활동과 學契設置」, 『史學研究』 58·59.  
이철성, 2018, 「1880년 論山 遯巖書院의 移建과 재원확보」, 『역사와 담론』 88  
이해준, 2000, 「호서지역의 사족동향과 서원·사우」, 『한국의 서원과 학맥연구』, 경기대학교.  
이해준,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  
이해준, 2011, 「노강서원(魯岡書院) 자료(資料)의 유형(類型)과 성격(性格)」, 『한국서원학보』 1.  
임선빈, 2018, 「遯巖書院의 건립배경과 賜額 검토」, 『朝鮮時代史學報』 85.  
전용우, 1994,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16~1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경원, 1997, 「明齋 尹拯의 敎育과 鄉村 敎育活動」, 『역사와 역사교육』 2.  
한기범, 1989, 「沙溪 金長生의 生涯와 禮學思想」, 『백제연구』 20.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 운영과 특징」

토론자 : 문광균(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이 논문은 조선후기 기호유학의 중심지역인 충청도 연산, 노성, 은진, 여산 등 현 논산지역에 있었던 주요 서원을 대상으로 운영상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한 글이다. 17세기 충청도 그 중 충청우도지역에는 사계 김장생을 필두로 김집, 송준길, 송시열, 윤선거, 유계, 이유태, 윤증 등 명망 있는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17세기 후반 노소분기 이후 정치·사상적 기반을 달리했지만, 그 이전 이들이 주도하여 세운 죽림서원, 돈암서원, 노강서원 등 주요 서원의 운영은 비슷한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경동 선생님은 이 부문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토론자는 조선후기 경제사를 전공한 탓에 사회사의 한 축인 서원과 사족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 않다. 공주 도산서원, 연기향교의 재정운영 양상에 대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지만, 발표자의 노고에 다소 누가 될까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 1. 논산지역 서원 운영과 특징

이 글에서는 논산지역 서원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 원임, 원생, 재정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논산지역의 서원은 원장-장의-유사-직월의 구조로 되어 있고, 원장은 외부의 명망있는 인사(京院長)로 선임되었고, 유사와 장의 여러 성관의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역임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원생의 경우 초시합격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입원 자격을 사족 이하로 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재정의 경우 서원전의 도조가 재정적 기본토대가 되고, 이를 향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이 논산지역의 서원 운영 특징이라는 점은 선행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서원지, 규약과 절목, 문집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라 이견은 없다. 다만, 비단 상기의 내용이 논산지역에 소재한 서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묻고 싶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근지역인 부여 부산서원, 공주 도산서원 등도 논산지역의 서원과 운영상의 차이가 크게 없었던 듯 하다.

### 2. 노강서원의 원장 미선임 상황

노강서원의 경우 원장은 대부분 중앙의 정승반열에 있는 인물들이 선임되었다. 경원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원장 선임이 중단되었다. 이는 당시 노소 분기 이후 소론의 정치적 부침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3. 경유사와 향유사의 구분

통상 유사는 경유사와 향유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원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서원 운영에 있어 중앙과 지역 등 양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 등의 서원에서는 경유사와 향유사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실제 경유사와 향유사의 구분이 없는 것인가?

### 4. 원촌(院村)의 확인 여부

서원 재정의 근간은 서원전, 노비, 부조 등이다. 이와 함께 서원에 필요한 노동력과 재원 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촌이다. 원촌은 계방촌의 일종으로 관의 부역에 면제되는 대신 서원의 잡역에 동원되는 마을이다. 돈암서원, 노강서원, 죽림서원은 연산, 노성, 여산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으로 원촌이 설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료에 산견되는 원촌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 5. 노강서원의 노비 보유 추이

<표 3>은 흥미로운 통계수치이다. 18~19세기 사족이나 관노비의 추이를 보면 노비 보유수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노강서원의 경우 1773년에 41명, 1785년 96명, 1810년에는 108명으로 노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는 노강서원에 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시기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노비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 17~18세기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

## -도남·흥암서원을 중심으로-

박소희(영남대)

### 1. 머리말

서원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공론 수렴처로서 그 인적 구성은 원암·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서원은 봉당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당색·지역에 따라 조직체제나 자격·임기·임무 등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대별해 보면 영남 남인계 서원과 서인계 서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sup>

영남의 대표 지역 중 하나인 상주는 지리적 특성상 안동과 인접해 있어 일찍이 남인의 기반인 퇴계학파의 일원들이 많았다. 또 호서지역과도 가까워 기호학파와의 교류도 있어왔다. 그러한 배경 아래 17세기 상주에는 영남을 대표하는 남인계 도남서원이 건립되었고, 18세기에는 서인세력의 거점인 흥암서원이 집권노론의 비호 아래에 건립되었다. 대체로 17세기는 도남서원이 상주 공론을 대표하는 기구로 기능했으나 18세기 남·노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도남서원의 원임구성에도 일정부분 변화상이 나타났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상주 사족의 동향 속에서 파악된 연구가 많았다.<sup>2)</sup> 그리고 도남·흥암·근암·옥동서원 등 개별 서원을 주제로 다룬 연구도 발표됨으로써<sup>3)</sup> 조선시대 상주 사족의 실체는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남·흥암서원의 인적구성을 분석함으로써 남·노 서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서원의 실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양 서원의 『심원록』도 참고하려고 한다. 내용의 전개는 17·18세기로 나누어, 먼저 17세기는 아직 흥암서원이 건립되지 않았으므로 도남서원의 인적구성만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도남서원의 류성룡·정경세 추배과정을 『심원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실체에 접근해보려고 한다. 이후 18세기는 흥암서원의 『원록』을 통해 인적구성을 분석하고, 도남서원의 『임원록』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통해 남·노 간의 갈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성과들을 종합하는 한편 양 서원의 『심원록』을 보조로 활용함으로써 17~18세기 두 서

1)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2001, 103쪽.

2)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유기선, 「17~18세기 尙州鄕校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김학수, 「18세기 한 鄕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채광수, 「우북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3) 김학수, 『道南書院의 창건과 학문·정치·사회적 지향』,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2011;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재」, 『한국서원학보』12, 2021; 이수환, 『서원향사: 흥암서원·대로서』 국립무형유산원, 2014; 이병훈, 「16~18세기 문경 近岳書院의 변천」, 『영남학』7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김순한,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원의 실체에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2. 17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과 활동

### 1) 17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

1606년(선조 38) 상주 지역 최초로 정몽주·김굉필·정여창·이언적·이황을 제향하는 道南書院이 창건되었다. 서원 건립에 대한 논의는 1년 전인 1605년(선조 37) 4월 宋亮·金覺·尹璵 등이 창건 발의 통문을 돌리면서 이루어졌다. 건원을 제기했던 송량은 물력확보를 위해 경주하는 한편 감사 李時發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고 「約定文」을 작성하며 상주 士論을 통합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경세는 「建院通文」 작성 및 주요사항들을 스승인 류성룡과 상의하였고, 이준은 1607년(선조 38) 사액을 청하는 「請額呈文」을 지어 경상감사에게 올렸다.<sup>4)</sup>

서원 건립에 참여한 인물들은 「道南書院倉說契案」에서 확인된다. 여기에는 정경세·전식·이준 등 류성룡의 문인들을 비롯하여 약 238여명이 참여할 만큼 상주 전 사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대체로 류성룡·정경세 문인들의 참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成震丙 등 서인계 가문의 인사들도 17세기 중후반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건립직후부터 서인계 흥암서원이 창건되기 전까지 도남서원은 상주 사론을 대변하는 곳으로 기능하였다.

정경세는 건립 단계부터 도남서원을 영남 사론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이는 이덕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영남의 儒賢들을 합사하여 영남의 搢紳들을 이끌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sup>5)</sup>라 한데서 영남 首書院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포부를 알 수 있다. 이후 도남서원은 1621년(광해군 13) 안동·예안 사족을 중심으로 「청참이이첨소」가 올라갈 때 반대의사를 보임으로써 영남사론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며 독자성을 구축해 나갔다.<sup>6)</sup>

이후 도남서원은 1617년(광해군 9) 노수신 종향, 1631년(인조 9) 류성룡, 1635년(인조 13) 정경세까지 추배하면서 상주권 내 이황→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퇴계학통을 공식화하고 도내 남인계 서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는 원임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통상 남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院長·有司체제로 알려져 있다. 원장은 서원을 대표하며 院中의 대소사를 총괄하고, 유사는 서원의 실무를 담당하였다.<sup>7)</sup>

현재 도남서원에는 총 4책의 『임원록』이 있어 원임 구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기별로는 1664~1747년 353명, 1802~1836년 278명, 1836~1845년 83명, 1846~1871년 188명으로 총 902명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의하면 도남서원은 유사 대신 院長·齋任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청대일기』에 나오는 재임 기록을 보면 그 역할은 유사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남서원에서 하인이 와서 류 재임의 편지를 받아 보았다. 그저께 밤, 동쪽 광 속에 보관해 둔 齋服 열두 벌과 백지 20여 권·눗잔 두 쌍을 도둑맞았다고 한다. 이러한 때의 인심은 놀랍거나 괴이쩍은 것이 못되나, 또한 일찍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어설프게 저장한 소치이니 어찌하겠는

4) 김학수, 「道南書院의 창건과 학문·정치·사회적 지향」,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2011, 72쪽.

5) 鄭經世, 『愚伏集』, 권9, 書, 「與李漢陰 德馨」.

6)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95쪽.

7) 이수환, 앞의 책, 114쪽.

가.···<sup>8)</sup>

···재임이 나와서 呂君鑑에게 통문을 내고, 또 향사를 거행할 때 헌관에게 줄 통문을 써서 남겨두었는데, 향사를 거행하기 전에 다시 오기가 어려워서이다.···<sup>9)</sup>

···재임 趙聖楫이 보러 와서 사당 수리할 일을 의논하였다. 이는 근래에 들어와 비가 새고, 들보 아래의 벽이 무너져 내린 곳이 있어서이다. 그리고 무너지려는 곳도 많이 있어서 너무 미안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길일을 잡아 移安한 후에 수리하려고 한다.···<sup>10)</sup>

유사들의 업무는 서원 춘추제례와 분향례의 헌관이 되거나, 헌관·집사를 차출하는 일, 제례 참석 요청 통문 발송, 재정 및 집물 관리 등이 있었다.<sup>11)</sup> 위 기사를 보면 도남서원의 재임 역시 서원의 집물을 관리하고 향사를 거행할 때 통문을 돌리는 일, 건물 보수 등 서원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후 서원은 1868년(고종 5) 상주목사 鄭基永이 원장을 맡으면서 원장·一有司·재임체제가 되는데, 이는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과 함께 고을 수령이 원장을 맡았기 때문이었다.<sup>12)</sup> 그리고 수령이 원장을 맡다보니 기존 원장은 일유사라는 직명을 맡게 되었다. 다만 1년 뒤 다시 일유사·재임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수령 대신 기존의 원장이 그대로 일유사를 맡았다.<sup>13)</sup>

그렇다면 17세기 중후반 원임을 역임한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 원임 명단

순번	연도	원장 [* 우복 관련 인물]		齋任
		이름[본관]	비고 <sup>14)</sup>	
1	1664	趙稜[풍양]	서애·우복 문인 趙光璧 후손	趙東益, 洪陽震
2	1666	黃緬[장수]	우복 문인	金相元, 金聲弼
3	1667	柳千之[풍산]	서애·한강·여헌·우복 문인 柳珍子, 張應一 門	
4	1671	成震丙[창녕]	成灝 손자	柳百之, 洪陽震
5	1672	洪汝河[부림]	서애·우복 문인 洪鎬 子 근암서원 이덕형 병향 주도	申命鶴, 趙德胤
6	1675	金以載[의성]	우복 문인, 金廷堅[한강·동강·우복 門] 子	趙振胤, 金汝鎭
7	1676	權坵[안동]	권상일 증조부 근암서원 창건 주도	金汝鎭, 李在隆, 趙東郊
8	1677	柳千之[풍산]	재임	趙東郊, 趙泰胤
9	1682	權坵[안동]	재임	柳佳, 曹夏徵, 金汝鎭
10	1683	柳千之[풍산]	재임	金汝鎭, 趙彦光
11	1684	孫萬雄[경주]	서애·우복 문인 孫禔 손자 이현일 문인	金守長, 康習
12	1685	金世維[영동]	우복 문인 金邁 子	趙東胤, 李碩至

8) 權相一, 『淸臺日記』, 戊辰年[1748] 4월 22일.

9) 權相一, 『淸臺日記』, 己巳年[1749] 1월 5일.

10) 權相一, 『淸臺日記』, 癸酉年[1753] 3월 15일.

1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207쪽.

12) 『고종실록』, 고종 5년 9월 3일.

13) 상주의 또 다른 남인계 서원인 옥동서원도 중앙 조치에 따라 1868년부터 원장[목사]·일유사·재임체제가 나오고 있다.(김순환,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09~111쪽)

14)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72쪽 참고

순번	연도	원장 [* 우복 관련 인물]		齋任
		이름[본관]	비고 <sup>14)</sup>	
13	1686	鄭錫僑[진양]	정경세 증손	康世楷, 曹夏承
14	1687	李在憲[흥양]	서애 문인 李堧 손자	康世楷, 曹夏承, 權份, 姜均
15	1688	金鍵[상산]	金弘敏 손자, 종조부 金弘微	姜均, 金汝錡, 金紀長
16	1688	鄭堯錫[동래]	우복 문인 鄭榮後 손자	柳昌河, 趙彦琦
17	1689	宋穎[여산]	우복 문인 宋以鎭 손자	柳昌河, 趙彦琦, 金胄一, 趙泳
18	1689	金鍵[상산]	재임	高漢翽, 曹夏英, 趙應胤, 李碩至, 姜珪, 李泰至, 康守楷, 李汝達
19	1692	李在憲[흥양]	재임	金夏燮, 金顯基, 趙世項, 趙彦琦
20	1693	鄭之鍵[동래]	우복 문인 鄭榮後 증손	金顯基, 曹夏龜
21	1694	金鍵[상산]	재임	曹夏龜, 趙{欽+心}, 趙泳, 柳緯河, 李鼎至, 趙世項, 王三達
22	1695	金宇泰[청도]	우복 문인 金繼美 손자 이현일·홍여하 문인	趙灏, 李增曄, 姜碩宗
23	1695	孫萬雄[경주]	재임	姜碩宗, 李增曄, 趙自敬, 徐羲錫
24	1696	申弼成[평산]	우복 문인 申尙哲 증손	徐羲錫, 金胄一, 高師錫
25	1697	李葆英[신평]	미상	金胄一, 趙東旭, 王三達
26	1698	宋穎[여산]	재임	康汝楷, 李善至, 金景濂
27	1698	鄭錫僑[진양]	재임	金景濂, 金胄世, 金栢
28	1699	孫萬雄[경주]	재임	韓翼舜, 蔡夢徵, 韓翼采, 趙彦鎭

위 표와 같이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 원장은 총 17개 가문에서 확인된다. 1682년 전까지는 원장의 임기가 부정기적이었다면, 이후로는 거의 1년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또 특정 가문에서 원장을 독점하지 않고 다양한 가문에서, 상주 사족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6세기 중후반 이래 상주 남촌 일대에 상산김씨 김비궁계·진양정씨·흥양이씨·여산송씨가 정착해 있었고, 화령에 광주노씨, 중모에 장수황씨, 산양에 부림홍씨·안동권씨, 낙동 주변에 풍양조씨 등이 세거하고 있었다.<sup>15)</sup> 풍산류씨도 1618년(광해군 10) 안동 하회에서 이거해온 뒤 이준의 딸과 정경세의 손자를 며느리와 사위로 맞으면서 지역사회에 정착해 있었다.<sup>16)</sup> 이들 가문이 원임을 맡음으로써 도남서원은 상주 사족 전체를 대변하는 기구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도산서원의 경우 광산김씨·진성이씨·봉화금씨의 원장직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sup>17)</sup>

원장의 면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정경세의 후손·문인, 문인 후손의 참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원장 정석교는 정경세의 증손이고 황면·김이재는 문인이다. 또 문인 정영후·손이진·김계미·신상철[우복 門], 조광벽·홍호·손당[서애·우복 門], 류진[서애·여헌·우복 門], 김정견[한강·동강·우복 門]의 후손이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문인은 아니지만 1687·1692년 원장을 지낸 이재현과 1671년 원장 성진병의 경우 조부가 도남서원 창건에 참여한 바 있다. 전자는 정경세와 함께 서애문하에서 수학했던 이전이며 후자는 서애·우율의 문인이었던 성람이다. 특히 성진병은 상주 지역 서인계 가문의 일원으로서, 원장을 맡기 전 해인 1670년(현종 11) 당시 일대 대표 서인계 인사였던 신석번과 함께 서원 청액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18)</sup> 그가 원장을 맡은 것은 서인계이긴 하지만 서원창건에

및 보완.

15)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2, 53쪽.

16) 채광수,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12, 2021, 15쪽.

17)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102쪽.

18) 申碩蕃, 『百源集』권3, 書, 「答成子昭 震丙」;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11월 5일.; 여기서 신석번은

참여한 일원으로서, 서애계와의 혼반을 통한 남인계 사족들과의 교류 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95년 원장을 지낸 청도김씨 金宇泰의 가문도 남·노가 나누어져 있었다. 이 가문은 17, 18세기에 모두 원장을 역임하였는데, 당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청도김씨는 九鼎대에 상주에 정착한 후 손자 以仁의 5대손 三樂이 신석번·석형 형제, 성진항 등과 교류하였고, 창녕성씨를 후처로 맞으며 자연스레 노론화되어 갔다. 이들의 후손은 18세기 노론이 도남서원을 장악했을 때 원장을 역임하게 된다.<sup>19)</sup> 반면 김우태는 이인의 동생 以禮의 5대손으로, 조부 김계미가 정경세 문인이었고, 그 역시 홍여하·이현일의 문인이었다.<sup>20)</sup> 따라서 17세기 도남서원의 원장은 이들 남인계 인사들이 원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한편 齋任의 명단을 살펴보면 대체로 원장과 비슷한 양상이다. 원장을 지낸 가문과 같은 성관이 많은 가운데, 康·姜·高·曹·王·徐·韓·蔡氏<sup>21)</sup>가 추가되어 있다. 이중 가계가 확인되는 신천강씨·창녕조씨·청주한씨를 보면 모두 『도남서원장설계안』의 회원이자 우복 문인의 후손들이다. 먼저 신천강씨는 문인 康用侯·康用良의 손자 世楷·守楷가 재임을 지냈고<sup>22)</sup> 창녕조씨에서도 문인 曹希仁과 사촌지간인 曹克仁 증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sup>23)</sup> 청주한씨도 문인 韓克昌·韓克成의 손자 翼舜·翼采가 확인된다.<sup>24)</sup>

그리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여헌계와 관련된 인물도 확인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서애계와 장현광의 교류가 류성룡의 고제였던 정경세의 학단으로 연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원장 홍여하는 부친 홍호가 우복 문인인 반면 그는 장현광의 아들 張應一과 교류하였고,<sup>25)</sup> 류천지는 부친 류진이 서애·한강·여헌·우복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 장응일의 문인이 되었다. 성진병 역시 장응일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sup>26)</sup> 그의 동생 成震井은 신석번의 문인이자 장현광의 문인이기도 했다. 간접적으로는 金鍵의 종조부 김홍미가 장현광의 생질 노경임과 同壻간이다.

장현광은 1634년(인조 12) 상주 유림들과 회합하며 講信契 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때 참석한 사람으로 全湜·金知復·趙光璧·柳祿·金秋任·全克恒[전식 子] 등이 있었다.<sup>27)</sup> 전식은 류성룡과 장현광의 문인이었고, 김지복·조광벽·류진·김추임은 모두 정경세의 문인으로, 이들은 『도남서원장설계안』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여헌학단은 도남서원에 류성룡,

정경세 문인이지만 상주 내 대표 서인계이기도 했다. 이들이 청액소를 올렸을 때는 기해예송으로 서인집권기였던 만큼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신석번은 1640년 상례논쟁과 문지논쟁 및 1666년 송시열 변무소를 올리는 등 우복학단 내에서는 정치적 결을 달리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특히 송시열 변무소는 이 해 안동 유생 柳世哲을 소두로 올라간 복제소에 반박하는 것이었고, 이 복제소는 발론 단계에서 홍여하가 공론을 주도, 류원지가 소본을 찬하는 등 상주권 서애·우복계 인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279~281쪽.)

19)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70쪽.

20) 洪汝河, 『木齋集』권12, 附錄, 「祭文」; 「錦陽及門錄」.

21) 인천채씨는 蔡紹觀의 6대손 蔡夢徵이 재임을 지냈다. 이 가문에서는 채소관의 형 胤觀계열에서 함창에 거주하던 6대손 蔡河徵이 송시열 문인이 되었고, 산양 죽림에 거주하던 또 다른 6대손 蔡獻徵은 갈암의 문인이 되었다. 이병훈, 「16~18세기 문경 近岳書院의 변천」, 『영남학』7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207쪽.

22) 신천강씨대동보편찬위원회, 『信川康氏大同譜』1권, 가승미디어, 2007.

23) 창녕조씨대동보편찬위원회, 『昌寧曹氏太僕卿公派譜』上, 회상사, 1990.

24) 청주한씨대동족보편찬위원회, 『丁酉七校淸州韓氏大同族譜』, 뿌리정보미디어, 2017

25) 洪汝河, 『木齋集』, 「奉呈張大成 應一 號聽天 時守金山」.

26) 張應一, 『聽天堂集』권6, 付祿, 「士林祭文 侍教生柳千之」, 「輓章 掌令成震丙」.

27) 張顯光, 『旅軒先生續集』권9, 付祿, 「拜門錄 門人申悅道」.

정경세 추배 행사에도 참석하게 된다. 이상 17세기 도남서원은 대체로 서애·우복계열의 남인계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원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류성룡·정경세 추배와 명륜당 중건

도남서원 창건을 주도했던 정경세는 류성룡 말년인 1602년(선조 35) 무렵부터 서애문하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류성룡 사후 1614년(광해군 6) 병산서원 봉안문 및 향사축문을 작성하였고, 1620년(광해군 12) 여강서원에 류성룡·김성일의 합향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병산서원 측의 반발도 있었으나 이 역시 정경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무마되었다. 이후 두 제향자에 대한 종향·배향 논란과 위차의 선후 문제도 정경세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로써 서애·학봉은 도산서원에 종향으로 되어 있던 조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sup>28)</sup>

이후 1631년 도남서원에서 서애·우복 문인의 주도 하에 류성룡을 배향하게 된다. 9월 6일 봉안식에 참석한 외부 사람만 하더라도 약 87명에 달했고, 상주인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sup>29)</sup> 당시 참석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1631년 류성룡 위판 봉안식 참석자 명단

지역	수	이름	기타
안동	27	權潤, 權沆, 權堉, 權堦, 權文奎, 柳尙謙, 金璟, 金{宣+見}, 金世英, 金希振, 南之斗, 柳宗之, 柳元定, 朴承燁, 宋尙賓, 安道全, 李克溫, 李面漢, 李信郁, 李廷吉, 李曾孝, 李榮業, 張爾憲, 鄭基萊, 鄭山輔, 鄭維城, 鄭維垓	權堉: 權益昌 문인(『湖陽集』 「湖陽先生門人錄」) 權堦: 권상일 증조부 柳宗之: 류성룡 손자 柳元定: 류성룡 손자, 정경세 문인, 병산서원 제유사(1635 외 5회) 朴承燁: 병산서원 제유사(1624 외 1회) 安道全: 병산서원 제유사(1631 외 3회) 李克溫: 병산서원 제유사(1623) 李廷吉: 병산서원 제유사(1633 외 3회) 李榮業: 병산서원 제유사(1638 외 3회) 南之斗: 병산서원 제유사(1627 외 9회) 鄭維城: 병산서원 제유사(1627) 鄭維垓: 병산서원 제유사(1636)
함창	10	朴挺世, 申以遠, 申碩慶, 申碩祖, 申碩弼, 申煥, 李莫, 鄭基武, 秦克恬, 蔡之溟	申碩祖·申碩弼: 신석번 형제[父 謹]
예천	7	權塤, 權克{言+亢}, 權國柱, 李昌運, 李經南, 李均, 李萬兼	權國柱: 道南書院의 西厓 柳成龍선생位版의 글씨를 씌(李尙彦, 『城西集』, 「容巖權公行狀」)
영주	6	權堧, 金汝燾, 金汝琳, 金汝渠, 申以魯, 朴安復	權堧: 정경세 門, 아들 權斗紀 갈암 門 朴安復: 아들을 퇴계 문인 南夢鰲에게 수학하게 함(『響山集』권10 記 「四桂堂記」)
예안	5	許蓉, 琴好謙, 金謙, 金光岳, 琴是成	許蓉·琴是成: 도산서원 원생 琴好謙: 1665 도산서원 上有司 金光岳: 1648년 도산서원 上有司 정구·장현광 門

28)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214쪽, 218~223쪽.

29) 金垓, 『溪巖日錄』권5, 8월 26일 “晴. 尙州道南書院. 將以九月初六. 配享西厓. 通文列邑.”; 『尋院錄』 “辛未九月初六日 西厓先生奉安時參與 八十三” 심원록에는 83인이라고 하나 인명수를 세어보면 85명이다. 『계암일록』권5, 8월 29일 기사에 의하면, 金光岳, 許蓉, 琴好謙, 琴是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원록』에는 김광악, 금시성은 빠져 있어 추가하였다.

지역	수	이름	기타
			金礪: 1658·59 도산서원 上有司
군위	5	孫興仁, 孫光世, 李{枏+心}吉, 李昌吉, 洪旭	孫興仁: 柳疹 門
용궁	3	權估, 李長榮, 全泳	
의성	3	權守經, 丁兪, 李文遵	權守經: 정구 門 丁兪: 장현광 門
비안	3	卞壁, 張翊, 張乃綱	
김산	3	姜渫, 呂澈, 呂浙	
성주	3	金以潤, 李道長, 宋世弼	李道長: 이윤우 子, 장현광 門 宋世弼: 장현광 門, 張應一 처질
선산	3	金是城, 朴順慶, 李英馥	
봉화	2	邊銓, 權和重	
풍기	2	金是恭, 黃有纘	
지례	1	金鉉	
문경	1	李瑛	
인동	1	金慶長	장현광 문인, 旅門十賢
개령	1	李楫	
합천	1	曹挺生	조우인[서애門]·조희인[우복門]의 종질, 정인홍·장현광 門
총	87		

봉안식 참석자들의 거주지를 보면, 총 19개 지역이 확인된다. 참여 순으로 보면 안동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함창 10명, 예천 7명, 영주 6명, 예안 5명 순이다. 안동 참석자들은 대부분 류성룡의 후손이거나 병산서원을 출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예안과 비교했을 때도 참여 수가 확연히 차이난다. 이와 관련하여 예안 출신 金垚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도남서원에 차출되어 가는 선비는, 우리 고을은 金光岳·許蓉·琴好謙·琴是成 등 네 사람이었는데, 원장이 齋任과 함께 의논하여 정한 것이다. 안동은 여강서원 원장 李煥이 40인을 차출하였는데, 반드시 저렇게 많이 보낸 다음이라야 마음에 유쾌하며 공론에 시원한 것인가? 이환이 일을 행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았다.<sup>30)</sup>

서애·학봉의 여강서원 합향 때부터 비판적이던 예안사람들은 이때 노수신의 승향까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반대가 많았다.<sup>31)</sup> 이에 도산서원 측에서는 김광악을 포함하여 4명만 참석시켰다. 특히 허용은 정경세 사후 도산서원 원생으로서 제문을 지을 정도로 각별함이 있었다.<sup>32)</sup> 반면 여강서원에서는 40명을 차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심원록』에는 27명만 확인되는데, 이 기사대로 40명이 방문했다면, 전체 참석자 중 안동 사람만 약 46%에 달하게 된다.

함창에서는 평산신씨의 참여가 높은 편으로 이중 申碩祖·申碩弼은 신석번의 형제들이다. 신석번은 『도남서원창설계안』에서도 확인되며 1670년(현종 11) 청액소를 기획할 정도로 서원 운영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15세에 申景翼에게 출계하였는데, 석조·석필은 출계하기 전 생부 謹의 아들로 혈연관계에 의한 참석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성주·선산·의성·인동 등에서 장현광 문인들의 참석이다. 상주가 이들 지역과 가깝기도 하거니와 이는 서애계와 여헌계의 연고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

30) 『계암일록』권5, 8월 29일.

31)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87쪽.

32) 鄭經世, 『愚伏集』別集 권12, 付祿, 祭文, 「祭文 禮安陶山書院儒生許蓉」.



다. 먼저 류성룡의 부친 류중영과 류운룡은 각각 장현광의 생질 노경필·노경임을 외손서·사위로 맞으며 장현광과는 간접적으로 혼반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1584년 류운룡이 인동현감으로 부임한 후 장현광과 일련의 사업을 이루어 냈고, 류진과 金應祖가 장현광의 문인이 되면서 학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배경 아래 서애에게는 『서애집』 발문을 장현광에게 부탁했으며 병산서원 尊德祠의 복향 문제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sup>33)</sup> 이러한 관계는 앞서 상술한 바 자연스레 우복학단과의 교유로 이어졌다. 또 장현광과 정경세는 1627년(인조 4) 정묘호란 당시 경상좌·우도호소사를 역임하면서 직접 만나 호소사 막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던 인연도 있었다.<sup>34)</sup>

한편 조정생은 합천의 대표적인 남명학파 가문의 일원이었다. 이 가계는 본래 창녕과 상주에 살다가 曹夢吉 대에 합천으로 이거하였다.<sup>35)</sup> 조정생의 조부 몽길은 남명과 교유했던 신계성의 사위였고, 부친 曹應仁은 정인홍의 문인이자 고령의 대북 가문인 고령박씨 박정완의 장인이었다. 조정생 역시 박정완의 형 박정번의 딸과 결혼했는데, 박정번의 묘비명을 정인홍이 지어줄 만큼 이들 가문은 남명학파의 핵심 가문이었다.<sup>36)</sup> 다만 부친 조응인은 대북의 전횡에 선을 긋고<sup>37)</sup> 매형 金聃壽를 통해 한강의 문인이 되었는데, 김담수의 아들 김정견은 훗날 정경세의 도남서원 배향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후 조응인은 아들 조정생을 여현의 문하에서 수학하도록 했다.<sup>38)</sup> 조정생의 참여는 상주에 세거하던 종조부 夢臣·夢祥의 후손들이 서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상술한 바 김정견 가문과의 혼반 등을 고려하여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이후 도남서원은 전식의 주도 하에 문인 김정견[도남원장], 韓克述, 鄭永世 등이 정경세의 추배를 발론하게 된다. 정경세가 류성룡의 추배를 통해 서애의 계문적전화를 이루려했다면, 정경세의 추배는 이항→류성룡→정경세로 이어지는 영남 학통의 설정 과정이었다. 지극히 문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추배는 상주 유림의 원로였던 趙靖을 비롯해 향론과 토론의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4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남서원 측은 1635년 12월 11일 정경세의 추배를 성사시켰다. 『심원록』과 『계암일록』을 토대로 당시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635년 정경세 위판 봉안식 참석자 명단

지역	수	이름	기타
함창	7	李必鳴, 李覺民, 趙唯一, 李■馨, 李長馨, 洪以海, 南星祐	李覺民: 정경세 사후 祭文 지음. 趙唯一: 趙翼[여현·윤근수 門] 종질 <sup>41)</sup>
예천	5	李瑞翼, 宋大修, 李澈, 朴應衡, 朴{王+變}	朴應衡: 박정번(내암·한강 門) 손자
영주	3	金汝樑, 閔東鳴, *權垺	權垺: 흥여하·金啓光·鄭弼 교유 <sup>42)</sup>

33) 김학수, 앞의 논문, 158~161쪽.

34)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015, 235쪽.

35) 조몽길의 동생 曹夢說·夢臣·夢祥계열은 상주에 세거하였다. 이중 조몽신의 아들 曹希仁이 정경세의 문인이다.

36) 鄭仁弘, 『來庵集』권13, 碑文, 「主簿朴君墓誌銘」.

37) 鄭蘊, 『桐溪續集』권2, 墓碣, 「陶村曹公墓碣銘」.

38) 『旅軒先生及門諸賢錄』, 「曹挺生」;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156쪽.

39) 夢說-復仁-佑漢[창설계안]-夏英[1689년 齋任]

夢臣-友仁[서애 門]-挺融[창설계안]-時孟·時大·時虎[창설계안]

-希仁[우복 門, 창설계안]-挺華[창설계안]/挺恒[창설계안]-時大[창설계안]

夢祥-克仁-挺建-時望[창설계안]-夏徵[장자 1682 齋任]·夏龜[3子 1694 齋任]

40) 김학수, 앞의 논문, 2011, 91~93쪽.

지역	수	이름	기타
안동	2	李峽, 南磁	李峽: 이황 증질손 <sup>43)</sup> , 우복 門 南磁: 여헌·우복 門 <sup>44)</sup>
용궁	2	安碩徵, 文以博, *權搏	權搏: 申楫 치남
인동	2	柳碩男, 張是玠	柳碩男: 여헌 門
대구	2	都愼行, 崔節南	都愼行: 동생 都愼徵 한강·여헌 門
청송	2	李之侄, *申楫	申楫: 우복·한강·여헌 門
영해	1	權璟	
풍기	1	秦柱國	
군위	1	孫興仁	南溪儒生 <sup>45)</sup>
비안	1	金鈺	
의성	1	金尙玼	형 金尙瑗이 여헌 門
김산	1	金尙仁	
개령	1	李尙規	
안음	1	姜尙胤	姜渭龍[강익 조카] 후손, 鄭蘊 종고모부
함양	1	姜絳	남명 문인 강익 손자, 1634년 남계서원에 강익 별묘에 제향
경주	1	金元忠	
경산	1	徐愷	父 徐思選: 여헌 門
京	1	俞若曾	우복 門
미상	3	李後元, *郭龍伯,	
합계	40		

\* 『계암일록』에만 기록된 인물

표를 보면, 4년 전 류성룡의 추배 때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전체 수에 있어 절반가량 차이가 나고, 류성룡 추배 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안동 사림은 단 두 명이 참석하였다. 또 반대 여론이 있었던 예안에서도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참석해주었지만 이번에는 한명도 오지 않았다. 김령의 『계암일록』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남서원에서 鄭判書 배향을 지난 11일에 거행하였다. 선생[이황]의 廟에 참여하는 것이 곧 어떠한 자리인데 이러한 일을 하는가. 李峽가 초헌을 하고, 申楫이 아헌을, 郭龍伯이 종헌을 하였고, 權搏이 집례를 맡았다. 고유문은 이래가 지었고, 제문은 전식全湜이 지었다. 모인 사람은 겨우 100명으로, 안동에서는 오직 남자南磁만 갔고, 영천에서는 오직 권후權堧만 갔는데, 모두 개인적으로 간 것이다.

이 일은 애초에 韓克述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중간에는 전적으로 홍호가 중론을 물리치고 한 것에 말미암은 것이다. 전식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지 않았고, 정 판서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견을 세울 수 없었다. 그러나 상주의 여론 또한 매우 한결같지 않았으니, 예를 들면 趙判事 무리의 경우는 애초부터 매우 불가하다고 했다. 김효중 역시 크게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매우 힘써서 논의했으므로, 金時翼 무리의 말이 더욱 끊이지 않았다.…<sup>46)</sup>

41) 金鈴, 『계암일록』권5, 丁卯 12월 9일 “夜使甥來。仍聞佻甥定婚趙家。以仲明兄言也。趙唯一開城留守趙翼從姪也。翼不滿朱子四書註。自爲改之。時人之骨也。惟一以是勢。亦擬官望。仲明兄相切而爲是事也。”

42) 金宗休, 『書巢集』권5, 墓誌銘, 「聽梧堂權公壙誌」“…與洪木齋 鄭愚川 金鳩齋諸公 徜徉田園 觴詠自娛 鳩齋即公之玉潤 木翁亦年輩稍間而一以執友處之…”

43) 趙綱, 『龍洲遺稿』권23, 東槎錄, 「次李蔚山 峽 贈韻 是日與李看退翁 高峯理氣書 李即退翁曾姪孫」

44) 李野淳, 『廣瀨文集』권10, 墓碣銘, 「成均生員无悶堂南公墓碣銘」, “…時從旅軒 愚伏諸賢以求磨礱…”

45) 柳軫, 『修巖先生年譜』권2, 附錄, 「祭文 南溪儒生孫興仁等」; 군위의 남계서원은 류성룡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627년(인조 4) 창건되었다.

46) 金鈴, 『계암일록』권7, 乙亥年, 12월 19일.

당시 초헌관은 안동 출신 이래가 맡았고, 청송 출신 신즙은 아헌관, 곽용백은 종헌관, 권박이 집례를 맡았다. 위 인용문에도 나오듯이 이들은 향론을 대표하여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이래, 신즙은 정경세의 문인이었고, 권박은 신즙의 처남이다. 특히 신즙은 1611년(광해군 3) 정인홍의 회퇴변적으로 대립하던 정경세가 사판에서 삭제되자 변무소를 작성할 정도로 존송의식이 깊었다. 거기다 추배를 주도했던 홍호와 함께 동문수학한 인연도 있었고, 전식과도 서신을 주고받는 등 교분이 두터웠다.<sup>47)</sup> 영주 출신 권후 역시 정경세 문인들과의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인으로 兪若魯이 서울에서 직접 참석하러 왔고, 예천 출신 박응형도 참석하였다. 박응형은 본래 고령 출신으로 조부가 앞서 기술한 박정번이며 조정생이 고모부에 해당한다. 그는 1619년(광해군 11) 부친 朴昌先의 유언에 따라 ‘絶倬’[합천 정인홍과 절교]하고 외조부 李光胤이 있던 예천으로 이주하였다. 인조반정이 있던 1623년 鄭榮後의 딸과 결혼했는데, 정영후는 동생 鄭榮邦과 함께 정경세의 문인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이듬해 겨울 정경세의 墨谷第를 찾아가 문인이 되었다.<sup>48)</sup>

이 외 미비하긴 하지만 남명학과 권역에서 姜絳, 姜尙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남명 문인인 강익의 후손으로, 姜尙胤은 정온의 종고모부이기도 했다. 강익은 정여창을 제향하는 남계서원의 건립 및 초창기 운영을 주도한 인물로, 정경세 봉안식 직전 해인 1634년(인조 12) 남계서원 별묘에 제향되어 있었다.<sup>49)</sup> 이들의 참여는 정여창이라는 제향자에 대한 공통의식에 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류성룡 추배에 이어 본 행사에도 일부 여헌학단의 참여가 확인된다. 인동에서는 문인 柳碩男이, 대구·경산·의성에서는 문인 都愼徵, 徐思選, 金尙璦의 가족이 참여하였다. 특히 안동 김씨 金尙玼의 가문은 이항→류성룡의 학맥을 근간으로 한강·여헌으로까지 사승관계를 확대해 간 경우이다. 조부 金士元은 퇴계의 문인이었고, 종조부 金士貞이 서애문인인 점에서 서애계와 학문·혈연적 유대가 밀접하였고, 이후 김상빈의 형 金尙璦은 장현광의 문인이 되었다. 이 가문은 1689년(숙종 15) 류성룡·김성일·장현광의 빙계서원 입향을 주도하였으며 의성 내 여헌학단의 대표가문인 아주신씨 회당가문과도 척연을 맺고 있었다.<sup>50)</sup> 여헌의 문인들은 다음 해인 1636년(인조 16)에도 도남서원을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장현광이 지중추부사로 召命을 받고 상경하던 중 함창 부근에서 병이 나 되돌아올 무렵이었다.<sup>51)</sup> 10여 명이 서원을 찾았고, 이 중에는 旅門十賢에 속했던 鄭克後, 金慶長도 확인된다.

이후 1660년 도남서원은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을 새로이 중창하게 된다. 서원 측은 원장, 유사를 중심으로 회를 결성하고 董役·瓦役·山役有司 및 각 면별 별유사를 차정, 기금을 각출하게 했다. 이때 유사들은 대부분 『도남서원창설계안』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상주 사족 대부분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부족했고, 결국 道內로 확장하여 협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이때 부조를 요청한 지역은 山蔭·義城·豐基·善山·幽谷·省峴·永川·金山·晉州·淸道·統營·慈仁·

47) 申楫, 『河陰集』권8, 墓誌, 「先妣孺人權氏墳記」; 권4, 疏, 「擬愚伏先生伸冤疏 辛亥」; 권5, 書, 「與全沙西」(3), 「答洪叔京」(6)

48) 朴應衡, 『南阜先生文集』 「年譜」; 박소희, 『조선후기 경상우도 사족의 分化和 動向』,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60쪽.

49)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9, 한국서원학회, 2019, 48쪽.

50)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130쪽

51) 張顯光, 『旅軒先生續集』권9, 附錄, 「拜門錄 門人申悅道」; 『심원록』에는 당시 동행한 문인 중 鄭四勿, 鄭克後, 李允元, 金慶長, 鄭壁, 鄭奎, 鄭璽, 申澣, 朴快, 張宗禧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宜寧·寧山·金海 등 15개 지역이고 담당자는 李誠哲·申嵩壽·성진병이었다. 협조 요청 결과 산음·의성·풍기·선산·유곡·성현·영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부조에 응하지 않았다.<sup>52)</sup>

지역을 보면, 예안·안동 등은 빠져 있고 의성·영천·자인과 우도 지역이 위주였다. 이중 우도 남명학과 권에서는 산음만 부조에 응해 木10定, 白紙5卷을 지원해주었다. 도남서원과 이들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려면 사족들 간의 인척관계 등을 세밀히 분석해야겠지만, 자료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당시 공론의 수렴처였던 서원을 통해 향촌 내 제반 상황을 유추할 뿐이다. 먼저 산음에는 1606년(선조 39) 오건을 제향하는 西溪書院이 건립되어 있었다. 오건은 퇴계와 남명 양 문하에서 수학했던 인물로 산음의 부조는 아마도 퇴계학파라는 학문적 동질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진주에는 덕천서원[조식 제향, 1576년 건립]·대각서원[하항 제향, 1610년 건립], 의령에는 덕곡서원[이항 제향, 1654년 건립], 김해에는 신산서원[조식 제향, 1609년 건립]이 건립되어 있었다. 이중 덕천·대각·신산은 명백한 남명학과 서원이었고, 덕천·신산은 광해군 집권과 동시에 사액을 받을 만큼 복인의 색채가 짙은 곳이었다. 그리고 도남서원이 부조를 요청할 무렵 이들 서원은 인조반정을 계기로 남인계로 변모해가던 시기였다.<sup>53)</sup> 의령은 이항의 처향이라는 연고로 1654년 덕곡서원이 건립되어 마침 사액을 받은 해였다. 도남서원이 이들 지역에 부조를 청한 것은 이러한 학문·당론적 동질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하지만 덕천·대각서원은 여전히 남명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 하에 남인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부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제반 상황과 함께 그만큼 도남서원과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도남서원은 청액활동에 주력하여 1676년 11월 李在憲을 소두로 2차 청액소를 올렸으며 다음 달 다시 高世章 등을 중심으로 3차 청액소를 올렸다. 당시는 갑인예송으로 남인집권 기였던 만큼 영의정 허적이 경연에서 직접 청함으로써 사액을 받게 된다.<sup>54)</sup> 그리고 18세기로 접어들면 윤지술 탄핵소를 도남서원에서 준비하고,<sup>55)</sup> 1723년 권상일, 1729년 이만부가 원장으로 취임하여 강학활동을 펼치며 상주권 남인계의 首院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 3. 18세기 흥암·도남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

#### 1) 18세기 흥암서원의 창건과 인적구성

17세기 중후반부터 영남지역에는 집권세력에 포섭된 서인, 또는 노론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상주 일대는 지리적 특성상 호서와 인접해 있어 18세기 이전부터 기호학과 내지 사족과의 교류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는 牛栗의 제자 成灝 가문의 이주와 정경세가 송준길

52) 『道南書院事實下』, 「十五邑請助書」(『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1999);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139~142쪽.

53) 덕천서원은 1651년 『남명집』(임술본) 휘판사건 이후 친남인적 성향을 보였고, 대각서원은 제향자 후손을 중심으로 진주 일대 남인 당론의 수렴처였다. 신산서원 역시 인조반정 이후 장현광 문인 趙任道 [1634 원장], 韓夢參 [1645 원장], 李涑 [1660 원장] 등이 원장을 맡는 등 남인계 서원을 표방하고 있었다. 박소희, 앞의 논문, 161쪽; 박병련 외, 『남명학과 영남우도의 사람』, 예문서원, 2004, 52쪽; 정석태, 「신산서원의 강학전통」, 『민족문화논총』79집 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722쪽.

54) 『서원등록』, 숙종 2년 11월 5일 「도남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건」; 12월 19일 「도남서원 사액 건」.

55)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대구사학』117, 대구사학회, 2014, 16쪽.

을 사위로 맞은 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56)</sup> 이후 상주 지역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석번의 서인계 행보를 시작으로, 인천채씨 蔡河徵, 창녕성씨 成虎英·成晚徵 등이 서인 공론을 주도해 가기 시작했다. 이들은 1650년 柳稷 등이 올린 우을종사 반대소나 1666년 柳世哲 등의 복제소에 반대소를 올리며<sup>57)</sup> 정치적 쟁점이 있을 때마다 집권노론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특히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내 노론세력은 더욱 확대되어갔고, 집권노론은 자파세력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원건립 및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흥암서원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1702년 건립되었다. 제향자는 정경세의 사위였던 송준길로 당시의 건립 명분은 ‘송준길의 처향으로 상주를 왕래한지 여러 해가 됐으며 학풍을 진작시킨 점’이었다.<sup>58)</sup> 흥암서원은 창건 논의 단계부터 창녕성씨 成晚徵의 역할이 컸다. 그의 조부 成震昇은 도남서원 원장을 지낸 성진병과 사촌지간이며 부친 成虎英은 서인계였던 李東野의 딸과 결혼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성만징이다. 그는 권상하의 문인으로 이미 1691년 송시열의 道峯書院 입향과 관련하여 영남 내 노론의 공론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성만징은 흥암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권상하와 함께 제반 사항을 협의했고, 완공 직후 권상하에게 원장직을 위촉하는 한편 각종 예식 문자와 찬술을 분담함으로써 호서·영남 간의 연대를 표시하였다.<sup>59)</sup>

흥암서원은 1705년(숙종 31) 성만징의 재종숙인 成虎兌를 중심으로 청액소가 올라갔고, 당시 서원 첩설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액을 받았다.<sup>60)</sup> 도남서원이 3차에 걸쳐 청액소를 올린 것에 비하면 상당한 성과였다. 그만큼 집권 노론의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상주에는 1708년(숙종 34) 김상용·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산서원이 건립되고, 1711년(숙종 37) 성람·신석번·신석형·趙振·成汝樵·김삼락을 제향하는 운계서원이 건립됨으로써 상주 서인계 인사들은 흥암·서산·운계서원을 운영하며 세력을 결집해갔다. 특히 운계서원은 권상하가 직접 춘추향사의 축문까지 지어준 바 있다.<sup>61)</sup>

한편 성만징은 흥암서원을 華陽書院에 버금가는 서원으로 만들고자 했다. 그 이면에는 상주 내 정치적 기반과 호서·영남 간의 노론계 제휴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sup>62)</sup> 이는 권상하·李宜顯·俞拓基·宋明欽·權震應·金亮行·金履安·李敏輔·沈煥之·李彙靖·宋來熙 등 역대 원장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중 권상하·이의현·유척기·김양행은 화양서원 원장까지 겸하고 있었다.<sup>63)</sup> 남인계 서원이 일향 내 인사로 원장을 선출했다면, 서인계 서원은 이와 같이 중앙관료를 원장으로 추대했으며 겸임도 일반화 되어 있었다. 이는 서원의 제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서원 측의 이해관계와 서원을 통해 자파세력 확대를 꾀했던 중앙관료의 상호이해관계가 결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sup>64)</sup>

흥암서원은 18세기 『院任錄』이 없어 원임의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할 수 없지만, 『院錄』에

56) 이수환, 앞의 논문, 67쪽.

57)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279쪽; 『현종실록』, 현종 7년 6월 29일 “상주 유생 成震昇 등이 상소하였다. 예를 논한다는 핑계로 儒賢을 무함한 유세철의 죄를 다스리라고 청하였는데, 상이 이미 館學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하유하였다고 답하였다.”

58) 『서원등록』, 숙종 31년 7월 11일, 「편액의 청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59)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292쪽.

60) 『서원등록』, 숙종 31년 7월 11일, 「편액의 청을 특별히 시행하는 건」; 宋浚吉, 『同春堂續集』권10, 附錄5, 「年譜」.

61) 權尙夏, 『寒水齋集』권23, 祝文, 「雲溪書院 百源申公春秋享祝文」.

62)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293쪽.

63) 『華陽誌』권5, 書院事實(本院院長); 『興巖書院事實錄』, 院長先生案.

64)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2001, 120쪽.

<표 4> 18세기 흥암서원 인적 구성

연도	都有司	掌議	有司, 齋任	公事院	『원록』 내 원생 수		비고 (원생 중 새로 추가된 성씨는 인명 표기)
					수	성씨	
1704년 9월 19일	成	成, 金	李		15	金, 禹, 成, 具, 黃	
1706년 3월 8일	金	成, 金	金, 成		6	金	(金必千: 1708년 서산서원 창건 발의)
1706년 9월 12일	成	金, 成	成		5	文, 俞	
1707년 9월 18일	成	成, 金	成, 李		15	成, 禹, 權, 黃, 俞, 朴, 禹, 李, 金	
1709년 9월 10일	成	成, 李	成, 成		8	(別薦) 蔡, 李, 成, 南	
1712년 9월 7일	成	成, 金	成, 成		19	俞, 成, 黃, 金, 申, 趙, 禹, 朴	
1715년 3월 1일	成	成	李, 成	李	13	金, 成, 李, 俞	
1715년 9월 5일	成	成	俞, 成	成, 李	5	(別薦) 蔡, 南	
1716년 3월 6일	金	成	禹, 蔡	金, 申	58	李, 蔡, 金, 申, 趙, 黃	(11월 숙종 어필편액 하사)
1717년 3월 11일	成	成	黃, 金	申	20	蔡, 金, 李, 黃, 申, 趙	
1717년 5월 18일 疏會修錄	成	成, 申		*疏廳 公事院 申, 曹	7	(別薦) 宋 송준길 후손	(1718년 11월 8일 성덕 징 疏頭 양송문묘종사)
1717년 9월 5일	成	成	李, 申	申	11	南, 尹, 李, 趙, 成, 金	尹商霖
1721년 3월 6일	成	申	尹, 李	成, 俞	34	文, 李, 申, 俞, 趙, 蔡, 成, 南, 禹	
1722년 3월 11일	金	成	李, 金		3	(別錄) 蔡, 韓, 李	韓國觀
1722년 5월 10일	金	成	李, 金		3	(別薦) 金, 申	
1723년 3월 8일	成	趙	成, 金	申, 趙	29	申, 文, 蔡, 李, 成, 金, 南, 禹, 黃, 尹, 柳	柳鵬齡, 柳祥采
1724년 3월 3일	南	申	成, 李		3	(別薦) 趙, 李	
1725년 3월 8일	南	申	李, 成		5	(別薦) 李, 韓, 金, 具, 安	(3월 서인계 상주목사 趙正萬 이름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삭제하여 항의) • 安行敬
1727년 3월 9일	成	成	成, 柳	申, 成	22	文, 成, 宋, 尹, 申, 禹, 李, 黃, 金, 南	
1729년 3월 3일	成	成	申, 成	金	22	成, 南, 金, 黃, 申, 柳	
1732년 3월 10일	成	成	南, 金		5	(別薦) 趙, 權, 曹	曹時任: 曹希仁(우복 門)의 손자 權鉉·權鉉·權鏞
연도	二有司	掌議	齋任	公事院	『원록』 내 원생 수		비고
					수	성씨	
1770년					97	(別薦) 南, 李, 成, 金, 朴, 蔡, 申, 黃, 趙, 安, 鄭, 俞, 柳, 禹, 河, 宋, 孟, 盧	鄭哲東, 河尙洪, 孟鎭 泰, 盧會元
1772년 3월	成	安	成, 具		50	尹, 成, 申, 金, 李, 柳, 權, 鄭, 趙, 孫, 安, 丘, 黃, 俞, 河, 禹, 朴	孫邦振, 丘應斗
1783년 9월	成	成	金, 金		4	(別薦) 金, 鄭, 李	
1795년 1월 10일	成			金	1	(別薦) 宋	

서업된 명단을 통해 원임체제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4를 토대로 18세기 흥암서원의 원임구성을 살펴보면, 원장 외에 도유사, 장의, 유사, 재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사와 재임은 서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은 원장·掌議·有司 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흥암서원은 이처럼 다양한 명칭이 나오는데, 이는 시기와 서원 상황에 따라 변용하여 사용했을 뿐 기본 틀은 큰 변동이 없었다.<sup>65)</sup> 그러다 18세기 중후반부터는 도유사 대신 유사·장의 체제로 바뀌어

65) 이수환, 앞의 책, 2001, 118~127쪽.; 윤희면, 앞의 책, 188~193쪽 참고.

갔다. 이는 19세기 『임원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유사 중 1유사는 현직관료가 담당하였고, 2유사는 서원의 실질적 사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향내 명망 있는 인사로 선발하였다. 현직관료를 1유사로 선발하는 것은 서인계 서원이 영남 내 남인의 견제를 이겨내고 지역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서원 운영에 있어 현직관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다.<sup>66)</sup>

원임을 구성하는 성씨들은 金·成·申·蔡氏 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관은 원생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대체로 성람 후손과 신석번·채하징 가문, 그리고 이들과 교유·혼반으로 연결되어 있던 청도김씨 김삼락의 후손<sup>67)</sup>들이다.

또 눈에 띄는 것은 1717년 5월 18일 宋炳翼[상주목사1714~1716, 손자], 宋堯卿·宋堯臣·宋堯佐·宋堯和·宋堯輔[증손]·宋思欽[堯臣 子], 宋必燁 등 송준길의 후손이 입록된 것이다. 당시 양송문묘종사를 위한 疏會가 흥암서원에서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 소청 공사원으로는 申·趙, 회원으로는 李·金·申·蔡[2명]이 서압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1718년(숙종 44) 11월 8일 成德徵을 소두로 하는 양송문묘소가 올라갔다.<sup>68)</sup>

한편 원생 중 別薦으로 새롭게 들어간 성씨로는 尹·韓·柳·安·曹·權·孫·丘가 있었다. 일부 확인되는 인물로, 韓國觀은 1725년(영조 1) 송시열을 제향하는 누암서원의 사액이 철회되자 회복을 청하는 상소에 동참한 바 있었고, 이듬 해 충청도 유생 鄭思相을 소두로 하는 양송문묘종사소에도 참여하였다. 柳鵬齡·安行敬 역시 여러 차례 양송 문묘종사소에 참여한 전력이 있었다.<sup>69)</sup>

창녕조씨 曹時任은 정경세 문인 曹希仁의 손자였다. 이 가문은 17세기 도남서원 원임을 역임했던 가문으로, 18세기에도 曹友仁의 4대손 曹亨稷과 曹克仁의 4대손 曹景沉·曹景湜가 재임을 맡고 있었다. 조시임이 서인계로 전향한 계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산서원 건립을 발의했던 김천일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으로 보아 혼반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진양하씨 河尙洪의 가계도 어머니가 평산신씨 申厚儉의 딸이었고, 조카 河必星은 金道淳의 딸과 결혼했다. 김도순은 김상용의 7대손으로 상주에는 이미 김상용·김상헌을 제향하는 서산서원이 건립된 상태였다. 서산서원의 건립은 1708년 흥암서원 원생이기도 했던 청도김씨 金必千의 발의로 건립되었다.<sup>70)</sup> 하상흥의 사례처럼 『원록』에는 흥암·서산서원의 운영권을 주도하던 창녕성·평산신·청도김씨 등의 성씨들과 혼반을 매개로 입록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70년 입록된 孟鎭泰는 훗날 1792년(정조 16) 상주 지역 임진왜란 삼충신 尹漣·李慶流·朴篋와 의병 金俊臣의 사당건립을 청하는 상소의 소두를 맡게 된다. 당시 상주에는 충렬사가 있었으나 앞서 상기한 삼충신이 당색 때문에 제외되어<sup>71)</sup> 새로이 飢淵忠烈祠를 창건한 바 있었다. 그러나 1740년(영조 16) 원사 韓철로 철폐당하면서 1784년(정조 8) 복설 의논이 일어나 6년 뒤 향교·흥암·서산·운계서원<sup>72)</sup>에서 각출하여 제단을 만들었고, 이후 1792년(정조 16) 조정에서는 삼충신을 충렬사에 합향하라는 명을 내렸다. 여기에 김준신이 빠지면서 그의

66) 이수환, 『서원향사: 흥암서원·대로서』 국립무형유산원, 2014.

67) 이수환, 앞의 논문, 2016, 70쪽.

68) 『숙종실록』, 숙종44년 11월 8일.

69) 『승정원일기』, 영조 1년 1월 28일, 영조 2년 3월 26일·7월 27일, 영조 11년 12월 11일·18일, 영조 12년 8월 20일, 영조 14년 3월 16일, 영조 17년 8월 2일, 영조 20년 10월 23일.

70)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303쪽.

71) 청대 권상일이 충렬사에서 잤다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충렬사는 남인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일기』권5, 계묘년(1723) 9월 2일.

72) 상주의 서인계 成灝·申碩蕃·趙振·申碩亨·成汝樞·金三樂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711년 건립되었다.

후손 金思玄, 성국열, 성재집 등이 주도하고 맹진태가 소두로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이다.<sup>73)</sup>

이들은 사당 건립에 이어 서원으로의 승원과 사액까지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는 이미 금령이 내려져 있으므로 허락하지 않았다.<sup>74)</sup> 다만 이후 12월 24일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이들 정성을 높이 사 ‘忠臣義士壇’이라는 이름과 비를 세워 기념하게 했다.<sup>75)</sup> 이처럼 흥암서원 『원록』에 입록된 가문들은 서인계 공론기구였던 서산서원·운계서원·충의단 등과도 연결되어 서로 결집하고 있었다.

## 2) 18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과 남·노 갈등

상주의 서인계 인사들이 흥암·서산·운계서원을 통해 세력을 결집해가자 도남서원 측도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같은 당론을 가졌던 도남·옥성·근암·옥동서원과의 연대를 통해 남인계 유생들의 공론을 모으며 서인세력을 견제해 갔다. 일례로 흥암서원이 창건된 1702년 근암서원의 경우 김홍민·홍여하 등 남인계 학자 관료들을 추향했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옥성서원에서 이루어졌다.<sup>76)</sup> 그리고 같은 해 근암서원에서 개최된 都會에서는 全滉의 백옥동 영당 합향과 승원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유기적 관계는 정치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어져 1721년 도남서원에서 윤지술 탄핵 상소를 준비했다가 疏會를 근암서원으로 옮겨 진행한 바 있다.<sup>77)</sup>

그렇다면 18세기 도남서원의 인적구성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남서원 『任員錄』에는 1701년~1747년까지 원임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sup>78)</sup>

<표 5> 18세기 도남서원 원장 명단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용	비고
1701	金壽聃	순천	前縣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趙德鄰 「高靈縣監金公墓碣銘」</li> <li>조부 金喜長: 居 인동, 장현광 門</li> <li>1694년 모친상을 치른 뒤 상주로 이거</li> </ul>	
1701	金楷	안동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金光灝 子, 안동 풍산에서 상주 大道村, 近岳村으로 이거</li> <li>「近岳書院常享祝文」 작성</li> <li>권상일 「挽負喧堂金上舍丈 楷」, 「負喧堂金公墓碣銘 並叙」 작성</li> <li>정종로 「成均生員負喧堂金公行狀」 작성</li> </ul>	
1702	申弼成	평산	前別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경세 門 申尙哲 증손</li> <li>孫萬雄 사후, 「輓詞 別檢 申弼成」 지음</li> </ul>	
1704	洪相民	부림	前主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洪汝河 子</li> <li>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洪相民」)</li> </ul>	
1705	李葆英	신평	進士		
1706	成世璜	창녕	進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東標 사후 輓詞 지음(『懶隱先生續集附錄』)</li> <li>권두인과 교유<sup>79)</sup></li> <li>成安義 증손</li> </ul>	

73) 채광수, 앞의 학위논문, 66쪽.

74) 『정조실록』 정조 16년 12월 14일.

75) 『정조실록』 정조 16년 12월 24일.

76) 權相一, 『淸臺日記』, 壬午 2월 26일.

7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형수, 앞의 논문, 149쪽 참고.

78) 이 표는 송석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490~491쪽의 <표 2>를 참고, 관련내용을 보완함.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용	비고
1708	金時泰	청도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복 문인 金繼美 손자, 흥여하 門</li> <li>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道南儒生金時泰等」(『野村集』권6, 附錄)</li> </ul>	
1708	柳經河	풍산	前參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柳千之 子</li> <li>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柳經河」)</li> </ul>	
1710	申弼成	평산	前別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임</li> </ul>	
1711	孫景錫	경주	前縣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孫萬雄 子</li> </ul>	
1712	金時泰	청도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임</li> </ul>	
1713	申弼成	평산	前別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임</li> </ul>	
-	蔡獻徵	인천	前府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현일 門, 갈암 사후 제문 지음(『葛庵續集』부록 권4, 祭文, 「又 蔡獻徵」)</li> </ul>	
1717	洪道達	남양	前縣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張璵 壻: 장진의 묘갈명을 정종로가 지음.</li> <li>孫萬雄 사후 「輓詞 典籍 洪道達」(『野村集』권6, 附錄)</li> </ul>	
1719	洪相民	부림	前主簿	재임	
1721	黃翼再	장수	前府使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황희 10대손, 황익재 현손 黃錫老의 장인 정종로</li> <li>이상정의 스승</li> </ul>	
1721	李增祿	흥양	前縣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애 門 李堧의 현손</li> <li>李堧, 『月澗集』, 「月澗先生文集識 李增祿」</li> <li>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縣監 李增祿」(『野村集』권6, 附錄)</li> </ul>	
1722	洪道達	남양	前縣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임</li> </ul>	
1723	高師聖	개성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高仁繼 증손</li> <li>갈암·밀암 門 李光庭과 교유<sup>80)</sup></li> </ul>	
1723	權相一	안동	前佐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암·도남서원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이만부를 강장으로 초빙하여 강회 개최</li> <li>도산·덕천서원의 원장 역임</li> </ul>	
1725	黃浚	장수	正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조부 權搏: 도남서원 우복 추배시 집례</li> <li>權渠 문인</li> </ul>	
1725	成德徵	창녕	進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성여송 증손, 거제도에 송시열 제향 서원의 사액 요청(『서원등록』, 숙종32년 9월 9일)</li> </ul>	서인계
1726	南塾	익령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1726년 3월 26일 양송문묘종사소 참여</li> <li>南躋·南塾 형제, 부친 남극표가 成震長 壻</li> </ul>	
1726	金必大	청도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li> <li>성만징 사후 제문 『秋潭集』권8, 附錄, 祭文</li> <li>권상하 門</li> </ul>	
1727	成爾鴻	창녕	前副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성여백 현손, 성만징 子, 권상하 門</li> </ul>	
1727	李增曄	흥양	進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준 후손</li> <li>孫萬雄 사후 「士林祭文 縣監 李增曄」(『野村集』권6, 附錄)</li> </ul>	남인계
1728	李世瑗	광주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암 門, 거주지 칠곡, 石潭 현손, 한강·여헌 門 道長의 증손, 장인 洪汝河</li> </ul>	
1729	金在鎰	선산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李麟至 소두 양송문묘종사 반대소 참여(영조12년 3월 12일)</li> </ul>	
1729	李萬敷	연안	前參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류진 孫壻, 갈암 門</li> </ul>	
1730	李增曄	흥양	進士	재임	
1732	黃瀉	장수	進士		
1732	趙重台	함안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li> <li>양송문묘종사소 동참(영조2년 3월 26일 외)</li> <li>상주 서산서원 청액소 동참(영조2년 3월 20일)</li> </ul>	서인계
1732	成德徵	창녕	進士	재임	

연도	이름	본관	경력	내용	비고
1735	李挺奎	벽진	進士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론, 도봉서원 내 송시열 복향상소 동참</li> <li>상주 서산서원 청액소 동참(영조2년 3월 20일)</li> <li>양송문묘종사소 동참(영조11년 12월 18일)</li> </ul>	
1735	李麟至	흥양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암 門, 양송문묘종사 반대소 소두(영조12년 3월 12일)</li> </ul>	남인계
1736	南躋	의령	前正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송문묘종사소 동참(영조2년 3월 26일 외)</li> <li>尹鳳九가 「兵曹正郎南公 躋 墓誌銘」 작성</li> </ul>	서인계
1737	成德徵	창녕	進士	재임	
1738	成爾漢	창녕	前參奉	노론, 성이흥의 사촌 閔遇洙, 『貞菴集』, 「成進士 爾漢 贈詩 次韻以答」 맹진대 소두 삼충신 사우 건립상소 동참	
1743	姜櫟	진주	進士	父 姜碩經	
1743	金堧	순천	前縣監	父 金壽聃	
1744	李麟至	흥양	生員	재임	
1745	鄭胄源	진양	前參奉	우복 증손 鄭錫僑 子, 정종로 조부	
1746	李知聖	전주	前縣監	父 李以達은 권두인과 교유 <sup>81)</sup>	
1746	金國采	의성	生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金宇宏 7대손</li> <li>김우평의 행장을 권상일에게 부탁</li> <li>李麟至 소두 양송문묘종사 반대소 동참(영조12년 3월 12일)</li> </ul>	
1747	李知聖	전주	前縣監	재임	

18세기 전반 도남서원 원장으로는 총 45명[재임 포함]이 확인되며 성관별로는 창녕성씨 6회, 흥양이씨 5회, 장수황·평산신·청도김씨 각 3회, 순천김·부림홍·남양홍·의령남·전주이씨 각 2회, 안동김·신평이·풍산류·경주손·인천채·개성고·안동권·광주이·선산김·연안이·함안조·벽진이·진주강·진양정·의성김씨 각 1회 순이다. 대체로 남인계 성향의 인사들이 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나 1725년부터 1738년까지는 서인계와 남인계가 번갈아 가며 원장을 맡았다. 남인계 서원으로 일컬어지는 도남서원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 상주 지역 향촌사회 동향과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주는 창녕성씨 일문을 중심으로 화양서원에 버금가는 흥암서원이 건립되었고, 1716년 어필편액까지 하사받으면서 이들의 위상은 보다 더 강화되어갔다. 이들은 서산서원과 운계서원을 건립하여 자파세력의 결속을 다져나갔고 1724년 영조의 즉위로 노론 정권이 수립되자 1725년 2월 향교 장악까지 시도하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권상일의 『청대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들으니, 그저께 저들 무리 10여 인이 갑자기 향교로 들이닥쳐 저들 스스로 任成淑을 上齋로, 成爾漢·金弘鼎을 掌議로, 成爾浩·金□□를 齋任으로 세우고, 일찍이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벌을 주어 高雲五·趙璣·金昌欽·呂用賓·洪壽五는 영원히 내치고, 高命傳·李宗玉 削籍하였으며, 金昌洙·□□□는 損徒하였다고 한다. (벌을 받은 사람 중) 瑞五 등 다섯 사람은 저들 무리를 墨削할 때 班首 公事員이었고, 賁予[高命傳] 등 두 사람은 校任으로서 벌을 받은 사람들의 科擧都目을 막았었다.

聖源 등 두 사람은 곧 지금의 齋任인데, 그해 목삭의 벌이 함부로 뒤집어씌운 지나친 폐단이 없지 않았고, 또 (저들 무리를 목삭할 때) 永錮는 너무 심한 듯하기 때문에 작년 가을 釋奠祭를 지내기 위해 모였을 때, 교장이 발론하여 減損으로 수정하려고 하다가, 마침 다른 풍파로 인하여 미처 그렇게 하지 못

79) 權斗寅, 『荷塘集』권1, 詩, 「別成周瑞世瑣」.

80) 李光庭, 『訥隱集』권8, 記, 「漢江同舟錄」.

81) 權斗寅, 『荷塘集』권1, 詩, 「携從弟天章粹彥及李以達與竹溪倅蔡仲美 遊浮石寺 同遊者 李以時 朴翊 周 天球 諸人也. 次翊周韻」

하여서이다. 지난날 齋會 때 저쪽 사람들이 흥암서원에 모여서 향교에 통문을 내어 이 일을 물었는데, “이미 모두 減解되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 인하여 향의鄉議가 분분하였는데, 뜻밖에도 전에 없던 이런 패악한 일이 일어났으니, 한탄스럽지만 또한 어찌하겠는가?<sup>82)</sup>

이 사건은 과거 향교에서 서인계로 추정되는 인물을 묵삭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흥암서원 측에서 향의하였지만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성이한 등이 향교를 장악하고 관여자들을 벌한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흥암서원에서는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상주목사 趙正萬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알고 또 다시 향의통문을 보내왔다. 조정만은 송시열·송준길의 문인으로 상주목사 당시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파직, 유배된 인물이었다.<sup>83)</sup> 도남서원 측에서는 이름을 지운 자에 대해 벌을 주어야 한다는 의논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서원측 인사들은 향중의 의논을 거쳐 이름을 지운 자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고 흥암서원에도 답통을 보내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원장이던 권상일은 黨習의 폐단을 지적하는 한편 향교로도 답통을 보냈다. 향교로 답통을 보낸 것은 성이한 등 서인계 인사들이 교임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향교를 장악한 서인계 인사들은 이후 도남서원까지 장악하려 했다. 다만 중간에서 成熙徵이 중재하여 이루지 못했는데<sup>84)</sup>, 그는 17세기 도남서원 원장을 지낸 성진병의 손자였다.<sup>85)</sup>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725년 6월 26일 校任 成徹·성이한은 김해의 상소 일행 여덟 명을 데리고 서원에 난입하여 성덕정을 원장으로, 成爾湜·金和鼎<sup>86)</sup>을 재임으로 선출하였다.<sup>87)</sup> 이들은 약 2년간 서원의 원임을 지내게 된다.

이후 도남서원의 원임은 1727년(영조 3)~1732년(영조 8)까지 남인계가 맡았다가 다시 서인이 맡는 등 약 4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그 사이 주목되는 점은 짧은 기간이지만 1735년 남인계 李麟至가 원장을 맡은 것이다. 그는 1678년 송시열의 고묘소를 올려 성호영·채하징과 대립했던 이재현의 아들로 전형적인 남인계 우복학맥이었다.<sup>88)</sup> 그가 원장을 맡은 시기 상주 함창 권에서는 曹世溥·蔡景沉 등이 양송문묘종사소를 올림으로써 남인계와의 대립이 극대화 되고 있을 때였다. 이에 그는 1년 뒤 양송문묘종사 반대소의 소두가 되어 상소를 올림으로써 상주 권 노론계에 정면 대응하였다. 다만 이인지는 이 상소에서 先正을 무함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고, 그 자리는 다시 서인계에게 돌아갔다. 특히 서인계로서 마지막으로 원장을 맡았던 성이한은 같은 해 金尙憲書院이 건립될 때 收舍有司로 참가한 바 있다.<sup>89)</sup>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은 결국 향촌 내 해계모니 장악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주의 서인세력들은 이미 사액과 어필편액까지 하사받은 흥암서원이 있었고, 서산서원, 충의단까지 건립하여 세력을 확대시켜갔다. 하지만 이들 서원은 어디까지나 일부 서인세력들의 공론 수렴처이며 상주 사론 전체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었다. 이는 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82)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2월 17일.

83)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3월 9일; 이수환, 앞의 논문, 75쪽.

84)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6월 14일, 17일.

85) 『昌寧成氏孝公派譜』에는 熙徵으로 기록되어 있다.

86) 도남서원 『심원록』에는 金弘鼎으로 기록되어 있다.

87) 權相一, 『청대일기』, 을사년(1725) 6월 26일. 이때 동행한 상소 일행은 경상도 유학 李道章을 소두로 한 柳鳳輝의 처벌상소로 보인다. 당시 성이한 등도 이 상소에 참여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1년 8월 20일, 9월 21일.

88) 김학수, 앞의 학위논문, 309쪽.

89) 임노직, 「法聖日記」, 『국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5, 4월 6일 기사.

수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표 6> 도남·흥암서원 방문자 수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43	1744
도남									147	117	45	92	96	151
흥암	116	131	33	48	12	66	34	51	60	42	34			

1716년 어필편액을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흥암서원을 방문한 사람은 약 116명으로 그 수치는 이듬해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후 서원 방문자는 점차 줄어들어 1718년~1723년까지 평균 40여명이 방문하였다. 반면 도남서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흥암서원에 비해 보다 많은 성씨들이 참여하며 상주의 공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위 표만 보더라도 도남서원의 방문객은 약 평균 100여명에 달하며 이는 19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성이한 등의 서인세력들은 영조 즉위와 함께 남인에 대응하기 위해 향교장악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상주사론을 대표하는 도남서원까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후 1732년 무렵 서인계가 두 번째로 원임을 맡을 수 있었던 데는 1728년(영조 4) 일어난 무신난도 하나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론과 일부 남인이 가담한 무신난으로 영남은 반역향이 되었고, 남인계였던 도남서원 역시 향촌 내에서 수세에 몰릴 여지가 있었다. 상주 출신으로 무신난에 연루된 曹景洙·景泗, 洪益龜, 金弘壽은 향안에서도 삭제되었으며<sup>90)</sup> 이 중 曹景洙·景泗, 洪益龜은 도남서원의 원임을 역임한 전력이 있었다. 특히 홍익귀는 정종로의 외조부이자 난의 주모자인 박필현과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다. 도남서원 측은 이들과의 연결을 차단해야만 했고, 특히 서원 소장 고문서들 중에는 그러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었다.<sup>91)</sup>

반면 서인계에서는 성이흥이 박필현을 포획하여 공신이 된 박동형을 만나는 등 자파세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는 박동형과 함께 흥암서원으로 가서 송시열 사당에 참배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흥암서원이 영남 노론의 학문·사회적 거점이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92)</sup>

1738년 성이한 이후 이들이 원임을 얼마나 오랜 기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743년부터 19세기까지 도남서원은 당대 석학이자 정종로 문인이었던 柳尋春[류진 증손]을 비롯하여 李敬儒[이만부 증손], 姜世綸 등이 원장을 맡으며 강학을 이어갔고 서원의 위상 역시 강화되어 갔다.

#### 4. 맺음말

이상 17~18세기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양상을 도남·흥암서원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17세기 도남서원은 서애·우복문인을 중심으로 상주 전 사족층이 참여하여 건립되었고, 대체로 남인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시기는 당색의 갈등 보다는 류성룡·정

90) 『商山鄉彥錄』上, “曹景洙戊申杖斃, 曹景泗戊申杖斃, 金弘壽戊申杖斃, 洪益龜 戊申罪謫甲子伸雪”

91) 1709·1710년 『분향록』과 1724년 『심원록』에는 曹景洙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그는 景泗, 景河, 景江, 景溯 등과 함께 무신난에 가담하였다가 처형당했다. 또 1712년 『분향록』과 1721년 『임원록』에는 洪益龜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그는 정종로의 외조부이며 무신난 주모자인 朴弼顯의 자백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역모의 실정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승정원일기』 영조4년 5월 6일)

92) 김학수, 「18세기 한 鄉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217쪽.

경세의 추배과정에서 안동·예안 사림과의 갈등이 수반되었고, 상대적으로 여헌학단과의 교유는 지속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서원 방문자를 기록한 『심원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660년 도남서원은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을 중건하기 위해 15개읍에 부조를 요청하였다. 각 지역을 보면 안동·예안권은 빠져 있고, 상대적으로 우도 지역이 많았는데, 부조 실적은 저조하였다. 이중 남명학파권 지역들은 인조반정 이후 남인계로 변모하고 있던 무렵이었다. 다만 덕천·대각서원은 여전히 남명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 하에 남인을 표방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부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러한 제반 상황과 함께 그만큼 도남서원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18세기 상주에는 집권노론의 비호 아래 흥암서원이 건립된다. 이 서원은 상주의 서인계 가문 창녕성씨, 인천채씨, 평산신씨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서산서원과 충의단까지 건립하며 세력을 결집시켜나갔다. 특히 『원록』에 새로이 입록된 사람 중 창녕조씨 曹時任은 정경세 문인 曹希仁의 손자였다. 이 가문은 17세기 도남서원 원임을 역임했던 가문으로, 18세기에도 曹友仁의 4대손 曹亨稷과 曹克仁의 4대손 曹景沉·曹景湜가 재임을 맡고 있었다. 이들 가문이 흥암서원에 출입한 것은 서산서원 건립을 발의했던 김천일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한 것으로 보아 혼반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상주의 서인계 인사들은 1725년 2월 과거 향교에서 서인계로 추정되는 인물을 묵삭한 것을 이유로 향교를 장악하고 관여자들을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한 달 뒤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상주목사 趙正萬의 이름이 삭제된 것을 알고 또 다시 향의통문을 보냈으며 그해 6월 도남서원까지 장악하고 원장을 선출하면서 남인계 인사들과 갈등을 벌였다. 이후 1738년까지 남·서인계가 번갈아 가며 원장을 맡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만큼 도남서원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했음을 알 수 있다.

도남서원을 둘러싼 남·노 갈등은 결국 향촌 내 해계모니 장악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주의 서인세력들은 이미 흥암·서산서원, 충의단까지 건립하여 세력을 확대시켰으나 이곳이 상주 사론 전체를 대변하는 곳은 아니었다. 서원을 방문한 사람만 보더라도 흥암서원은 도남서원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성이한 등의 서인세력들은 영조 즉위와 함께 남인에 대응하기 위해 향교장악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상주사론을 대표하는 도남서원까지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후 1728년(영조 4) 일어난 무신난으로 상주의 남인세력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난에 연루된 曹景洙·景泗, 洪益龜 등은 모두 도남서원을 출입한 인사들이었다. 자연스레 도남서원은 이들과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켜야만 했다. 반면 서인세력들은 무신난 이후 더욱 자파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제반 상황들이 반영되어 도남서원 원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743년부터 다시 남인계가 원장을 맡았고 19세기에는 당대 석학이자 정종로 문인이었던 柳壽春[류진 증손]을 비롯하여 李敬儒[이만부 증손], 姜世綸 등이 원장을 맡으며 서원의 위상 역시 강화되어 갔다.

## 참고문헌

- 『현종실록』, 『숙종실록』, 『정조실록』,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서원등록』, 鄭經世 『愚伏集』, 權相一 『淸臺日記』, 申碩蕃 『百源集』, 洪汝河 『木齋集』, 張應一 『聽天堂集』, 張顯光 『旅軒先生續集』, 金鈴 『溪巖日錄』, 鄭仁弘 『來庵集』, 鄭蘊 『桐溪續集』, 『旅軒先生及門諸賢錄』, 金宗佺 『書巢集』, 趙綱 『龍洲遺稿』, 李野淳 『廣瀨文集』, 柳軫 『修巖先生年譜』, 申楫 『河陰集』, 朴應衡 『南阜先生文集』, 宋浚吉 『同春堂續集』, 權尙夏 『寒水齋集』, 『華陽誌』, 『興巖書院事實錄』, 權斗寅 『荷塘集』, 『商山鄉彥錄』, 도남서원 소장 『任員錄』, 『尋院錄』
- 국사편찬위원회,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1999
- 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의 사림』, 예문서원, 200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 우인수, 『朝鮮後期 嶺南 南人 研究』, 경인문화사, 2015
-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2001
- 이수환, 『서원향사: 흥암서원·대로사』 국립무형유산원, 2014
- 興忠保存委員會, 『興巖書院誌』, 대진사, 2006
- 김순한, 『朝鮮後期 尙州 玉洞書院의 賜額과 運營』,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 , 「道南書院의 창건과 학문·정치·사회적 지향」, 『도남서원의 사적과 도학정신』, 제1회 상주 문화사적과 역사인물 학술대회, 2011
- , 「18세기 한 鄉班 출신 功臣의 정치·사회적 존재 양상」, 『조선시대사학보』77, 조선시대사학회, 2016
- 김형수, 「17·18세기 상주·선산권 지역사회와 서원·사우의 동향」, 『영남학』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5
- 박소희,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9, 한국서원학회, 2019
- , 『조선후기 경상우도 사족의 分化와 動向』,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 송석현, 「17세기 상주지역 사족의 동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도남서원의 운영과 상주 사족의 동향」, 『조선시대사학보』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 우인수, 「조선후기 도산서원 원장의 구성과 그 특징」, 『퇴계학과 유교문화』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유기선, 「17~18세기 尙州鄉校의 靑衿儒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병훈, 「16~18세기 문경 近岳書院의 변천」, 『영남학』7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9
- 이수환, 「『청대일기』를 통해 본 권상일의 서원활동」, 『민족문화논총』62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6
-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伸冤운동과 追崇사업」, 『대구사학』117, 대구사학회, 2014
- 임노직, 「法聖日記」, 『국학연구』6, 한국국학진흥원, 2005
- 정석태, 「신산서원의 강학전통」, 『민족문화논총』79집 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1
- 채광수, 「우복학단의 성격과 계보학적 갈래」, 『한국계보연구』10, 한국계보연구회, 2020
- , 「서원의 지식 네트워크 활동의 실제」, 『한국서원학보』12, 2021

## ‘17~18세기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의 인적구성과 갈등-도남·흥암서원을 중심으로’ 토론문

김영나(경북대)

이 논문은 상주의 남인계 서원인 도남서원의 『임원록』과 『심원록』, 서인(노론)계 서원인 흥암서원의 『원록』 등을 통해 17~18세기 두 서원의 인적구성 및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남인계 서원과 서인계 서원을 비교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머리말 선행 연구 정리 부분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주지역 남·서인계 서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상주 사족의 동향 속에서 파악된 연구가 많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기존에는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 논문에서 새로 밝힌 내용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 논문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말에 ‘서인세력의 거점인 흥암서원이 집권노론의 비호 아래에 건립되었다.’라고 하였고, 본문 안에서도 ‘서인’과 ‘노론’이 혼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셋째, 2장 ‘<표1> 17세기 중후반 도남서원 원임 명단’에서 ‘원장[\*우복 관련 인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은 모두 정경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미인가요? 논문에는 도남서원 원장이 대부분 정경세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표 안에 ‘[\*우복 관련 인물]’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2장 2절에서 류성룡의 위판 봉안식 참석자와 정경세의 위판 봉안식 참석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주의 향론과 도론은 정경세의 도남서원 추배를 반대하였지만 결국 추배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 참석자를 보면 예안에서는 한 명도 오지 않았으며 안동에서는 2명만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정경세의 추배를 반대했던 이유가 ‘지극히 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3장 2절 ‘<표 6> 도남·흥암서원 방문자 수’를 보면 1716년부터 1744년까지 도남서원과 흥암서원을 방문한 사람들의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료를 이용하여 두 서원의 방문자 수를 알 수 있었는지, 일정한 시기 각 서원의 방문자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방문자의 수가 많았다는 것으로 도남서원이 상주의 공론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보다는 방문자의 성격, 예를 들어 방문자의 성씨나 가문, 거주지, 학파, 관직 등을 파악하여 도남서원의 위상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도남서원과 흥암서원 사이의 갈등 양상이 궁금합니다. 논문에서는 도남서원 『심원록』에서 상주목사의 이름이 삭제된 것에 대해 흥암서원이 항의한 내용 등을 제외하면 두 서원

사이의 갈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 두 서원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도남서원 안에서 남인과 서인의 갈등이 있었고 서인이 도남서원의 원장을 맡기까지 하였으나, 1743년부터 남인계가 다시 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 다시 남인계가 원장을 지속적으로 맡게 되었는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인들의 입장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남서원의 위상은 19세기까지 강화되었다고 하였는데, 흥암서원의 위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17~18세기 魯岡書院과 충청 지역의 소론계 서원

홍제연(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 노강서원의 창건과 위상
3.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의 건립 추이
4. 소론의 정치적 부침과 서원의 운영상
5. 맺음말

## 1. 머리말

서원은 제향과 교육의 기능 외에 정치활동의 현장이었고, 원사의 건립, 청액, 배향, 추향의 과정에서 재지 사족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갈등하기도 하며 당파성을 드러내었다. 충청도는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의 학통을 잇는 기호유학의 거주 기반으로, 김장생, 김집, 윤선거,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등의 출신지였다. 이들의 문인으로 구성된 정치집단인 서인계(西人系) 핵심 인물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인조반정 이후 정권을 주도한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된 후 충청 지역은 중앙정치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정치 활동의 거점이 된 서원은 재지사족의 당파성을 상징하며 창건과 사액, 철액과 훼손, 제향 위치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충청지역 서원 연구는 정치 세력의 변화와 서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역의 재지사족 활동과 연계해 서원의 역사를 살피는 경향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경상, 전라 지역에 비해 서원 소장 자료가 많지 않다는 한계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2000년~2017년까지 발표된 서원 연구 관련 단행본 및 자료집 101건과 논문 179건을 분류한 논문에 의하면<sup>2)</sup>, 충청지역을 주제로 다룬 경우는 30건에도 못미친다.<sup>3)</sup> 이후 2021년까지의 성과에서도 20여건 정도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 
- 1) 조선후기 충청도에는 100여개의 원사가 확인되지만 고종대에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훼손하면서 충청지역은 돈암서원(연산), 노강서원(노성), 창렬사(홍산), 표충사(청주), 충렬사(충주) 5개 원사만 살아남았고, 현대의 서원 연구에 있어 비훼손 및 정치적 거점 서원(제향인물 관련)에 주목하는 경향이다. (홍제연, 2020, 「충청지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28.)
  - 2) 이수환,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7
  - 3) 위의 논문에서 제시한 2000년~2017년까지 연구성과 중 서원 총서 및 서원 일반 연구를 제외하고 충청지역만을 다룬 사례는 단행본 1건, 자료집 6건, 논문 25건(정치분야 10건, 경제분야 0건, 사회분야 6건, 교육분야 0건, 문화분야 6건, 건축지리분야 3건) 등이다.

처음 충청지역 서원 전반을 살핀 전용우의 연구에서는<sup>4)</sup> 도내 42개 서원을 분석해 호서사림의 발전 추세를 3단계로 나누었다. 1기는 김장생 등장 이전, 초기 사림계 인물을 제향한 서원이 세워지는 시기에 해당한다. 2기는 김장생 송시열의 활동과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이 등장하며 공주목이 주요 거점이 되고 동시에 홍주와 충주 지역에 영남계 서원이 세워지는 시기이다. 3기는 송시열 사후 노소분열로 당쟁이 심화되던 때로 호서사림의 거점이 연산 돈암서원에서 청주 화양서원으로 옮겨진 시기이다. 전용우의 3단계 발전론에 대해서는 이후에 반론 없이 인용되고 있다.

한편, 이해준<sup>5)</sup>은 충청도의 4개 목(공주, 홍주, 충주, 청주) 고을의 소속 진관(鎭管)별로 나타나는 서원의 성격을 분석하여 충청도내에 문화권이 나뉘어 있음을 밝혔다.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노론계 서원은 공주와 청주, 비노론계는 홍주와 충주 지역에 집중되며 문화권별 차이를 보였다. 서인-노론계의 수원(首院)이 갑술환국 이후 연산 돈암서원에서 청주 화양서원(華陽書院)으로 옮겨지면서 이 두 서원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서원은 대개 노론계가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당쟁이 심화되기 이전부터 홍주목과 충주목 주변 군현에는 영남계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존재했고 숙종 대 이후 양쪽 지역에 비노론계 서원이 건립되는 경향이 확인된다.<sup>6)</sup> 그러나 영조대에 노론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비노론계 서원은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조망되었으며 이후 발표되는 서원 및 학파에 관한 연구 또한 위의 논리를 보완하고 있다.<sup>7)</sup>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노강서원은 충청지역 소론계의 수원(首院)이다. 위치상으로는 공주목 문화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의 연구와 다소 배치되지만, 소론의 발원지와 같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서원이란 점에서 지역 문화권과 연계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노강서원의 역사, 문화, 건축, 소장자료에 대해서 검토되었고<sup>8)</sup>,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산-광산김씨-돈암서원’과 ‘노성-파평윤씨-노강서원’의 경쟁과 갈등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다.<sup>9)</sup> 최근 노강서원과 화양서원(충북 괴산군)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엮은 대중서가 발간되었다.<sup>10)</sup>

노강서원은 1674년에 범서인계의 지원과 참여로 창건되었으나 노소분열 이후 철액과 재사액, 윤증의 추배 등 고비 마다 철저히 노론의 견제를 받았다. 그러나 끝내 소론 서원의 상

4) 전용우, 1985,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建立推移 및 祭享人物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제13집, 호서사학회 ; 전용우, 1993,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16~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용우, 1999, 「湖西 書院 小考(Ⅲ) -18세기 湖西지방에 건립된 書院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제3·4호, 熊津史學會

5)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한국국학진흥원.

6)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한국국학진흥원, 31~33쪽.

7) 이근호,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3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41, 2014 ; 이영자, 「17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제78호, 한국동서철학회, 2015

8)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노강서원의 문화 전승과 전통건물의 문화사적 가치 학술세미나’(2010.9.16.).

9) 이정우, 1999,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建立의 성격-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88

10) 이남옥 박용만 외 지음, 2019, 『노강서원(魯岡書院)·화양서원(華陽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정으로 1871년 휘철 서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노강서원이 가진 힘은 소론유학의 정신을 전승하는 구심처이며 자손과 문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구축된 인적 기반 속에서 정치적 파도를 무사히 헤쳐갔다는 것이다. 도내에 또 다른 소론계 서원이 신창 영춘 석성 청주 연산 홍주 덕산 진천 등에 세워지며, 경종조 사액과 추향이 연달아 이루어지지만 소론이 집권했던 짧은 기간이 끝난 후 각 지역의 서원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글은 소론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활동하던 시기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의 상황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각 지역이 정치적 풍파 속에서 서원을 건립하고 사액을 시도하는 과정, 노론의 집중적 견제 속에서 끝까지 서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반을 확인하고자 한다.

## 2. 노성 파평윤씨의 입향과 활동

### 1) 파평윤씨의 노성 입향

노강서원은 1675년 충청도 니산(노성)에 세워진 서원이다. 충청도 노성 파평윤씨가 선산의 안산에는 다섯 개의 작은 산등성이 ‘오강(五岡)’이 있었고<sup>11)</sup>, 그중 가운데에 서원이 자리잡았다. 서원의 이름은 노성(魯城)과 오강에서 각 글자를 따 ‘노강’이라 하였으며 지명이 상징이 되어 ‘니산서원(尼山書院)’이라고도 불리웠다.

파평윤씨가 이곳에 입향하게 된 것은 1500년대 중반경이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던 윤돈(尹墩, 1519~1577)이 문화유씨 유연(柳淵)의 딸과 혼인 후 처향인 노성으로 이거하면서 세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연이 죽고 3년이 지난 1573년에 작성된 화회문기(和會文記)<sup>12)</sup>에는 윤돈의 처의 몫으로 전답 174마지기과 노비 17구가 분재되었다. 그런데 당시 유연의 아들 유서봉이 아들 없이 사망한 상황이었으므로, 유서봉의 처 이씨는 남편 몫의 재산과 봉사조의 전답 노비를 모두 윤돈의 손자 윤희(尹熹, 1584~1648)에게 넘겨주어 외가의 봉제사를 잇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파평윤씨는 노성에 경제적 기반을 획득하게 되었고, 윤돈의 아들 윤창세(尹昌世, 1543~1593)가 청주경씨 경혼(慶渾)의 딸과 혼인 후 노성 병사리로 이주해 자신의 서모(庶母)와 장모를 함께 모셨다고 한다.

윤창세는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첫째 윤수(尹燾, 설봉공파), 둘째 윤황(尹煌, 문정공파), 셋째 윤전(尹詮, 충헌공파), 넷째 윤흡(尹翕, 서운공파), 다섯째 윤희(尹熹, 전부공파) 모두가 일가를 이루었다. 윤창세는 1574년에 병사에 효렴재(孝廉齋)와 성경재(誠敬齋)를 세우고 자손들의 교육에 힘썼다. 또한 부인 청주경씨가 서울에서 아들들을 교육시켜 아들 손자가 대과와 소과에 급제할 수 있었고, 차남 윤황은 이이와 성혼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성혼의 사위가 됨으로서 성혼 학맥을 이었다. 5형제의 후손이 모두 크게 번창하여 이들을 ‘노종파(노종오방파)’라 부른다. 훗날 우암 송시열이 호서의 3대족으로 연산의 광산김씨, 회덕의 은진송씨와 함께 노성의 파평윤씨를 들었던 것은 바로 이 노종파를 일컫는 것이었다.<sup>13)</sup>

파평윤씨는 병자호란 이후 노성 일대에 완전히 자리잡으며 1643년부터 종회를 열고

11) 노강서원의 오른쪽에 명재 윤증의 종숙부 윤해거(尹海舉)의 집인 불우당(不憂堂)이 있어 그를 ‘오강공’이라 칭하였다. 《明齋遺稿 卷32 不憂堂記》

12) 김영한, 1985, 「尹墩의 同腹和會立議」, 『鄉土研究』 제1집, 충남향토연구회

13) 송시열, 懷德鄉案 序文(1672)

1645년 윤순거의 주도로 제정한 종약(宗約)에 따라 집안의 묘제(墓祭), 교육, 종사(宗事)를 위한 재정 운영 등을 제정해 대대로 종중의 결속을 다졌다.<sup>14)</sup> 그중에서도 자손의 교육을 강조한 종약의 지침은 ‘종학(宗學)’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윤씨가에서 1600년초~1700년초까지 설립한 서재(書齋)만 노서당(노성), 양정재(노성), 산천재(금산), 작천서재, 보인당(노성), 유봉정사(노성), 경승재(홍주), 월곡정사(공주) 등 8개소에 이르렀다.<sup>15)</sup> 서재는 파평윤씨 자체 뿐만 아니라 문인들과 인근지역의 사족들의 강학의 공간이 됨으로서 각 지역 소론계 사족을 결속하였고, 노성 유봉정사, 금산 산천재와 홍주 경승재 등은 훗날 윤증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변모하였다.

파평윤씨가의 종학은 명재 윤증(1629~1714)이 매월 강례를 실시하고 1682년 ‘초학화일지도(初學畫一之圖)’, 1701년 ‘위학지방도(爲學之方圖)’를 제정하여 교육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170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1817년경 유봉영당 북측에 종학당을 건립하면서 교육이 재개되며 종중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었다. 그 결과 1600년대 초부터 1800년대말까지 노종오방파에서만 46인의 문과 급제자, 66인(노성 거주)의 사마입격자가 배출되었다. 이런 인적 기반은 파평윤씨가가 조선후기 소론가로서 극심한 정치적 풍파를 거치면서도 노강서원을 유지하고 궤철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한 동력이 되었다.

## 2) 파평윤씨의 정치적 부침

충청지역의 유학은 이이 계열, 성혼 계열, 서경덕 계열, 잡야 박지계 계열로 분류되는데, 특히 이이와 성혼 계열이 주도했고 그 학맥을 이은 집단이 정치적으로 서인으로 활동하였다. 노소 분열 이후에는 성혼과 박지계 계열 학파가 소론계로 좌정하였다. 성혼은 충청 지역과 무관하였지만, 사위인 윤황에게, 윤황은 아들 윤선거에게 다시 윤선거는 아들 윤증에게 학통을 전수함으로써 윤증이 우계학맥의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되었다.<sup>16)</sup> 윤증대에 노소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조부 윤황과 숙부 윤문거, 부친 윤선거, 그리고 윤증의 행적을 통해 노강서원 창건의 배경을 살피고자 한다. 이 4인은 모두 노강서원의 제향인이기도 하다.

노성 입향조 윤창세의 차남 **팔송 윤황(尹煌, 1571~1639)**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인이자 스승인 성혼을 따라 의주로 피난을 가던 중 1593년 아버지가 남쪽에서 의거 하였다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 노성으로 와 장례를 치렀고, 1597년(선조 30) 27세에 문과 급제 후 승문원권지정자(承文院權知正字)를 시작으로 내외 요직을 거쳤다. 1608년(광해군 즉위) 북청판관으로 있을때에 반대파의 탄핵으로 파직되고, 1616년(광해군 8) 사돈 최기(崔沂)의 옥사에 연루되는 등 광해군대에 정치적 부침을 겪다 인조반정 후 다시 관직에 나아갔다. 1636년 병자호란때에 척화파 대신 중 한사람이었지만 병석에 있다가 김상헌과 정은 등이 척화파로 지목되어

14) 김필동, 2009,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노종파(魯宗派)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3), 34~36pp

15) 이연숙, 2009,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 49~50pp

16) 황의동, 2003, 「湖西儒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南冥學研究』 vol.1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47p ; 이근호, 2014,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 - 三南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41호 114p

청에 잡혀간 것을 뒤늦게 알아, 자신이 청에 잡혀가야 한다고 상소한 죄로 영동으로 유배되었다. 수개월간의 유배생활 후 금산에 머물다 고향 노성으로 돌아와 1639년(인조 17) 6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임종에 앞서 자손들에게 구차하게 벼슬길에 나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행장을 송시열이 짓고, 묘지명은 김상헌이, 묘표는 유계가 지었다. 당대 최고의 유현들이었다.<sup>17)</sup>

윤황의 4남 석호(石湖) 윤문거(尹文舉, 1606~1672)는 김집의 문인으로 조익, 김상헌에게도 배웠고 송시열 송준길과 교유하였다. 163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면서 관직에 올랐는데 3년만인 1636년 병자호란이 벌어지자 아버지와 함께 척화를 주장하였다. 인조를 호종해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던 중 척화신(斥和臣)이 청으로 잡혀갈때에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대신 잡혀가려 한 일이 있었다. 이후 현종때에는 여러 관직이 내려졌지만 모두 거부하고 학문에 몰두하였다. 67세인 1672년(현종 13)에 사망하였다.

윤황의 6남 윤선거(尹宣舉, 1610~1669)는 호가 길보(吉甫), 미촌(美村), 노서(魯西), 산천재(山泉齋), 문경(文敬) 등인데 주로 ‘미촌’, ‘노서’로 알려져 있다. 김집의 문인이며, 아들이 윤증이다. 1633년 형 윤문거와 함께 식년문과에 급제하였고, 1636년 청나라 사신이 입국하였을때 성균관 유생들을 모아 사신의 목을 벨 것을 주청하여 척화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 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가족을 이끌고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곧 강화도가 함락되며 처 공주이씨가 자결하였지만 그는 평민 복장으로 탈출함으로서 평생 이 일을 자책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죽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더 이상 출사하지 않은채 학문에 몰두하였다.

윤선거의 장남 명재 **윤증**은 9세의 어린 나이에 강화도에서 어머니의 자결을 목도하였고, 조부 윤황이 척화를 주장하다 영동으로 유배되었을 때 함께하였으며 조부가 금산에 머물때에도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금산에서 이웃에 살던 시남 유계(俞槩)를 스승으로 모셨고, 1647년 19세에 권시(權誨, 1604~1672)의 딸과 혼인 후 장인에게 학문을 전수받았다. 권시는 남인이면서 서인 박지계의 문인이기도 한 인물이었다. 1651년 23세에 연산에 있던 신독재 김집(金集, 1574~1656)의 문하를 출입하였으며, 이듬해에 송준길(宋浚吉, 1606~1672), 1654년에는 구포에 있던 조익(趙翼, 1579~1655)을 찾아갔다. 또 1657년 29세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에게 주자서를 배우며 사제관계를 맺었고 1658년 이유태(李惟泰, 1607~1684)를 만난 후 20여년간 복제(服制) 문제를 질의하였다.

윤선거의 문하에는 윤증과 나양좌가 있고, 윤증의 문하에 정제두, 박태보, 한영기, 권이진 등이 있다. 또한 권시는 부친 권득기와 박지계로부터 예학과 도학을 배워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등과 함께 교유하였는데 권시의 손자 권이진은 윤증의 문인이기도 하다. 이렇듯 윤증은 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남인계의 석학들과 교류하며 예학에 정통한 학자로 명성을 떨쳤다.<sup>18)</sup>

윤증은 송시열의 고제(高弟)로 지목될 정도였지만 사제관계가 벌어진 후 1681년 숙종의 부름을 받았을때에 송시열의 세도와 서인과 남인의 대립, 외척 가문(여흥민, 광산김, 청풍김)의 폐단 등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았다.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에 ‘지금의 편론(偏論)은 나라

17) 김문준, 2012, 「노강서원 제향 인물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노강서원지 3』, 노강서원, 39~40pp

18) 이형성, 2009, 「명재 윤증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추송」, 『유학연구』제20집, 132~133pp ; 황의동, 2003, 「明齋儒學의 家學的 淵源에 대한 연구」, 『철학논총』제33집, 430p

가 망해야 끝날 것이고 살육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기도 하였다.<sup>19)</sup> 실제 그가 죽은 후 1년만에 『가례원류(家禮源流)』 발문에 송시열의 문인 정호(鄭澔)가 윤증이 스승을 배반하였다는 글을 쓰며 노소간 당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 3. 노강서원의 창건과 위상 변화

#### 1) 서원 창건 시도

1650년대에 들어와 충청지역의 서인계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김집의 문하에서 함께 교유하던 송시열이 『대학』과 『중용』 등 경전주해(經傳註解)의 문제로 윤휴(尹鑣)를 비판하였고, 윤선거가 이에 동조하면서도 윤휴를 변호하는 태도를 보여 송시열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1653년(효종 4) 여산의 황산서원<sup>20)</sup>에서 윤선거 유계 송시열 등의 회합이 있었는데, 이때 송시열은 윤휴를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윤선거가 송시열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오해만 불거졌을 뿐이었다. 이후 윤선거가 윤휴에게 보낸 간찰에는 송시열과 윤휴 두 인물에게 모두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 ‘구차하게 비위를 맞추는 일이 어찌 친구에게 권면하는 도리겠느냐’며 양쪽을 중재하려는 입장을 보였다.<sup>21)</sup> 윤선거 사후 아들 윤증이 송시열에게 아버지의 비문을 청했을때에 송시열이 윤선거의 학문을 애매하게 기록하면서 끝내 노소 분열의 확실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1672년 윤문거가 죽은 후 곧 서원 건립이 논의되었다. 윤증과 윤씨가 사람들, 최세경 등이 정사에 모여 서원 터를 의논하고, 이듬해 1월 윤증과 윤진이 서원 터를 둘러보았다.<sup>22)</sup> 서원 창건을 위해 김수항(金壽恒, 1629~1689), 민정중(閔鼎重), 김만기(金萬基), 박세건(朴世堅), 여성제(呂聖齊), 이선(李選), 김만중(金萬重), 신익상(申翼相), 조사석(趙師錫), 정유악(鄭維岳), 조근(趙根) 등 조정의 고위 관료이면서 당대의 명현으로 이름난 이들이 ‘서원영건시발문’에 이름을 올렸고<sup>23)</sup>, 김수항이 지은 노강서원영건통문(魯岡書院營建通文)이 전국으로 보내졌다. 김수항은 충청지역의 선비들이 팔송과 노서를 위해 니산에 사당을 세운다고 하니 특별히 유념해 줄 것을 청하며 이 일은 ‘사문(유학)의 부흥’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84년에 박세채에게 쓴 간찰에는 노강서원 건립 이전인 1646년경 윤황을 제향하기 위해 니산에서 서원 건립이 시도된 바 있었고, 당시 창건을 이루지 못하다가 1674년에 드디어 노강서원을 세우게 된 사실, 그리고 송시열이 노강서원 창건에 지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sup>24)</sup>

이 글에 의하면 파평윤씨가에서는 1639년 윤황이 죽은 후 니산 사람 이경(李綱) 등에 의해 사당 건립의 의론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열읍(列邑)에 통고하지 않은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고 니산현감에게 역군(役軍)을 요청하였지만, 비협조인 답변을 받기까지 했다. 이에

19) 尹東源, 「祖考文成公家狀」, 『一庵遺稿』 권3,

20) 현재 논산시 강경읍 소재

21) 附元書, 白湖全書 제16권, 서(書)

22) 덕포일기

23) 金壽恒, 「魯岡書院營建時發文」(노강서원지)

24) 송시열, 송자대전 제68권 書 答朴和叔 甲子十二月

송시열이 윤선거를 불러 윤씨가에서 향인(鄉人)들의 의론을 따라 서원을 짓는다면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 경계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1646년(인조 24) 니산현 사람 유탁(柳濯)이 역변을 일으켜 니산 연산 은진 3개 현을 통합하여 하나의 현으로 만드는 사건으로 지역사회가 혼란하자 윤선거는 곧 서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 뒤 1669년에 윤선거가 죽고나서 윤증이 서원 건립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화양동에 있는 송시열을 찾은 일이 있었다. 송시열은 청음 김상헌이 모친의 병환을 돌보느라 니산에 머무른 적이 있으니, 만약 서원을 세우려거든 김상헌을 주향으로 하고 윤황 부자를 배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며 조정에 먼저 소를 올려 주청하고 서원을 세우라는 의견을 내었다. 이것은 윤씨의 서원 건립을 은근히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므로 윤증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한다.

또 어느날 영춘현의 유생이 송시열을 찾아와 자신이 ‘윤선생의 서원’에 있는 유생이라며, 일찍이 윤선거가 영춘에 들렀던 인연이 있어 서원을 세웠노라 답한 일이 있었다. 송시열은 이에 대해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윤선거가 윤희와 어울려 기탄이 없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영춘 서원도 임금에게 허락받지 않고 세워 의절이 난잡하다고 비난하였다. 영춘 서원은 윤선거를 제향하는 송파서원(松坡書院)을 뜻하며, 송파서원은 1673년(현종 14)에 창건되었다

그리고 노강서원이 건립되던 1674년, 송시열이 상경도중 경기도 광주에 머물다 이유태를 만났는데, 이유태가 “길보(윤선거)의 서원 건립이 갑자기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이것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고, 송시열은 자신이 이미 윤증에게 조정에 윤희를 얻은 후 공사를 시작하라고 충고하였지만 듣지 않았다고 한탄하였다. 그러면서 윤증 집안이 윤희에게 본받은 습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표면적으로 서인계 전체가 노강서원의 창건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완전한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으며 가장 핵심 인물이라 할 송시열과 이유태 등의 반응은 윤증과의 분열의 조짐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노강서원 건립에 대한 송시열의 부정적 입장은 이후 불거지는 이른바 목천 통문사건에서도 드러난다.<sup>25)</sup> 이 사건은 1674년 노강서원을 창건을 위한 협조 통문이 각 고을에 보내진 후, 이를 받은 충청도 목천의 유생들이 향사에 반대하여 ‘강도부노 불합향사(江都俘奴不稱享祀)’, 즉 ‘강도에서 오랑캐의 종이 된 사람을 향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라는 라는 답통을 각 고을에 돌린 일이었다. 그런데 정작 답통을 돌렸다는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실제 벌어진 일인지 조차 모호하였다. 훗날 노강서원측에서는 송시열의 원한에 의한 주장이라고 이해할 정도였다.<sup>26)</sup> 왜냐하면 8년이 지난 1681년(숙종 7)경 송시열이 제자 이상(李翔)이 목천의 서원 원장으로 추대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목천 유생들은 노강서원 향사를 반대하고 윤선거를 모욕한 통문을 돌린 일이 있었으니 주의하라’ 는 뜻을 전하였는데, 이상의 문하(門下)에서는 그게 사실이라면 목천의 유생을 처벌해야 한다며 노강서원으로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통문을 보내면서 알려진 일이기 때문이다.<sup>27)</sup>

윤증은 1682년에야 목천 통문 사건을 알게 되어 2년 후인 1684년 송시열과 간찰을 주고받

25)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1684) 8월 21일 갑인 ; 숙종실록보결정오 60권, 숙종 43년(1717) 9월 2일 계축

26) 명재유고 명재연보 제1권 55년 임술, 명재연보 후록 제2권 전 지평 이세덕의 상소

27) 宋子大全 卷56 答金久之 甲子 四月 二十五日

으며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송시열은 자신의 잘못이라 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증은 석연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sup>28)</sup> 이 문제로 두사람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송시열은 윤증에게 ‘의리에 의거하여 내치고 절교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글을 보내기까지 하였다.<sup>29)</sup> 목천 통문 사건은 1717년(숙종 43)에도 다시 거론되며 송시열을 옹호하는 노론과, 윤증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론간의 상소로 정국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송시열이 노강서원 건립에 불편한 심정을 보인 위의 사실들은 서원 건립 후 10여년이 지나 이미 노소 분열 후에 드러난 것이었고, 창건이 되던 시기에는 송시열도 외형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673년 1월 이희조(李熙朝)가 송시열에게 ‘이성(尼城)의 노서서원(魯西書院)’을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선생의 뜻이나 물었을때에 자신은 김장생이나 성혼의 제향 사례에서 보듯 너무 서두르지 말고 늦추자 했을 뿐이지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답하였던 것이다.<sup>30)</sup>

## 2) 노강서원의 창건과 사액

1672년에 서원 건립이 발의된 후 1675년 윤황과 윤선거의 위패를 봉안하며 3년만에 노강서원이 창건되었다. 이때 작성된 노강서원 영건시부조록(營建時扶助錄)<sup>31)</sup>을 보면 전국 각 도와 군현의 지방관, 향교, 원사, 유림, 향약, 경유사, 일반 개인 등 200여개소에서 막대한 자금과 다양한 물품을 부조하였다. 여기에서 충청지역의 서원은 송현서원(회덕), 충현서원(공주), 돈암서원(연산), 동봉서원(홍산), 창강서원(공주), 건암서원(서천), 문헌서원(한산), 창주서원(옥천), 도동서원(목천), 봉암서원(연기) 등 10개 서원이고, 향교는 목천 전의 석성 공주 한산 홍주 등 6개소였다.

봉안제문은 남구만(南九萬), 춘추 향축문과 노강서원 상량문은 박세채(朴世采)가 지었는데 두 인물 모두 향후 소론계 인사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노소분열 이전부터 노강서원 창건을 주도한 세력이 이미 하나의 계열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강서원 창건 과정에서 작성된 시도기(時到記)인 봉안시 유희록(1675년)에 은진송씨 여흥민씨 광산김씨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sup>32)</sup> 이 기록에는 258명의 본관과 성명 자, 출생년도 거주지 등리 기록되어 있는데,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충청지역 출신이고 서울, 경기, 전라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성관은 니산의 파평윤씨를 제외하면 매우 다양한 편이다.

- 30인 이상 : 니산(112), 공주(31)
- 10인 이상 : 연산(20), 서울(13), 여산(12), 석성(10),

28) 與懷川, 答朴士元, 명재유고 별집 제4권 / 書

29) … 大抵來書怨怒 更加一層 引義斥絕 不宜少緩 而猶且云云 此則愚昧之所不敢知也… / 答尹拯 甲子七月二十四日 / 송자대전 권111 書

30) 송자대전 부록 제14권 / 어록(語錄) 1 이희조(李熙朝)의 기록 중

31) 노강서원, 2012, 제15장 제2절 魯岡書院建立時扶助錄, 『노강서원지 1』

32) 노강서원, 2012, 제16장 魯岡書院奉安時儒會錄 / 이들 성관은 연산 돈암서원 창건의 주도 세력이다.



- 5인 이상 : 임천(6), 정산(5), 부여(5), 금산(5),
- 1~4인 : 연기(4인), 홍주(4인), 은진(3인), 회덕(3인), 光州(2인), 옥천(2인), 덕산(2인), 서산(1인), 한산(1인), 전의(1인), 결성(1인), 남평(1인), 홍산(1인), 보령(1인), 덕흥(1인), 익산(1인), 전주(1인), 고부(1인), 廣州(1인), 창평(1인),

봉안시집사록(奉安時執事錄)에는 초헌관 석성현감 이영휘(李永輝), 아헌관 니산현감 안중(安重), 종헌관 경기전참봉 백광서(白光瑞) 및 각 분방에 따른 약 30여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창건된지 7년이 지난 1682년(숙종 8) 윤문거를 추향하며 봉안제문은 전주이씨 이민서(李敏敍)가, 제향 축문은 박세채가 지었다. 그리고 곧이어 나양좌 조득중 이사길 김창협 등 5도 유생이 청액상소를 올렸다. 노강서원 청액 무렵 마침 경기도 교하에도 윤선거 사우가 건립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동일인의 서원을 중첩해 설립하는 상황이었다. 중첩설립을 금한 상태였으므로 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sup>33)</sup>가 나서서 니산의 사우에서 이미 몇해째 제향을 올려왔기 때문에 특별히 사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마침내 ‘노강’으로 사액되었다.<sup>34)</sup>

이 시기는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된 때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강서원 사액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인데 노강서원의 사액 논의가 있기 얼마전 시남유계의 사우 건립이 무산되고 김장생 송준길의 흥현서원 추향, 송준길을 봉암서원 노봉서원 충현서원에 합향하려는 시도가 모두 중첩 설립이란 이유로 보류되었고, 영남 안음에 송준길 서원 창건도 불허된 것을 보면 서인 정권 내부의 다른 입장이 포착된다.

노강서원 사액에 대해 숙종이 내린 사액치제문(賜額致祭文)은 임영(林泳)이 지었고, 예관은 예조정랑 이립중(李立中)이었다. 이때의 기록으로 「연액추배시부조록(延額追配時扶助錄)」이 있다.<sup>35)</sup> 이때 부조한 충청지역의 서원은 창주서원(옥천), 송현서원(회덕), 노봉서원(문의), 도동서원(목천), 충현서원(공주), 돈암서원(연산), 의열사(부여), 신행서원(청주), 봉암서원(연기), 영동서원(영동)<sup>36)</sup>, 보령서원(보령)<sup>37)</sup> 등 11개소, 향교는 비인, 대흥, 당진, 공주, 영춘, 태안, 연기, 결성, 천안, 온양, 면천, 청양, 청산, 진잠, 연풍, 영동, 덕산, 석성, 홍주, 부여, 서산, 음성, 서천, 청주, 은진 등 25개소로 창건시 부조물목을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모두 숫자가 늘었다. 특히 향교는 창건시 6개소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된다. 서원중에 동봉서원 창강서원 건암서원 문헌서원은 창건시 부조하였지만 사액시에는 하지 않았다. 목천 도동서원을 제외하면 모두 노론계 서원인 것은 이 시기에는 충청지역에 소론계 서원이 신창과 영춘에 각 1개소 뿐이었기 때문이다.

노강서원이 사액되는 1682년 전후한 시기의 정치적 상황은 복잡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으며, 1681년에 윤증이 송시열을 비난하는 ‘신유의서’를 지었다. 아직 신유의서가 공개되기 전이었으므로, 이 해 송시열이 석성에서

33) 1688년 우의정으로 있을때 왕이 동평군을 총애하는 것에 대해 박세채와 남구만이 간하다 유배되자, 이 사건을 도우려다 정배되었다. 소론으로 당시 남인이 성혼과 이이를 문묘에서 출향하려 하자 부당함을 진소하였다.

34) 서원등록. 1682년(숙종 8) 2월 17일.

35) 노강서원, 2012, 제15장 제4절 延額追配時扶助錄, 『노강서원지 1』345p

36) 영동 화암서원(花巖書院)으로 추정

37) 보령 화암서원(花巖書院)으로 추정

운문거를 제향한 봉호서원(蓬湖書院)의 창건을 위한 발론(發論)을 짓기도 하였다.<sup>38)</sup>

노강서원 사액 후 바로 이듬해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노론정국이 되면서 1695년 송시열을 돈암서원에 추배하였을때에 송시열추배시 도기에는 니산 거주자가 고작 2명에 불과하였고, 파평윤씨는 참여하지 않았다.<sup>39)</sup> 그럼에도 윤증이 죽기 전까지는 큰 충돌 없이 1709년(숙종 35) 교리 이세근(李世瑾)의 건의에 따라 윤황과 윤선거가 증직되고 1711년(숙종 37) 윤황에게 문정, 윤선거에게 ‘문경’의 시호가 내려졌다. 1712년(숙종 38)에는 노강서원에서 윤선거의 문집 《노서유고(魯西遺稿)》가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 3) 철액 논란과 서원 재정비

1714년 1월 윤증이 유봉정사(酉峯精舍)에서 죽자 노소 갈등은 더욱 깊어져 겨우 2년이 지난 1716년(숙종 42) 회니시비 등의 잘못이 윤증에게 있다는 병신처분이 내려지면서 소론이 대거 축출되고 윤선거 문집혜판령, 윤선거와 윤증을 ‘선정(先正)’으로 칭하지 못하게 하는 왕명이 내려졌다. 이어서 이듬해 1717년에는 윤선거와 윤증의 관작이 추탈되고 윤선거 문집 목판이 혜판되었으며, 노강서원도 철액되었다.

노강서원에서는 철액된 시기에 서원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청금록 수정시완의(修正時完議)가 작성되었다.<sup>40)</sup> 여기에 205명의 명단이 있는데, 성명과 관직, 본관(일부)만 기재되어 각 인물의 성분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37명이 파평윤씨이며, 타성 중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마입격자 및 그들의 부친 형제 등 약 30여명이 주로 니산 출신이고 그 외에 거주지로 서울과 공주 등이 있다. 청금록 등재 타성 중에서 주목되는 성관은 남양홍씨(21인), 무안박씨(16), 청주한씨(12인), 청주양씨(9인), 함평이씨<sup>41)</sup> 등이다. 이들 성씨 모두 1600년대 학문적 교류와 통혼으로 연계된 관계였다.

무안박씨는 오늘날 ‘호서유학의 산실’이라 불리우는 니산 보인당(尼山 輔仁堂)<sup>42)</sup>의 암천 박증(巖川 朴增, 1461~1517)<sup>43)</sup>의 후손이다. 남양홍씨는 니산 입향조인 홍세구(洪世考)가 윤증과 함께 보인당과 양정재(養正齋)에서 동문수학한 인연으로 후손들이 노강서원을 왕래하였고, 이후 노강서원의 각종 좌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sup>44)</sup> 청주양씨와 함평이씨는 현 논산 상월면 주곡리에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는 성씨로 노강서원 청액소를 올렸던 이사길이 이 집안 출신이다. 청주한씨는 윤증에게 20년 이상 수학한 한우기(韓佑箕, 1656~1705) 일가이다.

1717년 청금록이 수정되기 전의 기록은 전해지지 않아 변화상은 알기 어렵지만, 노강서원의 위기 속에서 파평윤씨와 니산의 세거사족들이 결속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38) 『列邑院宇事蹟』 乾隆二十四年 月 日 石城縣蓬湖書院事實成冊 : “肅廟朝辛酉 尤庵宋先生發論 縉紳章甫發通 癸酉設立 獨享 未賜額”

39) 돈암서원, 「文正公尤庵宋先生奉安時儒生到記」, 『遯巖書院誌』上, 35p~39p

40) 노강서원, 2012, 제18장 청금록 정유 2월 13일 修正時完議, 『노강서원지 1』364p

41) 본관이 기재되지 않은 인물이 많아, 함평이씨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42) 보인당은 돈암서원이나 노강서원보다 2~3세대 앞선 유적으로 이곳에서 기호학맥의 적통을 계승한 인재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이해준, 2003, 『암천 박증과 모곡서원』머리말 중)

43) 성삼문의 외손. 무안박씨 노성파의 파조.

44) 1723년(경종 3) 윤원거의 사위 청액상소의 소두가 되는 인물도 청금록에 보이는 홍남두(洪南斗)였다

한편, 노강서원 철액 후 윤선거를 제향하는 전국의 서원 사우에 대한 철폐령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1718년(숙종 44) 3월, 좌의정 조태채와 오명준 등이 반대함으로서 철폐 논의는 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45)</sup>

숙종말기에 노론 편향적으로 전개되던 정국은 경종 즉위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다 신축환국으로 소론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1722년(경종 2) 관학의 유생 황옥 및 양호의 유생 김수귀 등이 윤선거와 윤증이 무함을 받았으니 그 원통함을 씻어줄 것을 청하면서, 윤선거와 윤증의 관직 회복 및 증시(贈諡), 윤선거 문집 간행 허가에 이어서 노강서원도 다시 사액되고 1년 후 윤증이 추배되었다.<sup>46)</sup>

노강서원이 다시 지역내에서의 기반을 만회한 후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된 듯 하다. 영조 즉위 후 탕평정국으로 들어섬에 따라 노소 갈등이 서원으로 비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조가 즉위한 직후 1725년(영조 1) 윤선거와 윤증 관작 삭탈 및 서원 철폐 요구 상소가 있기도 하였지만, 영조는 경종때 처분을 따르겠다며 다시는 문제삼지 말 것을 표명한 상태였다. 이 해에 노강서원 유림은 유봉영당에 모여 재생안(齋生案)을 정리하였다. 이 명단에 등재된 이들만 향사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한 문중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부형의 이름을 적어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며, 다른 고을의 명망있는 인사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76인의 이름을 등재하였다.

그리고 1759년(영조 35) 10월 서원 중수와 함께 윤증의 문인들로 구성된 문인계(門人契)인 지천계(趾泉契) 좌목을 구성하여 44인의 성명 자 생년 본관을 기록하였다.<sup>47)</sup> 여기에는 남양홍씨와 파평윤씨가 반 이상이고 1717년 청금록과 1725년 재생안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청주양씨와 무안박씨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강서원 유생들은 1769년(영조 45) 박세채 문묘출향(文廟黜享)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벌어졌을때 서울로 가 상소를 올리며 참여자 명단인 ‘己丑疏行時 京儒訪問錄’을 기록하며 소론 서원으로서 정치적 참여를 이어갔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자 다시 1716년의 병신처분에 대한 재논의가 일어나 노강서원은 철폐되고 윤선거와 윤증의 관작이 추탈되었으며 문집도 훼손령이 내려졌다. 노론이 강성한 시기에 소론의 상징인 노강서원은 당연히 화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6년이 지난 1782년(정조 6)에야 윤선거와 윤증의 관작이 회복되었다.

#### 4. 충청지역 소론계 서원의 건립 추이

##### 1) 충청지역 비노론계 서원의 분포

충청지역은 정조대까지 약 107개소<sup>48)</sup>의 서원이 창건되었는데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학통

45) 《서원등록(書院謄錄)》 숙종(肅宗) 44년(1718) 3월 26일

46) 복관후 치제문은 조태억(趙泰億), 노강서원봉안제문은 양득중(梁得中)이 지었다.

47) 노강서원지천계좌목(노강서원지 1, 제20장, 375~376p) 등재 성씨: 남양홍(18), 파평윤(9), 완산이(5), 거창신(2), 여주이(2), 용인이(2), 평산신(2), 함평이(1), 청주한(1), 함열남궁(1), 순천박(1)

48) 서원지(1799), 열읍원우사적, 서원가고, 연려실기술, 조두록, 동국문헌록, 증보문헌비고, 동국원우록(호서), 전고대방 등의 서원관련 기록. 전체 기록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서원은 105개소이고, 2개소는

을 계승한 서인계 서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영남계 서원은 7개소에 불과하고 서인의 노소분열 이후 소론계 성격을 띤 서원은 10개소가 확인된다.<sup>49)</sup> 즉, 90여개의 서원이 대부분 서인-노론계 또는 문중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

노론의 강력한 우위 속에서 비노론계 17개 서원의 분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각 서원의 소재지에 따라 4개 목(공주, 홍주, 충주, 청주) 지역의 문화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서인 노론계 서원은 공주와 청주, 비노론계는 홍주와 충주 지역에 집중되어 각 지역 사족의 정치적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노론계의 수원(首院)은 연산 돈암서원이었고, 갑술환국 이후 청주 화양서원(華陽書院)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두 서원의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서원은 대개 노론계가 지배적이었다.<sup>50)</sup> 이와달리 당쟁이 심화되기 이전부터 충청도 내에 영남계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이 홍주진관과 충주진관 소속 군현에 존재하였다. 다음 표에서 보듯 충주 제천 괴산 단양 등 주로 충주목 권역의 군현이었고, 아산과 온양은 홍주목 권역이다. 영남계 서원 소재지를 이후 소론계 서원 소재지와 비교하면 서로 인접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제천 남당서원과 영춘 송파서원, 목천의 도동서원과 신창의 도봉서원 등이 그렇다.

충청지역에서 최초로 건립된 영남계 서원은 제천의 남당서원으로 제천은 지리적으로 경상도 북부지역에 접해 있으며 퇴계 이황이 단양군수로 있을때에 자주 왕래하며 강학한 인연으로 퇴계학맥이 전승된 곳이다. 괴산과 단양에 이황을 제향한 서원이 세워지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충주 운곡서원에서는 선조대에 충주목사를 지냈던 정구와 주자를 제향하고 1676년 온양 정퇴서원, 목천 도동서원과 함께 사액을 받았다. 1674년 갑인예송으로 남인정권이 수립되면서 남인계 서원이 대거 사액된 것이었다.

<충청지역의 영남계 서원>

서원	지역	창건	사액	제향인물
남당서원(南塘書院)	제천	1580년(선조 13)	-	이황, 강유
인산서원 (仁山書院, 五賢書院)	아산	1610년(광해군 2)	-	주향)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추향)홍가신, 기준, 이지함, 이덕민, 박지계
화암서원(花巖書院)	괴산	1622년(광해군 14)	-	이황, 이문건, 노수신, 김제감, 허후, 전유형, 박세무, 이신의, 박지겸, 허조, 유근
정퇴서원(靜退書院)	온양	1634년(인조 12)	1676년(숙종 2)	조광조, 이황, 맹희도, 홍가신, 조상우, 강백

서원지(1799)에만 등재되어 있어 기존 서원의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49) 2007년 한국국학진흥원 주도로 지난 시기 서원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규명한 바 있는데 영남, 경기, 호서, 호남 등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역 사족의 정치적 성향이 다른데다 중앙정계의 반복되는 한국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50)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2007, 한국국학진흥원, 31~33쪽.

				년, 조이후
도동서원(道東書院)	목천	1649년(인조 27) ‘죽림서원’	1676년(숙종 2)	주자, 김일손, 정구, 황중해
운곡서원(雲谷書院)	충주	1661년(현종 2)	1676년(숙종 2)	주자, 정구
단암서원(丹巖書院)	단양	1662년(현종 3)	1692년(숙종 18)	우탁, 이황

단양의 단암서원 이후에는 순수한 영남계 서원은 더 이상 창건되지 않았고, 이들 서원이 계속해서 남인의 거점 서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암서원의 경우 송시열의 ‘사문지적전(師門之嫡傳)’이라 칭해지는 권상하(權尙夏, 1641~1721)가 1682년에 청액소(淸額疏)를 지어 사액에 협조하였던 것을 보면 노론의 협조와 지원을 받으며 노론에 협조적 입장으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sup>51)</sup> 충주 운곡서원도 1725년(영조 1)에 ‘경종 즉위 후 음흉한 무리의 소굴’이 되었다는 노론계 유생의 상소가<sup>52)</sup> 등장하며 남인계 서원의 변화를 추측케 한다.

숙종대 후반에 노소론간 대립이 격해지면서 충청지역 사족은 우암 송시열로 대표되는 노론계의 돈암서원 및 화양동서원과 명재 윤증으로 대표되는 소론계의 노강서원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서원 전반의 당파적 성향은 노론이 우위에 있었고 소론계는 다음의 10개서원이 세워졌다. 그리고 10개의 서원중 5개 서원이 노성 파평윤씨가 유현을 제향하고 있다.

서원의 소재지는 청주목(청주, 진천), 충주목(영춘), 공주목(노성, 연산, 석성), 홍주목(신창, 홍주, 덕산) 으로, 한쪽에 치우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홍주목 권역은 영남계 2개소의 소재지로 소론계 서원도 4개소에 달했다는 점에서 확실히 타 지역에 비해 비노론계의 입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주목 청주목 권역은 각각 노론의 수원인 돈암서원과 화양서원이 있는 지역임에도 소론계 사액서원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단순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 <충청지역의 소론계 서원>

서원	지역	창건	사액	제향인물
도봉서원 (道峯書院, 道山書院)	신창	1670년(현종11)	-	조익, 조극선(1720년 추배)
송파서원(松坡書院)	영춘	1673년(현종14)	-	윤선거
노강서원(魯岡書院)	노성	1675년(숙종1)	1682년(숙종8) 1717년 철액 1722년 재사액	윤황, 윤문거, 윤선거(1682년 추배) 윤증(1723년 추배)
봉호서원(蓬湖書院)	석성	1693년(숙종19)	-	윤문거, 윤단(추배)
송천서원(松泉書院)	청주	1695년(숙종21)	1711년(숙종37)	김사렴, 최유경, 이정간, 박광우, 이제신, 이지충, 조강, 이대건, 이제신,

51) 한수재선생문집 제2권 / 疏 / 丹陽書院淸額疏

52) 승정원일기 영조 1년 을사(1725, 옹정) 5월 2일(음)

				이인혁, 1723추배)최석정, 남구 만, 박문수, 이종성, 이 효석, 김여량
구산서원(龜山書院)	연산	1702년(숙종28)	-	윤전, 윤순거, 윤원거, 윤문거
혜학서원(惠學書院)	홍주	1705년(숙종31)	1722년(경종2)	이세귀
회암서원(晦菴書院)	덕산	1709년(숙종35)		주자 이담 이흠 조극선
지산서원(芝山書院)	진천	1722년(경종2)	1723년(경종3)	최석정
용계서원(龍溪書院)	홍주	1724년(경종4)	-	윤증

소론계 서원은 1670년~1724년까지 50여년간 건립되고, 경종대에 집중적으로 사액되었다. 최초의 서원이 신창에 세워진 것은 이웃한 아산과 온양의 영남계 재지사족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일대가 비노론계 사족 성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노소 분열이 심화되고 윤증이 소론의 영수가 되면서 파평윤씨가 유현을 제향하는 서원이 소론계의 활동을 상징하게 되었다. 그중 노강서원이 중앙 정계의 변화에 따라 철액과 재사액, 윤증의 추배 등 고비마다 철저히 노론의 견제를 받는 가운데 타 지역 소론서원은 소재지 군현 재지사족의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 2) 재지사족의 활동과 소론계 서원

서인의 노소분열 후 노론계가 강세를 이루는 충청지역에서 소론 서원은 노론의 견제와 압박을 피하기 어려웠다. 노론은 소론서원 인근에 자파 서원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서원을 지원하고, 정치적 성향이 불분명한 지역 사족에게 제향처를 마련해주어 포섭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소론 또한 서원을 건립하고, 사액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자파 인물들의 추함에 힘을 쏟았지만, 노론이 실각한 잠깐의 시기에 불과했다. 특히 짧았던 경종 재위기에 전국 곳곳의 소론계 서원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영조대에 노론이 집권세력이 되면서 철액과 회철의 압박 속에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sup>53)</sup>

충청지역 10개의 소론 서원의 창건과 사액 과정, 각 서원이 처한 환경은 지역에 따라 달랐다. 1500년대부터 영남계 학통이 확산되어 있던 지역에 건립된 신창 도봉서원, 재지사족 전반이 참여한 홍주 혜학서원과 영춘 송파서원, 해당 군현의 가장 위세있는 집안이 주도함에 따라 무리없이 창건과 운영이 이루어진 홍주 용계서원, 니산 파평윤씨의 지원이 있었던 송파서원과 연산 구산서원 석성 봉호서원, 반 노론 전선에 따라 남인계와의 협조를 통해 건립된 청주 송천서원, 노론의 견제와 무신란 이후의 여파 속에서도 명맥을 이어간 진천 지산서원 등 각 지역의 소론계 서원은 정치적 풍파를 함께 겪으면서 향촌사회의 사족동향에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 또한 충청지역 윤증의 문인들의 활동은 여러 서원의 연대를 가능케도 하였다. 홍주 용계서원 창건을 주도한 진사 심익래가 노강서원에 윤증의 제향을 청하는 상

53) 이근호,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3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41, 2014 ; 이영자, 「17세기 호서학파의 성리학적 특징으로 본 충청의 로컬리티」, 『동서철학연구』제78호, 한국동서철학회, 2015

소의 유생대표가 되는 사례, 최석정이 지은 윤증의 제문에 송시열을 무함했다는 상소로 최석정이 곤란에 처했을때에 윤증 문인들이 반박상소를 작성하면서, 청양과 홍주 유생중 누가 소두가 될 것인지 논의하였던 일화 등이 확인된다.<sup>54)</sup>

노강서원 창건 이전 소론계 서원으로 분류되는 곳은 신창 도봉서원과 영춘 송파서원이다.

신창의 도봉서원은 ‘도산서원(道山書院)’이라고도 하는데, 포저 조익과 야곡 조극선을 제향한 곳이다. 광해군대에 조익이 은거하며 강학하던 곳에서 그의 학문을 추모하며 1667년 서원 건립이 계획되어 1670년(현종 11)에 창건 후 독향하다 1720년(숙종 46) 조익의 문인 조극선(1595~1658)을 추배하였다. 조극선은 예산 출신으로 이명준(李命俊), 박지계(朴知誠), 조익(趙翼)에게 수학하였는데<sup>55)</sup> 이명준을 통해 우계학통을 계승하였다.<sup>56)</sup> 1723년(경종 3)에 사액을 청하였으나 조익 제향 서원의 중첩 설립문제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조익과 조극선은 생전에 파평윤씨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우계 학통과 박지계라는 연결고리가 있었고 조극선의 사위 한수원(韓壽遠, 1602~1669)<sup>57)</sup>은 김장생의 외손이자 윤증의 문인이었다. 그리고 한수원의 손자 한배하(韓配夏, 1650~1722)는 숙종대에 스승인 윤증을 홍주 용계로 모셔 머물게 하고, 윤증을 제향하는 용계서원의 창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던 인물이다.

영춘의 송파서원은 파평윤씨의 서원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졌다. 송파서원에서는 숙종 초에 청액상소를 올리기 위하여 윤증에게 도움을 청한바 있는데, 마침 1695년 교하현(交河縣)에 윤선거 서원이 창건된 후 사액됨에 따라 윤증은 금령을 무릅쓰고 사액을 청하기 보다는 유생 교육에 힘써 서원 건립의 본 뜻을 지키자는 뜻을 보였다.<sup>58)</sup> 정조대까지 영춘의 유일한 서원이면서 미사액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과 윤선거 서원의 철폐 논의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59)</sup>

1702년 연산에 윤전(尹烱) 등 파평윤씨 인물을 제향하는 구산서원이 창건되자 노론은 1705년 인접한 곳에 휴정서원(休亭書院)을 세워 연산의 여러 성씨를 제향하도록 힘을 실어 주었고, 노강서원이 1717년 철액 조치가 내려질때에는 송시열의 문인들이 윤증이 살았던 고택 앞에 공자를 제향하는 궐리사를 창건하였다. 연산이나 니산은 노론계가 강성한 공주목 문화권이었던 점에서 혹독한 정치적 부침을 겪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공주목 문화권인 석성현의 봉호서원은 송시열이 1681년 서원 창건을 발의한 사례로, 그후 12년이 지난 1693년에 세워졌다. 석성은 니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봉호서원 외에 다른 원사가 없고, 지역 내의 주요 성씨가 윤문거의 문인 집안으로 형성되어 재지사족간 갈등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소론계 사족이 주도권을 가지고 창건한 홍주의 혜학서원과 용계서원이 있다. 홍주목은 충청도 서부 해안 지역의 수부 도시로, 중앙 정계에서는 ‘충청도의 거읍(巨邑)’이며 땅이 넓고 백성이 많아 난치(難治)의 고을’로 인식된 곳이었다.<sup>60)</sup> 목사가 파견되는 큰 고을임

54) 홍제연, 2020, 「17~18세기 충청우도 少論家の 형성과 활동-청양 함평이씨 함성군파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제71집, 131p

55) 조극선은 이익길 권시 등과 함께 박지계 문인록에 등재되었다.

56) 1709년에는 덕산 회암서원에도 제향되어 있다.

57) 金長生과 鄭曄의 문인, 1635년 성균관에서 이이와 성혼의 문묘배향 상소를 올렸다.

58) 명재유고 제26권 서(書) 답영춘원유(答永春院儒)

59) 서원등록 숙종 44년(1718) 3월 26일,

60) 신증동국여지승람. 홍주목 궁실조

에도 정조대까지 3개의 서원이 세워져 공주, 청주, 충주와 비교되기도 한다. 3개 서원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노은서원(魯恩書院)은 단종대의 사육신을 제향한 곳이고, 나머지 2개소가 모두 소론계 서원이지만 용계서원은 홍주의 월경지인 청양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청양의 서원이나 다름없었다.

1699년 소론계 관료 홍주목사 이세귀(李世龜)가 홍주향교를 대대적으로 중수하며 선정을 베풀었고, 윤증은 1679년에 홍주에 거주하는 문인들의 권유로 홍주 용계(龍溪)에 서실[敬勝齋]을 짓고 제자를 길러 자취를 남김으로서 두 서원이 세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홍주의 사족 성향은 다양한 편이었다. 홍주목사로 부임해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였던 남인 홍가신에 대해 음사와 유교적 제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고, 노은서원을 중심으로는 노론계 사족활동이, 그리고 윤증의 문인들이 존재하였다. 이세귀가 홍주목사로 재임중일때 홍주 유생 유장태(柳長台)가 봉당의 폐단을 논하며 송시열과 권상하를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는데 권상하는 ‘尊尹拯耆[윤증을 존중하는 사람들]’가 송시열과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706년 홍주의 중심지에 이세귀를 제향하는 혜학사가 건립되고 1716년 청양의 사족이 주도해 창건한 용계서원에 명재 윤증을 독향하였다. 1721년 소론 정권이 들어서면서 혜학서원이 사액되고, 1724년에는 용계서원도 사액되었다. 혜학서원은 홍주의 사족들이 스스로 제물을 내어 세우고, 용계서원은 청양지역에서 가장 명문으로 이름난 함평이씨 주도에 청주한씨, 기계유씨 등이 협력하여 이룬 것이므로 창건과 운영 과정에서 지역내 반대 세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당초 범서인계가 건립했던 노은서원에 대하여 노론 정권의 각별한 지원이 잇달아 1709년 ‘노은서원(魯恩書院)’으로 재사액되고 ‘홍주서원’이라 할 정도의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sup>61)</sup>

홍주 지역 서원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면, 청주 문화권에 속하는 진천의 지산서원은 격렬한 정치적 갈등 상황의 한복판에 있었다. 소론의 핵심 인사인 명곡 최석정을 독향하고 사액까지 받았음에도 청주 지역이 영조대 무신란(戊申亂)의 주요 현장이 되면서 궤멸의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이다.

진천은 일찍이 서인계 사족이 협력해 세운 백원서원(百源書院)이 있었고, 백원서원 건립을 주도한 평산신씨가 송시열과 인연이 있던데다 권상하와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의 활동으로 노론학맥의 영향이 크게 확산되어 있었다. 진천에서는 경주이씨가 소론가문이었는데, 이 집안 출신 좌의정 이경억(李慶億)의 딸과 최석정이 혼인하면서 소론의 영수 최석정이 진천으로 우거하였고, 지역 사족과 교류하면서 말년에 완전히 낙향하여 제자를 길렀다. 최석정과 뜻을 함께 했던 처남 이인엽(李寅燁), 각자의 아들인 최창대(崔昌大)와 이하곤(李夏坤)이 강학하였던 완위각(宛委閣)은 진천과 청주의 소론계 사족의 구심처가 되었고 소론계 가문의 성장을 도왔다. 그리하여 1722년(경종 2) 최석정을 독향한 지산서원이 건립되고 동시에 사액을 받았으며 바로 인접한 청주의 송천서원에는 최석정과 경주이씨 이인혁이 추배되었다.<sup>62)</sup>

진천은 1675년부터 서인계 내부의 분열과 대립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영조 즉위 후 1728년(영조 4)에 청주에서 벌어진 무신란에 진천 사족 일부가 자발적으로 반란군 편에 가담하는

61) 홍제연, 2020, 「17~18세기 忠淸道 洪州지역 재지사족과 少論系 書院」, 『역사와담론』제93집, 76~83pp

62) 고수연, 2019, 「鎭川地域士族의 分岐양상과 戊申亂」, 『역사와실학』68, 161~165pp



상황으로 이어졌다. 반란군은 노론 정권 하에서 정치적 불만을 품은 자들이었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의병에 선 쪽은 노론계 사족이었다. 무신란 이후 지산서원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지만, 1795년(정조 20)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의 배포처였으며, 1871년 훼손된 것을 보면 조선말 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지산서원과 같은 청주권역의 송천서원(松泉書院)은 충청도 유생 박세주(朴世胄)와 최석정(崔錫鼎) 등 주도하여 1695년(숙종 21)에 건립한 서원이다. 창건 당시에는 고려말부터 조선중기까지 청주 지역 사족 가문의 현조 15인을 제향하였다. 당시 청주에는 신흥서원(莘巷書院), 화양서원(華陽書院), 쌍천서원(雙泉書院)이 있었는데 신흥서원과 화양서원은 송시열의 문인들이 주도권을 갖고 소론과 남인계 사족은 서원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뿐만아니라 청주와 인접한 문의에 노봉서원(魯峯書院, 1615년)과 검담서원(黔潭書院, 1695년)이 노론계 서원으로 사액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청주의 비노론계 사족들이 모여 세운 것이 송천서원이었다. 이후 1723년(경종 3) 이제신(李濟臣), 최석정, 이인혁(李寅赫)을 추향하였고, 1728년(정조 22) 소론의 영수 남구만(南九萬)과 역시 소론의 박문수(朴文秀) 및 이종성(李宗城)을 추향하였다.

## 맺음말

[참고문헌]

- 《明齋遺稿》(尹拯), 《一庵遺稿》(尹東源), 《白湖全書》(尹鑄), 《宋子大全》(宋時烈)  
《寒水齋先生文集》(權尙夏) 《書院膽錄》, 《承政院日記》, 《列邑院宇事蹟》, 《遯巖書院誌》  
노강서원, 2012, 『노강서원지』 1,2,3  
이해준, 2003, 『암천 박증과 모곡서원』  
이남옥 박용만 외 지음, 2019, 『노강서원(魯岡書院)·화양서원(華陽書院)』,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고수연, 2019, 「鎭川地域士族의 分岐양상과 戊申亂」, 『역사와실학』 제68집  
김문준, 2012, 「노강서원 제향 인물의 활동과 역사적 위상」, 『노강서원지 3』, 노강서원  
김영환, 1985, 「尹暉의 同腹和會立議」, 『鄉土研究』 제1집, 충남향토연구회  
김필동, 2009, 「17세기 사족 문중의 형성 : 파평윤씨 노종파(魯宗派)의 사례」, 『사회과학연구』 20(3).  
이근호, 2014, 「조선시대 성리학 학파의 지역성과 문화권 - 三南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학논총』 41호  
이수환, 2017, 「2000년 이후 한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6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연숙, 2009,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 : 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  
이정우, 1999,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建立의 성격-충청도 논산지방 광산김씨와 파평윤씨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이해준, 2007,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숙종대 노소론계 서원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이해준, 2011, 「노강서원(魯岡書院) 자료(資料)의 유형(類型)과 성격(性格)」, 『한국서원학보』 30.  
이형성, 2009, 「명재 윤증에 대한 후대의 평가와 추승」, 『유학연구』 제20집  
전용우, 1985, 「朝鮮朝 書院·祠宇에 對한 一考察; 建立推移 및 祭享人物을 中心으로」, 『호서사학』 제13집, 호서사학회  
전용우, 1993, 『호서사림의 형성에 대한 연구-16~7세기 호서사족과 서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용우, 1999, 「湖西 書院 小考(Ⅲ) -18세기 湖西지방에 건립된 書院을 중심으로-」, 『역사와 역사교육』 제3·4호, 熊津史學會  
홍제연, 2020, 「17~18세기 忠淸道 洪州지역 재지사족과 少論系 書院」, 『역사와담론』 제93집,  
홍제연, 2020, 「충청지역 서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28.  
홍제연, 2020, 「17~18세기 충청우도 少論家의 형성과 활동-청양 함평이씨 함성군파를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제71집  
황의동, 2003, 「明齋儒學의 家學的 淵源에 대한 연구」, 『철학논총』 제33집  
황의동, 2003, 「湖西儒學의 展開樣相과 特性」, 『南冥學研究』 vol.16,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7~18세기 魯岡書院과 충청 지역의 소론계 서원》의 토론문

고수연(유원대)

# 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

## - 상주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를 중심으로 -

김순한(영남대)<sup>1)</sup>

- I. 머리말
- II.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 발단
- III. 祠版 移安 사건을 둘러싼 갈등 확산과 보합
- IV. 맺음말

### 1. 머리말

향촌의 재지 세력 상호 간의 주도권 다툼, 쟁단, 분쟁을 ‘향중 쟁단’이라고 한다. 그 유형에는 향안입록과 鄉廳 임원의 선임 문제, 원·사의 配享·追享 및 위패의 序次 갈등, 鄉權과 官權의 충돌, 선조의 학통과 師友淵源 문제, 문집간행과 文字 是非 등이 있다.<sup>2)</sup>

본고는 옥동서원<sup>3)</sup> 청액 활동에서 발생한 시비와 제향 시 祝式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문중 간의 시비와 사서 전식 위판을 이안한 사건을 두고 벌어진 분쟁을 검토하고자 한다. 시비의 발생 배경과 과정, 갈등의 보합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1·2차 시비 관련 자료로 『소청일기』와 『본원일록』 등을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청액 상소문을 작성할 때 元·配位 기록을 두고 벌어진 1차 시비의 전말과 정조에게 올릴 제향자의 事蹟 정리를 두고 발생한 2차 시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차 시비 자료는 『백옥동잡록』과 옥천전씨 문중의 『玉洞書院變錄』<sup>4)</sup> 등을 활용하였다. 이 시비는 사액 이후 향사를 봉행하면서 제향자의 祝式을 두고 일어난 시비로 이 자료를 통해서 시비의 발단과 과정을 추적하였다.

4차 시비는 1804년 4월 사서 전식의 사판을 도남서원에 이안한 사건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다. 이 시비는 黃·全 門中을 넘어서 영남 전 지역으로 확산된 분쟁으로 『明庵先生文

1)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객원교수/ starjji@yu.ac.kr

2) 향전에 관한 선행 연구로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정만조, 「영조 14년 안동 金尙憲書院 건립시비」(『한국학연구』 1, 1982 ;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 장영민, 「1840년 寧海鄉戰과 그 배경에 관한 小考」(『충남사학』 2, 1987) ; 김동철, 「19세기 말 咸安지방의 鄉戰」(『한국문화연구』 2, 1989) ; 이수건, 「17, 18세기 안동지방 유림의 政治社會的 機能」(『대구사학』 30, 1986 ;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도산서원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간의 鄉戰」(『민족문화논총』 12, 1991) ; 「조선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민족문화논총』 15, 1994) pp. 89 ~ 104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315~344쪽 ;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원 건립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

3) 상주 옥동서원은 ‘백화당’에 黃喜(1363~1452) 영정을 봉안한 후 1714년(숙종 40) 사서 全湜(1563~1642)을 배향하면서 ‘옥동서원’으로 승원하였다. 이후 1786년 축웅 黃孝獻(1491~1532)과 만간 黃紐(1578~1626)를 추가 배향하였고, 1789년(정조 13)에 사액되었다.

4) 『옥동서원변록』은 1789년 9월부터 시작된 원·배위의 祝式을 합축하자는 방촌 황희의 후손과 불가하다는 사서 전식 후손과의 시비가 일자 전식 후손 문중 측의 입장을 單子로 정리하여 향내 향교, 서원에 발송한 辨誣錄이다.

集』<sup>5)</sup>의 「雜著」에 수록된 「道南疏廳雜錄」<sup>6)</sup>과 1805년 6월 함창 靑巖書院에서 道內 서원에 발송한 「通文」, 같은 해 11월에 소수 宋智修 등이 올린 「上書」 등을 통해 그 전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804년 사서 사판 이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도남서원을 비롯한 상주 향론이 이 시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남 전역으로 확산된 과정을 확인하였다. 5차 시비는 1808년(순조 8) 1월 경상감사 尹光顔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전식의 위패를 옥동서원 廟宇에 본래의 序次로 봉안하면서 제향자의 후손인 두 문종의 시비 전말을 검토하였다.

## II.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 발단

### (1) 請額疏 元·配位를 둘러싼 1차 시비

옥동서원의 제향자 후손인 장수황문과 옥천전문, 두 문중 간 위차 시비는 1788년(정조 12)에 처음 시작되었다. 이때 중앙 정계에서는 남인 채제공을 우의정에, 노론 김치인을 영의정, 소론 이성원을 좌의정에 임명하여 새로운 탕평 정국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어서 정조는 戊申亂 1주갑 기념으로 진압에 가담한 충신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조의 영남 우대 정책으로 인식되어 상주 옥동서원도 청액 봉소를 위한 향론을 모을 수 있었다. 청액 봉소가 결정된 후 청액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두 문종의 시비가 발생했다.

향내 공론으로 차정되어 청액을 위해 상경한 이들은 1788년 6월 2일에 한성에 입성하여 가장 먼저 청액 상소문을 올리는 방법과 한성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우의정 채제공과 長水黃門의 한성 本孫 黃瑗(監察)·黃昇源(參判)을 차례로 만났다.<sup>7)</sup>

채제공은 疏廳부터 설치하라는 조언을, 황원은 상소문 작성부터 하라고 권유하였고, 황승원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채제공과 황원의 조언을 따라 청액 임원진은 소청 설치 준비와 함께 會中에서 추천받은 전직 金紘을 만나 상소문을 부탁하였고 상소문 초안은 7월 1일에 완성되었다. 사건의 최초 발단은 바로 그 초안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초안을 본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이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였다.

상소문 가운데 배향 인물 중 元位만 거론하고 配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개 한성의 의견이 근래의 사례에만 근거하고, 영남 사람들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비록 한성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이 심히 편하지 않았다.<sup>8)</sup>

- 5) 『명암선생문집』의 저자는 都禹璟(1755~1813)이다. 도우경의 자는 景升이고, 호는 明庵, 또는 憶翁이며, 본관은 星州이다. 증조부는 생원 都永鼎이고, 조부는 都命諧, 부친은 都回尙郁, 어머니는 의성김씨 金正濂의 딸이다. 입재 정종로(1738~1816)의 문인이며, 1803년 증광시 진사에 입격하였다. 퇴계 이황의 후손 響山 李晩燾(1842~1910)는 도우경을 두고 ‘문장을 짓는 솜씨가 뛰어났고 저술도 많았으며, 儒林들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공에게 크게 의지하였으니, 1805년 玉洞書院의 일을 疏辦한 것이 공의 업적 가운데 큰 것이다.’고 하였다.(『향산집』, 묘갈명, 「成均進士明菴都公墓碣銘」).
- 6) 「도남소청잡록」은 『명암선생문집』권5에 「雜著」에 수록되어 있으며, 장수황문과 상주 옥천전문의 시비로 인해 사서 전식(1563~1642)의 祠版을 백옥동서원에서 도남서원으로 추배한 사건이 발생된 경위와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상주 향론까지 분열되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결국 상소문을 올리게 된 경위와 비답을 모아놓은 기록이다.
- 7) 옥동서원, 『소청일기』, 六月初三日, 初九日.
- 8) ‘但疏中只舉元位. 不及配位. 蓋以京議. 援據近例. 而嶺人爭之. 不得故也. 雖曲從京議. 而心甚未安’(옥동서원, 『소청일기』, 七月初一日).

당시 한성의 상소문에서는 배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사실을 듣고 청액 임원진 모두가 당황한 것이다. 청액 임원진에 옥천전씨가 없는 상황에서 배위에 대한 언급 없이 상소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원위만 거론한다는 한성의 상소문 경향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한 것이다.

한성의 본손 황원은 상소문 초안을 등사해서 여러 곳에 자문을 얻으려고 하는 임원진에게 “한성의 최근 사례는 모두 그러합니다. 또 元位가 사액의 恩典을 입게 되면, 중요한 것을 들어 가벼운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니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sup>9)</sup>라고 하며 어찌 규정을 벗어나는 일을 하려고 하나며 꾸짖기까지 하였다. 임원진은 상소문에 모든 제향자를 기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 곳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황원은 김굉의 상소문과 별개로 자신이 작성한 상소문 초안까지 주면서 서울의 경향을 따를 것을 거듭 당부하여 결론적으로 그의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청액 활동을 위해서는 한성의 본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청액 임원진은 김굉과 황원 두 사람이 작성한 초안 중에서 봉소할 상소문을 결정하기 위해 洪義浩(洪仁浩의 弟), 趙錫簡, 孫必慶, 趙允浩, 李翼遠 등에게 자문한 결과 황원의 상소문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소식이 상주로 전해지자 장수황문 측은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配享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심히 의심스럽고, 서울에 있는 일가의 여러 사람이 근자의 사례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당 내에 도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라며<sup>10)</sup> 불만을 표시하였다. 또 일이 있어 상주에 방문한 李琬<sup>11)</sup>도 “이미 元位가 세워졌으면 즉 마땅히 무거운 것이 세워지면 가벼운 것이 거기에 포함되나, 끝내 마땅히 합의된 상소문을 만드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sup>12)</sup>라며 서울의 경향을 비판하였다. 게다가 옥천전씨들도 “상소문 초고에 주향만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미 합의한 대로 원 배위를 포함하여 상소문을 올려야 합니다.”라고<sup>13)</sup>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옥동서원은 향내 사문의 공론을 정리하여 한성의 청액 임원진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

지난번에 상소문을 지을 때 단지 元位만을 거론하고 配位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비록 사액을 청하는 최근의 사례라고 말하였지만, 마음에 끝까지 편안치 않았습니다. 최근 道南書院의 예전 경우를 보니, 한 번의 상소에서 함께 거론하고 처음부터 오직 元位만을 거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드리면, 본 서원의 상소문을 지을 때 잘못 헤아림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의 의견이 비록 언제나 중요성을 갖기는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이미 疏首에게 있는 임무이니 반드시 반복해서 배위를 소상히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소문의 원본을 고쳐 지을 것을 약속하셔서 배위를 함

9) ‘黃監察將構疏草 黃聖休趙奎鎮曰 疏中只舉元位 終覺未安 黃監察曰 京中近例 皆然 僉賢豈可作規外之事乎 且元位蒙額 則舉重抱輕 少無如何之端云 鄉儒不閑於此等事體 故不得已從之’(옥동서원, 『소청일기』, 七月一日).

10) ‘請額疏之不舉 配位是甚可疑 京中諸宗 雖近例爲言 而一廟之內 道理未安’(옥동서원, 『본원일록』, 七月初).

11) 이완(1740-1789)의 자는 致道이고, 호는 艮巖. 본관은 韓山이다. 부친은 大山 이상정이고, 어머니는 槃澗 황뉴의 현손 황훈의 딸이다. 그는 177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전직, 지평, 홍문관부교가 되었다. ‘湖門三老’로 불리는 東巖 柳長源, 川沙 金宗德, 后山 李宗洙와 교유하였다. 문집으로 『간암집(艮巖集)』과 부친 이상정의 자료를 모은 『痛慕錄』을 남겼다.

12) ‘李典籍琬 適來參會 李典籍曰 既舉元位 則自當舉重而包輕 然終不如合疏之爲宜’(옥동서원, 『본원일록』, 七月初).

13) ‘全始玉叔侄來言 疏草中單舉正位之非 此則與黃氏諸議相合也’(옥동서원, 『본원일록』, 七月初).

게 거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상소를 그만두고 돌아올지언정 이전의 상소문으로는 捧入 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sup>14)</sup>

특히 옥천전문 측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후손 奎始玉의 주도로 도남서원<sup>15)</sup>의 옛 청액 상소 사례를 상세히 등사하여<sup>16)</sup> 각 서원으로 單子를 발행한 후 이들도 서둘러 한성으로 상경하였다.

한편 이 상황을 모르는 서울의 청액 임원진은 7월 26일에 정식으로 청액 상소 임원진을 구성하고, 7월 27일에는 소청도 설치하였다. 상경 후 두 달이 지난 8월 6일에는 비로소 대궐문 밖에서 伏閣을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청액 소청은 옥동서원의 서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주 향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작성된 상소문으로 복합하였다.<sup>17)</sup> 매일 아침 소청에서는 청액 임원진이 식전에 모여서 疏色이 상소문을 읽고 등사를 하였다. 식사 후 상소문을 들고 대궐문 밖에서 복합한 후, 상소문 요지를 오전·오후로 나누어 하루에 두 번 승정원에 접수하였다. 승정원에서 상소문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매일 이를 반복하였다.

옥동서원에서 보낸 서신은 9월 29일 청액 소청에 전달되었고, 상소를 그만둘지라도 상소문에 配位를 소상히 적어야 한다는 뜻을 확인한 임원진은 상주 향론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논의 끝에 이 사실을 황원에게 알려서 방법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황원과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10월 8일까지 매일 같은 복합과 상소문 접수를 이어갔다. 10월 9일에는 옥동서원에서 상경한 옥천전문의 후손 奎達德이 소청에 도착하였다.

여러 집사님들이 한성에 머문 것이 이미 여러 달에 이르러 노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우리 선조이신 忠簡公[全愼]께서 상소문 가운데 함께 진술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손의 마음으로 행장을 꾸려 한성으로 올라오는 동안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까.<sup>18)</sup>

전달덕은 이와 같이 불만을 토로한 뒤 도남서원의 청액 상소에서도 모두 합하여 올린 사례를 들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찾아올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돌아갔다. 임원진은 한성의 상소문 경향을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불편하였는데, 상주의 서신과 옥천 전씨 문중의 불만까지 겹쳐 사태가 심각해졌음을 인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청에서 齊會를 소집하였다. 하지만 상소문 수정을 두고 한성의 본손 黃夏鎭은 수정이 불

14) ‘向來製疏之日 只舉元位 而不及配位者 雖曰 請額近例 而於心終覺未安 近見道南書院 舊例 則一疏并舉 初無單舉元位之事 以此言之 則本院製疏 未免錯料 京議雖一向持重 執事既在疏首之任 必爲反覆消詳 期於改製疏本 并舉配位之地 如何 寧掇疏而歸 不可以前疏而捧入 諒處爲望云云’(옥동서원, 『소청일기』, 九月二十九日.) 이 서신을 발송한 상주 옥동서원 측 『본원일록』의 기록에는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7월초’라는 부분에 청액 상소 초안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월초 부분의 전체 내용 구성은 7월 초부터 9월 초 혹은 중반까지의 그간 여러 상황을 한꺼번에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성 청액 임원진이 서신을 받은 날짜가 9월 27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5) 도남서원의 청액은 1670년(현종 11)에 처음으로 봉소하였고, 1676년(숙종 2) 9월에 2차 시도, 다음 달인 10월에 3차 시도 만에 성공하였다.(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35~36쪽 ; 『숙종실록』, 권5, 숙종2년[1676], 10월 25일).

16) 전시옥이 도남서원의 청액 봉소가 처음부터 5현 모두를 합하여 청액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실을 단자에 상세히 기록하여 각 서원으로 발송하면서 상주지역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옥동서원, 『본원일록』, 七月初).

17) 옥동서원, 『소청일기』, 八月六日.

18) ‘花開奎達德來言曰 僉執事之留京 已至累朔 勞苦 則可想 而側聞吾先祖忠簡公不爲竝陳於疏中云 子孫之心不勝鬱抑 茲以裹足上來 又袖示道南書院請額舊例’(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九日).

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소청 임원진은 수정론을 강경하게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과 긴 논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 내세울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재회가 끝나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한성의 본손 황원은 다음 날 이른 아침 소청에 도착하였고, 전달덕도 다시 소청을 찾아와 “만약 상소문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 趙氏의 명단을 명부에서 잘라내어야 할 것입니다. 잘라내기 전에는 대궐 밖에서 복합할 수 없습니다.”라며<sup>19)</sup> 전달덕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황원은 “근래에 사액을 청하는 경우가 번거로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한성에서 가까운 서원의 상소문은 正位와 配位를 두더라도 단지 正位만을 거론하고 配位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찌 근래의 사례를 버리고 오래된 규칙을 따르려 하십니까? 차라리 중지할지언정 상소문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며<sup>20)</sup>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전달덕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상소문에 합해주기를 요구하였다.

두 사람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자 黃聖休를 비롯해 掌議 柳鳳祚와 黃弼熙는 “상소문 복합이 늦어졌으니 우선 대궐문 밖에서 호소한 후에 조용히 서로 의논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는<sup>21)</sup> 중재안을 내었고, 전달덕도 이를 받아들여 큰 충돌은 피하게 되었다. 이후 복합을 끝내고 소청으로 돌아온 임원진과 황원 그리고 전달덕 사이에 또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황원은 “상소문의 초안에 대해 重臣과 大臣들이 모두 이미 현인(황희)을 취하여 승정원 역시 원위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 상소문을 고친다면 아주 불편할 것입니다. 비록 도중에 상소를 거두더라도 사액을 함께 청할 수는 없습니다.”라며<sup>22)</sup> 한치의 물러남이 없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자 전달덕은 청액 상소 명부에서 숙부들의 명단을 잘라 반촌으로 가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본손 황원과 옥천전문 전달덕의 충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은 계속 되었다. 4일 후, 전달덕은 소청을 방문하여 옥천전문의 명단을 잘라 간 것과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全始玉도 합류하여 전달덕과 함께 매일 소청을 찾아와 정·배위를 합하여 상소문을 올리기를 청하는 의견과 아울러 서울의 경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sup>23)</sup>

11월 5일에 정조는 안동에서 올라온 『영남무신창의록』 신원 상소문을 열람한 후 창의록에 있는 충신들을 신원하라는 어명과 함께 특히 “黃翼再(황희 14世孫)를 신원하고 그의 죄명을 歲抄에서 특별히 씻어내도록 하라”고<sup>24)</sup> 하교하였다. 이 소식은 청액 소청에도 전해졌는데, 그간 소청을 유지할 경제적 물력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청액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조금씩 생겨나던 차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시비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19) ‘若不合疏 則吾全氏名帖 割給可也 未割之前 不可伏閣云云’(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十日).  
 20) ‘近來以請額之煩且多 近畿各書院之有正配位者於疏中 只舉首位 而未及配位 豈可捨近例 而從遠規乎 寧可中止 不可合疏’(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十日).  
 21) ‘伏閣時晚 先爲伏閣 從容相議 亦非晚也 全生許之’(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十日).  
 22) ‘疏草重大臣皆已取賢 政院亦知單舉 到今改疏 極爲未安 雖中撤 不可并請’(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十日).  
 23) 옥동서원 『소청일기』, 十月十四日~十一月六日.  
 24) ‘是日下令上言 倡義疏儒及黃泰熙 俱上言 停伏閣 坡州黃世鎮來 …… 故牧使右道召募使黃翼再罪名 歲抄中特爲蕩滌 此乃仰述恢蕩之聖意 凡我嶺土人士 知予今日申諭之意 益勤絃誦之工 孝於家忠於國 萬子孫無斁 以答我先大王天地覆燾之盛德大恩事 知悉可也’(옥동서원, 『소청일기』, 十一月五日~十一月十日).



【표 V-1】 청액 활동에서 발생한 1차 시비 과정

일자	내용
1788. 7월 1일	• 典籍 金紘의 상소문 초안 완성: 내용 중 배향자는 元位만 기록한다는 한성의 경향을 설명
7월 8일	• 長水黃門 한성 본손 黃瑗의 상소문 추가 완성: 한성의 경향에 따라 봉소할 것을 거듭 당부
"	• 상주 옥동서원과 향론: 한성의 경향을 비판하며 본래 합의(원·배위 합한 상소문)된 상소문을 봉입할 것을 한성 청액 임원진에게 서신 발송 • 沃川奎門 측: 본래 합의한 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항의, 도남서원 옛 청액 상소 등사하여 각 서원으로 單子 발행
7월 26-27일	• 청액 상소 임원진 구성 및 청액 소청 설치
8월 6일	• 청액 봉소를 위한 복합 시작(元位만 거론된 상소문)
9월 29일	• 청액 소청에 상주 옥동서원과 향론 서신 도착 • 상주 옥천전문 사태 심각하게 논의, 해결되지 못한 채 복합 이어감
10월 9일	• 옥천전문 全達德 청액 소청 방문하여 상소문에 제외된 사서 全湜의 配位에 대하여 수정해줄 것을 강력 항의 • 齊會 안건 - 한성 본손 측: 한성의 경향에 맞춘 청액 상소문 - 옥천전문·청액 소청·상주 옥동서원·상주 향론: 도남서원 사례를 따라 원·배위를 포함한 상소문,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함
10월 10일	• 한성 본손 측과 옥천전문 의견 충돌 심화 • 옥천전문 측: 상소문 명부에 全氏 명단을 잘라버림
10월 15일	• 全達德 청액 소청 방문하여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사과
10월 22 -11월6일	• 全始玉과 全達德 매일 소청을 방문하여 상소문 수정 요청함
11월 5일	• 정조는 소수 이진동의 『영남무신창의록』 신원 상소문을 열람 • 긍정적인 분위기 전환으로 상소문 수정 협의도 급진전 됨
11월 8일	• 한성 장수황문 측: 상소문 수정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름
11월 11일	• 황익재 죄명을 歲抄에서 삭제하라는 하교
11월 16일	• 상주 도남서원은 향회 개최 통문 발송(장소: 도남서원) - 안건: 전시옥 사적 기록에 대한 항의 단자 발행 건
"	• 옥동서원 측: 黃景幹(1775 옥원장), 黃瑞熙(1778 옥원장), 黃建中(1787 옥원장), 金憲慶(1788 옥원재임)은 도남서원 원장 류광억에게 전시옥이 단자를 발행하게 된 경위 답통 발송 ⇒ 향회 취소됨
11월 21일	• 화재 황익재 伸冤 고유제 준비를 위한 향회 개최 • 전시옥 참석하여 청액상소문 배위 기록 항의 관련 단자 발행 사과
12월 24일	• 황익재 신원 고유제 봉행 (100여 명 참제)

이러한 상황에서 11월 5일에 정조가 『영남무신창의록』 신원 상소문을 열람했다는 소식을 들은 청액 소청 임원진은 옥동서원 청액 상소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남무신란창의록』 소청에서 옥동서원 소청으로 보낸 다음 서신에서 짐작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승정원으로부터 어떤 書吏를 시켜 창의를록을 위한 상소와 사액을 청하는 상소가 어느

달에 올라와서 며칠간 대궐 문 밖에서 호소 하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소를 위해 머무르고 있는 유생이 역시 몇 사람인지 상세히 조사하여 적어 왔습니다. 이것은 필시 임금께서 처분을 내릴 모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니 자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疏首를 비롯해 자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 글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 마치 취한 듯하고 꿈을 꾸는 듯했다.<sup>25)</sup>

이와 같이 승정원에서 옥동서원의 청액 진행 상황을 조사하자 정조의 의중이 아마도 사액을 수락하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소청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正位와 配位를 上疏文에 합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뜻이니, 奎氏와 黃氏 두 집안에 편지로써 타이르고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기로 하였다.’<sup>26)</sup>는 기록에 따르면, 옥천전씨들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그간 한성의 황씨 본손이 완강하여 청액 상소문을 수정할 수 없었지만 한편, 옥동서원과 상주 향론에 反하는 청액 상소문을 복합하면서 소청 임원진이 가졌던 부담감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었다.

이후 청액 소청 임원진은 한성 본손 黃元·黃道元·黃하진에게 원·배위를 상소문에 합하는 것은 옥천전문 측의 강력한 주장이자, 상주 향론과 청액 상소 임원진 또한 같은 의견임을 피력하였다. 청액소 임원진의 긴 설득 끝에 한성의 본손 측도 상소문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sup>27)</sup>

한편 상주에서는 화재 黃익재 신원 고유제를 위한 鄉會가 열렸다. 향회에 참석한 전시옥은 청액 상소문에 대한 黃의성 단자를 각 서원으로 발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이처럼 7월부터 시작된 두 문중 간의 시비는 5개월간 이어지다가 11월 8일에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

## (2) 제향자 事蹟 기록을 두고 벌어진 2차 시비

정조는 『영남무신창의록』 신원과 黃익재의 죄명을 세초에서 삭제하라는 전교와 함께 우의정 채제공에게 “영남은 바로 士夫의 고장이다. 영남 사람 중에서 名聲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을 우선 천거하는 것이 좋겠다.”며<sup>28)</sup> 영남 인재를 천거하라는 하명까지 내리는 등 노·소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남 우대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듬해 1월 12일 비로소 승정원에 옥동서원의 청액 상소문이 奉入되었다.<sup>29)</sup> 한성에 입성한 후 奉疏 8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다. 당시 청액 활동 1개월 만에 사액된 선산 駱峯書院을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1월 14일에는 소수 趙圭鎭이 승정원으로 들어가 “상소문을 보고 잘 알았다. 진실로 너희들의 말과 같이 翼成公의 공로는 제사를 받들어 높이 받들 만하다. 그런데 扁額이 빠진 것은 보기 드문 典禮로 흠이 되는 일이다. 해당 관아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문서와 장부

25) ‘自倡義疏廳欲通信 而拘於夜禁 使直房女主人叩門 急傳小札 略曰 俄者自政院 使一書吏 來問倡義疏及請額疏 何月上來 何日伏閣 卽今疏儒之留存者 亦幾人詳查錄去 此必有大處分之期會 勿就寢而待之如何云云 疏首及滿坐見書 懽欣如醉如夢’(옥동서원, 『소청일기』, 十一月七日).

26) ‘因竊念正配位合疏 是吾輩之本意 全黃兩家 書諭面議’(옥동서원, 『소청일기』, 十一月七日).

27) ‘因竊念正配位合疏 是吾輩之本意 全黃兩家 書諭面議 又如是懇到 失今不改 則必有後時之歎 故罷漏後 使黃弼熙邀掌議柳鳳祚及李進士宗洛 撰配位三先生事蹟 改書疏本 寫畢 夜已向曙矣 .....黃瑗黃道源黃夏鎭 初雖持重 末乃純同 全始玉在泮中 故未及知也’(옥동서원, 『소청일기』, 十一月七日, 十一月八日).

28) 『정조실록』, 권26, 무신[1788], 11월. 8일

29) ‘俄而守門書吏來索疏槩二張 一則納政院大槩 一則納內兵曹大槩也’(옥동서원, 『소청일기』, 一月十二日.[1789.]).

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서 아뢰고 처리하도록 하라.”<sup>30)</sup> 정조의 비답을 받았다. 이후 정조는 賜額날 致祭토록 하고, 祭文은 친히 지어 내리겠다는 批旨를 내렸다. 이에 소청 임원진은 왕이 제문을 지을 때 혹여 옥동서원의 正·配位의 事蹟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상주 옥동서원으로 급히 서신을 보냈다. 서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하사할 額號[額號]이 바라는 대로 들어온 후 額號를 인도하는[延額] 날짜를 정하여 보내는 흐름으로 가서 결국 관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을 잠시 들으니, 팔도의 각 서원이 비록 임금이 額號를 내리는 은전[宣額]을 입었더라도 만약 때에 맞춰 일에 호응하지 못하면 시일을 미루어 베풀지 않는 일이 없지 않다고 합니다. 바라건대, 반드시 이렇게 되어가는 흐름을 헤아리십시오. 額號를 인도하는 날짜가 3월 안에 정해져 보내지면, 때에 늦어 미치지 못했다는 탄식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제문도 임금께서 친히 지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향과 배향의 문서와 文蹟은 아마도 마땅히 수정하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반드시 서원에서 네 선생의 문서와 정부를 精書하고서 올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혹시 임금께서 직접 교시를 지으실 때에 참고하실 것이니, 대강 대강 고치지 마십시오. 엮으려 생각건대, 상소한 일이 이미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중간에 도리를 어지럽히는 단서는 혹여라도 책망하여 그만두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31)</sup>

위 서신에서 요청한 두 가지는 첫째, 사액 날짜를 택일해 줄 것과 둘째, 왕이 제문을 지을 때 참고할 제향자 네 선현(黃喜, 全湜, 黃孝獻, 黃紉)의 사적을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옥동서원의 전·현직 임원진과 일부 회원들은 白華書堂에서 재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참석한 인사는 원장 李禧遠(1788·1792년 원장)을 비롯해 金憲慶(1788년 재임), 黃景幹(1775년 원장), 黃瑞熙(1778년 원장), 黃世休, 黃建中(1787년 원장), 黃澣(1755·1756 재임), 金相欽, 趙重鎭(1773·1780·1783 재임) 등이다.<sup>32)</sup> 이때 옥동서원 전·현직 임원진이 정리한 사적의 내용이 옥천전문과 2차 시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네 선생의 실록을 건주어 고찰할 수 있도록 그 세대, 연보, 과거의 합격, 행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했다. 또 그들의 行狀과 墓碣을 써서 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먼저 龐村 黃喜에 대해, 다음으로 畜翁 黃孝獻에 대해, 그다음으로 沙西 全湜에 대해, 마지막으로 槃澗 黃紉에 대해 글을 지었다. 이것은 세대순으로 지은 것이다. 아침에 미리 한성으로 사람을 보내 소청에 편지로 알렸다.

33)

30) ‘批曰 省疏具悉 誠如爾等之說 以翼成公之勳之勞 侑食之所尙 闕扁額 可謂曠典也 欠事也 許令該曹詳考曹在文蹟稟處’(옥동서원, 『소청일기』, 一月十四日.[1789.]).

31) ‘節拍額號望納後 延額日字定送 果循例而乍聞京中諸議 則八道各院 雖蒙宣額之典 若未及時應舉 則不無遷延勿施之事云 望須諒此委拍 延額日字 定送於三月內 俾免後時未及之歎 ... 聖批既以賜祭文親撰云 則正配位文蹟 似當修納 望須院在四先生文蹟 精書【即爲上】送 如何 此則慮或索於親製之時也 勿泛泛 更伏念疏事既至此境 則中間紛經之端 或可有靜息之望耶’(옥동서원, 『본원일록』, 二十七日.[1789. 1. 27]).

32) 백화서당에서 회합할 때 『본원일록』에 ‘대개 주향과 배향의 事蹟을 고쳐 정리하는 일이 시급하여 鄉中에 두루 고하지는 못했다.’(蓋修整正配位事蹟 時急未及遍告于鄉中)는 기록을 참고하면 사액 날짜 택일과 제향자 사적 정리를 하기 위한 회합은 옥동서원 전·현 임원진이 주도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옥동서원, 『본원일록』, 二十七日[1789년 1월 27일], 三十日.[1789년 1월 30일]).

33) ‘本面多士 會于白華書堂 院長李禧遠 齋任金憲慶 黃進士景幹 黃院長瑞熙 黃世休 黃建中 黃澣 金相欽 趙重鎭 就考四先生實錄 畧敘其世代年條科宦出處 又書其狀行名碣 合以爲一冊 先書龐村黃先生 次

위 내용에 언급된 것처럼 택일한 사액 낱짜와 정리한 사적은 다음 날 일찍 한성의 소청으로 발송되었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全始玉은 직접 사적 초안을 확인한 후 격앙된 소리로 “이번에 사적을 고쳐 기록한 것은 어찌 서원의 位次에 따라 쓰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황경간은 “서원의 위차라면, 배향에 선후가 있기에 東과 西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적을 고쳐 기록하는 데는 그 세대를 차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厖村이 세종 때의 사람이 되고, 畜翁이 중종 때의 사람이 되고, 沙西가 인조 때의 사람이 되니, 세대를 거꾸로 쓰게 되면 고쳐 기록하는 데 뿐만 아니라, 國朝의 凡例에도 어그러짐이 있어 世代에 크게 편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상소의 원본에는 위차로 기록하고, 오늘 고쳐 기록하는 데는 결국 세대로써 기록한 것입니다.”라고<sup>34)</sup> 하였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전시옥은 화를 내며 가버렸다.

전시옥은 이 상황을 또다시 單字에 정리하여 향내 각 서원으로 발송하였다. 단자 내용은 대체로 장수황문은 무능하다는 비방의 글과 함께 도남서원 원장 류광역을 무시했으며 한성 소청에 보낼 사적의 내용이 祠宇에 정해져 있는 위차를 따르지 않고 世代 순으로 정리한 것 등에 대한 항의였다. 이에 옥동서원 측도 이 사태를 정리한 통문을 각 서원으로 발송하고, 향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sup>35)</sup> 황경간(1775년 원장) 등이 도남서원에 발송한 통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사적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은 조정에서 내린 명령이 아니며, 또한 關文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성에 사람들이 간혹 위로부터 묻고 상의하는 일이 있어 사람을 보내 급히 문서와 장부를 찾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계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 [중략] ... 畜翁은 中宗 때의 사람이고, 沙西는 仁祖 때의 사람으로 위아래로 100년이나 세대가 뛰어넘습니다. 비록 평범한 선비로 말을 해도, 아무개 왕조의 사람을 기록하였으면 그 세대의 차례를 거꾸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즉 하물며 祭享 하는 선배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서울 사람들이 보는데 거슬림이 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임금께서 보실 때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따라서 정리하여 기록 한 것입니다. 추후 배향하는 날에 祭享 先後가 있기 때문에 위패의 차례로 선후를 따르니, 위패의 차례는 저절로 위패의 차례가 되고, 세대는 저절로 세대가 됩니다. 일을 집행함에 과연 위패의 차례로 선후를 두게 하여 세대를 또한 거꾸로 쓰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중략] ... 그러한즉 全氏가 單字를 발행하여 上京한 것은 어이없고 허망한 짓일 뿐입니다. 首席이 글을 쓰는 데 동참하여 사사롭게 기록을 했다고 비방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어려 잘못 헤아린 것이니, 진실로 건주어 다룰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리고 全氏가 거짓으로 올린 봉환불에 매번 향중의 長老들께서 애써 움직이게 한 것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해보건대[그로 인해 삼가 생각건대], 저희 나이가 일을 그만둘 때가 임박했음에도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없고, 남의 입에 올라 곤욕을 받음이 이에 이르렀습니다.<sup>36)</sup>

書畜翁黃先生 次書沙西全先生 次書槃澗黃先生 蓋以世代而書之也 朝前 送京人 書報疏廳’(옥동서원, 『본원일록』, 三十日, 二月初一日.[1789년 1월 30일, 2월 1일]).

34) ‘朝前 送京人 書報疏廳 食後 全始玉到書堂會所 恨未及京人未發之前也 全始玉見四先生事蹟草案 言于會中曰 今此修錄事蹟 何不以書院位次書之也 黃進士景幹曰 書院位次 則追配有先後 故位次有東西而至於修錄事蹟 則不過歷敘其世代 而已厖村爲世宗朝人 畜翁爲中廟朝人 沙西爲仁祖朝人 則倒書世代不但有乖於修錄凡例 於國朝世代 大有所未安 故前日疏本 則以位次書之 而今日修錄 則果以世代書之云云 全始玉拂然而歸’(옥동서원, 『본원일록』, 三十日.[1789년 1월 30일]).

35) ‘全始玉以修錄事 又發單于鄉中 各院驚罵黃氏 語多侵逼 道南院長柳光億’(옥동서원, 『본원일록』, 二日一日.[1789년 2월 1일]).

전시옥의 단자가 현전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위 통문 내용을 참고하면 일의 대체를 파악할 수 있다. 전시옥을 격분하게 한 것은 첫째, 제향자 사적을 정리하면서 향론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향론을 구하지 못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다면 본손인 옥천전문을 재회에 참석시켜야 하나 배제한 채 제향자 사적을 정리한 점, 셋째, 특히 제향자 사적을 세대 순으로 정리하여 한성의 소청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처럼 두 문종의 단자와 통문이 향내 각 서원으로 발송되어 鄉父老와 서원들이 개입하면서 갈등은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도남서원은 두 문종의 분쟁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향회를 개최한 후 옥성·속수·연악서원 원장과 회원들이 연명하여 옥동서원에 다음과 같은 답통을 보내왔다.

귀 가문과 全氏의 시비가 짐짓 일을 내버려 두고 혹시라도 마음 놓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 마을의 불행이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귀 가문과 全氏가 어찌 한갓 道內 풍자를 받는 데 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제히 모여서 혹시라도 잘 처리할 수 있는 도리가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뜻은 간절하고 그 마음은 수고로우니, 옷깃을 좌측으로 걷어붙이나 우측으로 걷어붙이나 마을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으로 올린 봉환불에 매번 애써 움직이게 한다는 등의 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이 이와 같다면, 다시 논할 것이 없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모름지기 아주 소상하게 하여 정중한 데로 돌아가도록 힘쓰시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sup>37)</sup>

위 통문에서 보이는 상주의 향론은 두 문종 간 시비가 확산하면 사문의 불행이자 풍자의 대상이 된다는 우려와 함께 서로 자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장수항씨의 통문에서 ‘위패의 차례는 저절로 위패의 차례가 되고, 세대는 저절로 세대가 됩니다.’라고 한 것을 사당의 위차까지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옥천전씨의 불만에 대해서도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세대 순으로 정리한 사적이 사당의 위차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견잡을 수 없는 향내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 원장 柳聖霖이 보낸 서신에서도 ‘전씨의 단자는 벌써 보았고, 편지에서 뜻을 보여 주셨으니, 어찌 또 다른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세대를 바꾸어 쓰는 것은 불가하고 제향한 연도에 따라 차례대로 쓴다면, 전씨가 의심하면서 鄉中의 논의를 막은 일은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sup>38)</sup>라며 시비가 확산하지 않도록 중재에 나섰고, 장수항문 측

36) ‘僉執事業已解惑矣 今此修錄事蹟 既非朝令也 又非該關也 在京諸人 或慮有自上詢訪之舉 雇人下送急索文蹟 不過爲備預之計也 ... 則畜翁爲中廟朝人 沙西爲仁廟朝人 上下百載 世代越絕 雖以凡士言之 歷書其某朝人 不可倒書 其世次 則況膾享之先輩乎 若爾則不但爲洛人之碍眼 恐或致疑於睿覽 故果爲循其世代而略略修錄也 大抵追配之日 以膾享之有先後 故位次則一從先后之次 而位次自位次 世代自世代 執事果以爲位次之有先後 而世代之亦可以倒書乎 ... 則全氏之發單上京虛妄而已 疏廳備預之私書 誤認其朝令首席同參之文字 誣以爲私錄 彼年少錯料 固不足較爭 而至使鄉中僉長老 每不免勤動於全氏之僞烽 是甚慨然 因竊念鄙等 年迫桑榆 無一善狀 而上人胥吻 受困至此’(옥동서원, 『본원일록』, 二月一日.[1789년 2월 1일]).

37) ‘貴門與全氏 豈徒受刺於道內而止哉 亦必有朝家之處 故鄙等所以齊會商量 或有善處之道 則其意勤矣 其心苦矣 左袒右袒 何關於鄉中 而勤動於僞烽等語 未知其稱停矣 良可慨然 今則教意如此 更無可論 豈非幸耶 望須十分消詳 務歸鄭重 幸甚 道南書院院長 柳光億 玉成院長 李承延 涑水院長 趙錫喆 淵獄院長 姜世慶 會員 趙錫典 金東礎 趙允祐 蔡著文 趙秀然 李敏培 金應秋’(옥동서원, 『본원일록』, 二月初, 道南書院答通曰).



통문 내용에 옥천전문을 ‘得罪’했다는 두 글자는 지나친 비방임을 지적하였다. 또 趙錫喆(1779·1780년 옥동원장)과 趙錫穆(1789년 옥동원장)은,

‘만약 本孫[沃川全門]과 상의하여 정리하였다면, 本孫의 의심도 아마 이와 같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本孫의 單子가 이미 발행된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으니 고을에서도 또한 의혹이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문서나 文蹟으로 말하면, 세대로써 기록하는 것이 아마도 그 순서를 따르는 것이며, 사당 안의 儀式 절차로 말하면, 위패의 차례가 아마도 중함을 따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sup>39)</sup>

라며 옥천전문과 논의가 없었던 점과 성대한 禮式에 충분히 살피고 신중해야 한다며 장수항문을 우회적으로 질책하였다. 무엇보다 행여나 왕이 祭文을 지을 때 옥동서원에서 정리한 實錄에 의거하여 세대로써 차례를 삼으면, 사액이 내려져 致祭를 하는 날에 크게 편하지 못한 도리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또 옥동서원의 전 원장 李承延(식산 이만부 孫子)은 사적을 기록한 책을 본 후 옥천전문 측의 행동은 갑자기 집마다 다니며 말해줄 수 없어 한 행동이니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옥동서원에 보냈다.<sup>40)</sup> 아울러 장수항문 측도 사림의 경사를 정성을 다하다 발생한 일이니 잘 해결하여 서원 일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길 바란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한편 이 사태에 대한 단자를 발송한 후 한성으로 상경한 전시옥은 전달덕과 함께 청액소청을 방문한다.<sup>41)</sup>

이후의 자료에는 이때 발생한 시비에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朴天衡을 통해 내린 정조의 치제문에는 ‘익성공 黃禧를 제향함에/마땅한 곳을 얻었으니/드러난 익성공이여/동국의 기강이었네’<sup>42)</sup>라고 하여 주향인 황희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옥동서원에서 올린 사적에 ‘黃禧⇒黃孝獻⇒全湜⇒黃紐’로 정리된 世代순은 치제문에 반영되지 않았고, 두 문중 간의 갈등이 더는 확산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2】 事蹟 정리에서 발생한 2차 시비 과정

일자	내용
1789년 1월 14일	• 옥동서원 사액 批旨 내림
1월 27일	• 한성 청액소에서 요청 사항: ① 사액 날짜 택일

38) ‘全氏單辭 曾已見之 而承審示意 豈有別般訝惑之端 然世代不可以倒書 而入享年條 次第書之 則全氏之疑 阻鄉中之物議 自當消釋’(옥동서원, 『본원일록』, 「柳院長聖霖答黃進士景幹書」).

39) ‘若與本孫相議修整 則本孫之疑 似不必如是滋甚 本孫之單既發 則未諳事實之前 鄉中亦不得無惑 且以尋常文蹟言之 則以世代書之 似順其序 而以廟內儀節言之 則位次似較重矣’(옥동서원, 『본원일록』, 「趙進士錫喆 趙司諫錫穆 答會中書」).

40) ‘今承事蹟錄冊子 屑屑全君之示 尤爲釋然 而猝難家喻戶說 何不舉此提及於道院之通也’(『본원일록』, 「李院長承延答會中書」).

41) ‘全始玉全承德叔侄 以向來四先生事蹟收錄事 有所考見而上來云’(옥동서원, 『소청일기』, 二月初九日.[1789년 2월 9일]).

42) ‘大嶺橫霄 屹如巨人 迤爲道溪 院枕于濱 翼成之享 爰得其地 顯顯翼成 東國之紀 訐謨遠猷 英陵有臣 山嶽功利 布帛經綸 史有特書 闢異之力 凡我嶺人 於茲考德 少尹舊居 昔所節履 特宣恩額 聳夫一路 曩過圻西 倅酌墓丘 餘思寄意 洛江悠悠’(옥동서원, 『본원일록』, 1789년 4월 1일).

	② 왕이 제문을 지을 때 참고할 제향자 사적
1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옥동서당에서 齊會 (옥동서원 임원들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이 시급하여 鄉中에 고하지 못한 채 회의</li> </ul> </li> <li>• 사적 世代순 정리: 黃喜⇒黃孝獻⇒全湜⇒黃紐</li> </ul>
2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일한 사액 날짜와(4월 1일) 정리한 사적 청액 소청으로 서신 발송</li> <li>• 全始玉: 사적을 사당의 위차 순으로 정리하지 않은 것에 항의</li> <li>• 전시옥 또다시 향내 서원으로 단자 발행</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동서원 측도 일어난 사태를 정리하여 향내 각 서원에 통문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사안이 시급하여 公議를 구하지 못한 상황 설명</li> <li>- 사적 정리 시 세대순 정리한 것은 왕의 의심을 피하기 위함</li> <li>- 옥동서원은 사당과 세대 위차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li> <li>- 강도 높게 옥천전문을 비방함</li> </ul> </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회 개최 후 도남서원의 답통: 柳光億(道南院長), 李承延(玉成院長), 趙錫喆(涑水院長), 姜世慶(淵獄院長) 외 회원 7명 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당과 세대 위차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해결을 긍정적으로 봄, 옥천전문에 대한 과한 비방에 대해 우려 표명</li> </ul> </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柳聖霖의 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천전문의 불만 사항 해결해 주길 희망, 옥천전문 과한 비방에 대해 우려</li> </ul> </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趙錫喆(1779-1780 옥동원장)·趙錫穆(1789 옥동원장)의 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회와 옥천전문을 배제한 채 사적을 정리한 것을 지적하며, 치제문에 옥동서원에서 정리한 세대로 지은 제문이 내려질까 우려함</li> <li>- 신중하지 못한 장수황문을 질책</li> </ul> </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장 李承延(식산 이만부 孫子)의 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문중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해결을 요구</li> </ul> </li> </ul>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조의 치제문: 원위만 언급</li> <li>• 두 문중의 분쟁은 일시적으로 봉합</li> </ul>

### (3) 제향 祝式을 둘러싸고 발생한 3차 시비

앞에서 언급한 1·2차에 걸친 두 문중의 시비는 봉합되는 듯했으나, 1789년 9월 秋享禮를 앞두고 또다시 시비가 발생하였다. 3차 시비의 발단은 옥동서원이 사액례 후 처음으로 봉행할 추향례에 기존의 祝式을 바꾸고자 각 서원에 품목을 발송하면서 시작되었다.

옥동서원은 1714년 사서 전식을 배향하여 승원한 후 향례의 축식은 各祝으로 하였고, 1786년 축옹 황효현, 반간 황뉴를 추배한 후에도 축식은 네 선현에 대해 각축으로 향례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1789년 가을에 봉행할 제향부터는 기존의 各祝 방식을 舍祝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다. 당시 옥동서원장 趙錫穆이 발송한 품목 내용 중 일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람되게 중요한 직임을 맡아서 여러 번 단자를 올렸으나 許遞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향례가 임박하였는데 부득이 직책에서 물러나 향례의 계획을 말하고자 합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본원은 각축을 합축하는데 鄉議가 일치하지 않거나, 혹자는 선배들이 이미 행한 규례를 갑자기 바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본원 일의 면모와 더불어 전일과 다름이 있었으나 이미 元位로서 사액되었고, 配位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니 元位에 舍祝하는 도리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또 ‘도남서원 원위는 처음에는 각축을 올렸는데, 끝에는 합축하였으니, 본원이 추후에 축문을 고쳐 올리는 것은 실로 미안한 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sup>43)</sup>

43) ‘以無似猥當重地之任，屢呈單辭，未蒙許遞。目今享禮斗迫，辭退不得，以爲享禮前蹲冒之計，而第伏念

이 품목에 따르면, 이미 몇 차례 단자를 발행하여 합축에 동의하는 향론을 모으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옥천전씨들이 합축을 반대하면서 각축을 주장하는 단자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조석목은 옥동서원장 재임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후 南必毅이 옥동서원장으로 취임하여 또다시 품목을 발송하였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도남서원의 사례를 들어 합축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도남서원의 축식은 원래 우복 정경세가 오현의 각축을 지어 쓰다가 후에 선배들이 고쳐서 합축하였는데, 자손이 혐오하지 않고 따랐으며 지금까지 관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남서원도 숭祝하는데 더구나 본원(옥동서원)이 배위를 元祝으로 합축한 것이 어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sup>44)</sup>며 배위는 원위 일체를 따라 치제한 사액서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합축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옥천전문은 이 품목에 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자를 작성하였다.

옥동서원의 각 祝式은 본디 先父老 대부터 정한 논의로 100년 가까이 시행해오던 법규입니다. 오늘날 후학들은 본디 옛법을 준수해야 하고 감히 가벼이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 近來 황제 일문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가지고 축을 고치거나 합하자는 논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本院[옥동서원]의 古事로 두고 밖으로는 다른 서원의 다른 사례를 인용하여 장황한 말로 一鄉을 強迫하며 선배들의 儀文에 관한 내용을 기어이 바꾸고 말겠다고 합니다.<sup>45)</sup>

두 문중의 시비는 이미 1·2차 시비에서 향내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시비의 내용이 사당에서 제향자의 위차 혹은 세대 서차의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합의에 도달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옥천전문 후손은 위차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장수황문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향내 공론을 취합하는 데 그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원장 남필의도 합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향사를 이어갔다. 합축 문제는 이듬해 2월 황경간, 황건중 등에 의해서 다시 쟁점화되었다. 특히 내용 중 옥동서원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소수서원의 축문에 ‘감히 先師 문성공 회헌 안선생께 밝게 고합니다. 앞드려 아뢰건대, 삼가 牲幣醴를 齊明하여 薦합니다. 文貞公 安氏와 文敬公 安氏, 愼齋 周氏는 추배합니다. 적지만 흠향하소서’<sup>46)</sup>의 합축문 사례를 들며 그 아래 배위의 祝文은 없

本院各祝合祝，鄉議不一，或曰先輩已行之規，猝難變革，或曰本院事面，與前日有異，既以元位蒙額，而配位從而賜祭，則元位合祝，道理當然。且道南元位，初以各祝而末乃合祝，則本院之追後改祝，實無未安之端云云。(옥동서원, 『백옥동잡록』, 「稟目」, 己酉九月初二日.[1789년, 9월 2일] 院長 趙錫穆).

44) ‘大抵書院之前以各祝而後以合祝者，既有道南舊例，愚伏先生初製各祝，載在集中，其後先輩改爲合祝，即今常享之祝是已，而當日改祝之際，先生子孫，不以爲嫌，其時先輩不以爲未安，則本院各祝，雖是荷塘權公所製，而一邊道例合祝，有何一毫未安之端耶。且道南以五賢各祝，猶爲合祝，則況本院之以配位，合祝於元(位)者，豈不較然著明乎。(옥동서원, 『백옥동잡록』, 己酉十月初四日[1789년 10월 4일] 院長 南必毅).

45) ‘伏以玉洞書院各祝之式，自是先父老已定之論，而近百年已行之規也。爲今日後學者，固當尊嫂舊憲，不敢輕議，而不意邇者，黃氏一門，以自家意見，唱發改祝合祝之議，內置本院古事，外引他院異例，張皇稟辭，強迫一鄉，期於變易先輩儀文而後已噫.’(『玉洞書院變錄』, 任子年單字).

46) ‘謹按白雲洞紹修書院享儀，安文成公爲原位，安文貞公爲配位，老先生初製各祝，載在集中，其後追配安文敬公，周愼齋因以合祝，其常享祝曰，敢昭告于，先師文成公，晦軒安先生，伏以云云。謹以牲幣醴齊明薦，以文貞公安氏，文敬公安氏，愼齋周氏，配尚饗，其下配位無各祝。(옥동서원, 『백옥동잡록』, 庚戌二月二十八日，黃景幹，澣，聖休，處休，建中，敬中).



다고 하였다. 이를 증명하고자 『죽계지』 내용이 부족하여 소수서원에 사람을 보내 합축한 내용과 이후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해놓은 절목까지 등사해온 내용을 거론하며 합축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또 이어서,

그것으로 인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본 서원의 各祝과 肅祝은 선조에게는 더하거나 빼는 바가 없어야 하고 자손에게는 미안한 바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액이 내려진 후 향례의 제수는 임금께서 내려주신 물건으로 이미 元位로써 아울러 配位를 포함한 것인데, 모두를 從享하는 데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을 포함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위와 배위의 각축은 임금이 내려주신 제수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되니, 명분도 예의도 없습니다. 이 어찌 더욱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서(沙西)의 본손은 매년 합축이 持重함에도 어찌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sup>47)</sup>

라며 옥천전문을 비방하였다. 이에 옥천전문 측도 다음과 같이 더욱 거세게 반발하였다.

본원[옥동서원]의 首席께서 이런 뜻으로 다시 稟目을 발송하였는데, 향중에서는 처음부터 발문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또 哭班 때 온 경내 선비들이 다 모였는데, 회중의 여러 의견이 바꾸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미 있었습니다. 금년 봄 연약서원 모임 때 편지를 보내어 두루 고하였는데, 각처의 답장에도 역시 바꿀 수 없는 뜻을 보였으니 이는 곧 公議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남아있기 때문이며, 人心이 멀고 가까운 것은 다 같다는 것입니다. 황씨들은 그만둘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바라는 것이 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sup>48)</sup>

향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淵嶽書院에서 향회를 개최하였으나 鄕父老 대부분은 참석을 피하였고, 그렇다고 참석한 소수의 인원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더욱 아니었다.<sup>49)</sup> 점차 향내 서원과 향부로 두 문중에서 발송한 합축 시비 품목에 대한 답도 피하게 된다. 이처럼 두 문중의 시비는 향내 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III. 祠版 移安 사건을 둘러싼 갈등 확산과 보합

#### (1) 全湜 祠版 이안 사건에서 발생한 4차 시비와 보합

상술한 위차 시비는 장수향·옥천전문 간에 1804년(순조 4) 옥동서원의 廟宇를 수리하고

47) ‘因竊念本院之各祝合祝，於先祖無所增損，於子孫無所未安，而但宣額後享禮祭需，是君賜之物，而既以元位而并及配位，則烏在其一体從享舉重包輕之意也？若爾則正配各祝，而同用君賜之需者，無名也無儀也，茲豈非未安之甚者乎？沙西本孫，每以合祝持重，而胡不念及於此也.’(옥동서원, 『백옥동잡록』, 庚戌二月二十八日. 黃景幹, 澣, 聖休, 處休, 建中, 敬中).

48) ‘本院首席. 會以此意. 再發稟目. 而鄕中初不附跋. 前又哭班之時. 闔境齊會. 而會中僉意. 己有難變之論. 今春淵院之會. 發書通告. 而各處答簡. 又示不易之義. 此乃公議之古今常存. 而人心之遠邇攸同也. 黃氏之於斯. 庶可休矣. 而奈其情願. 愈往愈滋.’(『옥동서원변록』, 「任子年單字」).

49) ‘本院以此事. 前後首席. 相繼發稟. 而僉長老一未附跋. 頃日淵院約日期會. 而南村數三長老外. 鄕中僉長老. 一不相應者. 此又何也. 儒宮之事. 異於鄙門私事. 鄙等不必發稟縹緲. 而首席稟中. 既無所答. 淵院之會. 又不齊臨. 故不勝訝鬱.’(옥동서원, 『백옥동잡록』, 庚戌二月二十八日. 黃景幹, 澣, 聖休, 處休, 建中, 敬中.).

還安祭를 올리면서 재발화되었다. 본래 이 사건은 1804년 4월에 옥동서원의 묘우를 중수한 후 환안제를 거행할 때 사당의 위패 序次를 세대순으로 두자는 논의에 대해 사서 후손 全達德이 동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사서 전식이 남긴 遺稿 중 ‘年代가 앞에 있으면 位次는 마땅히 위가 된다. 이것은 태어난 사람이 차츰 장성하는 뜻을 도리로 삼은 것이니, 내세와 현세가 어찌 다르겠는가.’<sup>50)</sup>라는 글을 보이며, 전식의 훈령이 있다면 반드시 따르고 편안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옥천전문 측의 동의로 사당의 위패는 황희-황효헌-전식-황뉴 순으로 정하여 환안제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전달덕의 이러한 행동은 옥천전씨 문중 전체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序次를 바꾸자는 의론을 발하고 사림에 혼자서 여쭙었다’<sup>51)</sup>는 기록과 ‘그런데 저 일족들은 先祖인 전식의 遺訓을 저버리고, 그 문중의 어른인 全達德의 바른 의론을 배반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핏줄에 연연하여 다투었다.’<sup>52)</sup>는 기록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옥천전문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당 세대순 序次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全宗德을 필두로 한 옥천전씨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다. 전종덕의 강력한 항의와 거센 반발에도 환안제를 봉행하면서 바뀐 사당의 序次를 다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전종덕 측은 1804년(순조 4) 12월 옥동서원에 있던 사서 전식의 祠版을 들고 魯東書堂<sup>53)</sup>에 잠시 昇奉하였다가, 12월 12일에 도남서원에 추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sup>54)</sup> 도남서원에 일어난 이 사건은 都會 또는 鄉會 등 공론을 취합하기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나 齊會 없이 일어난 전례 없는 사태였다.<sup>55)</sup>

상주 향내와 道內 공론은 이 시비를 두고 ‘玉洞事變’<sup>56)</sup> 또는 ‘一道士林間變’<sup>57)</sup>, ‘斯文之極變’<sup>58)</sup>, ‘道南事變’<sup>59)</sup> 등으로 기록할 만큼 영남 전역으로 회자되었다.

50) ‘今以全湜逸稿中, 語而觀之, 其曰. 年代在前, 位次宜上, 以生人少長之義揆之幽明何.’(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51) ‘故全湜之孫達德, 追悔前非, 發東西換次之論, 而單稟於士林蓋因.’(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52) ‘而彼一宗德悖其, 先祖全湜之遺訓背, 其門長達德之正論, 如前血爭.’(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53) 노동서당의 내력은 현전하는 자료 부족으로 위치를 고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대략적인 내용은 상주 한산의 동쪽 능선에 있었는데, 임진왜란에 전소된 후 1629(인조 7)에 신방동에 다시 건립하였고, 1726년(영조 2)에 현재의 자리로 이건하였다. 식산 이만부가 쓴 기문이 전한다.(상주시청년유도회, 『상주의 서원』, 2006, 572~573쪽.) 또 ‘魯東은 沙西의 影幀을 봉안한 곳이며, 평일 杖屨를 두었던 곳이다[魯東卽我沙西先生影幀安奉之地也, 平日杖屨之所遺芬未沫 尊奉於斯 尸祝於斯者 揆以神理人情 實爲穩協 而許多睽乖 從此保合又豈非一道之大幸耶]’라는 기록을 참고하면 같은 서당으로 추정된다.(『명암선생문집』, 「잡저」, 「道南疏廳雜錄」).

54) 당시 1804년[甲子] 6월 도남서원 원장은 姜世鷹[전장령]이 선출되었고, 재임에는 趙興洙, 姜載欽, 權祿仁, 孫鎮璧이 선임되어 11월까지 운영하였다. 또 12월에는 孫會慶[前都事]이 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재임에는 張濩, 姜肱欽이 선임되어 이듬해 봄까지 맡아서 운영하였다. 1805년[乙丑]의 원장은 權訪[전도사, 안동인]이고, 재임은 鄭光駟[용궁인], 朴思崙[선산인], 李鎮坤[예천인]이었다.(도남서원, 『원임록』).

55) ‘道南書院에 있는 五賢의 사당에다 이날 한밤중에 무모하게 배향하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일을 위로는 禮曹[春曹]에 청하지도 않았고, 가운데로는 관찰사에게 고하지도 않았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급하여 혹시라도 은밀한 계기가 먼저 노출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밤에 사판을 옮겨 봉안하고, 한밤중에 제사를 거행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술은 미리 빚어두지 못하고, 말린 포는 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乃於道南, 五賢之廟作, 此半夜冒享之舉. 上不請於, 朝家中不告於方伯, 下不謀於士林而. 遑遑汲汲或恐潛機之先露遂, 乃犯昏移奉半夜行祀, 酒不預釀而沽, 脯不官賜而市.](옥동서원, 「淸巖書院通文」, 청암서원[소수·도산·옥산·임고서원 등 영남 10곳 수원에서 연대하여 발송한 통문].

56) 『명암선생문집』, 「잡저」, 「道南疏廳雜錄」, 「禮判韓用龜上書」, 1805년.

57) 『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敦定魯東分奉之議通文」, 1805년 11월 15일.

이어서 지난 세 차례의 시비 때와 같이 黃·全 양 가문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및 상대 가문을 비방한 단자를 발송하여 또 다시 상주 향론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sup>60)</sup> 이에 영남지역의 순흥 紹修·예안 陶山·경주 玉山·안동 虎溪·榮川 伊山·영천 臨臯·용궁 三江·예천 鼎山·영해 丹山서원 등이 연대하여 합창 청암서원에서 통문을 작성, 이 사태를 두고 ‘斯文大變’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道內에서는 고요히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sup>61)</sup>고 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주 향론에 대하여 질책하였다.

또한 黃·全 두 문중에 ‘마땅히 책임지고 침묵하며 공의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인데, 불행히도 여러 곳에다 글을 먼저 보낸 행동에 대해 합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그리고 서로 원망하는 글과 상대를 헐뜯고 배척하는 등 ‘어찌 鄒魯와 예의의 마을에 뜻을 둔 선비가 이런 거칠고 사나우며, 사리에 어그러지고 괴격한 習俗이 있을 수 있냐’며 격분하였다.<sup>62)</sup> 두 집안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진위는 잠시 차치하더라도, 사액된 상주의 수원에서 발생한 사태라는 점에서 도남서원이 받아야 할 영남 儒林의 비난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저희들은 이 일의 소문을 듣고 날마다 정중한 의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개월이 이르도록 모두가 강 건너 불 보듯 하여 서로 도울 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同室의 도리이겠습니까. 본디 저희들의 말은 경중을 따질 필요가 없이 오직 분개함을 이기지 못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sup>63)</sup>

이처럼 1789년 청액 상소문에서 시작된 황·전문의 시비는 15년 동안 세 차례나 이어지면서 가까스로 무마되었으나, 두 문중의 긴장 관계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05년 사서 전식의 위패를 도남서원에 추배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사서의 위패를 이안하기 위한 都會 또는 鄉會가 없었다는 점과 향론을 취합하기 위한 통문 발송 등 공론 취합을 위해 어떠한 조치 없이 소수 임원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데 있었다.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두 문중의 분쟁은 더욱 격렬해져 도남서원에 추배된 사서 위패 문제는 상주 유림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된다.

만약 지금 강론해서 확정하여 지극히 당연한 데로 힘써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일의 끝까지를 수습하는 어려움은 전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이에 이를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서로 싸워 충돌하여 뒷일을 잘 처리할 도리를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사태에는 다른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다만 兪 事端에 있어 편견과 사사로운 견해를 버리고, 공정한 의론이 되도록 힘써서 속히 伏閣하는 일을 도모한 연후에 성상의 처분을 기다려 정돈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비로소 道로써 존송하고 예로써 제향을 올림으로써 길이 斯文에 빛이 날 것입니다.<sup>64)</sup>

58) 옥동서원, 「靑巖書院通文」, 1805년 8월 9일.

59) 『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鳳山疏廳答通」

60) ‘而數處文字, 不幸先發, 則施爲辭氣之間設, 有未盡停當.’(옥동서원, 「靑巖書院通文」).

61) ‘猶且道內之寂無一言’(옥동서원, 「靑巖書院通文」).

62) ‘而其在主事, 僉員則只當引咎舍默, 以俟公議之如何. ... [중략]... 而遂乃全覆自己之失, 反生憤懣之意. 苛摘於文句之間. 鑄張於傳聞之餘. 以爲執咎自解之資. 而羣起詆斥. 無所不至. 此何等氣像乎 ... [중략]... 其噴薄之氣. 侵逼之端. 至於清鏡之文字而極矣. 豈意鄒魯禮義之鄉. 有此麤厲乖激習乎.’(옥동서원, 「靑巖書院通文」).

63) ‘鄙等自聞此事, 日俟鄭重之論. 而到今幾箇月, 舉皆越視岸觀, 莫有相救之意. 此豈同室之道乎. 固知鄙等(之)言, 無足輕重, 而惟是不勝慨然之心.’(옥동서원, 「靑巖書院通文」).

결국 영남 도내 공론에서도 수습 방안을 찾지 못하자, 청암서원 외 도내 9개 首院에서 제시한 방법은 위 통문의 내용과 같이 伏閣(奉疏)이었다. 이에 1805년 9월 도남서원 원장 權訪<sup>65)</sup>(1740~1808)은 釋菜禮를 마친 후 재회를 개최하여 도내 각처에 所任을 배정하여 奉疏하기로 결의하였다.<sup>66)</sup>

그러나 도남서원 측과 옥동서원 측의 주장은 이미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연대하여 봉소하는 것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남소청(도남서원 측)과 봉산소청(옥동서원 측)에서 각각의 상소문을 봉소하기 위해 상경하게 되었다.

도남소청 측은 소수 도우경을 비롯하여 李汝幹, 姜伯飮(都廳), 朴思瀾(掌議) 등이 한성으로 입성하였고, 이들은 東泮 李菡道의 집에 소청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상소문을 승정원에 봉입하기 위한 성균관 장의들의 謹悉(동의서)를 받기 위해 통문 발송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봉산소청 측 黃錫老, 鄭陽魯, 盧尙慶, 金獻慶, 李景實 등이 먼저 상경해 있었고, 도남소청보다 앞서 봉산소청 측이 봉소하기 위한 청탁활동을 앞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먼저 봉산소청이 성균관의 근실 두 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남소청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는 太學의 전례에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상소를 하면 한쪽은 근실을 주고 한쪽은 근실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남소청의 도우경은 봉산소청에 통문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 일은 한 서원의 일이며, 營官에서 두 가지로 만든 것과 同室에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은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며, 또 형제가 서로 송사하는 것과 같으며, 하나는 감히 하지 못할 바요. 둘째는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sup>67)</sup>라며 하나의 상소문으로 봉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봉산소청 측은 현재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내용과 도남소청에서 제시한 하나의 상소문으로 봉입하자는 의견에 대한 조건으로 환안 시 위차는 반드시 세대순이어야 된다는<sup>68)</sup> 일관된 주장을 보내옴으로써 두 소청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도남소청 측은 근실을 받지 못해 봉입조차 못한 상태에서 낙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되면 봉산소청 상소문만 봉입되어 도내 유림의 원망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니, 봉산소청 측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양측의 양보 없는 주장이 너무나 완강하여 보합은 커녕 오히려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도남소청은 ‘沙西의 사판이 도남서원에 추배된 것은 都儒들이 한 것이 아니며 바로 황씨입니다.’<sup>69)</sup>라고 한다든

64) ‘若不及今講確務歸至當，則末梢收拾之難，尤非所前日之比。僉尊何不念及於此，而一向層激，不思善後之道乎。今事機無他善策。只將前後事端，舍其偏私之見，務爲公正之論，亟圖一番，叫閭之舉然後，待上處分，以爲定頓之地。則方可謂尊以(道)享以禮，而永有光於斯文也’(옥동서원, 「淸巖書院通文」, 청암서원[소수·도산·옥산·임고서원 등 영남 10곳 수원에서 연대하여 발송한 통문].

65) 권방(1740~1808)의 본관은 安東이고, 자는 季周, 호는 鶴林, 거주지는 안동 昌豊이다. 증조부는 權份이고, 조부는 權可正, 부친은 權濤이다. 어머니는 金元烈의 딸이며, 부인은 權文海의 후손 禮川權氏이다. 대산 이상정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1783년(정조 7) 문과에 급제한 후 승문원부정자, 창년현령, 사헌부감찰 등을 역임하였다.

66) ‘前正郎權訪以道南洞主 以乙丑九月下丁退行釋菜禮 定封疏上達之議 排定疏任 通示道內 時禹璟名在製疏’(『명암선생문집』, 「잡저」, 「道南疏廳雜錄」).

67) ‘則一院之事 以儒則同道之儒也 一事兩疏近於瀆擾 而便若營官之兩造同室之相卞 駭於聽聞 而又若兄弟之相訟 一則所不敢 二則所不欲也’(『명암선생문집』, 「잡저」, 「道南疏廳雜錄」, 間發通文于鳳山疏廳, 1805년 10월 15일).

68) ‘生等敢不虛右以俟如其未也 特必有離而合 合而離之弊’(『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鳳山疏廳金憲慶等答通).

69) ‘沙西之享道南 非道儒也 乃黃氏也’(『명암선생문집』, 「도남소청잡록」, 三通之文).

가, 봉산소청은 사서의 사판을 옮긴 全宗德을 두고 전식의 망령된 후손이라 비방하는<sup>70)</sup> 등 양측의 갈등은 더 격화되었다. 도남소청은 더 이상 보합에 대한 진전이 없자 성균관 장의 安光集에게 통문을 보내 근실을 청하였고, 마침내 3번의 통문 발송 만에 근실을 받게 되었다.

이에 1805년 11월 1일 陽福煥의 집에 정식으로 소청을 설치하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양측의 봉소 임원, 연명자 등 관련 명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3】 1805년 도남소청·봉산소청 임원 명단

도남소청(疎任錄)	봉산소청 임원
<p><b>疏首:</b> 都禹璟.  <b>製疏:</b> 李汝幹(進士)·金相溫(生員). <b>寫疏:</b> 安愿(幼學)·金永穆(生員). <b>掌議:</b> 李東鳴(幼學)·金宗鐸(生員). <b>疏色:</b> 李鎮坤(幼學)·姜璫.  <b>公事員:</b> 鄭灝(生員)·安爾龍(生員).  <b>直日:</b> 洪升雨(幼學). <b>都廳:</b> 趙錫年(幼學).  <b>鄉都廳:</b> 姜伯欽(幼學)·金恒壽(幼學).  <b>管行:</b> 李重燮(幼學)·權象奎(幼學).  <b>陪疏:</b> 金名鍊(幼學)·南漢龜(幼學)·李士+赫(幼學)·卞榮(幼學)·王允翼(幼學)·申冕周(幼學)·權進學(幼學)·權錄仁(幼學)·安廷采(幼學)·成孝兢(生員)·都士敏(幼學)·朴思鳳(幼學)·李同淳(幼學). <b>합계: 30인</b></p>	<p><b>疏首:</b> 宋智修  鄭陽魯, 黃錫老(정종로 사위), 盧尙慶, 金憲慶, 李景實, 柳喆祚(參奉), 柳璧祚(進士), 趙錫年, 李重燮, 鄭秉魯, 柳晦文(製疏, 進仕), 洪錫圭, 姜愿  白惟典  한성 자문 대상: 한성본손_ 黃明漢(持平, 노론), 黃升遠(前吏判, 노론), 황승원 인척: 韓用龜(禮判)  상소문 연명 인원: <b>223명</b> (李氏 28名, 金氏 21名, 權氏 20名, 申氏 18名, 鄭氏 10名, 崔氏 10名, 朴氏 8名, 趙氏 7名 洪氏 8名, 柳氏 7名, 河氏 7名 등)</p>

그렇다면 두 상소문의 쟁점은 무엇일까. 먼저 도남소청의 상소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지난 先朝 丙午년에 익성공의 本孫들이 황효현, 황뉴를 忠簡公 아래에 追享하고, 그 후 3년에 사림이 상소하여 允許를 받아, 全湜은 제2위이며 황효현은 제3위로 이미 백세에 바꾸지 못할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甲子에 黃錫老 등이 묘우의 개수로 인하여 그들의 선조 황효현이 전식보다 연세가 높다고 감히 위차를 바꾸려는 계획을 만들어 姻婭들과 체결하여 士林들과 상의하지 않고, 於焉간 동쪽에 있던 것을 서쪽으로 옮겨, 낮았던 것이 위로 가서 양현의 위치가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장차 옥동으로 들어간다면 한번 나와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마도 구차할 단서가 있고, 鄉祠에 배향하려 한다면 사액서원에 모시던 선현을 스스로 격을 낮추어 모신다는 혐의가 있어, 일편의 祠版이 지금 도로에 있어 붙일 곳 없으니, 본주의 사액서원은 다만 도남서원 하나뿐입니다. 충간공의 사판을 도남서원 사당 서벽의 末次에 追配한다면, 이것은 충간공으로는 불행 중 다행일 것이며, 70州大同의 의론입니다.<sup>71)</sup>

70) ‘屬因全湜之妄孫宗德’(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71) ‘粵在先朝丙午 翼成本孫追享其近祖 故參判臣黃孝獻 故持平臣黃紐於忠簡之下 又其後三年 士林上疏請額 而敦定坐次已蒙允許 則全湜之爲第二位 黃孝獻之爲第三位 而 朝家之定奪已作 百世不易之典矣 昨年甲子 黃錫老等因廟宇之修改 以其祖孝獻之年歲高於全湜 敢生換次之計 締結姻婭不謀士林 而於焉之間 東者西下者上 而兩賢之位次已亂矣 將歸玉洞 則一出復入恐有苟且之端 欲享鄉祠 則 額院先賢自有降享之嫌 一片祠版方在道路之棲皇 而本州 額院 只有道南之一院 敢以忠簡祠版追配於道南祠西壁之末次 則此是忠簡公不幸之幸 而七十州大同之論也’(『명암선생문집』, 「잡저」, 「道南疏廳雜錄」, 上疏文正本).

도남소청의 상소문 핵심은 옥동서원이 사당의 序次를 바꾼 상태에서 사서 전식의 위패를 환안하더라도 원래 서차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액서원인 도남서원에 추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옥동서원 측이 사서 위패를 원래 서차로 환안해 주기를 바라는 뜻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도남서원에 추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봉산소청에서 작성한 상소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특별히 명을 내리시어 全湜의 사판을 곧장 옥동서원으로 되돌려 배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돌려 배향할 때에 황효헌과 전식 두 신하 위치의 상하가 만약 법에 따라 전하의 처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분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대개 도남서원에 위패를 몰래 배향한 선비들은 반드시 전식의 사판을 황효헌의 위에 올리려고 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연대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근거할 만한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문묘에 합사하는 圖式으로 先朝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릴 뿐입니다.<sup>72)</sup>

결국 1805년 11월 8일에 봉산소청이 결문 밖에서 먼저 복합하게 되었다. 봉산소청은 宋智修를 소수로 趙錫年, 李重燮, 盧尙慶, 鄭陽魯, 鄭秉魯, 金憲慶, 白惟典 등이 참여하였다.

도남소청은 11월 12일에 복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양측이 함께 복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영남의 사론은 물론이고, 양 소청 임원들도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봉산소청의 부담은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었다. 정양로와 노상경은 영남의 사론이 두려워 예전과 같이 환안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고, 황씨는 사서의 사판을 전과 같이 모시면, 축웅(황효헌)의 위패가 서벽으로 가야 하니, 차라리 도남서원에 모시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였다.<sup>73)</sup> 또 백유전은 黃·鄭씨가 봉소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소문이登徹되지 못하도록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sup>74)</sup>

도남소청 역시 함께 복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니고 있었다. 본래 봉소 준비단계부터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소청이 함께 복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봉산소청에 통문을 발송하는 등 애초에 단일 상소문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만약 두 소청이 함께 복합한다면 한 성 사론의 부정적인 시선은 물론이고 특히 영남 유림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양측의 이 같은 사정을 포착한 陞廡 疏首 李東汲(1738~1811)이 양 소청의 소수와 면담을 시도하였다. 이때 도남소청 소수 도우경이 적극적으로 면담에 임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부담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동급의 보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玉洞으로 還安한다면 전과 같이 위치를 바꾸는 것은 피차가 함께 어렵게 여기는데, 위치를

72) ‘伏願, 殿下特下成命使, 全湜祠版卽爲還配於玉洞. 而第其還配之際, 黃孝獻全湜兩臣之位次上下, 若不經上裁處分則必將復致紛紜. 蓋爲道南潛配之儒者, 必欲角勝乎已見陞, 全湜祠版於黃孝獻之上而此. 則倒置年代無可據之義爲. 則陞廡圖式, 有先朝之典. 臣等恭俟睿斷而已.’(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73) ‘是時盧鄭黃先欲封疏 而盧鄭則中情 雖欲世代易次 而畏公議欲依舊還安 黃則畜翁之在西壁時 猶欲易東壁之位 而今已奉於東壁’(『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74) ‘白起坐斂衽曰 今日始聞嶺中士論 及士大夫治疏之事也 惟典謹當呵責黃鄭 而罷疏矣 因自草罷疏文字而示之曰 辭意當如此爲之耳 ... 而譏笑白惟典 果作梗於自中 使不得登徹’(『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1805년 11월 11일).



바꾸는 것은 士林이 하려 하지 않으며, 전과 같이 하는 것은 黃氏들이 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도남서원에서 그대로 모시는 것은 세 집안이 다 하려고 하지 않으니, 魯東에 나누어 排設하는 것은 실로 양쪽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 만약 사림의 공의로 서원을 영건하여 一新케 하고 임금님에게 고한 다음 봉안한다면, 宣額을 기필하지 않아도 어찌 沙西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sup>75)</sup>

도남소청은 이동급이 제시한 위 보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봉산소청과 협의도 급진전 되었다. 이어서 승무소청은 정식으로 보합안 통문을 작성하여 봉산소청에 발송하였고, 봉산소청은 보합 통문에 동의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복합을 중간에 거두는 것은 난처하니 大論을 확실히 정해달라는 요청과 사서 전식의 사판을 魯東에 봉안할 기일을 回示해 달라는 답통문을 보내왔다.<sup>76)</sup>

1805년 11월 15일 양 소청의 임원진이 승무소청에서 재회를 열었다. 소수와 제소 정병로, 노상경, 황석로와 縉紳의 유생들이 모두 모였다. 보합 임원으로 公事員은 李重燮, 洪錫圭를 선임하였고, 姜原, 정병로는 통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작성된 통문 내용의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옥동에 환안한다면 절차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사이에 公議는 격동하기 쉬우니, 만약 사변이 거듭 일어나고, 가닥이 다른 것으로 생겨 장차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크게 尊賢의 예절에 손상이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영남 一道의 수치가 이것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대저 공의를 保合하여 선현을 존모하는 의리를 잃지 않는 것은 마땅히 魯東에 分院하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은 沙西 선생이 杖屨를 두던 장소이며, 영정을 봉안한 곳입니다. 엿드려 원하건대 淸宗의 통문이 도착한 다음 즉시 각 읍에 輪示하고, 택일하여, 노동의 논의를 확실히 정하여, 무릇 儀節 사이에 구획하는 즈음에 십분 살피고, 삼가 능히 爛商을 더하여 하나로 공의를 확장하는 도리를 만들고, 하나로 영구히 보합하는 처지가 되게 하면 다행이겠습니다.<sup>77)</sup>

위와 같이 노동서당에 분설하여 모시는 논의를 敦定하고, 세 곳의 소청과 縉紳, 유생들이 서명하여 상주와 도내에 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보합하였다.

## (2) 전식 위패 환안 후 발생한 5차 시비

사서 전식을 도남서원에 추배한 사태를 두고 벌어진 황·전문의 4차 시비는 魯東에 分設하여 봉안하는 것으로 일단 보합되었다. 그런데 어렵게 보합된 황·전문의 위차 시비는 1808년 1월 경상감사 尹光顏<sup>78)</sup>이 關文을 내어 전식의 위패를 옥동서원 廟宇에 본래의 序

75) ‘李丈曰今玉洞還安 則依舊易次 彼此俱難易次 則士林之所不欲依舊 則黃氏之所不欲道南 仍奉則三家之所 不欲魯東分設 實爲兩便 若以士林之公論 營建書院使之一新 而告君之後奉安 則宣額 雖不可必而豈不有光於沙西乎’(『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1805년 11월 12일).

76) ‘則一道保合亦在於僉尊也 生等亦何必岐貳於其間哉 第莫重疏舉 已至伏閣 則許久中撤 非但分義之未安 亦有事勢之難處者 伏願細加詳察 敦定大論回示 魯東奉安之期 以爲生等進退之地 幸甚’(『명암선생문집』, 「도남소청잡록」, 鳳山疏廳答保合通文).

77) ‘...欲還安玉洞 則節次有難便處是非之際 公議易激 若至事變 層生節拍轉生 將及於莫可收拾之境 則豈不大有損於尊賢之節 而吾嶺一道之羞 莫此甚矣 夫保合公議 而不失尊慕先賢之義者 宜莫如魯東分院 魯東即沙西先生杖屨之所 而影幀奉安之所也 ...伏願僉尊通到後 卽爲輪示各邑 尅日齊會 敦定魯東之義 而凡於儀節之間 區畫之際 十分審愼克加爛商 一以爲恢公議之道 一以爲永久保合之地 幸甚’(『명암선생문집』, 「잡저」, 「도남소청잡록」, 發通于尙州及道內).

78) 윤광안(尹光顏, 1757~1815)의 본관은 파평이고, 자는 復初, 호는 盤湖이다. 尹元舉의 5대손으로 소론계 핵심 가문 인물이며, 증조부는 尹楡이고, 조부는 尹恕教, 부친은 尹東美이다. 1786년 문과 급제

자로 불안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1808년(순조 8) 3월 27일에 지평 황명한(황희 14대손, 노론)<sup>79)</sup>이 올린 상소문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소문의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前경상감사 金義淳<sup>80)</sup>과 前예조판서 韓用龜가 병진년의 승무 近例를 들어, 본주에 관문을 보내 세대를 따라 還安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1808년] 정월 前경상감사 尹光顏이 도리어 신의 조상을 낮추어 이미 불안해 놓은 위패 위에다가 전식을 다시 올려 버리니, 선대 조정에서 이룬 법을 크게 어겼으니, 한 서원의 倫序를 모두 잃어버려 영남 士論이 이로 말미암아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신의 조상은 中廟朝 己卯年에 경연의 신하로서 도학과 名節이 스승으로 삼을 만한데, 해를 넘겨 代享하였으나 예의상 禮貌가 아닌 것으로서 그 자손의 울분이 어찌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예조 당상에게 하문하시어 특별히 판지를 내려 한 서원의 잘못된 예를 바로잡게 하소서.<sup>81)</sup>

상소문을 올린 지평 황명한은 봉산소청 임원진이 상경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았던 인물이다. 당시 鄉戰의 처리가 대부분 감사나 수령에 일임되어 있었기 때문에<sup>82)</sup> 윤광안이 부임한 후 관권을 통해 황·전문 시비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1804년 봉소한 상소문에 ‘사서의 위패가 불안된 魯東書堂이 만약에 지금 훼손된다면, 나아가나 물러가나 궁지에 빠지는 것을 면하지 못하기에’<sup>83)</sup>라고 한 부분에서 옥동서원 제향자 후손뿐만 아니라 향내 유림에서도 노동서당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서의 위패 환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광안이 사서의 위패를 옥동서원으로 환안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시 영남과 상주의 공론은 대체로 본래의 위치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었고, 윤광안도 이를 감안하여 사액 당시 사당의 위치대로 환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장수황문은 관권을 이용하여 본래 서차로 환안한 윤광안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呈文을 관에 올렸다. 이어서 한성 본손 지평 황명환을 통

후 교리,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고, 경상도 관찰사 재임기는 1806~1808년이다. 그는 1806년 11월 26일 冒設한 사원들을 심폐처로 판단하고 법전에 근거해 함창현의 신안서당 사례를 근거를 들어 유혈사태를 감수하면서까지 영향현의 운곡영당[노론계] 훼손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훼손 후 성균관 측의 주자 영당을 훼손하면서 성균관과 논의 없이 단행한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계되어 항변에도 불구하고 무주부로 정배되었다.〔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 조선 후기 영남 復縣의 노론계 院宇 건립 사례-」, 영남학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18〕.

79) 황명한(1771~1870)의 자는 季良이고, 황희 14대손이 된다. 증조부는 黃哲이고, 조부는 黃載河, 부친은 黃鏞, 어머니는 청풍김씨 金敬修의 딸이며, 처는 반남박씨다. 그는 1802년(순조 2) 문과 급제 후 지평, 정랑을 지냈다.

80) 김희순(金義淳, 1757~1821)의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太初, 호는 山木·景源이다. 증조부는 金時發이고, 조부는 金教行, 부친은 군수 金履仁이다. 어머니는 참봉 李克顯의 딸이다. 1789년 문과 급제 후 승지, 이조참의, 이조참판, 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그중 경상도 관찰사 재임기는 1804~1806년이다. 이 시기 前예조판서 한용귀와 공조하여 사서 전식의 사판을 옥동서원에 세대순 서차로 환안 하려고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1) ‘前嶺伯金義淳前禮判韓用龜 據丙辰年陞庶近例, 行關李[本]州使之從世代還安 而迄今未果矣. 今年正月前嶺伯尹光顏, 抑降臣祖, 已安之位, 復躋全混於其上大違先朝之成憲頓失一院之倫序嶺下士論因此紛紜. 而臣祖以中廟朝己卯經幄之臣道學名節可以師範後世而倒置年代享以匪禮其爲子孫之憤悶當如何哉. 伏乞下詢禮堂特降判旨以正一院之謬禮焉’(『일성록』, 1808년 3월 27일).

82)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2001, 283~284쪽.

83) ‘又於移奉之後名其私廟曰魯東書院境內有識之論不勝慨惋以此事...而其新設院特今毀撤, 則進退未免於維谷角勝有術於觸藩於是乎.’(옥동서원, 「上書」, 公州幼學臣宋智修等).



해 상소문까지 올렸다. 이 상황을 본 옥천전문 측에서도 관에 정문을 올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1808년 4월 1일 순조는 ‘지위를 높이고 낮추게 하는 것은 막중한 데 관계되니, 본도에 공문을 보내어 널리 공의를 탐문하고 사실을 상고해 사리를 갖추어 보고하게 한 다음, 품처하도록 하겠다.’<sup>84)</sup>는 비답을 내렸다. 그리고 경상감사 鄭東觀(1762~1809)<sup>85)</sup>에게 도내 공의를 널리 검토하고 조사하여, 사실을 상고해 사리를 갖추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동관이 移文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년 정월에 해당 목의 목사가 감영의 關文으로 인해 전식을 도로 옥동서원에 모셨다. 비록 서차에 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데 불과하며, 전 목사가 도로 봉안하면서도 역시 예전 차서대로 하였지, 새로 바꾸어 고친 것이 없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士論이 각각 양쪽 집안의 說을 주장하여 양쪽 집안이 번갈아 와서 明文을 올려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다. 사색한 서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사체가 가볍지 않고 중하며, 위차를 높이고 낮추는 데 대해서는 공론이 귀일되지 않고 있다. 그런즉 위패의 전후와 고하에 대해서 釐剔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보고를 받은 순조는 6개월 전 황명환이 올린 상소에서 위차를 세대 순으로 하게 해 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1808년 9월 1일 ‘상주 옥동서원의 배향 위차를 세대 순으로 하는 일을 그만두라’<sup>86)</sup> 명을 내렸다. 이처럼 순조의 경우에도 道內 의론인 본래의 배향 서차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로부터 60년 후 1868년(고종 5) 9월 5일 예조에 장계가 올라온다. 옥동서원의 位次 시비에 대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대의 선후에 따라 올리고 내린다는 설과 배향한 선후에 따라 한다는 설이 각각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양 문중 후손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만 고집부리고 있고, 한 道 안의 사론이 서로 다투고 있으니, 갑자기 확정지어 의논을 귀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중수를 계기로 삼아 서차를 정할 계책을 내어 사체를 구차하게 만든 것은 黃氏 문중에서 먼저 그렇게 하였고, 위판을 가지고 나가 다른 서원에 배향해서 擧措가 해괴하게 한 잘못은 全氏 문중에 있습니다. 대개 두 집안의 선조들은 모두 깨끗하고 맑은 이름과 명망이 있어서 당시 유생들이 소중하게 여겨, 마침내는 서원에 享祀 되었습니다. 더구나 서원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여러 선비의 공론에 따라 하는 법입니다. 黃氏나 全氏 두 집안의 자손들이 각자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이 비록 선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함께 존경해야 하는 의리를 잃은 것입니다. 본도에서 올린 조사 보고서에서는 시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논란한 말이 없으니, 도내의 士論 역시 이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대간의 상소 가운데서 말한 위차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선 예전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sup>87)</sup>

84) ‘位次釐正事, 事係莫重, 發關本道, 廣探公議, 博考事實, 論理報來後, 稟處事草記蒙允, 分付該道矣.’ (『일성록』, 1808년 4월 1일).

85) 정동관(1762~1809)의 본관은 동래이고, 자는 文詹, 서울에서 태어났다. 증조부는 鄭勗先이고, 조부는 鄭錫行이며, 부친은 鄭魯淳, 외조부는 청송심씨 첨정 沈麟之, 처부는 풍양조씨 趙鼎鎭과 파평윤씨 尹光衡이다. 1783년(정조 7) 문과 급제 후 암행어사, 사간, 대사간, 홍문관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807년 12월에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1809년 4월까지 재임하였다.

86) ‘命尙州玉洞書院配享位次釐正事置之’(『일성록』, 1808년 9월 1일).

87) ‘年代上下之說, 配享先後之論, 各有的據, 兩家子孫, 互相堅持. 一道士林, 便成爭辨, 猝難硬定以致歸一. 而若其因重修之意, 定序次之計, 事體苟艱, 先在黃氏, 抱出位版, 擅配他院, 擧措駭妄, 曲在全氏.’

위 내용과 같이 1808년 9월 순조의 하교에도 불구하고 황·전문의 시비는 그 후로 계속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또다시 불거진 옥동서원 시비에 대해 예조는 첫째 잘못은 重修를 계기로 서차를 바꾼 黃氏 문중에 있음을 지적하고, 위판을 다른 서원에 배향해서 ‘舉措駭妄’하게 한 잘못은 奎氏 문중에 있다고 하였다. 또, 본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그 사이에서 쉽사리 갑론을박할 수 없는 것이며, 서원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여러 선비의 공론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예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예전의 서차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고종도 윤허한다는 전교를 내린 것이다.

이후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에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정국이 옥동서원의 위차를 두고 분쟁을 벌일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864년 7월 대원군 집권 초기부터 疊設·私設 원사 철폐에 대한 시사 후 1865년(고종 2) 3월에 만동묘 철폐를 단행하였고, 1868년 8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미사역 원사에 대한 대대적인 훼철을 시행한 후 지방관이 서원 원장을 맡도록 하는 습이 내려졌다.<sup>88)</sup> 당시 상주의 원사 훼철 진행은 1차에 14개소의 원사가 훼철되었고, 2차 때는 3개소, 3차에는 5개소의 원사가 철폐되었다.<sup>89)</sup>

게다가 ‘원생 정원 준수, 서원 면세전 불인정, 서원 신설 금지, 사액서원에 한에서 追配만 허가한다’는 등의 서원 운영 방침이 결정되면서<sup>90)</sup> 사액서원에 대한 훼철도 예고된 상황이었다.<sup>91)</sup> 이처럼 대원군의 대대적인 원사 훼철 조치의 여파로 서원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두 문중은 더 이상 분쟁을 확산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79년간 이어온 황·전문의 위차 시비는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의 전말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옥동서원의 제향자 후손인 장수황문과 옥천전문, 두 문중 간 시비는 1788년(정조 12) 청액 활동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한성의 상소문에서는 배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근래의 경향이라는 자문에 따라 원위만 거론한 상소문을 작성하였다. 사서 전식 후손들은 한성의 경향에 불만을 성토했으며, 배향자, 즉 전식을 거론한 상소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이 상주 각 서원으로 청액 상소문의 부당함을 알리는 단자를 발행면서 시비는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옥천 전문의 뜻이 받아들여져 원·배위를 기록한 청액소가 작성되었고 시비는 5개월 만에 봉합되었다.

2차 시비는 1789년 1월 14일 옥동서원의 사액이 결정된 후 왕이 제문을 지을 때 정·배위의 사적 요청을 대비하여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적은 상주 옥동서원 측에서 작성하였는데, 옥천전문 측의 의견이나 향내의 공론을 취합하지 않고 사적을 세대

而大抵兩姓之先，俱以請名雅望，爲當時儒生所重，竟至脩享一院。則凡在依歸本院者，不當容易甲乙於其間，而位次之或上或下，本非損益於院享諸賢之德之行，有何後輩之軒輊，又況學宮之事，全屬多士公議。彼此子孫之各自紛紜，雖出爲先之誠，有欠共尊之義，本道查報，別無是非論斷之辭，則道內士論，亦是推知，臺疏中位次陞降，今姑依舊置之，何如。傳曰，允.’(『승정원일기』, 1868년 9월 5일).

88)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344~363쪽; 윤희면, 앞의 책, 집문당, 2004, 145~182쪽.

89) 이수환, 앞의 책, 일조각, 351쪽.

90) 『일성록』 1868년(고종 5). 5년 9월 3일조.

91) 1871년(고종 8) 3월에는 ‘文廟從享人’, ‘忠節大義之人’[도학과 충절인]을 제향하는 47개 원사를 제외하고 모두 철폐하였다. 상주는 남인계 옥동서원과 노론계 흥암서원 이외는 모두 훼철되었다.

순인 황희-황효현-전식-황뉴로 정리하였다. 이에 옥천전문 측이 사당 위차순(황희-전식-황효현-황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또다시 향내 각 서원으로 단자를 발행하면서 2차 시비가 시작되었다. 옥동서원에서 올린 세대순이 정조의 치제문에 반영되지 않았기에, 두 문중 간의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

1789년 4월 옥동서원의 추향례 준비과정에서 기존의 축식인 各祝 방식을 舍祝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 전식 후손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다시 시비가 점화되었다. 이 시비는 두 문중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되지 않자, 옥동서원 측은 향회를 개최하여 향내 父老와 유림에게 자문을 얻고자 하였으나 대부분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져 시비는 답보 상태에 놓였다. 결국 두 문중의 각축 시비는 향내 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4차 시비가 일어나게 된 전말을 추적하였다. 이 시비는 1804년(순조 4) 옥동서원의 廟宇를 수리하고 還安祭를 올릴 때 장수황문 측이 사당의 기존 위치를 변경하여 세대순으로 두면서 재발화되었다. 옥천전문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본래의 서차순으로 되돌려지지 않자 1804년(순조 4) 12월 옥천전문은 전식의 祠版을 도남서원의 소수 임원만이 허가한 상태에서 도남서원에 추배하였다. 전식의 사판을 도남서원에 추배한 사건은 상주 향론을 찬·반으로 양분시켰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결국 이 사태는 영남 유림으로 확산되어 영남 9개 수원에서 도남서원에 전식을 추배한 사건에 대하여 奉疏를 통해 왕의 비답을 받아 해결하라는 통문을 보내왔다. 이에 도남서원과 옥동서원 측은 단일 상소문을 작성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소청이 양분된 채 상경하였다. 같은 상소문을 두고 두 소청이 함께 복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성과 영남 유림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두 소청의 부담이 컸다. 결국 두 소청의 소수는 李東潑이 제시한 보합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보합안의 핵심은 전식의 위패를 잠시 魯東에 모신 것에 착안, 옥동서원의 분설로 인정하여 魯東에 전식의 위패를 봉안하자는 안이었다. 이로써 상주와 도내 유림의 향론을 양분시켰던 향전은 1년 7개월 만에 보합 되었다.

5차 시비는 1808년(순조 8) 1월 경상감사 尹光顏이 關文을 내어 전식의 위패를 옥동서원 廟宇에 본래의 序次로 봉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격분한 장수황문 측은 세대순 서차를 요구하는 稭文을 관에 올리고, 동시에 한성의 본손 황명환을 통해 세대순 서차를 요청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하였다. 옥천전문 측에서도 세대순 서차는 불가하다는 정문을 올려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순조는 황명환의 상소문에 대하여 ‘세대순 위치를 잡는 일을 그만두라’는 비답에도 불구하고, 1868년(고종 5) 9월 5일에 또다시 옥동서원의 위치시비 장계가 예조에 봉입되었다. 고종의 비답도 ‘본래 사당의 서차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함에 따라 두 문중 간 분쟁은 강제로 봉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서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서원이 향촌공동체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문중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옥동서원의 위치 시비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서원의 강학 기능은 점차 축소되었고, 제향 기능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향촌 사회에서 각 문중의 기득권 경쟁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자기 문중의 사회·경제적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하였다. 특히 향내 가문의 先祖 간 우열을 둘러싼 각종 시비, 서원의 위치 문제 등 서원을 중심으로 한 향전은 이러한 서원의 성격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옥동서원은 본래 제향자 후손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액서원으로 발전한 서원이라는 점에서 서원 운영에 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속종실록』,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疏廳日記』, 『本院日錄』, 『白玉洞雜錄』  
『玉洞書院變錄』, 『道南疏廳雜錄』, 『嶺南戊申倡義錄』, 都禹璟, 『明庵先生文集』,  
李晩燾, 『響山集』, 成近默, 『果齋集』, 黃景源, 『江漢集(集)』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정만조, 「영조 14년 안동 金尙憲書院 건립시비」, 『한국학연구』 1, 1982

장영민, 「1840년 寧海鄉戰과 그 배경에 관한 小考」, 『충남사학』 2, 1987

김동철, 「19세기말 咸安지방의 鄉戰」, 『한국문화연구』 2, 1989.

이수건, 「17, 18세기 안동지방 유림의 政治社會的 機能」, 『대구사학』 30, 1986

이수건, 「도산서원 院任職 疏通을 둘러싼 嫡庶간의 鄉戰」, 『민족문화논총』 12, 1991

이수건, 「조선후기 경주지역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민족문화논총』 15, 1994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한국국학진흥원, 2007

정진영, 「18세기 서원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영조 14년(1738) 안동 김상헌서  
원 건립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2, 조선시대사학회, 2015

채광수, 「18세기 말 19세기 초 英陽縣 雲谷影堂의 置廢 -조선후기 영남 復縣의 노론계 院  
宇 건립 사례-」, 영남학64,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원, 2018

## 「19세기 상주지역 남인 세력의 갈등 -상주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임근실(한국국학진흥원)

김순한 선생님의 논문은 18~19세기 상주 옥동서원의 位次 시비를 분석하여 지역내 남인 세력의 갈등을 고찰한 연구입니다. 조선시대 상주는 도남, 흥암, 근암, 옥동, 옥성 등 많은 수의 서원이 건립되었던 지역입니다. 옥동서원은 18세기 陞院하는 과정에서 상주지역 내부의 남인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옥동서원은 서원회 철령 시기에도 흥암서원과 함께 존속했던 서원으로 그 위상이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옥동서원은 상주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그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습니다. 김순한 선생님께서는 옥동서원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학계에 「조선후기 상주 옥동서원의 사액과 운영」(박사학위논문)이란 성과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옥동서원의 사액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학설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본 논문의 연구 방법론과 방향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보완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전체 논문의 구성과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은 본문을 ‘2장 옥동서원의 위차 시비 발단’, ‘3장 祠版 移安 사건을 둘러싼 갈등 확산과 보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장별 제목으로 볼 때는 2장에서 배경을 다루고, 3장에서 위차 시비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2장에선 1차~3차 시비의 과정을 확인하고, 3장에선 4차~5차 시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차 시비에서 사액을 위해 작성한 事蹟의 순서가 서원의 위차순서를 위배하고, 세대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5차 시비에선 국왕의 명으로 관련 시비가 강제로 종료되는 상황을 서술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제목의 시기는 ‘18~19세기’로, 2장 장제목은 본문의 의미를 담은 제목으로, 3장 장제목의 ‘보합’이란 용어도 수정한다면 본문의 내용이 제목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2. 본문의 분석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는 『소청일기』, 『본원일록』, 『백운동잡록』, 『옥동서원변록』, 『도남소청잡록』 등을 주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주 등을 통해 각각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한 자료도 있지만 『본원일록』, 『백운동잡록』 등은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자료의 특징을 추가적으로 서술한다면 옥동서원에 대한 보다 풍부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옥동서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각주 3)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본문에서 옥동서원의 사액을 추진하면서 시작된 제향인물간의 위치 시비를 주로 다루고 있기에, 서원의 연혁과 제향인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본문에 추가된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옥동서원의 사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논문의 2장에서는 옥동서원의 청액 과정과 사액 과정과 그 직후 나타난 위치 시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동서원은 8개월 만에 사액을 이루었고, 이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8세기 후반의 일반적인 서원의 청액 과정과 성공 여부는 어떠했는지, 옥동서원의 사액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액과 사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원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장수황문과 옥천전문의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였는지, 두가문 사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격차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논산 지역 서원의 교육과 특징

## -죽림서원을 중심으로-

김자운(공주대학교)

### 목차

1. 서론
2. 건립 이전 김장생의 황산 강학과 황산서원 제향인물의 선정 기준
3. 죽림서원의 강학 공간과 사계 예학이 반영된 ‘憲章堂’
4. 죽림서원의 강학 운영상과 특징
5. 결론

## 1. 서론

호서 지역은 예부터 사대부의 고장으로 일컬어졌다. 사대부가 우거하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다산 정약용은 ‘물길과 땀나뭇길, 오곡, 풍속, 산천의 경치’를 들고, 그 최적의 장소로 첫째는 영남, 둘째는 호서 지역을 꼽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생활하는 방도는 마땅히 먼저 물길과 땀나뭇길을 살펴보고, 다음은 오곡(五穀), 다음은 풍속(風俗), 다음은 산천(山川)의 경치 등을 살펴야 한다. 물길과 땀나뭇길이 멀면 인력(人力)이 지치게 되고, 오곡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흉년이 잦게 되고, 풍속이 문(文)을 숭상하면 말이 많고, 무(武)를 숭상하면 싸움이 많고, 이익을 숭상하면 백성이 간사스럽고 각박해지며, 힘만을 숭상하면 고루해서 난폭해지고, 산천이 흐릿하고 험악하면 빼어난 인물이 적고 마음이 맑지 못한 것이니, 이것이 그 대체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별장이나 농장이 아름답기로는 오직 영남(嶺南)이 최고이다. 그러므로 사대부(士大夫)가 당시에 화약을 당한 지가 수백 년이 되었으나, 그 존귀하고 부유함은 쇠하지 않았다. … 그 다음은 호서(湖西)가 뛰어났다. 그래서 회천 송씨(懷川宋氏), 이잠 윤씨(尼岑尹氏), 연산 김씨(連山金氏), 서산 김씨(瑞山金氏), 탄방 권씨(炭坊權氏), 부여 정씨(扶餘鄭氏), 면천 이씨(漣川李氏), 온양 이씨(溫陽李氏) 등이 모두 기반을 굳히고서 대대로 현달하였다.<sup>1)</sup>

한편, 명재 윤증에 따르면, 우계와 율곡 이후 훌륭한 師友가 가장 많이 배출되어 당시 호서 지역은 ‘송나라의 洛中에 비유된다’고 하였으며,<sup>2)</sup> 영조는 즉위 초 하직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충청감사 宋寅明에게 ‘호서는 사대부가 많은 곳이니 도내에 필시 뛰어난 인재가 많을 것이다. 비록 초야의 미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문벌과 지망을 가리지 말고 발굴하여 보고하라’고 당부하였다.<sup>3)</sup> 또 성호 이익은 ‘오늘날 사대부의 고장이라 이르는 곳은 영남이 으뜸이요, 그 다음은 호서, 호남이니 그러므로 임진왜란 때에 영남에서부터 의병이 일어나 나라에서 이를 힘

1) 『다산시문집』 권 14, 跋, 「跋擇里志」.

2) 『명재유고』 권 32, 跋, 「市南先生文集跋」.

3) 『국조보감』 권 57, 영조 즉위년.

입었고, 서북 지방에서는 조용했던 것이다.’<sup>4)</sup>라고 하였으며, 우암 송시열도 호서와 호남 양호 지역을 ‘사대부들이 밀집한 곳’이라고 평한 바 있다.<sup>5)</sup> 이와 같이 호서 지역은 예부터 산천의 조화, 서울과의 접근성, 뛰어난 학자 및 의병의 배출 등 자연지리적, 문화적, 인문적 여건으로 인해 사대부의 기반이 강한 지역이었다.

또 조선조 문과급제자의 52%가 충청도 인물이라는 통계가 있으며,<sup>6)</sup> 왜란과 호란에 많은 충절인물을 배출하고, 조선 중·후기에는 한국 예학을 주도했던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그리고 그의 고제인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등 산림계 인물들이 활동한 무대였다. 특히 호서 지역은 송시열과 송준길의 활동기를 거쳐 조선후기 전 기간 동안 서인-노론계의 주 활동무대이자 세력 기반으로 기능하였다.<sup>7)</sup> 이들의 향촌활동을 위해 정치적,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지가 바로 서원, 사우였다. 조선시대 호서 지역에 건립된 서원은 70개, 사우는 65개에 달하며, 그 중 31개 서원과 30개 사우가 노론 집권기인 숙종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sup>8)</sup>

호서 지역 서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립 추이, 지역적 특성, 사족동향, 정치적 성격 등을 주제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그 결과, 16세기 호서 지역에는 서인계 뿐 아니라 남인계의 학연이 공존하였음이 밝혀졌다. 또 17세기에는 김장생과 그 문인들을 중심으로 공주목을 대표하는 연산의 돈암서원이 호서 사림의 중심축이었다면, 18세기를 전후로 송시열과 그 문인들을 중심으로 청주목의 화양서원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였음이 밝혀졌다.<sup>9)</sup> 또 그동안 호서 지역 서원연구가 주로 노론계의 동향과 그 거점 서원에 집중되었음을 지적하며, 노소 분기 시기인 숙종대 노론계 서원과 소론계 노강서원의 건립 추이와 동향을 비교하여, 17세기에는 대체로 서인계가 노-소 동반의 모습이었으나 경종대 이후 소론계의 네트워크가 마련되고 18세기 후반 이후 소론계가 비로소 자기 결속력을 지니게 되었음이 밝혀지고,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을 분석하여 창건 과정, 사액과 문집 간행 및 중수 과정 등이 소개된 바 있다.<sup>10)</sup>

그런데 조선 서원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당파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건립 추이 및 사족 동향과 함께 강학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맥의 계승과 분화는 서원의 건립과 사액, 향촌사회의 지배질서와 향권, 자파 인물의 추향과 위치 분쟁을 통한 주도권 확보 등 정치사회적 역학관계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특정 학파의 학맥과 학설을 계승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매개체의 하나는 바로 ‘강학’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논산 지역은 논산에 최초의 서원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김상헌, 김집, 윤항, 윤순거, 송준길, 송시열 등 후일 호서사림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강학했던 輔仁堂(모곡서원 전신)부터,

4) 『성호사설』 권 3, 天地門, 「西關」.

5) 『사계전서』, 권 47, 부록, 봉안문, 「죽림서원 봉안문」[문인 송시열].

6) 이해준, 「조선후기 호서지역 사족동향과 서원·사우」,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2000, 125쪽.

7)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31쪽.

8) 전용우, 「충남지방 서원·사우의 건립 추이와 사족 동향」, 『충남의 서원·사우』, 충청남도, 1999, 42쪽 <표 1> 참조.

9) 전용우, 같은 글, 같은 책, 47-48쪽.

10)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제1호, 한국서원학회, 2011.

그 외 노강서원과 파평윤씨 종학 관련 연구로는 『노강서원·화양서원』(이남옥, 박용만 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17세기 중엽 파평윤씨 노종파의 종약과 종학」(이해준, 『충북사학』 11-12집,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0), 「문종과 공동체-파평윤씨 노종파 종족 운동의 재검토-」(김문용, 『동양고전연구』 59집, 2015),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종교육-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이연숙, 『역사와 담론』 52집, 호서사학회, 2009) 등이 있다.



호서예학을 대표하는 돈암서원, 소론을 대표하는 노강서원과 파평 윤씨 종학당, 18세기 호락 논쟁에서 호론의 핵심인물이었던 윤봉구가 한 때 강학을 주도했던 죽림서원 등이 병존하고 있어 기호학맥이 노론과 소론, 노론이 다시 호론과 낙론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조명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논산 지역에 건립된 서원은 총 11개이다. 99년에 간행된 『충남의 서원·사우』에는 논산 지역 서원이 10개소로 조사되었고,<sup>11)</sup> 충남의 마지막 서원을 경종 4년(1724) 홍주에 건립된 용계서원이라고 보았다.<sup>12)</sup> 그러나 성삼문의 외손 암천 박증의 유허지인 논산시 상월면에 그를 기리기 위해 1566년 건립된 강학처 보인당의 후신으로 모곡사를 거쳐 1805년에 건립된 모곡서원이 있다. 이를 포함하면 현 논산 지역 서원은 총 11개소가 된다.

그 중 본고에서는 돈암서원보다 앞서 건립된 서원이자 (현)논산 지역 최초의 서원인 죽림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3)</sup> 죽림서원은 처음 ‘황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율곡과 우계의 위패를 모시고 사계 김장생이 건립을 주도, 그의 핵심 문인들이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돈암서원에 앞서 양호지역 기호문인들의 거점이자 학문과 교류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죽림서원은 호서와 호남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조선후기까지 양호 지역의 都會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서원 인근에 사계와 우암의 강학처인 임이정과 팔괘정이 있었다. 이들 사후 두 사람을 추배하고, 또 서원을 중건할 때 율곡의 은병정사, 주희의 창주정사의 예를 따라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추향함으로써 ‘도학서원’으로서 명분을 확보하였다. 1665년에는 주희의 ‘죽림정사’를 따라 ‘죽림’으로 사액받음으로써 ‘조광조·이황·이익·성혼·김장생·송시열’ 뿐 아니라 주희로까지 이어지는 도맥을 계승한 도학서원으로서 상징적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 또한 호서 지역에 사계 김장생의 예학이 최초로 구현된 서원 건축물은 바로 사계가 건립을 주도하고 직접 설계한 죽림서원의 강당 ‘憲章堂’이다. 현존하는 서원 건축물 중 사계의 예학이 구현된 건물이 돈암서원의 강당 응도당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응도당이 바로 죽림서원의 강당을 그대로 모방하여 지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죽림서원에는 조선후기 강학 운영상을 보여주는 규약류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원군 때 훼손된 이후 죽림서원은 돈암서원에 비해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연구 성과도 매우 미진한 형편이며 일부 잘못된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 예로 김장생이 『儀禮』와 『주자대전』의 제도를 고증하여 직접 설계한 강당 ‘憲章堂’을 강당이 아닌 ‘동재’로 기록하거나, 제향인물의 향사시기를 김장생이 조광조·이황·이익·성혼의 4현보다 먼저 향사된 것으로 잘못 보기도 하고,<sup>14)</sup> 심지어 1965년 복원된 건축물과 그 표기를 토대로 죽림서원에는 애초에 강당 없이 사묘와 재실만 있었다거나,<sup>15)</sup> 사계와 우암의 강학처인 임이정과 팔괘정이 강당 역할을 대신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16)</sup>

이에 본고에서는 황산서원 건립 이전 김장생의 황산 우거와 황산에서의 강학 전통, 건립 초기 지역과 무관한 인물의 제향으로 여러 비판에 직면했던 황산서원이 이후 제향인물의 선정 기준과 명분을 확립함으로써 도학서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가는 과정, 김장생이 직접 설계한

11) 구산서원, 금곡서원, 노강서원, 돈암서원, 봉곡서원, 죽림서원, 충곡서원, 행림서원, 효암서원, 휴정서원의 10개이다. 이들 서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충남의 서원·사우』 2부 6장 참조.

12) 전용우, 같은 글, 같은 책, 45쪽 참조.

13) ‘현재 논산 지역’이라고 한 이유는 건립 당시 죽림서원은 호서 지역이 아닌 호남의 여산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죽림서원의 현 소재지는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이다.

14) 『충남의 서원·사우』, 충청남도, 1999, 327-328쪽.

15) 이왕기, 「충남지방의 서원 건축양식」, 『충남의 서원·사우』, 91쪽.

16) 이현우·노재현, 「논산 임이정과 팔괘정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2013.

황산서원의 강당 ‘憲章堂’ 및 조선후기 죽림서원의 강학 운영상과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논산 지역 서원의 교육과 특징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논산 지역 여타 서원들의 강학활동에 대한 비교,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겠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로 이번 발표에서는 그 일환으로 우선 죽림서원을 다루고 산적한 과제는 후속 연구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 2. 건립 이전 김장생의 황산 강학과 황산서원 제향 인물의 선정 기준

현 논산지역에 건립된 서원은 총 11개소로, 그 중 죽림서원은 논산에 최초로 건립된 서원이다. 논산 지역 서원 11개소의 목록과 제향 인물을 건립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논산 지역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연도(사액)	제향인물
죽림서원	1626(1665)	조광조·이황·이이·성혼·김장생·송시열
돈암서원	1634(1659)	김장생·김집·송준길·송시열
노강서원	1675(1682)	윤항·윤문거·윤선거·윤증
충곡서원	1682	박팽년·성삼문·이개·유성원·하위지·유응부·김익겸 등 18인
금곡서원	1687	김수남, 성삼문, 조계명
휴정서원	1699	혜철 이전: 유무·유문원·이항길·김정망·권수 1919년 복건: 송익필·김공휘·김호·이항길·유무·김상연·김진일·김우택
구산서원	1700	윤전·윤순거·윤원거·윤문거
봉곡서원	1712	이계맹·이순인·남명환·진극효·남두건
효암서원	1713	강응정·서악·김문기·김성휘·양응춘·남준·김필태
모곡서원 (보인당)	1805 1566	박증·이필태·성삼문
행림서원	1867	서악·이소

죽림서원은 김장생의 주도로 1626년 이이와 성혼의 위패를 모시고 여산부 황산(현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황산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 김장생 사후 1648년 그를 추향하였다. 1663년 중수 시에는 조광조와 이황을 추향하고 1665년 ‘죽림’으로 사액되었으며, 1695년 송시열을 추배하였다.<sup>18)</sup>

김장생이 처음 서원터로 강경의 황산을 택한 것은 ‘兩湖가 교차하는 지점에 처해 있고 江山의 景勝이 있으며, 또 溪上和 아주 가깝기 때문’이었다.<sup>19)</sup> 조선후기 성해응도 이 지역에 대해 ‘노성·석성·연산·은진은 아득히 넓어서 막히는 곳이 없다. 바다 조류가 강경까지 올라와 들판의 여러 하천까지 영향을 미쳐 배가 오가는 이로움이 있다’<sup>20)</sup>고 묘사한 바 있다. 이처럼, 황산이 위치한 강경은 금강의 결절점으로 회덕·공주·부여 등지의 유림이 모이고, 인근 연산과 노성의 학자들은 물론 호남의 유림들까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sup>21)</sup> 이 같은 이유로

17) 모곡서원을 제외한 10개소의 목록은 『충남의 서원·사우』를 참고하였음.

18) 『사계전서』 권 47, 부록, 「院享錄」, 竹林書院 조.

건립, 추향, 사액 등 건립 이후 죽림서원의 역사적 변천은 이경동의 연구 참조(「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제9호, 한국서원학회, 2019).

19) 『사계전서』 권 44, 부록, 「연보」, 병인년 3월조.

20) 『研經齋全集』外集 권 64, 雜記類, 「名塢志湖西」.

21) 이철성, 「淵齋宋秉璿의 黃山舟遊와 문화경관 인식 -「遊黃山及諸名勝記」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김장생은 황산서원이 건립되기 훨씬 전인 16세기 후반 무렵부터 이곳에 왕래하며 문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臨履亭記」에 따르면, 황산은 광산 김씨 세거지인 연산에서 40리 떨어진 곳으로, 서원이 건립되기 이전부터 김장생이 황산 기슭에 정자를 지어 문인들에게 강학하였고, 연산에서 왕래하며 거처하기 위해 정자 아래 따로 집을 지었으며, 이후 황산서원은 정자의 서쪽에 세워졌다고 한다.<sup>22)</sup> 또 「書院事績」에 따르면, ‘황산서원 건립 이전에 사계선생이 이미 이곳에 우거하면서 臨履亭을 건축하였으니 정자는 서원 남쪽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3)</sup>

김장생의 정자가 16세기 후반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김장생의 ‘黃山亭’이라는 시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스승이었던 구봉 송익필의 문집에 김장생이 지은 ‘黃山亭’이라는 시에 차운하여 지은 시가 있고,<sup>24)</sup> 이어 구봉의 시에 김집이 다시 차운한 시<sup>25)</sup>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 김장생이 지은 정자의 이름은 현재 명칭인 ‘臨履亭’이 아니라 ‘黃山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臨履亭’은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장생이 ‘황산정’을 지은 시기는 송익필(1534-1599)의 물년을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1599년 이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1596년 여러 차례 관직이 내려졌으나 부임하지 않고 한 때 연산에 낙향하여 지낸 적이 있는데 황산의 정자도 이 무렵 지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즉, 김장생은 서원 건립 훨씬 전인 1596년 무렵부터 정자를 지어 연산과 황산을 오가며 강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벼슬에 나아갔다 사직 후 낙향하기를 반복하다가 1613년, 동생이 계축옥사에 연루되었다 풀려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여 10년 넘게 학문과 강학에만 몰두하였다. 황산서원 건립이 논의된 것은 바로 이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반 무렵, 문인들이 점점 많이 찾아오자 황산의 정자가 너무 협소하여 더 넓은 강학공간이 필요했고, 이 때 강학공간을 마련하는 김에 울곡의 사당을 함께 건립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논의는 1606년에 있었다.

1606년 문인 송흥주, 최명룡 등이 김장생과 상의하여 서당 몇 칸을 지어 강학하는 장소로 삼고자 황산강가에 강학처와 울곡의 사당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곧 동인 세력의 저지로 인하여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후 서원 건립이 다시 추진된 것은 서인이 정계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한 인조 4년(1626)이었다.<sup>26)</sup> 또 황산에는 16세기 후반 이래 이미 김장생의 강학 전통이 있었고, 호서와 호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연산 출신이었던 김장생이 호서 뿐 아니라 호남의 문인들까지 아우르며 교유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곳에 서원을 건립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건립과 동시에 제향인물인 울곡과 성혼이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비판에 직면하자, 김장생은 연고가 전혀 없던 춘천에 퇴계를 제향하고, 나주와 아산에도 지역 인물이 아닌 5현의 서원이 건립되었으며, 성주에 정자와 주자를 제향한 서원 등의 예를 들며 제향인물 선정 기준이 꼭 지역적 연고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또 이후 1648년 김장생,

제70호, 고려사학회, 2018, 321쪽.

22) 『죽림서원지』, 「臨履亭記」.

23) 『죽림서원지』, 「書院事績」.

24) 『龜峯集』 권 1, 七言絶句, 「次金希元黃山亭韻 三首」.

25) 『신독재전서』 권 1, 詩, 「次次黃山亭韻 二首」.

26) 『사계전서』 권 44, 부록, 「연보」, 병인년 3월조. 이 해 서원 건립이 추진된 또 다른 배경으로 이경동은 이보다 앞서 울곡의 강학처인 해주에 문인들이 추진한 은병정사 재건 등 울곡 문인들의 추송 활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시 동인세력의 서원 건립 저지에 대한 내막은 이경동의 연구 236쪽 참조(이경동, 같은 글).

27) 『사계전서』 권 3, 書, 「答宋明甫」.

1663년 조광조와 퇴계, 1695년 송시열의 추향이 차례로 이어지자, 지역과 무관한 4현의 제향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사계 문인들은 그 근거를 율곡과 주자의 고사에서 찾고, 오히려 이를 ‘도학서원’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게 된다.

송시열은 ‘文元公이야말로 일찍이 이곳에 왕래하였거니와, 文正·文純·文成·文簡 같은 선생들이야 어찌 여기에 향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옛날 무원의 제현들이 周子와 程子를 제사할 때 주자가 처음에는 ‘이는 어느 禮에 의거한 것이며, 어느 義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다가 마침내 그 일을 인가하고 그 祠宇에 대해 記를 썼다. 그때 무원 제현의 말에 ‘濂溪의 학문은 前聖들이 주고받은 도통에 부합되고 또 하남의 두 정 선생을 얻어서, 그 흐름이 온 천하에 미쳐 천하가 마치 바람에 쓸리듯 추향하였으니, 비록 그분이 우거하던 땅이나 태어난 고향이나 游宦하던 나라가 아니더라도 그 학문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사당을 세워서, 학자들로 하여금 낮과 밤으로 침상하고 흥기하게 해야 한다. 지금 이곳에 사당이 이미 낙성되었는데, 자네가 어찌 여기에 대해 한마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무원 제현의 이 말이 이미 주 부자의 뜻과 부합되어 마침내 주 부자가 文字를 지어 이를 빛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네 분 선생을 이곳에 제향하는 것은 그 유래가 있다.”<sup>28)</sup>

또 우리나라의 儒賢 중에 마땅히 침상하고 흥기할 만한 분이 많은데, 유독 文正·文純·文成·文簡 4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율곡의 소현서원 고사를 따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무릇 옛날 문성공이 일찍이 소현서원을 지어 朱子를 모시고 文正·文純을 배향했으니, 이는 반드시 깊은 의의가 있었을 것이다. 文成·文簡 같은 분은 文元公이 높이던 바이니, 지금 네 분의 제사도 문성공이 소현서원에서 하듯 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후생들이 감히 父祖의 年甲이나 비교하려는 뜻을 둔다면 그 옳지 못한 죄가 어떠하겠는가.”<sup>29)</sup>

그는 지역과 무관한 네 분을 제향한 것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창주정사와 율곡의 소현서원 고사를 계승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윤증은 ‘사당을 세우는 연원은 각각 그 道와 德의 크기, 공적과 은택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존송하고 보답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학문이 선현을 계승하고 도가 후학을 계도할 만하며 생민에게 끼친 공적과 만세에 베푸는 은택이 지대하여 당대나 후세로부터 공히 宗師로 인정받는 분의 경우에는 연고에 구애되지 않고 천하에 두루 사당이 세워졌음’을 지적하며 율곡과 우계, 정암과 퇴계가 바로 그런 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율곡과 우계의 덕행과 공적은 거의 河南의 程氏 형제와 견줄만하며, 사계는 창주정사와 석담서원의 규례를 준수하여 황산서원을 설립함으로써 선현을 존송하고 표장한 공이 있으며, 창주정사에서 성인 공자를 종주로 하여 周子와 程子 등 여러 선생을 배향한 것이나 석담서원에서 율곡이 朱子를 종주로 하여 정암과 퇴계 두 先正을 종향한 것은 전후로 같은 맥락’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황산서원에 제향된 오현에 대해 ‘우리 도가 동방으로 온 뒤로 정암이 이것을 창도하고 퇴계가 화답하였으며, 우계와 율곡에 이르러서 크게 천명되었고 우리 사계에게 전해져서 폐단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이 사당이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sup>30)</sup>

28) 『송자대전』, 권 171, 碑, 「竹林書院廟庭碑」.

29) 같은 글.

여기서 윤증은 지역과 무관한 제향 인물 의혹에 대하여 해명 차원을 넘어 ‘주자로부터-정암-퇴계-우계-율곡-사계’로 이어지는 ‘도통의 정맥을 계승한 곳’으로 황산서원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송시열도 황산서원 앞의 바위에 주자의 시 “길이 인간 세상의 일을 버리고, 우리의 道를 창주에 부치노라[永棄人間事 吾道付滄洲]”라는 열 글자를 새겨 황산서원은 주자의 도를 계승한 곳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였다. 황산서원에 왔다가 이 석각을 본 우암 문인 송상기도 ‘무한한 창주 고금의 지취, 백년 동안 우리의 道 잘못되지 않았구나’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서도 황산서원의 도통의식을 엿볼 수 있다.<sup>31)</sup> 또 17세기 중반 시남 유계도 황산서원을 ‘본원은 동방 도통의 정맥이 있는 곳이니 사체가 정중하며 더욱 자별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32)</sup>

즉, 제향인물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해명’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도통’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이 같은 ‘도통서원’으로의 인식과 위상은 황산서원이 사액 받을 때 무엇보다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1664년 황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예조의 啓目에서, “황산서원이 창립된 연유는 다섯 분의 賢臣이 道學이 갖추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고, 이듬 해 다시 額號를 청하면서는 “여산에 있는 황산서원은 우리나라의 名賢들이 모두 배향된 곳입니다”라고 하였다. 즉, 사액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황산서원에 제향된 5현이 모두 조선을 대표하는 명현이자 도학자로 공인받은 인물이라는 데 있었다.

이 같은 도통의식은 18-19세기로 가면서 점차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말에는 죽림서원의 제향 인물 선정 기준에 대해 ‘오직 도통을 중심으로 설립한 서원이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며 죽림서원을 ‘도통서원’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죽림서원은 전적으로 도통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선정신 김장생과 송시열을 제외하면 모두 직접 머물렀던 곳이 아닌데도 네 분의 선정을 함께 배향하였습니다. 옛날 婺源의 諸賢이 周敦頤와 程子를 제사하려 할 때 朱夫子께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끝에 가서 허락했던 것도 濂溪의 도가 前聖과 합치되고 두 程子の 학문은 堦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고 머물렀던 곳도 아니며 벼슬살이를 했던 고장도 아니지만 혐의쩍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림서원에 四賢을 배향한 것은 여기에서 의미를 취했습니다.”<sup>33)</sup>

1839년에는 우의정 趙寅永이 ‘이단이 성행하는 것은 正學이 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니 선현을 表章함으로써 人士를 권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헌종에게 각 도서원에 치제를 청하는 과정에서, 죽림서원을 도통서원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신이 지난번 척사윤음을 찬진하였을 때 正學을 밝힘으로써 異端을 물리치는 근본으로 삼은 것은 마치 중국이 융성하면 오랑캐가 감히 업신여기지 못하고, 元氣가 충실하면 질병이 침범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先賢을 表章하여 人士를 勸勉하는 방도에 이르러서는 진실로 이러한 때의 先務로 삼아야 합니다. 각도의 서원 가운데 관서의 仁賢, 해서의 紹賢, 松京의 崧陽, 畿輔의 道峰, 湖南의 竹林, 嶺南의 玉山·陶山, 湖西의 華陽·黔潭의 여러 곳은 모두 道統과 관계되는 분을 제향하는 곳인데, 우리 성상聖上께서 登極하신 후에 사모하시는 뜻을 전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일례로 致祭하는 恩典이 있게 되면,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더하고 도덕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sup>34)</sup>

30) 『명재유고』 권 31, 雜著, 「黃山書院重修通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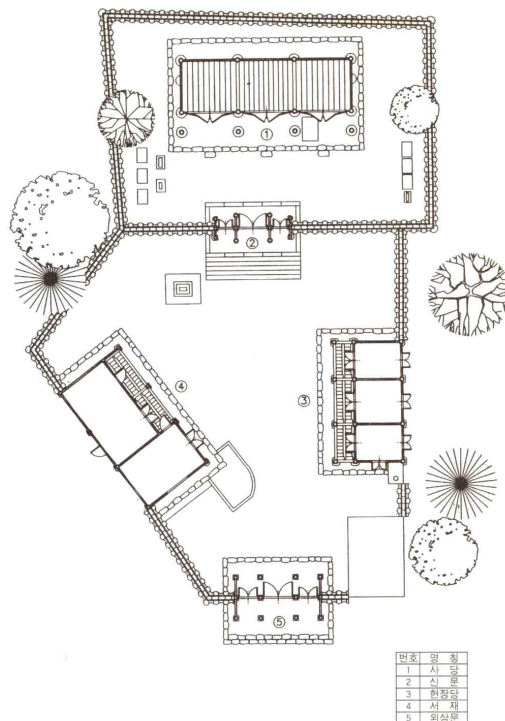
31) “無限滄洲古今趣 百年吾道未曾非”(『玉吾齋集』 권 2, 詩, 「黃山」).

32) “本院 吾東道統正脈之所在 則事體鄭重 尤有自別”(『市南別集』, 권 7, 잡저, 「竹林書院節目」).

33) 『일성록』, 정조 21년 정사(1797) 5월 12일(신해).

그는 각 도의 서원 중 도통과 관계되는 분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9개 서원을 언급하였는데, 죽림서원을 호남에서 유일한 도통서원으로 거론하였다. 즉, 19세기에 이르러 지역과 무관한 제향인물의 선정은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아니라 ‘도통서원’으로 자부하고 공인받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17세기 초반 제향 인물 선정 기준에 대하여 불거졌던 의혹과 논란은 이후 송시열, 윤증 등 사계 문인들이 그 근거를 율곡과 주자의 고사에서 찾고 이를 통해 ‘도학서원’으로서의 정통성이라는 논리와 명분을 확립함으로써 ‘해명’을 넘어 ‘도통’의 차원으로 전환되었고, 18-19세기에 이르러 제향 인물 선정 기준이 오히려 ‘도통서원’으로 공인받는 근거로 작동하였다.

### 3. 죽림서원의 강학 공간과 사계 예학이 반영된 ‘憲章堂’



<죽림서원 배치 및 평면도><sup>35)</sup>

현재 복원된 죽림서원의 구조는 위 그림과 같다. 그런데 위의 건물 중 ③ ‘헌장당’은 동재로 알려져 있으며, 『죽림서원지』에 수록된 사진에도 동일하게 ‘헌장당’을 동재라 기록하고 있다.<sup>36)</sup>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서원 건축 구조에서는 대개 강당이 사당과 수평으로, 동서재는 강당과 수직으로 배치되므로, 사당 전면에 수직으로 우측에 놓인 ‘헌장당’을 동재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선으로 틀어진 서재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으나, 양재

34) 『헌종실록』, 헌종 5년 기해 11월 10일(임인).

35) 『충남의 서원·사우』, 335쪽.

36) 『죽림서원지』, 6쪽.

중 왜 동재에만 ‘헌장당’이라는 당호가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았다.

“강학공간의 동·서 양재는 서로 마주보면서 배치하고 있다. 대개 양재는 수평, 수직을 맞춰 대면하는데 여기서는 서재가 사선으로 틀어져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치는 아마도 고종 때 훼손당한 후 나중에 복원하면서 대지조건에 따라 배치하려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원이 민가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경우 대지조건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연한 배치형태가 되지 못한 것 같다.”<sup>37)</sup>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에서는 ‘죽림서원에는 애초에 강당 없이 사묘와 재실만 있었다’거나,<sup>38)</sup> 사계와 우암의 강학처인 ‘임이정과 팔괘정이 강당 역할을 대신 수행’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sup>39)</sup> 그러나 최근 이경동의 연구에서는 ‘주자대전 석궁’의 예를 따라 지었다는 기록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강당이 없었다는 기존의 추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죽림서원의 강당은 돈암서원 응도당의 규모와 유사하게 건립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또 사우 전면에 위치한 건물 두 채가 동서재라면 왜 동재에만 ‘헌장당’이라는 당호를 썼는지 해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sup>40)</sup>

한편, 서원지에는 헌장당을 동재로 표기한 곳도 있으나, 「書院事績」에는 ‘고종 8년에 훼손되었다. 그 강당을 <憲章堂>이라 하고 문을 <由道門>이라고 하였는데, 훼손령에 따라 철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1)</sup> 또 죽림서원의 규약 ‘講學條’에는 ‘독서하되 강습하고 토론하는 것이 서원의 제일가는 일이다. 우암선생과 도암선생도 여기에 뜻을 두어 강학을 부지런히 시행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한 두 차례 강회를 개설하고 파하는 데 그치니 엄연한 憲章堂이 장차 쓸모없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여 ‘헌장당’이 강당임을 알 수 있다.<sup>42)</sup>



<1653년의 ‘黃山之會’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黃山記帖》 중 황산서원도>

37) 『충남의 서원·사우』, 333쪽.

38) 이왕기, 「충남지방의 서원 건축양식」, 『충남의 서원·사우』, 91쪽.

39) 이현우·노재현, 「논산 임이정과 팔괘정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2013.

40) 이경동,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제9호, 한국서원학회, 2019, 238쪽 각주 11 참조.

41) 『죽림서원지』, 「書院事績」.

42) 『죽림서원지』, 「規約」, 講學條.

위 그림은 1653년 황산서원에서 있었던 ‘黃山之會’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한 《黃山記帖》의 제 7면에 그려진 황산서원도이다. ‘黃山之會’는 1653년 사계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김경여가 사망하자 장례식에 모인 송시열, 윤선거, 유계 등 동문들이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 황산서원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근 산수를 유람하며 황산서원에서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 때 송시열과 윤선거 사이에 심한 논쟁이 있어 조선 유학사에서 노소분기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 서화첩은 이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유계의 기문, 송시열의 발문, 참석자들의 시문 및 당시 유람했던 여정을 그림으로 그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권성원의 손자 권상하가 1680년에 제작한 것이다.<sup>43)</sup>

위 서원도를 통해 17세기 황산서원의 건축 구조는 지금과 전혀 달랐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당 앞에 강당이 존재하였으며, 강당의 배치는 현재 복원된 동재의 자리가 아닌, 사당과 수평으로 배치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憲章堂’은 김장생이 『儀禮』와 『주자대전』의 제도를 고증하여 직접 설계한 죽림서원의 강당으로, 돈암서원에 앞서 사계 예학이 반영된 호서지역 최초의 서원 건축물이다. 김장생이 현장당을 구상하게 된 과정은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은주 삼대의 가옥 제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주자가 저술한 釋宮篇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옛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비 중에 뜻이 있는 사람이 적다 보니, 대부분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경禮經에서 말한 가옥의 명칭과 출입문의 向背에 대해서는 무지하게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데, 이는 실로 비루한 습속이라 하겠습니다. 사계 선생은 이 점을 두렵게 여기시고 이 서원을 건립할 때 실로 옛 제도를 상고하여 지침을 내려 주었으니, 지금 사당 앞에 있는 講堂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방(房), 실(室), 당(堂), 숙(塾)의 위치와 오(奧), 요(寔), 환(宦), 누(漏)의 명칭을 차례대로 한결같이 옛 명칭 그대로 복구하여 분명하게 고제(古制)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그 뒤에 돈암서원이 또한 이를 모방하여 만든 서원입니다. 이는 대체로 전에는 없던 것으로 동방을 통틀어 오직 이 두 곳에만 있습니다.”<sup>44)</sup>

윤증은 1663년에 작성한 「황산서원중수통문」에서 ‘하은주 삼대의 가옥 제도가 주자의 「釋宮篇」에 상세히 실려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예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므로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예경에서 말한 가옥의 명칭과 출입문의 향배도 전혀 모르니 실로 비루한 습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김장생이 죽림서원 강당을 지을 때 건물의 위치와 명칭을 古制에 따라 그대로 복구하여 눈으로 보고 몸소 느끼게 해주었으며 후에 돈암서원의 강당은 바로 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송시열도 「돈암서원비」에서 돈암서원의 강당 응도당은 ‘일체 죽림서원 강당의 유법을 따랐음을 밝히고, 이는 김장생이 죽림서원 강당을 지을 때 『儀禮』와 『朱子大全』을 고증하여 지은 것으로, 이로써 상고하지 못했던 옛 제도를 비로소 손바닥 보듯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43) 이수경, 「송시열과 윤선거 분쟁의 기록 - 동원컬렉션 《黃山記帖》 제작 배경 및 의의」, 『東垣學術論文集』 13, 2004(위 그림은 188쪽에서 스캔); 『宋子大全』 권 148, 跋, 「書黃山會遊圖後」; 『市南集』 권 19, 記, 「黃山記遊」.

44) 『명재유고』 권 31, 雜著, 「黃山書院重修通文」.



“사당 앞에 강당 다섯 칸이 있는데, 옛 廡屋의 제도를 써서 지었다. 문원공이 일찍이 《儀禮》와 《朱子大全》을 고증하여 죽림서원에 강당을 창건하였는데, 이제 일체를 그 遺法에 따라 지었다. 그리하여 방(房), 실(室), 당(堂), 상(廂), 서(序), 점(玷), 요(突), 이(廬), 오(奧), 루(漏), 의(依), 진(陳), 호(戶), 유(牖)를 갖추고는 그 이름을 ‘凝道堂’이라 하였으니, 상고하지 못하였던 옛 제도를 손바닥을 보듯이 환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응도당 양쪽 곁에 齋가 있는데, 좌측은 ‘居敬齋’라 하고 우측은 ‘精義齋’라 하였으니, 주자의 晦堂 양쪽 협실의 뜻을 취한 것이다. 또한 사면에는 담장을 두르고 문을 만들었으며, 문 좌우에는 글방이 있는데, 이는 와서 배우는 小子들을 거처하게 하는 곳이다.”<sup>45)</sup>

죽림서원에 앞서 김장생이 구상한 서원 건축물이 또 있다. 1610년 김장생이 철원군수로 재임할 당시 강원도 관찰사 申湜이 춘천에 퇴계의 서원을 건립하면서 爾雅의 釋宮圖를 모방하여 강당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그 제도를 알지 못해 김장생에게 가르침을 청하자, 역시 『儀禮』와 『朱子大全』에 의거하여 그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한다.<sup>46)</sup> 이는 1610년 건립되어 1648년 ‘文巖’으로 사액되고 대원군 때 翬철된 文巖書院이다.

실제로 19세기까지 현장당에서 강학했다는 기록이 몇 군데 보인다.<sup>47)</sup> 또한 현장당은 강학 목적 외에 ‘習禮’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었다. 향사일에 헌관과 집사를 분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 본 의례를 거행하기 전에 태학과 도봉서원의 예에 의거하여 ‘현장당’에 위패를 설치하고, 집사들로 하여금 儀禮를 미리 익히도록 하여 실제 의례를 시행할 때 생소한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향사일에 設講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매년 설강을 마친 뒤에는 ‘憲章編’을 읽도록 하였다.<sup>48)</sup> 이 때 ‘현장편’은 죽림서원 강학에 관련된 운영 규칙 혹은 강당에서 공부할 때 지침으로 삼을만한 글을 따로 만들어 현장당에 걸어두고 ‘현장편’이라 이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745년 도암 이재의 문인 양응수가 죽림서원에 방문하였을 때 ‘선생의 조약이 서원 벽에 걸려있었는데, 스승이 손수 쓰신 것’이라고 하였다.<sup>49)</sup> 이로부터 한 해 전인 1744년 도암이 유숙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당시 이재는 ‘죽림서원 원장을 맡고 있었고, 서원에서 절목을 제정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멀리 있어 서원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니 먼저 초고를 보내오면 다듬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sup>50)</sup> 죽림서원 규약 ‘강학조’의 첫 번째 조항에도 ‘陶菴 선생의 절목이 있으니 달마다 시행하여 강학이 폐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현장편’은 아마도 이재가 원장 재임 시 죽림서원 강학 규정을 위해 1744년에 작성한 절목이 아닐까 추정된다. 그러나 절목의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1871년 죽림서원이 翬철된 이후에는 김장생과 송시열이 지었던 정자 임이정과 팔괘정이 강학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서 ‘임이정과 팔괘정이 강당 역할을 대신 수행하였다’고 추정한 것은 翬철된 이후의 사정이다. 「書院事績」에 따르면, 翬철 이후에는 사림들이 서원터에 단을 설치하고 향사를 치르다가 경술국치 후에는 이조차 폐지되어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1)</sup> 그러나 翬철 당시 서원 건물만 철거되고 정자는 철거되지 않았다.

45) 『사계전서』 권 49, 附錄, 「遯巖書院碑」[宋時烈].

46) 『사계전서』 권 43, 附錄, 『연보』, 경술년(1610, 광해군2) 선생 63세; 『사계전서』 권 3, 書, 「答宋明甫」.

47) 『立齋集』 권 21, 附錄, 「行狀」[宋秉璿]; 『淵齋集』 권 46, 「叔父立齋先生行狀」 등.

48) 『죽림서원지』, 「規約」, 享祀條.

49) “翌日到黃山書院 瞻拜六先生 又見先生條約 揭在壁上 感懷百端”(『白水集』 권 1, 書, 「上陶庵先生」); “至黃山 瞻拜竹林書院 院壁所揭條約 迺師門之手寫也”(『白水集』, 「年譜」).

50) 『陶菴集』 권 10, 書, 「與俞子恭 肅基」(甲子).

51) 『죽림서원지』, 「書院事績」.

임이정은 1850년 호서관찰사 심승택의 지원을 받아 한 차례 중수한 뒤 강학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서원 훼손 이후 1875년에는 정자의 연원을 기록하여 비석을 세웠으며, 1884년에는 유생들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다시 중수하면서 마루를 조금 확장하여 강학 공간 및 향사일에 거처로 사용하였다.<sup>52)</sup>

#### 4. 죽림서원의 강학 운영상과 특징

김장생 사후 17세기까지는 송시열, 유계, 이유태, 윤증 등 김장생과 송시열의 핵심 문인들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송시열이 황산으로 이거한 1662년 이전까지는 유계와 윤증이 강학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계는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 선왕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1652년 무렵부터 다시 관직에 나간 1658년까지 향리에서 학문과 강학에 몰두하였는데, 이때를 전후로 황산서원의 원장을 맡아 강학을 이끌고 「竹林書院節目」을 지었다. 송시열·송준길·이유태·윤선거와 함께 忠淸山林 五賢으로 불리며 사람의 중망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1659년 1월에는 윤증이 사우들과 수 개월동안 朱子書 강회를 열고, 강회 내용을 기록하여 ‘筭疑’를 남겼다.<sup>53)</sup> 1662년 10월 송시열이 황산으로 이거하여 우거하기 시작하면서 황산서원의 강학은 송시열이 주도하였다. 이 무렵 호남관찰사 趙龜錫이 황산 강가의 암석 사이에 정자를 하나 세웠는데 송시열이 황산으로 이거한 뒤 文會를 여는 장소로 이 정자를 사용하면서 ‘八卦亭’이라 이름하였다. 이때부터 송시열은 정자와 서원을 왕래하며 황산서원의 강학을 상당 기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으로 분향례와 상읍례를 행하고 강학했다는 것으로 보아 강학의례와 절차가 체계화된 강학 규범이 이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sup>54)</sup> ‘노선생[송시열]이 작성한 규약이 전후로 확실하다’고 한 강학조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sup>55)</sup>

이듬해 1663년 12월에는 대대적으로 서원을 중수하면서 정암, 퇴계를 추향하는 大享禮를 거행한 뒤 송시열이 講席에 올라 「玉山講義」를 강론하였다. 당시 참여한 유생이 1천 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sup>56)</sup> 이후 윤증이 이유태에게 보낸 편지에 죽림서원의 일에 대해 강론하는 사이에 유생들에게 본인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에 따르면, 1669년 무렵에는 초려 이유태가 강학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7)</sup>

한편, 유계가 지은 「竹林書院節目」 중 정재일의 강학 규정에 ‘文義가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곳은 우암의 杖履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문목을 들고 가서 질의한다’<sup>58)</sup>는 기록에 따르면, 이 절목은 적어도 송시열이 황산으로 이거한 1662년 이후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유계는 1664년에 사망하였으니 1662년에서 1664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목은 총 9개

52) 『죽림서원지』, 「臨履亭記」; 「臨履亭重葺記」.

53) 『명재유고』, 「연보」 권 1, 승정 32년, 기해.

54) 『鳳谷集』, 권 5, 行狀, 「祖考尤庵先生家狀」. 이경동의 연구에서는 송시열이 아닌 그의 자제 宋疇錫이 이 때 강학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잘못 해석한 것이다(이경동, 같은 글, 243쪽). 또 송주석은 송시열의 자제가 아니라 손자이다.

55) 『죽림서원지』, 「規約」, 講學條.

56) 『송자대전』 부록, 권 5, 「연보」 4, 毅宗皇帝 36년 계묘; 『鳳谷集』, 권 5, 行狀, 「祖考尤庵先生家狀」.

57) 『명재유고』 권 9, 書, 「上草廬」(己酉).

58) “文義疑晦處 尤庵杖履 方住邇地 問目就質”(『市南別集』, 권 7, 잡저, 「竹林書院節目」).

조항으로, 주로 강학의 운영과 교육과정 및 거재유생들의 생활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강학 규정 중 공식적으로 부과된 교육과정은 『小學』과 『詩傳』이었다. 『小學』과 『詩傳』을 핵심 교육과정으로 부과한 이유는 ‘德性을 薰陶하고 志氣를 感發하는 데는 詩禮만한 것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알묘례를 행한 뒤 아침에는 『小學』, 저녁에는 『詩傳』을 進講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小學』의 명륜편과 『詩傳』의 周召兩南을 아침저녁으로 강송하라고 강조하였다.

그 외 부차적 교육과정으로는 ‘諸賢의 狀德文字’, ‘夙興夜寐箴·敬齋箴·四勿箴·白鹿院規’를 들고 있다. 그 중 ‘諸賢의 狀德文字’를 교육과정에 둔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남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서인계 서원의 특징을 드러내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현의 장덕문자’란 서원에 제향된 선현들의 행적을 수록한 행장이나 묘문 등을 말한다. 조선 후기 서인계 서원에서는 이와 같이 서원에 모셔진 선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을 ‘敬讀’하는 것이 강회 절차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송시열을 제향한 정읍 考巖書院의 사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고암서원 강회록인 「考巖講義」의 서두에는 송시열의 행적을 기록한 글 세 편이 실려 있다. 도암 이재가 지은 「書院廟庭碑」, 이의현이 지은 「遺墟碑」, 권상하가 지은 「墓表略」이 그것이다. 세 편의 글을 강회록에 수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세 편의 글은 매월 강회 시 「백록동규」를 경독할 때 함께 읽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10월 16일 강회에서 직월이 진신장의와 상의하여 매 강회 때마다 세 편을 모두 읽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 묘정비 한 편만 읽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황윤석이 다시 품의하길 ‘묘정비도 좋지만 전후사실과 행적의 순서가 미처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유생들을 觀感振作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行狀略>을 읽는 道峯書院의 예에 의거하여 <묘표> 한 편만 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진신장의가 동의하니 앞으로는 이를 定式으로 삼는다.”<sup>59)</sup>

이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고암서원에서는 송시열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주자의 「백록동규」와 함께 敬讀의 교재로 쓰였으며, 도봉서원의 예를 강학 규범의 표준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서원에 제향된 선현의 행적을 매 강회 때마다 반복하여 읽었다는 것은, 서원 강학이 후학들에게 스승의 ‘도통을 전수하고 내면화’시키는 구체적인 한 방편이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백록동규와 우암의 행적을 나란히 병독함으로써 주자의 도통이 직접 우암에게 전해졌음을 무의식중에 학습시키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서원에 제향된 ‘제현의 장덕문자’를 강회의 교육과정과 절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것은 ‘도통의식’을 강조했던 서인계 서원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竹林書院節目」에는 여타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조항이 또 있다. 무녀의 굿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절목의 마지막 9조에서는 ‘<色은 서원 문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고 책은 서원 문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퇴계선생께서 정한 규정이다. 서원 문 안에 雜色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데, 무녀가 굿하고 방울소리를 내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심히 미안한 일이니, 원춘 바로 가까운 곳에서는 이런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당의 굿을 금지하는 조항은 18세기 이후의 규약에서도 보인다. ‘서원 인근 마을에 귀신을 숭상하는 풍습이 있고 심지어 서원의 강당 뜰에서도 괴이한 일을 설행하니 掌議 趙宗溥(1715년생)가 이를 효유하고 금지했다’고 한다. 18세기 이후에는 심지어 원춘이 아닌 서원 경내의 강당 뜰에

59) 「考巖講義」, 「先生墓表略」 후기.

서도 굿이 행해졌던 것이다. 이는 이 지역에 해마다 12월이 되면 祓除[재앙을 물리침]를 한다고 하여 무당이 크게 굿을 하는 오래된 풍속이 있었기 때문이다.<sup>60)</sup> 『竹林書院節目』이 작성된 것은 17세기이니, 100여 년 간 이러한 풍속이 지속되었음을 볼 수 있다. 18세기에 죽림서원 원장을 맡고 있던 도암 이재도 이 지역의 풍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죽림서원은 양호의 사이에 끼어 있어 산과 바다의 승경이 필적할 데가 없으니, 사체의 엄중함이 다른 서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을의 풍속이 몽매하고 고패가 심하여, 강학이 아니면 그 적폐를 고칠 방도가 없으니, 지금 반드시 講長을 먼저 정한 뒤에라야 손쓸 방도가 생길 것입니다.”<sup>61)</sup>

‘고을의 풍속이 몽매하고 고패가 심하여, 강학이 아니면 그 적폐를 고칠 방도가 없다’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무속의 풍습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즉, 이재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죽림서원의 이 같은 폐단을 인지하고 있었던 듯하다. 이는 여타 서원에서는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는 해안가에 위치했던 죽림서원의 지역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안지역에 오래 존재하는 오랜 무속 문화와 습속이 서원과 원촌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 무렵까지는 강학활동에 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1664년 이래 유계, 이유태, 송시열이 차례로 사망하였고, 그 사이 돈암서원과 노강서원이 건립되어 김장생 문인집단의 영향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죽림서원의 강학은 이재, 윤봉구, 유숙기 등 주로 송시열의 재전문인이자 노론계 인사들이 주도하였다. 이는 1695년 송시열의 추향 이후 죽림서원이 점차 노론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44년에는 김창협이 문인 도암 이재가 원장을 맡았다. 당시 그는 서원 인근이 아닌 용인 한천동에 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강학을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원유들과 편지를 왕래하며 서원 일을 상의하고 강학을 면려하거나 강학의 운영을 위한 절목을 지어 보내기도 하였다. 죽림서원 유생들은 이 때 이재가 지은 절목을 강당 벽에 걸어 두고 실제 지침으로 삼았다. 다음 해 그의 문인 양응수가 죽림서원에 방문하였을 때 ‘선생의 조약이 서원 벽에 걸려있었는데, 스승이 손수 쓰신 것’이라는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62)</sup> 1745년에는 김창협이 문인 유숙기가 『대학』 강회를 주관하였다.<sup>63)</sup> 상술한 바와 같이 한 해 전, 원장 이재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 강장을 정하여 강회를 시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독려한 바 있는데, 아마도 이 해 유숙기가 강장의 일을 맡아 강회를 주관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강학을 이끈 인물 중 또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권상하 문인 윤봉구이다. 그는 1753년 무렵 죽림서원에서 太極圖 강회와 大學 강회를 주관하였다. 그는 강회에 참석한 유생들에게 사당의 명칭을 ‘죽림’이라 한 것은 죽림서원이 바로 주자 이래 천년동안 斯文의 道統을 계승한 곳이기 때문임을 밝히며 죽림서원의 도통의식을 강조하였다.<sup>64)</sup> 당시 태극도 강회에는 金晦材, 金奎五, 李命爽, 洪章海, 卞台鎮 등이, 대학 강회에는 權裕, 金愚, 洪章海 등이 참석하였다. 두 강회에서 이루어진 문답 내용이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추후 분석하고자 한다.

19세기에는 이세연, 송병선, 송병기, 송익수, 송응수, 송근수 등 송시열의 후손들이 중심이

60) 『죽림서원지』, 「規約」, 居齋條.

61) 『陶菴集』 권 10, 書, 「與俞子恭 肅基」.

62) 『白水集』 권 1, 書, 「上陶庵先生」; 『白水集』, 「年譜」; 『죽림서원지』, 「規約」, 講學條.

63) 『止庵集』 권 9, 「行狀」[金亮行 撰]

64) “千載斯文道統尊 祠名視昔竹林援”(『屏溪集』 권 4, 詩, 「黃山書院 得短律一章 示講學諸生」).

되어 강회와 향음주례를 주관하였다. 1862년과 1863년의 향음주례에는 李世淵, 宋秉琦가 참석하였는데 특히 1863년 향음주례에는 양호지역에서 모인 선비들이 수백인이나 되었다고 한다.<sup>65)</sup> 1866년에는 송시열의 9세손 송병선이 이세연, 송병기, 송익수, 송응수, 송근수 등과 함께 1653년 ‘黃山之會’의 고사를 모방하여 당시 여정을 그대로 유람하고 죽림서원 현장당에서 각자 경전 1장씩 강송한 뒤 그 전말을 「遊黃山及諸名勝記」에 기록하였다.<sup>66)</sup> 이 모임의 의미는 ‘금강을 따라 펼쳐진 호서지역의 문화경관을 방문하여 송병선이 자신의 사상적 연원을 확인하고 역사적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며, 특히 강경의 죽림서원, 팔괘정, 임리정에서는 華와 夷의 단호한 구별을 강조했던 송시열의 정신을 되새긴 시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1867년 10월 15일에는 송병선이 주렴계의 태극도설 강회를 개최하였다.<sup>67)</sup>

#### <참고문헌>

「考巖講義」  
『龜峯集』  
『국조보감』  
『다산시문집』  
『陶菴集』  
『立齋集』  
『명재유고』  
『白水集』  
『屏溪集』  
『鳳谷集』  
『사계전서』  
『성호사설』  
『송자대전』  
『市南別集』  
『신독재전서』  
『研經齋全集』  
『淵齋集』  
『玉吾齋集』  
『일성록』  
『죽림서원지』  
『止庵集』  
『헌종실록』

65) 『淵齋集』 권 45, 行狀, 「內舅丹臺李先生行狀」; 「從氏母忽齋公行狀」

66) 『淵齋集』 권 19, 雜著; 『淵齋集』 권 46, 行狀, 「叔父立齋先生行狀」; 『立齋集』 권 21, 附錄, 「行狀」 [宋秉琦].

67) 『淵齋集』 권 6, 書, 「與元玉田 世范」.

- 김문용, 「문중과 공동체-파평윤씨 노종파 종족 운동의 재검토-」, 『동양고전연구』 59집, 2015.
- 이경동, 「조선후기 여산 죽림서원의 운영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제9호, 한국서원학회, 2019.
- 이남옥, 박용만 외, 『노강서원·화양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이수경, 「송시열과 윤선거 분쟁의 기록 - 동원컬렉션 《黃山記帖》 제작 배경 및 의의」, 『東垣學術論文集』 13, 2004.
- 이연숙, 「조선후기 양반가의 문중교육-충남 논산시 노성면 파평윤씨 노종파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52집, 호서사학회, 2009.
- 이왕기, 「충남지방의 서원 건축양식」, 『충남의 서원·사우』, 1999.
- 이철성, 「淵齋宋秉璿의 黃山舟遊와 문화경관 인식 -「遊黃山及諸名勝記」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제70호, 고려사학회, 2018.
- 이해준, 「17세기 중엽 파평윤씨 노종파의 종약과 종학」, 『충북사학』 11-12집, 충북대학교 사학회, 2000.
-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제1호, 한국서원학회, 2011.
- 이해준, 「조선후기 호서지역 사족동향과 서원·사우」, 『한국의 서원과 학맥 연구』, 경기대학교 소성학술연구원, 2000.
- 이해준, 「호서지역 서원의 지역적 특성과 정치적 성격」, 『국학연구』 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
- 이현우·노재현, 「논산 임이정과 팔괘정의 입지 및 조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1-2, 2013.
- 전용우, 「충남지방 서원·사우의 건립 추이와 사족 동향」, 『충남의 서원·사우』, 충청남도, 1999.

## 《논산 지역 서원의 교육과 특징-죽림서원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尙州 淵嶽書院과 九曲文化

李九義(경북대 한문학과)

1. 머리말
2. 淵嶽書院 창건과 配享
  - 1) 연악서원의 창건
  - 2) 연악서원 배향 인물
3. 淵嶽文會와 淵嶽九曲
  - 1) 淵嶽文會의 생성
  - 2) 淵嶽九曲과 음영시
4. 맺음말-의의를 겸하여-

## 1. 머리말

본고에서는 상주 연악서원(淵嶽書院)과 연악구곡(淵嶽九曲)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논의하려면 연악서원의 전신인 지천(연악)서당과 이 서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악문회(淵嶽文會)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서원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지만 이에 대하여 논의한 논문은 없다. 또 이 연악서원이 상주에서 왜 중요한가를 고찰한 논문도 없다. 상주는 대단히 큰 고을이다. 고을이 크다 보니 인물이 많이 나왔다. 훌륭한 인물이 많으면 그들이 훌륭하게 된 원인이 있다.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원과 서당은 조선시대까지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다. 물론 최근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이 존재하지만 신식 교육기관에 밀려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구곡은 주자(朱子)가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배경으로 「무이도가(武夷櫓歌)」를 읊은 뒤로 많은 선비들이 이를 본받아 자신이 살고 있는 경치 좋은 곳에 구곡(九曲)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를 읊으며 자연과 함께 지냈다. 그들이 시를 읊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신을 붙여 넣었다.

본고에서는 지천(智川: 淵嶽)서당(書堂), 연악문회(淵嶽文會), 연악서원(淵嶽書院), 연악구곡(淵嶽九曲)의 생성과 변화를 통하여 당시 선비들이 무엇을 지향하였는가를 고찰하려 한다. 이를 통하여 당시 인문정신(人文精神)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의 대본은 위의 주제가 담겨 있는 여러 문헌이다. 이를 진행하는 방법은 동서양의 비평이론을 종합한 인문주의 비평 방식이다.



## 2. 淵嶽書堂과 淵嶽書院

### 1) 淵嶽書堂의 創建

상주(尙州)는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름이 있는 고을이다. 사벌국(沙伐國)이 상주에서 생겨났고, 후삼국 시대에는 견훤(甄萱)이 교두보(橋頭堡)로 삼았던 고을이다. 경주와 상주의 이름을 따 경상도(慶尙道)라는 지명이 생겨났을 정도로 이 고을은 경상도에서는 가장 큰 고을이다. 신라 시대부터 이곳에는 인물이 많이 나왔다.<sup>1)</sup>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으니 그들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 상주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거나 드문 자랑거리가 70여 가지<sup>2)</sup>나 있다.

상주는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인물이 나왔다. 16세기 초반까지는 상주 학맥이 선산(善山) 학맥과 연결된다. 상주의 후계(后溪) 김범(金範, 1512~1566)이나 서대(西臺) 김충(金冲, 1513~1572)이 선산의 진락당(眞樂堂) 김취성(金就成, 1492~1550) 밑에서 배웠다. 진락당의 스승은 송당(松堂) 박영(朴英, 1471~1540)이고, 송당 박영의 스승은 신당(新堂) 정봉(鄭鵬, 1467~1512)이며, 신당 정봉의 스승은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 한훤당의 스승은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다. 곧, 영남 사람파를 대표하는 분들의 학통이 상주에도 영향을 끼쳤다. 진락당(眞樂堂)은 그의 벗인 용암(龍巖) 박운(朴雲, 1493~1562)과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과 친하였다. 이들이 20세 전후하여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다졌다. 후계, 서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문과에 장원급제한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그의 나이 27살 되던 해 회재 밑에서 배웠다.

15,6세기 상주에는 많은 선비들이 나왔다. 이에 발맞추어 훌륭한 목민관이 상주를 다스렸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분이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과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다. 영천(靈川)은 신잠은 신숙주(申叔舟)의 증손(曾孫)으로, 1552년 여름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부임하였다. 당시 상주에는 향교 외의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다. 그가 부임하여 하곡(霞谷)·도곡(道谷)·석문(石門)·수양(首陽)·노동(魯東)·수선(修善)·용문(龍門)·영빈(潁濱)·매악(梅嶽)·오산(梧山)·고봉(孤峯)·봉성(鳳城)·백화(白華)·봉암(鳳巖)·송암(松巖)·지천(智川)·죽림(竹林)서당과 이름 불명의 한 곳을 합하여 18개 소에 서당을 지어 상주가 전국 굴지의 교육도시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가 1554년 12월 이곳 관아(官衙)에서 순직하여 옥성서원(玉成書院)에 봉안되었다.<sup>3)</sup> 그의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영천(靈川)이 세운 지천서당(智川書堂)의 다른 이름이 연악서당(淵嶽書堂)이다. 후계(后溪) 김범(金範자(1512~1566). )이나 서대(西臺) 김충(金冲, 1513~1572), 묵재(墨

1) 權泰乙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신라 통일 이전에 19, 삼국통일 이후 14, 고려 전기 7, 고려 후기 15, 조선 전기 49, 조선 중기 118, 조선 후기 153로 도합 375명의 인물이 배출되었다고 한다.(權泰乙, 尙州漢文學, 大邱: 文昌社, 2002.7. 참조)

2) 權泰乙 교수가 「尙州文化의 特長」(『尙州文化研究』9, 尙州大學校 尙州文化研究所, 1999. )이라 하여 69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그 뒤 몇 가지를 더 찾아 70가지 가 넘는다고 한다.

3) 權太乙 『尙州漢文學』 (대구:文昌社, 2001. 12.) 115쪽, 李俊 『尙山誌』, 李肯翊, 『燃藜室記述』 [牧先生案], 상주열창학회 『尙州咸昌牧民官』 尙州市 참조.

齋) 노필(盧璣, 1464~1532) 등이 이 연악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시를 짓는 일을 일상생활로 여겼다. 후계의 「연악서당에 붙임(題淵嶽書堂)」이라는 시의 서문을 보면, “옛날에 내가 김화길선생, 동년 노공서와 같이 술병을 들고 이곳에 와서 노니는 것을 일상생활로 여겼다. 지금 이곳에 와서 머무니 경치와 취미가 속세에서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그가 퇴계(退溪)나 남명(南冥)보다 10여년 뒤에 태어났다. 실제로 그는 이들에게 배우지 않았다. 그는 구암(久菴) 김취문(金就文: 1509-1570)이 상주 목사(牧使)로 있을 때 같이 공부한 적<sup>4)</sup>이 있다. 그는 한창 성리학 또는 도학이 무르익어 갈 때 태어나 자랐다. 그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고 난 뒤 교육을 통하여 도학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의 「연악서당에 붙임(題淵嶽書堂)<sup>5)</sup>」이라는 시를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身是重來眼是初    몸은 거듭 왔어도 눈은 새롭기만 하니,  
古人詩語不欺予    옛 사람 시어(詩語)는 나를 속이지 않네.  
溪清偏愛朝雲捲    개울은 맑기만 한데 아침 구름은 걷히고,  
山近還憐夕氣舒    산이 가까우니 일찍 저녁 기운 찾아오네.  
宇宙藏中曾悔濶    우주에 간직한 가슴은 바다 같이 넓고,  
塵泥消了玉淵虛    티끌 사라진 마음은 빈 듯이 깨끗하다네.  
靈川當日慙慙意    신영천(申靈川)이 창건할 때 은근한 뜻은,  
看取高堂額字書    높은 집에 붙어 있는 현판으로도 알만해.

이 시의 서문(序文)에, “옛날에 김화길 선생과 동년 노공서와 술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노니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었다. 지금 와서 보니 경치와 흥취가 서로 잘 맞아, 술에 취해 읊시 한 수를 지어 동지들에게 보인다<sup>6)</sup>.”고 하고 있다. 화길(和吉)은 서대(西臺) 김충(金沖: 1513-1572)의 자(字)이다. 그는 1515년 별시문과(別試文科) 갑과(甲科) 장원(壯元)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사성에 이르는 분이다. 후계와는 팔촌간(八寸間)이다.

먼저 자아는 자신이 여러 번 왔지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새롭기만 하다고 하였다. 옛 사람이 지은 시<sup>7)</sup>에서도 자아 자신의 생각과 같이 읊은 구절이 있다. 지금 자아가 있는 곳이 연악서당(淵嶽書堂)이다. 연악서당은 연악산(淵嶽山) 기슭에 있다. 『상산지(商山誌)』를 보면, 연악산은 상주관아에서 남쪽으로 20여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 이 산은 동쪽에서는 갑장산(甲長山), 서쪽에서는 연악산이라 부른다.

자아는 개울이 맑기만 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개울은 남계(南溪) 곧 지천(智川)을 말한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산이 가까운 곳에 자아가 있다. 맑은 개울가에 서서

4) 金就文, 『久菴集』 「年譜」 參照.

5) 金範, 『后溪集』 卷1.

6) “昔與金先生和吉, 盧同年公瑞, 携酒遊此, 以爲尋常. 今者來寓, 境與趣合, 醉吟一律, 以示同志.” 김범, 위의 책, 같은 곳.

7) 李晔光의 『芝峯類說』 卷13, 「文章部」 6을 보면, “讀書而不知意味, 學者之大病也. 世傳一詩曰, 十里江山和睡過, 箇中形勝問如何. 他時若使便回馬, 身是重來眼是初. 亦善喻也.”라는 구절이 있다.

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것을 볼 때는 아침이었는데,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다. 아침과 저녁은 꼭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아가 처한 주위 환경에 대한 시간 개념이다. 아침에는 졸졸 시냇물이 흐른다. 아침의 밝고, 희망적이고, 생동감이 구름의 어둡고 스산한 이미지를 몰아낸다. 오후가 되자 해가 일찍 진다. 그것은 자아가 산 아래에 연악서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연악서원의 위치와 자연환경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켰다. 자아 자신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또 자신의 배포가 넓음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국량(局量)이 우주처럼, 또는 바다처럼 넓다고 하였다. 자아의 마음이 우주와 같이 넓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 자아는 마지막으로 신영천(申靈川)이 이 서원을 창건할 때의 뜻이 현판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영천(申靈川)은 신잠(申潛: 1491-1554)을 가리킨다. 신잠은 신숙주(申叔舟)의 증손(曾孫)으로, 1552년 여름에 상주목사(尙州牧使)가 되었다. 그가 부임한 지 3년 만에 상주지역에 도곡(道谷)·석문(石門)·수양(首陽)·노곡(魯谷)·수선(修善) 등 18개 서당을 창건하여 상주가 전국 굴지의 교육도시로 자리 잡게 하였다. 그가 이곳에서 순직하여 옥성서원(玉成書院)에 봉안되었다.<sup>8)</sup> 후계(后溪) 역시 신잠 목사를 도와 고을마다 서상(序庠)을 세울 때 향토의 흥학육영(興學育英)을 대 교육자였다.

자아는 이 시에서 교육을 통한 도학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먼저 맑아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맑아야 부끄럼 없이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자아의 마음이 마치 아침 햇살처럼, 맑게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도 깨끗하다. 또 그의 배포는 우주와 같이 광대하다.<sup>9)</sup>

이 시에 대하여 김충(金沖)·김홍민(金弘敏)·이준(李峻)·강복성(康復誠)·김치(金緻)·정호선(丁好善) 등이 차운 시를 남겼다. 당대의 상산(尙山)의 선비는 물론 상주목사를 비롯한 다른 지역 출신의 많은 선비들이 후대에까지 이 시에 대한 차운시(次韻詩)를 남겼다.

퇴계의 제자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이 상주 목사로서 부임하여 상주 선비들을 가르쳤다. 이 때 배출된 분들이 월간(月澗) 이전(李堧), 창석(蒼石) 이준(李峻), 우복 정경세(鄭經世),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 등이 남촌(南村), 곧 상주 청리 부근에서 태어나 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연악(淵嶽)에 자연스레 모여 시를 짓고 공부를 하였다.

## 2) 淵嶽書院의 창건

1552년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이 상주 목사로서 부임(1552~1554)하였다. 그는 지천서당(智川書堂)을 비롯하여 18 곳에 서당을 건립하여 상주의 교육을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 연악서당이 불타버리자,

8) 權太乙, 尙州漢文學, (대구:文昌社, 2001. 12.) 115쪽 參照.

9) 졸고, “后溪 金範의 시에 나타난 정신세계”,

1702년(숙종 28)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박언성(朴彦誠)·김언건(金彦健)·강응철(康應哲)·조광벽(趙光璧)·강용량(康用良)의 덕행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그들의 위패를 모셨다. 이 서원이 바로 연악서원(淵嶽書院)이다.

연악서원(淵嶽書院)의 내력은 조덕(趙德), 이 지은 「연악서원 명륜당중수기(淵嶽書院明倫堂重修記)<sup>10)</sup>」에서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조덕(趙德)의 자(字)가 희대(希大), 호가 치재(致齋)이며 본관이 풍양(豐壤)이다. 그가 1773년10월12일에 출생하여 1851년 3월20일에 죽었으니 향년79세이다. 이 글은 『치재유고(致齋遺稿)』에서 발췌하였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靈翁以嘉靖人，尙右文治，首建以堂，四字名扁，盖其手書也．南溪以萬曆人，承兵燹後，因築爲室，一卷唱酬，卽其事也．若夫五架之增，在於後幾年戊戌，此賢嗣之所營，額則李君繼之，明倫堂，是也．複廟之誤，在於 肅廟壬午，此多士所建之享，以樂志亭芸亭南溪三賢，俎豆之舉，自此擡也．門樓之設，在於後周甲戌戌，此孫公所立上閣而兩齋．盖遵其外主考事也．逮至英廟丙午，乃以優典復設，古人所謂有異於私學也．至正廟丙午，復以列位追祔石川北溪臥雲三賢，是也．院之往事如此．客曰是則若發蒙然矣，我是今之人，則何不告以當今之事．曰嗟乎．日月浸久，雷風震凌，堂宇之傾圯甚矣．院之諸孫奮發，區畫功與歲積物，幾就緒茅，其事無津涯一年二年，有若築室守道謀．是歲春康君采綸，告于衆曰易云棟橈凶．又曰幹父之蠱，古蠱承父祖之幹，俾圖隆其棟，而轉凶爲吉也．僉曰諾．因舉而屬之與鄉士，俱不幾月而功告訖，傾者變而堅，○者轉而固．遂使靈翁之規一新，南溪之典，復明爲士林，賀此當今之事也．一區淵嶽，其將高景於千秋，奚翅嶽鹿之比．言既訖，因請余爲之記曰事不傳美，無以放爲，顧余癯且病，忘前而失後，且況述前賢之美蹟，著多士之勤功，謹且重，而繁且密，烏敢當也．然而終有所不敢不言，謹倣嶽麓古事，以語于客者，略道其萬一云爾．

상산(商山)에 연악서원(淵嶽書院)이 있는 것은 상수(湘水)가에 악록서원(嶽麓書院)이 있는 것과 같다. 산을 등지고 시내 곁에 있으니 냇물과 돌이 맑고도 깊어 증수(蒸水)와 여수(廬水)의 만나는 듯하다. 탁영담(濯纓潭)과 영귀대(詠歸臺) 등은 기이하고 빼어나니 무이산(武夷山)의 구곡(九曲)과도 같다.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황홀하여 마치 형산(衡山)에서 노닐며 절강(浙江)을 거슬러 올라가 장경부(張敬夫)<sup>11)</sup>와 여러 선비를 만나 앞뒤에서 옷자락을 붙잡는 듯하여 천고에 이름있는 악록서원(嶽麓書院)을 잇는다. 商之有淵嶽，猶湘之有嶽麓也．背山臨流，水石清邃，有似蒸廬之會，而濯纓潭詠歸臺，往往奇絕，亦武夷之九曲也．令人登覽悅然，若遊衡山泝浙江，遇張敬夫諸賢，樞衣後先，不知嶽麓於千古矣．

어느 날 객(客)이 지나면서 나에게 말하였다.

악록서원(嶽麓書院)의 내력을 아십니까? 옛날에 남당 때 이관(李寬)이 산수를 사랑하여 그곳에 서원을 짓고 악록서원이라 이름 붙였으니, 그 연원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육조시대에는 비바람을 맞아 황폐해졌지만, 송나라 때 반공(潘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곳에 터를 잡아 이 서원을 중수하였습니다. 이곳은 강산이 맑고 수목이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10) 趙德, 『致齋遺稿』.

11) 장경부(張敬夫): 남송(南宋) 때 관리·리학가(理學家)·교육가인 장식(張栻: 1133~1180)을 가리킨다.

강학이 이 열려 교화가 드넓어져서 여강(廬江)의 백록서원(白鹿書院), 형산(衡山)의 석고서원(石鼓書院)과 함께 당대에 명성을 날렸습니다. 남헌(南軒: 張栻)의 「악록서원기(岳麓書院記)」가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日客過九曲而語余曰，嶽麓之事知否。昔南唐李寬，愛山水創其院，院之名，蓋始於此，而六朝風雨，沒爲蔡蕪。逮夫有宋有潘公者，因址而重其制。於是，江山清郎，樹木輝映，堂壇闢而風教洋，與廬江之白鹿，衡山之石鼓，并徽於當世，而南軒之嶽麓記，傳美於至今矣。

내가 그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 내가 그대와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데 하필 옛날의 악록서원(嶽麓書院)에 대하여 말하겠는가? 그대가 구곡(九曲)을 지나면서 연악서원(淵嶽書院)을 보지 못하였는가? 이 서원은 영천(靈川) 신공(申公: 申潛, 1491~1554)이 처음으로 이곳에 서당을 지어 강학하던 곳이다. 남계(南溪) 강공(康公: 康應哲, 1562~1635)이 이 서원을 중건하여 아름답게 꾸몄으니 남당(南唐)<sup>12)</sup> 때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졌고, 송나라 때와 비교하면 그 공을 더욱 많이 들였다. 이 서원은 백록서원(白鹿書院)<sup>13)</sup>과 석고서원(石鼓書院)<sup>14)</sup>의 건립방식을 따르고자 하였다. 또 이 서원 오른쪽에 상산(商山)이 있으니 어찌 형산(衡山)과 여산(廬山)의 여러 산을 부러워하며, 왼쪽에 이천(伊川)이 있으니 증수(蒸水)와 상수(湘水)의 두 강보다 못하다고 하겠는가? 그대가 구태여 서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어찌 지금의 연악서원(淵嶽書院)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余曰噫，吾與子，俱是今之人，何必遠訂於古，爲嶽麓說也。子之過九曲也，獨不見淵嶽乎。靈川申公，始創於其地，爲肄業之所，南溪康公，重建於此，爲彰美之方，比之南唐，其制益廣，方之有宋，其功益多，論其制作，殆向之白鹿與石鼓矣。又況此地也，右有商山，何羨衡廬之諸山，左有伊川，不讓蒸湘之二水。子苟有言，何不言今之淵嶽乎。

객이 예하며 공손하게 그 산수에 대해 듣기를 청하니, 내가 말하기를 “산수의 아름다움은 외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으니 산수를 말하고자 하면 그 지나간 사람들의 자취를 말하지 않고 어찌 그에 대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객이 머뭇거리며 말하기를, “가르침을 받들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는데, 내가 한참 생각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客唯而謝請聞其山水，余曰山水之美，不在於物而在於人，欲以語山水，不論往蹟，烏能爾也。客僕僕曰請以事教。余久之曰，

연악서원(淵嶽書院)의 내력을 그대가 어찌 듣지 못하였는가? 영옹(靈翁: 申潛)은 가정(嘉靖)연간 사람으로 문치를 숭상하여 이곳에 서당을 먼저 지어 연악서당(淵嶽書堂)이라는 4

12) 남당(南唐): 당나라 때 이발(李渤)이 강주 자사(江州刺史)가 되어 백록동(白鹿洞)에 여산국학(廬山國學)을 세운 사실을 말한다.

13) 백록서원(白鹿書院):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가리킨다. 지금의 강서성(江西省) 성자현(星子縣) 북쪽 여산오로봉(廬山五老峯) 밑에 있다. 송(宋)대에 이 서원이 건립되어 지방자제를 교육하였다. 남송의 주희(朱熹)가 남강군(南康軍)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 이 서원을 중건하고 학생들에게 강학하였다. 『江西通志』卷22, 「南康府」.

14) 석고서원(石鼓書院): 당(唐) 나라 원화(元和) 헌종(憲宗)의 연호. 806~820)연간에 형주(衡州) 사람 이관(李寬)이 세웠다. 그 후에 퇴락되었는데, 송(宋) 나라 순희(淳熙) 효종의 연호)연간에 송약수(宋若水)가 확장하였다. 주자[朱熹]가 이 서원의 기문(記文)을 지었다.

글자 편액을 직접 달았다. 남계(南溪: 康應哲, 1562~1636)는 만력(萬曆) 연간 사람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이곳에 작은 규모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 수창(酬唱)한 시집 1권을 엮어내었다. 몇 년 뒤인 무술년(1598)에 서원을 증축하였다. 고을 선비들이 이 서원을 이어 경영하여 명륜당(明倫堂)도 세웠다. 편액(扁額) 글자는 이군(李君: 이산뢰李山賚, ?~?)이 썼다. 숙종 임오년(1702)에 서원을 건립하여 이때 낙지정(樂志亭)·운정(芸亭)·남계(南溪) 세 분을 배향하였다. 그로부터 60년 뒤인 무술년(1718?)에 문루(門樓)를 세웠다. 이때 손공[孫萬雄]公이 상각(上閣)과 동재(東齋)·서재(西齋)를 건립하였다. 나머지 일은 [남송南宋] 때 주희朱熹의 남원南原] 고사(故事)에 따랐다.

余久之曰, 淵嶽之事, 子豈不聞耶. 靈翁以嘉靖人, 尙右文治, 首建以堂, 四字名扁, 盖其手書也. 南溪以萬曆人, 承兵燹後, 因築爲室, 一卷唱酬, 卽其事也. 若夫五架之增, 在於後幾年戊戌, 此賢嗣之所營, 額則李君繼之, 明倫堂, 是也. 複廟之誤, 在於肅廟壬午, 此多士所建之享, 以樂志亭芸亭南溪三賢, 俎豆之舉, 自此擡也. 門樓之設, 在於後周甲戌戌, 此孫公所立上閣而兩齋. 盖遵其外主考事也.

영조 병오년(1726) 특별법에 따라 중건(重建)하였으니, 옛 분들이 사학(私學)과 다르다는 말씀하신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정조 병오년(1786)에 다시 석천(石川: 金覺, 1536~1610)·북계(北溪: 趙光碧, 1566~1642)·와운(臥雲: 康用良, 1608~1676) 등 세 분의 위패를 더 보태 모셨다. 서원의 지난 내력이 이와 같다.

逮至英廟丙午, 乃以優典復設, 古人所謂有異於私學也. 至正廟丙午, 復以列位追祔石川北溪臥雲三賢是也. 院之往事如此.<sup>15)</sup>

이를 연도별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552-1554 사이 목사(牧使) 영천(靈泉) 신잠(申潛, 1491~1554)이 연악서당을 건립하고 ‘연악서당(淵嶽書堂)’이라는 편액을 달.

㉡ 1601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이 동몽재(童蒙齋)의 터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그 이름을 ‘연악서원’이라 하였다. 이 때 수창한 시집 「淵嶽文會錄(淵嶽文會錄)」 한 권을 엮어 냄.

㉢ 무술년(1598?)에 서원을 증축하면서 명륜당(明倫堂)도 세움. ‘연악서원(淵嶽書院)’이라는 글자는 이산뢰(李山賚)가 씀. 신묘년에 여러 선비들이 묘우를 강당의 뒤에 세우고 세 선생을 모시고 봉안함.

㉣ 1702년 연악서원을 세워 낙지정(樂志亭) 박언성(朴彦誠, 1477~1534)·운정(芸亭) 김언건(金彦健, 1511~1571)·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 세 분을 배향함.

㉤ 60년 뒤인 무진년 봄에 손경석이 원장일 때 명륜당 앞에 문루(門樓)를 만들고, 그 좌우의 좁은 방은 안택재(安宅齋)와 정로재(正路齋)라 이름을 붙이고 가운데 방은 연원각(淵源閣)이라 이름 붙임.

㉥ 영조 병오년(1726) 특별법에 따라 중건(重建)함.

㉦ 정조 병오년(1786)에 다시 석천(石川) 김각(金覺, 1536~1610)·북계(北溪) 조광벽(趙光碧, 1566~1642)·와운(臥雲) 강용량(康用良, 1608~1676) 등 세 분의 위패를 더 보태 모

15) 趙穗, 『致齋遺稿』, 「淵嶽書院 明倫堂 重修記」.

심.

그 가운데 서원(書院)으로 이름난 곳이 무려 열 곳 정도였다. 또 주문공(朱文公, 남송(南宋) 때 주희(朱熹))의 남원(南原)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고을의 수양된 인사들을 골라 원장(院長)으로 삼아 이를 주관하게 하였다. 바야흐로 준행할 교육의 조목(條目)을 가지고 학식(學式)을 간행하며 소학(小學)과 성리학(性理學) 등의 서적을 많이 구입해 여러 서원에 나누어주어 수장케 함으로써 배우는 이들에게 영구한 이익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이를 설치하고 베푸는 데에 있어서는 모두 그 방법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선현 배향과 지방 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3년 3월에 단소(壇所)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의 건물로 묘우(廟宇) 자리에는 단소로 되어 있고, 4칸의 강당과 3칸의 고직사(庫直舍)가 있으며, 동재(東齋)·서재(西齋)는 유허(遺墟)만 남아 있다.

연악서원에 배향된 인물은 앞의 치재(致齋) 조덕(趙德)의 글을 보면 그 대강을 알 수 있다.

숙종 임오년(1702)에 서원을 건립하여 이때 낙지정(樂志亭)·운정(芸亭)·남계(南溪) 세 분을 배향하였다. 그로부터 60년 뒤인 무술년(1718?)에 문루(門樓)를 세웠다. 이때 손공(孫萬雄)이 상각(上閣)과 양재(兩齋: 東齋·西齋)를 건립하였다. 그 밖 일은 고사(故事)에 따랐다. 영조 병오년(1726) 특별법에 따라 중건(重建)하였으니, 고인(古人)들의 사학(私學)과 다르다는 말씀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정조 병오년(1786)에 다시 석천(石川: 金覺, 1536~1610)·북계(北溪: 趙光碧, 1566~1642)·와운(臥雲: 康用良, 1608~1676) 등 세 분의 위패를 더 보태 모셨다. 서원의 지난 내력이 이와 같다.<sup>16)</sup>

### 3. 淵嶽文會와 淵嶽九曲

#### 1) 淵嶽文會의 생성

1622년 5월 22일부터 5일 동안 연악동(淵嶽洞), 곧 갑장산(甲長山)의 연악서당(淵嶽書堂)에서 당시 목사(牧使)였던 조찬한(趙縝韓)을 비롯하여 월간 이전·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창석(蒼石) 이준(李俊)·김혜(金憲)·황정간(黃廷幹)·김원진(金遠振)·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김안절(金安節)·조광벽(趙光璧) 등 15명이 가진 시회에서 문회록(文會錄)이 생겨났다.<sup>17)</sup>

16) “複廟之誤，在於肅廟壬午，此多士所建之享，以樂志亭芸亭南溪三賢，俎豆之舉，自此擡也。門樓之設，在於後周甲戌戌，此孫公所立上閣而兩齋。蓋遵其外主考事也。逮至英廟丙午，乃以優典復設，古人所謂有異於私學也。至正廟丙午，復以列位追附石川北溪臥雲三賢是也。院之往事如此。” 趙德，『致齋遺稿』，「淵嶽書院 明倫堂 重修記」.

17) 金知復의 『愚淵集』에도 연악문회 때 지은 聯句詩가 실려 있다. 그 序文에, “임술년 5월 25일 현주(玄洲) 조찬한이 상주목사로 연악에서 문회를 열었다. 이 때 정[경임]경세·이[숙재]전·[숙평]준·김희중·강[명보]응철·김[사선]원진·김[자형]안절·조광벽·황[공직]정간 등 여러분이 모두 모였다[壬戌五月廿五日，趙玄縝韓，以牧伯作文會于嶽，鄭景任經世·李叔載堧·叔平俊·金晦仲·康明甫應哲·金士宣遠振·金子亨安節·趙輔光璧·黃公直廷幹 諸公皆會].”고 한다.

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 1562~1635)은 일명 ‘5세신동’이라 하는데 갑장산 아래에 있는 상산을 주무대로 활동하였기에 상주의 ‘상산사호(商山四皓)’ 가운데 한 사람이다. 강응철은 이곳을 무대로 여러차례 행사를 가졌다. 1622년에는 문회(文會)를 열고 이때의 문회를 기록하여 『연악문회록(淵嶽文會錄)』을 남겼다. 그는 벼슬은 하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사랑하여 양촌(陽村) 오대(五垞)의 남계정(南溪亭)과 연악, 곧 갑장산(甲長山)의 연악서재(淵嶽書齋)에서 글공부하면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 때 남계와 같이 당시 상산문단(商山文壇)을 이끌어 갔던 분들이 월간 이전(李堧)·창석(蒼石) 이준(李俊)·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검간(黔澗) 조정(趙靖)·사서(沙西) 전식(全湜)·김광두(金光斗)·정이홍(鄭而弘)·우연(愚淵) 김지복(金知復)·북계(北溪) 조광벽(趙光璧, 1566~1642) 등이었다.

연악서원이 먼 곳에까지 잘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이곳에서 연악문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연악문회록 속에 있는 인물이 모두가 명현이며 그들의 문장이 또한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명공과 석사들이 이 서원에 들리게 되면 반드시 노래를 하고 시를 지었으며 그 행사를 글로 기록을 하였다는 것을 서원에 보관되어있는 문회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장소가 협소하여 애로가 있자, 강응철의 아들인 와운 강용량이 5칸짜리 건물을 지었으니 그 모습이 옛날의 규모와 같게 되었다 한다. 이때 명륜당도 만들었고 없어진 연악서원이라는 편액은 이산뢰가 다시 쓴 것으로 걸게 되었다. 연악서재(淵嶽書齋)의 연악문회(淵嶽文會)는 존애원(存愛院)의 강회(講會)와 문회(文會)·낙동강의 낙강범월시회(洛江泛月詩會), 남계정(南溪亭) 근방 낙지정(樂志亭)의 문회(文會) 등과 같이 상산문회(商山文會) 내지 시회(詩會)의 공간이 되어 상주 문학(尙州文學)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때 월간(月澗)·창석(蒼石)·우복(愚伏)·남계(南溪) 등이 남계정(南溪亭)에 모여 시주(詩酒)로 흥을 달래며 스스로 상산사호(商山四皓)라 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상주를 대표할 만한 큰 선비가 대거 출현 하였으며, 이들 중에는 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장가(문학가)로서도 이름을 얻은 분들이 많다. 1622년(광해군 14·壬戌) 5월 25일부터 연악서재(淵嶽書齋)에서 가진 우복(愚伏)·창석(蒼石)·당시 상주 목사였던 현주(玄洲) 조찬한(趙縝韓) 등 15 명이 4박 5일 동안 연악문회에서 남긴 시문집 『연악문회록(淵嶽文會錄)』<sup>18)</sup>은 1638년 도천(道川) 황시간(黃時幹)의 후지(後識)를 포함하여 책자로 남게 되었다. 작품은 연구시(聯句詩) 5언(言) 38구를 비롯하여 5·7언 율시 11제(題), 5언 절구 10수 및 서문(序文)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회록은 상산(商山)에서 나온 공동시집(共同詩集)으로서는 최초 시집이다. 「연악문회록(淵嶽文會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 문회록(文會錄)에 수록된 작품은 창석(蒼石) 이준(李俊)의 「서문[序]」와 공동작인 「연

18) 이 「淵嶽文會錄」은 『尙州文化研究』제5집(尙州大學校 尙州文化研究所, 1995. 12.) 권태乙 교수의 간단한 解題와 함께 原文이 실려 있다.



악연구(淵嶽聯句)』 5언(言) 19운(韻) 38구(句) 1수와 비에 막혀서 이들을 더 목게 되자 ‘군행망후선(群行忘後先) 봉식기구검(朋息棄拘檢)’으로 운을 나누어 각기 한 수씩을 읊었는데 송만(松灣)의 5율(律) 1수와 북계(北溪)의 7율 1수를 제외하면 다들 5언 시로서 월간(月澗)은 24구, 지연(止淵) 16구, 반포(半浦) 24구, 남계(南溪) 40구, 명보(明甫) 24구, 우복(愚伏) 34구, 도천(道川) 36구, 우연(愚淵) 40구, 창석(蒼石)이 40구를 남기었다. 이들 작품을 보고 조찬한(趙縝韓)이 총제적으로 연악문회(淵嶽文會)의 장소, 모인 인물, 놀이 광경, 자기 심회 등을 시서(詩序)를 달고 5언절구 10수를 지었다. 이(1622년) 뒤 1638년에 도천이 「연악 승유록 뒤에 붙임(題淵嶽勝遊錄後)」을 달았고, 다시 1926년에는 이시재(李時在)가 「문화록 권 뒤에 붙임(題書文會錄卷後)」를 달아 현재까지 이 문화록에는 5언 고시 8수, 5언율시 1수, 7언율시 1수, 5언절구 10수, 서발(序跋) 3편, 연구시(聯句詩) 40구 1수 등을 남기었다.<sup>19)</sup>

이 연악문회(淵嶽文會)는 1622년(壬戌) 7월 16일에 낙동강에서 가졌던 ‘낙강범월시회(洛江泛月詩會)와 쌍벽을 이룬다.<sup>20)</sup> 낙강범월시회는 1622년 7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때 검간(黔澗) 조정·월간(月澗) 이전(李堧)·창석(蒼石) 이준(李峻)·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수암(修巖) 유진(柳軫)·사서(沙西) 전식(全湜) 등 24인이 5·7언 배율(排律) 26수와 서문(序文)을 남겼다. 1778년 시회(詩會) 때 시책(詩冊)을 만들며 1607년의 시회 작품까지 포함하여 171년 간 큰 대회 8회의 작품 150여제(餘題)의 시문을 수록하였다.

연악문회 때 지은 「연악연구(淵嶽聯句)<sup>21)</sup>」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b013\_176a

時維蒲月尾  
 阜盖出郊坰叔平  
 乃欲問風謠  
 豈覬娛眺聽景任  
 冠珮聯翩來  
 相携坐風櫺叔載  
 兀傲江海姿  
 炯炯雙瞳青晦仲  
 野蔌供飮餽  
 松醪亦滿瓶明甫  
 高談雜今古  
 臭味同芳馨士宣  
 禮法略苛細  
 賓主兩忘形道輔

19) 權泰乙 外, 『甲長山』, 尙州文化研究所, 1996. 71쪽 참조.

20) 權泰乙, “洛江詩會研究”, 『尙州文化研究』2, 尙州産業大學校 尙州文化研究所.

21) “鄭愚伏景任, 李月澗叔載, 蒼石叔平, 金松灣晦仲, 黃道川公直, 金正淵士宣, 康南溪明甫, 趙北溪道輔, 金愚淵无悔, 李半浦子仰, 康晉亨同會賦詩.” 金安節, 『洛涯遺稿』卷1(『韓國文集叢刊』續13, 176쪽).

既喜境界靜  
 況值靈雨零无悔  
 松蘿蔽日月  
 澗壑奔雷霆公直  
 荷圓擎羽葆  
 壁古圍金屏子亨  
 昔賢此婆娑  
 貞操留典刑公直  
 後學尚可勉  
 古訓昭日星士宣  
 世事欲隕淚  
 廟略失犁庭叔平  
 野哭或見血  
 朔氣時聞腥景任  
 民生極此離  
 有如風打萍叔載  
 幸賴妥撫化  
 百里雞狗寧明甫  
 上地此日歡  
 足以頤襟靈仲晦  
 願言息妖氛  
 鯨波帖四溟无悔  
 吾徒享太平  
 偃仰窮餘齡道輔  
 剔蘚題姓字  
 留向山阿銘子亨

강응철(康應哲, 1562~1635)도 자가 명보(明甫), 호가 남계(南溪)이다. 벼슬은 학천으로  
 찰방에 머물렀으나 5세 때부터 재능을 드러 내어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그가 벼  
 슬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을 사랑하여 양촌(陽村) 오대(五垞)의 남계정(南溪亭)과 감장  
 산(甲長山) 연악서재(淵嶽書齋) 중심으로 오가며 글공부하면서 시를 읊었다.

송만(松灣) 김혜(金憲, 1566~1624)의 자는 회중(晦中)이요, 다른 호는 송계(松溪)이  
 다. 그는 1590년 진사시에 올랐고 1605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군수를 지냈다. 서애  
 (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제자로 임란(壬亂) 때는 창의하였다. 경학과 예학 및 음악에  
 도 능통하여 임란 후에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에 송만은 특명으로 전장례원 겸  
 진무위안사로 7도(道) 도사(都事)를 두루 거쳐 선무원종공신 2등에 올랐다.

송만은 문명(文名)이 높아 상산(商山)의 큰 문회(文會)에서 좋은 시를 많이 남겼다.

정미년(1607)의 낙강범주시회(洛江泛舟詩會)에서도 조익(趙翊)·이준(李俊)·전식(全湜)·조즙(趙澈)·황시간(黃時幹)등과 연구시(聯句詩) 5언 30운(韻) 60구(句)를 지었다. 그는 1622년 5월의 연악문회(淵嶽文會)와 7월의 낙강범주시회에도 참여하여 각기 시를 지었다. 연악문회에서 ‘선(先)’자 운(韻)으로 지은 시<sup>22)</sup>를 들면 다음과 같다.

勝界曾有約 경치 좋은 자리에 전부터 약속해,  
吟鞭看我先 채찍 휘두르며 내 가장 먼저 왔네.  
壺觴延日話 술 마시며 몇 날 동안 담소하면서,  
風雨對床眠 비 바람 몰려와도 평상에서 잤네.  
生世皆同地 살아가는 세상 모두 같은 땅이니,  
持心不愧天 지닌 마음 하늘에 부끄럼 없기를.  
相期各努力 각자 서로 노력하기를 기약하여서,  
莫違愧前賢 선현을 어기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이라고 읊어, 사해 동포로서 하늘과 땅에 부끄럼 없는 삶을 영위하자고 권면하였다.

북계(北溪) 조광벽(趙光璧, 1566~1642)의 자는 여완(汝完)이요, 현감 서경(瑞卿)의 현손이다. 1606년에 진사가 되고 행의(行誼)로 천거되어 직장에 올랐으며, 서애(西厓)의 문인이다. 임란에는 함창 황령사에서 창의하였으며, 특히 사서(沙西) 전식(全湜)과는 막역지우였다. 그도 1622년의 연악문회에 참여하여 시<sup>23)</sup>를 지었다.

山齋勝日集親朋 연악서재에서 좋은 날 친한 벗들 모여,  
滯雨聯宵枕共憑 비에 갇혀서 며칠 밤을 같이 잠 잤다네.  
筆下珠璣墮咳睡 붓끝에는 구슬같은 시문(詩文) 내리고,  
鬢邊霜雪任鬚髻 구레나룻 센 대로 덩수룩이 그냥 두어.  
百年此會知難又 평생에 이런 모임 다시 갖기 어려워니,  
四美俱并見未曾 사미(四美) 다 갖춘 적 일찍이 없었네.  
聚散由來皆有數 모이고 흩어짐은 본디 다 운수에 달려,  
松壇倘復與君登 그대들과 함께 송단에 올라 서성이네.

라 하였다. 『북계집(北溪集)』에 실린 작품 수는 많지 않다. 시도(詩)도 만시(輓詩)가 많은 편인데, 일반 시도 거의 애조(哀調)를 띠고 있다.

우연(愚淵) 김지복(金知復, 1568~1635)도 상산의 큰 선비였다. 자는 무회(無悔), 또는 수초(守初)이다. 1612년 진사가 되고 1624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냈다. 할아버지는 운정(芸亭) 김언건(金彦健), 아버지는 석천(石川) 김각(金覺)으로 당대 상산을 대표하던 선비의 집에서 태어났다. 우연(愚淵)도 연악시회와 낙강범월시회에 참여하여 작품을 남겼다. 앞의 「연악연구(淵嶽聯句)」시가 그의 문집에도 실려 있다.

22) 金惠, 『松灣先生文集』卷1, 『詩』.

23) 趙光璧, 『北溪集』卷1 및 『淵嶽文會錄』.

商山洛水杳茫中 상산의 낙동강 물 아득한 가운데,  
 白髮蒼顏四五公 백발의 창안 노인 너덧 분 모여.  
 奏嶺幾年雲樹隔 주령에서 몇 년 구름숲에 가렸나,  
 鄉關今夕笑談同 고향에서 오늘 밤 함께 담소하네.  
 流光誰得漆粘日 흐르는 세월에 그 누가 해 잡으리,  
 勝事無常燭散風 좋은 일 무상한데 촛불 나플거려.  
 夜飲不妨醒後醉 밤술도 괜찮아 깬다가 또 취하니,  
 淸歡直待月上東 기뻐하며 동산에 달 뜨기 기다려.

라고, 읊었다.

와운재(臥雲齋) 강용량(康用良, 1568~?)의 자는 경우(慶遇)로 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효도하고 우애로워 고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가 학문을 좋아하여 우복(愚伏)·월간(月澗)·창석(蒼石)의 문하에 나아가 경학과 문학을 공부하였다. 와운재는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실천한 선비로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겼다. 이와 아울러 그는 향풍(鄉風)을 쇄신하고 후진 양성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 그는 『와운집(臥雲集)』이라는 문집과 세교(世教)를 위하여 고금의 현인·의사의 사적을 발취하여 『관감록(觀感錄)』 1권을 엮었다. 그는 연악(淵嶽: 甲長山) 밑에 살면서 와운재(臥雲齋)에서 글공부를 하였다. 그는 선비이면서 가끔씩 스님들과도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 그의 「와운재에서 스님께 줌(贈臥雲齋僧)<sup>24)</sup>」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釋名儒行者 스님이면서 선비의 행동 하니,  
 一見便心傾 한눈에 마음이 흠뻑 쏟렸다네.  
 兒輩聯書榻 아이들 책상 나란히 공부하고,  
 老夫共夜檠 늙은이들 함께 등잔불 마주해.  
 多年相有義 몇 년 간 서로 의리 있었는데,  
 今日却無情 오늘 무정하게 문득 떠나시네.  
 此後尋花節 이 다음 꽃이 필 때 찾아오면,  
 山門孰出迎 절 문에서 누가 날 맞아 주리.

라고, 읊었다. 이 시를 통하여 보면, 그가 종교를 초월하여 골고루 사귀었다. 그가 그만큼 인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와운재에서 즐겁게 놀면서 읊음(臥雲齋勝遊吟咏)<sup>25)</sup>」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 제목 밑에는 작은 서문(序文)이 달려 있다.

신묘년(1651) 9월 21일, 여러 벗과 함께 연악서당에 갔다가 구곡(九曲)을 구경한 뒤에 용흥사(龍興寺)에서 묵었다. 이튿날은 성불암(成佛庵)을 둘러 갑장산(甲長山) 제일봉에서 쉬

24) 康用良, 『臥雲集』卷1.

25) 康用良, 『臥雲集』卷4.

며 냇물의 원두(源頭)를 두루 살펴보았다. 그뒤 향로봉(香爐峰)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와운재(臥雲齋)에 도착하였다. 산에서 내리는 비가 동문을 막아 하루를 더 머물면서 오직 시를 짓고 성명을 붙여 이 다음에 얼굴 보듯 하게 하였다. 산 위에서 집으로 돌아간 분들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sup>26)</sup>

라고 하였다.

前輩追從夙飽聞 선배를 따라서 일찍이 실컷 보고는,  
十年今日我於君 십 년 뒤 오늘 내가 그대들 따르네.  
連筇賞通溪山勝 지팡이 나란히 해 좋은 경치 맛보고,  
更向禪宮路入雲 다시 선궁을 향하여 구름 길로 드네.

위의 시에 무첨재(無忝齋) 정도응(鄭道應)·조정화(曹挺華)·강용직(康用直) 등이 차운하였다. 그 뒤 죽헌(竹軒) 정헌세(鄭憲世, 1597~1660)·윤효관(尹孝寬)·이덕규(李德圭, 1598~1671)·이신규(李身圭, 1600~1681)·이광규(李光圭, ) 등이 차운하여 시를 남기고 있다. 이 와운재는 연악동(淵嶽洞)을 찾는 이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를 남기고 있다. 죽헌(竹軒)의 자는 경식(景式)이요, 참봉 정이룡(鄭而龍)의 아들이다. 1627년 진사가 되어 빙고서 별검이 되었다. 죽헌 역시 벼슬길을 버리고 학문에 진력한 선비다. 그러나, 그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많은 작품을 접할 수는 없다. 그의 「연악서원에서 삼가 벽에 붙은 원시(元詩)에 차운함(淵院敬次壁上元韻)<sup>27)</sup>」이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人也爲人在復初 사람이 사람됨은 본심 회복하는 것,  
斯言今日豈欺余 이 말씀이 오늘 어찌 나를 속이리.  
世間萬事都辭謝 세상 만사에 모두 다 감사할 뿐인데,  
靜處群經可捲舒 조용한 곳에서 여러 경서 읽는다네.  
向學工程入有益 배우는 과정에서 이로운 곳에 들어,  
要榮名利子知虛 영화와名利 바람이 헛된 줄 알았네.  
淵齋更感先賢訓 연재에서 다시 선현 훈계에 감동하여,  
敢似當時敬拜善 감히 생시에 뵈는 듯 공경해 절하네.

이 당시의 연재(淵齋)는 상주 갑장산 밑에 있던 연악서당(淵嶽書堂)을 가리킨다. 이 서당이 뒤에 서원(書院)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이 시의 원시(原詩)은 앞에서 고찰한 후계(后溪) 김범(金範)의 작품을 가리킨다.

26) “辛卯九月廿一日，偕諸友尋淵嶽書塾，賞九曲，宿龍寺，翌日歷成佛，憩甲長迤上第一峰，周瞰川源，自香爐而南，抵臥雲齋，留一日山雨鎖洞門也。聊題姓名，以爲他日面目，自山上歸家者不盡錄。”

27) 鄭憲世，『竹軒公實紀』.

죽헌(竹軒) 정헌세(鄭憲世, 1597~1660)가 자는 경식(景式)이요, 참봉 정이룡(鄭而龍)의 아들이다. 1627년 진사가 되어 빙고서 별검이 되었다. 죽헌 역시 벼슬길을 버리고 학문에 진력한 선비다. 그러나 그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많은 작품을 접할 수는 없다. 그는 남계(南溪) 강응철(康應哲)이 다섯 살 때 쓴 ‘강상풍월(江上風月)’ 네 글자를 첩자로 만들었을 때 지은 「남계 강선생께서 크게 쓰신 ‘강상풍월’ 네 글자 첩자 뒤에 붙임(題南溪康先生所書江山風月四大字帖後)<sup>28)</sup>」이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恭惟先輩南溪公	우러러 생각건대 선배이신 남계공은,
文行衆稱眞君子	문학과 덕행으로 참 군자라 불렀다네.
生而巳有用筆才	태어나면서 이미 글씨 쓰는 재주 있어,
五歲能成四大字	다섯 살에 커다랗게 네 글자를 쓰셨네.
字畫雄勁蛟蛇形	자획(字劃) 웅건하고 군세어 교룡같고,
筆力可以曹張比	필력(筆力)은 조장(曹張)에 견줄 만해.
蘇齋松塢兩先生	소재(蘇齋)와 송오(松塢) <sup>29)</sup> 두 선생이,
皆以詩章贊奇異	모두 다 시로써 기이함을 칭찬하였네.
自從大亂幸保存	이로부터 큰 난리에도 다행히 보존해,
是知保存良有以	이와 같이 보존한 데도 까닭이 있네.
我今展翫重歎息	내 지금 펴서 보며 거듭 탄식하나니,
不覺摩挲零感淚	쓰다듬으니 나도 모르게 눈물 흐르네.
賢郎寶藏十襲秘	어진 손자 보배로이 십 대 보관하니,
不重千金重此紙	천금도 이 종이보다야 무겁지 않으리.
神明亦應終護持	천지신명도 당연히 이를 보호해 주어,
傳之子孫流千禩	삼천 세(世)토록에 자손들에 전하기를.

다음은, 「연악서원에서 삼가 벽에 붙은 원시를 차운함(淵院敬次壁上元韻)<sup>30)</sup>」이라는 시를 보면,

人也爲人在復初	사람이 사람됨은 착한 마음 회복,
斯言今日豈欺余	이 말씀 오늘 어찌 나를 속이라.
世間萬事都辭謝	세상 온갖 일에 다 감사할 뿐이니
靜處群經可捲舒	조용한 곳에서 못 경서 열람하네.
向學工程入有益	공부하는 과정에 유익함으로 들고,
要榮名利子知虛	바라는 영화와 명리 헛된 짓이라네.
淵齋更感先賢訓	연악서재에서 선현 훈계에 감동해,

28) 鄭憲世, 『竹軒公實紀』卷2, 「東祠八賢實紀」.

29) 蘇齋는 盧守愼의 호요, 松塢는 鄭大成的 호다.

30) 鄭憲世, 『竹軒集』卷1.

敢似當時敬拜善 살아 뵈는 듯하여 절하며 시 짓네.

라고 읊었다. 이 당시의 연재(淵齋)는 상주 갑장산 밑에 있던 연악서당(淵嶽書堂)을 가리킨다. 이 서당이 뒤에 서원(書院)으로 승격되었다. 또한, 이 시의 원시(元韻)은 후계(后溪) 김범(金範)의 「연악서당에 붙임(題淵嶽書堂)<sup>31)</sup>」이다.

야촌(野村) 손만웅(孫萬雄, (1643~1712)이 동갑들인 상산의 선비들과 용흥사에서 놀았던 시회(詩會)로 「노길보사헌 강자시 노희천은성 전해중오익과 용흥사에서 동갑회를 하며(與盧吉甫思憲 康子施 盧希天恩聖 全惠仲五益 作同甲會於龍興寺)<sup>32)</sup>」 시에서,

一世生同癸末年 한 세상 계미년에 함께 태어났으니,  
忽逢周甲轉依然 홀연 환갑을 맞아 옛대로 돌리네.  
蒼顏白髮欣相對 창안 백발로 기분 좋게 마주 앉아,  
洛社千秋續勝遊 낙사회 영원히 좋은 인연 잇는다네.

라고 읊었다. 야촌(野村)은 연악동(淵嶽洞)에서 많은 시회(詩會)를 가졌다. 1677년 12월 그가 에 동지서장관(冬至書狀官)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1678년 3월 7일에는 용흥사(龍興寺)에서 고향 부로(父老)들에게 사례연을 베풀었다. 그 날의 연회첩 서문은 신와(新窩) 이재관(李在寬)이 썼다. 그는 1703년 정월에 다시 위의 동갑계원 시회를 가졌다. 이보다 앞서 1702년 5월에는 연악서당(淵嶽書堂) 문회(文會)에 참석하여 「연악서당에서 삼가 창석(李埈) 선생의 시에 차운함(淵嶽書堂敬次蒼石李先生韻)<sup>33)</sup>」이라는 시를 남겼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悠悠宇宙晚余生 아득한 우주 사이에 뒤늦게 태어나  
遺蹟尋來感涕零 남은 자취 찾아와 감동해 눈물 짓네.  
洞裏秋光山正紫 연악동 가을이 드니 산빛은 붉은색,  
座中佳客眼俱靑 둘러앉은 손님들의 눈빛도 다정하네.  
開懷剩得傾芳酒 회포 풀며 향기로운 술잔 기울이다,  
敍別那堪作散星 별처럼 흩어지니 감당하기 어려워라.  
是日邀頭聯一席 오늘 문회에는 사포도 자리 했으니,  
從知勝會壓蘭亭 이것으로도 난정 모임보다 낫다 하리.

라고 읊었다. 상주 목사까지 참석한 문회여서 왕희지가 주관한 난정연(蘭亭宴)보다 낫다고 자부하였다. 그는 또 「연악동 지주 이숙겸(淵岳同地主李叔謙)<sup>34)</sup>」(癸未)이라는 시를 지었다. 그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使君高義仰平生

31) 金範, 『后溪集』卷1.

32) 孫萬雄, 『野村集』卷1.

33) 孫萬雄, 『野村集』卷1(『韓國文集叢刊』續46, 343쪽).

34) 孫萬雄, 『野村集』卷1(『韓國文集叢刊』續46, 343쪽).

語頻承玉屑零  
佳句已驚裁錦繡  
勝遊端合倩丹青  
二年治化同時雨  
百里封疆耀福星  
除却簿書無一事  
早春乘興到林亭

금암(兢菴) 강세균(姜世揆, 1762~1833)의 「연악서원에서 선배들이 창수한 시집 발문(淵嶽書院先輩唱酬錄跋)<sup>35)</sup>」을 보면,

연악서원에서의 창수는, 정덕 정축(1517)으로부터 숙종 갑신(1704년)까지 188년 간 상산의 홍유(鴻儒) 석보(碩輔)들이 남긴 것으로써, 1800년대에 와서 금암(兢菴)을 비롯한 몇 분의 선비가 우복(鄭經世)·창석(李垞) 두 선생의 시와 여러 선배들의 연구(聯句) 20운 1수에 차운하여 운을 나누어 각기 2수씩 지어 한 권 시첩(詩帖)을 이어 이루었다. 이를 배접을 하여 대접자로 만든 분은 조규화(趙奎和)이며 이를 보관하는 곳은 연악서원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1622년 5월의 『연악문회록(淵嶽文會錄)』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악서원선배창수록발(淵嶽書院先輩唱酬錄跋)」은 연악서당(淵嶽書堂) 시절부터 서원으로 승격된 뒤까지의 이곳에서 남긴 시를 총망라한 연악서원의 사적(史的)인 공동시집(共同詩集)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창수록(唱酬錄)』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古人詩什之傳於後多矣. 風雅亦有正變之不同, 已經吾夫子勘訂, 則尚矣無論. 降自晉唐以來, 其傑然鳴於世者, 代不過若, 而人下於此者, 或不免得失之評焉. 蓋有詩工而於人無所取, 有人優而於詩未有得, 則果可以傳于世耶. 讀其詩而可喜, 攷其人而可敬也, 則果不可以傳世耶. 淵嶽之有唱酬 自正德丁丑至肅廟甲申, 上下百八十八年之間, 鴻儒碩輔之錯落相望, 後先聯絡, 殆星辰之藉太清, 珠玉之探淵海也. 摩挲愛玩, 不覺瞠然而眩眼, 肅然而歛衽, 人與詩, 固無間然. 粵惟我國家, 聖繼神承, 重熙累洽, 奎文德宿, 炳烺炫耀, 亭毒人物之盛, 吁 亦偉哉. 雖不無世道陞降, 人才興替之殊, 出處顯晦之得不然, 而類非賢人君子, 卽卓犖豪傑之士耳. 是地之有是遭逢, 豈不爲吾尙之光, 而吾黨之幸耶. 余適忝院任約與諸同志, 會于院之淵源樓, 被人客膠擾, 有不暇. 從容講劇, 得有相長之益, 而閱院中故事, 有先輩唱酬錄, 卽是已盥手跪讀, 以卒業焉, 則音旨典雅, 風韻悠婉, 令人欲手舞而足蹈, 眞所謂丹砂空青金膏水碧寶物外, 難得自然之奇寶也. 但其故紙斷爛, 不可以久遠也. 倩趙君奎和, 繕起繕修爲數大帖, 仍與同志三數人, 敬次愚伏蒼石二先生, 與諸先輩, 聯句二十韻一篇, 分韻各二篇, 續成一帖, 以藏棄焉. 後生末學, 極知猥陋, 終不免佛頭, 著汗之譏, 而聊以酬吾區區執鞭之願耳. 況與諸同志, 惕然知警, 收拾桑榆, 庶幾乎息黥補劓, 使此嚶嚶者, 不終於狂而已, 則吾輩竿頭之步, 未始非感舊是帖, 而無爲規規者所笑, 尤豈非大幸耶. 卽以自警且與同志者勸之, 若豈顛末之祥, 序文已盡之茲, 不復贅云爾.(「淵嶽書院先輩唱酬錄跋」 전제)

35) 姜世揆, 『兢菴集』卷5.



## 2)淵嶽九曲과 吟詠詩

연악(淵嶽)은 갑장산(甲長山)이라고도 하는데 상주의 진산(鎭山)이다. 연악구곡(淵嶽九曲)은 남계(南溪) 강응철(姜應哲, 1562~1635)이 상주시 청리면 지천동 지천(智川)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연악산은 정상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계곡물이 흘러 내려 절경을 이루는데 연악산 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에 연악구곡이 있다.

남계(南溪)가 연악산 서쪽 10리에 연악구곡을 설정하고 아홉 굽이에 이름을 붙였다. 제1곡이 탁영담(濯纓潭), 제2곡이 사군대(使君臺), 제3곡이 풍암(楓巖), 제4곡이 영귀정(詠歸亭), 제5곡이 동암(東巖), 제6곡이 추유암(秋遊巖), 제7곡이 남암(南巖), 제8곡이 별암(鰲巖), 제9곡이 용추(龍湫)이다. 연악구곡(淵嶽九曲)도 하류 1곡에서 상류 9곡으로 이어지고, 옛날에는 물레방아가 12대나 있을 정도로 명승지인 이 곳의 총 거리는 4km 정도 된다.<sup>36)</sup>

제1곡 탁영담(濯纓潭), 갓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맑다는 뜻이다. 탁영담은 구곡다운 느낌이 전혀 없고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다. 구곡이라는 설레임이 사라져 버린다. 여기서 그냥 발길을 돌릴 것 같다.

제2곡 사군대(使君臺), 연악서원 옆자리로 1622년 조찬한 상주목사와 함께 유상(명소를 다니며 감상하다)한 곳이라는 뜻이다. 절벽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이 웅장한 것은 아니다. 입구도 공사 차량에 가려져있어 안내판이 없었다면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다. 제3곡 풍암(楓巖), 옛날 바위 주위에 돌단풍이 많았다는 뜻이다. 구곡다운 모습이 보이지 시작한다. 바위는 계곡물을 시원하게 쏟아 낸다.

제4곡 영귀정(詠歸亭), 시를 읊고 돌아온다는 뜻이다. 지천으로 내려가서 바라본 풍경은 시를 읊을 만한 장소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나름 분위기 있는 카페가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된다.

제5곡 동암(東巖), 계곡의 바위가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계곡물이 바위 사이를 쏟아져 내려가는데, 마치 협곡을 바라보는 느낌이 든다.

제6곡 추유암(秋遊巖), 가을에 유흥을 즐길 만한 곳이라는 뜻이다. 바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암반에서 쉴 수도 있어 유흥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제7곡 남암(南巖), 용추에서 보아 남쪽에 있으며, 물의 낙차가 크고 바위가 많다는 뜻이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는 낙차폭이 크게 떨어진다. 물줄기는 비명을 질러 대며 거품을 문다.

제8곡 별암(鰲巖), 바위가 자라를 닮았다는 뜻이다. 계곡물이 바위 사이로 시원하게 쏟아지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바위가 자라를 닮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제9곡 용추(龍湫), 바위 아래에 용이 물에 잠겨 있을 만한 곳이라는 뜻이다. 구곡

36) 김정찬이 2009년 개최된 전국문화원연합회 논문대회에서 甲長山 일대 智川을 '淵嶽九曲'이라고 밝혀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지천동 연악구곡의 옛터를 찾아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중 가장 웅장하고 접근 가능성도 괜찮지만, 풍경을 감상하며 쉴 만한 곳은 보이지 않는다.

남계 강응철은 조선 중기의 의병장이자 학자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병(鄉兵)을 모집하여 상주(尙州)를 지켰다.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명보(明甫), 호는 남계(南溪)이다. 1592(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병을 모집하여 상주를 지켰다. 후에 정기룡(鄭起龍)의 의병과 합세하여 각지에서 왜병을 무찔렀다. 벼슬은 찰방에 이르렀으나 광해군의 난정에 분개하여 은퇴하고, 향리에서 독서와 저술로 일생을 보냈다. 상주의 연악서원(淵岳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남계유고(南溪遺稿)』가 있다.

그는 벼슬은 하지 못하였지만, 양촌(陽村) 오대五垞)에 있는 남계정(南溪亭)과 갑장산(甲長山) 아래에 있는 연악서당(淵嶽書堂)에서 머물며 글공부를 하고 시를 읊었다. 이 때 그와 같이 독서하고 상산문단(尙山文壇)을 이끌어 갔던 분은 이전(李埏)·이준(李俊)·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조정(趙靖)·전식(全湜)·김광두(金光斗)·정이홍(鄭而弘)·김지복(金知復)·조광벽(趙光璧) 등이었다. 이들이 연악서당(淵嶽書堂)에서의 연악문회(淵嶽文會), 존애원(存愛院)에서의 강회(講會)와 문회(文會), 낙동강에서의 낙강범월시회(洛江泛月詩會), 남계정(南溪亭) 근방 낙지정(樂志亭)에서의 문회(文會)를 열어 당시 상주의 문화를 크게 진작(振作)시켰다.

특히, 월간(月澗)·창석(蒼石)·우복(愚伏)·남계(南溪)가 남계정에 모여 술을 마시며 시를 지으면서 스스로 사호(四皓)라고 하였다고 한다. 연악구곡을 제재로 하여 읊은 시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은 일묵재(一默齋) 김광두(金光斗, 1561~1608)가 지은 「연악동에 노닐며 남계옹에게 줌(遊淵嶽洞贈南溪翁)<sup>37)</sup>」이라는 시 두 수를 지었다. 그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溪水冷冷九曲回 차가운 시냇물이 구곡을 돌아 흘러내리고,  
巖花笑處繡新苔 꽃 핀 바위에는 새로운 이끼 수놓았다네.  
莫言洞裏多情勝 연악동에는 좋은 곳 많다 말하지 말구려,  
恐有人間俗客來 세상의 속객들이 찾아올까 걱정스러우니.

淡雲和照踏清辰 열은 구름 따사한 햇살 푸른 풀 밟으며,  
病叟悠然欲訪春 병든 늙은이 태연히 봄을 맞으려 한다네.  
花柳前川新態度 버들 꽃이 핀 앞내는 새로운 모습 하니,  
十分詩料助精神 시 지을 거리 많아 정신을 넉넉히 돕네.

김광두(金光斗)는 자가 여우(汝遇), 호는 일묵재(一默齋), 본관이 상산(尙山)으로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경세와 함께 함창(咸昌)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웠다.

무첨재(無忝齋) 정도응(鄭道應, 1618~1667)은 우복 정경세의 손자인데 남계 강응

37) 康應哲, 『南溪集』卷3, [附錄].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Ⅱ, 도서출판 역락, 2012. 5. 251~260쪽 참조).

철의 둘째 아들인 와운 강용량의 별장에서 함께했던 일을 서로 지으면서 연악구곡을 언급했다.

群山賞雪兩奇絶 여러 산이 눈에 덮이어 모두 아름다우니,  
好事還爲造物猜 좋은 일은 조물주가 시기를 한 것이라네.  
孤座竹床清不寐 죽상에 홀로 앉으니 맑아 잠들지 못한데,  
暗香時動一梅枝 은은한 향기가 때로 가지에서 퍼져나오네.

千疊淵山九曲溪 첩첩의 연악산 아홉 굽이 시냇물 흐르니,  
吟筇應度石橋西 지팡이 짚고 석교를 건너 서쪽으로 가네.  
橋西我亦留名姓 다리의 서쪽에 나는 또한 이름 새기고.  
須向巖間檢構題 그 옛날 바위에 새긴 이름을 찾아보리라.<sup>38)</sup>

백석(白石) 성덕징(成德徵, 1675~1744)이 지은 「연악서원전후사적편람기(淵嶽書院前後事蹟便覽記)」에 연악구곡에 관련된 기록이 있다.

연악서원은 갑장산 아래 물과 돌이 맑고 기이한 곳이 있다. 아홉 굽이 시냇물이 서원의 앞으로 곧바로 쏟아지니 빼어난 경치로 명성이 있는데 오직 탁영담, 풍암, 영귀정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굽이이다.<sup>39)</sup>

갑장산(甲長山)은 연악산의 다른 이름이다. 백석(白石) 성덕징(成德徵, 1675~1744)의 자가 중보(仲普)이다. 그의 고조는 청죽(聽竹) 성람(成瀾, 1556 ~1620)이며 증조는 임진왜란 때 의병에 참여한 성여송(成汝松)이다. 진사로 경학에 밝고 문장에도 능하였으나 현재 문집을 구하지 못하였다. 이준(李俊)이 엮은 『상산지(商山誌)』에서도, “여송(汝松)의 증손이며 진사로 문장(文章)과德行(德行)이 있었다.”고 하였다.

삼백재(三白齋) 강사흠(康思欽)의 「외남의 여러 벼들과 지천의 냇가 정자에 가서 주인의 시에 차운함(與外南諸益 遊智川溪亭 次主人韻)<sup>40)</sup>」이라는 시에도 연악구곡을 읊고 있다.

一帶清溪九曲流 한 줄기 맑은 냇물 구곡 따라 흘러가니,  
楓林倒影水生秋 단풍이 거꾸로 비쳐서 물속이 가을이네.  
追隨勝友觀瀾地 좋은 벼들 따라 시내의 물결 바라보니,  
忘却浮生半世憂 부질없이 산 반평생 근심이 사라진다네.

원주(原註)에 ‘팔월 하순[八月下浣]에 지음’이라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연악산에 연악구곡이 설정되어 경영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연악구곡을

38) 『淵嶽文會錄』, 상주박물관, 2009. 32쪽.

39) 成德徵, 『淵嶽書院前後事蹟便覽記』.

40) 康思欽, 『三白齋集』卷1.

대상으로 읊은 구곡시가 현재 남아 있지 않아 연악구곡의 경영을 살펴보는 일이 쉽지 않지만 남아 있는 기록과 주민들의 증언을 가지고 연악구곡을 재구하려 한다.<sup>41)</sup>

제3곡인 풍암(楓岩)은 풍암은 연악구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굽이로 꼽히는데 시회를 열 때마다 선비들이 이 굽이를 찾아서 시를 짓고 연회를 펼쳤다. 남계 선생의 제자인 하충룡(河翀龍)이 선생의 「만사(挽詞)<sup>42)</sup>」를 지으면서 연악구곡의 제3곡 풍암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亂後同居四十載 임진왜란 뒤로 사십 년을 함께 살았고,  
相從門下幾春秋 문하에 서로 좇은 지는 몇 년 되었는가.  
冠童六七楓岩上 여석 일곱 관동들과 풍암 위로 올라가,  
每到花時逐日遊 꽃이 필 때마다 이르러 함께 노닐었네.

恩峻高峯生未報 은혜는 높은 산 같아 살아서 갚지 못하고,  
情深河海死難酬 정은 바다처럼 깊어 죽어도 갚기 어렵네.  
如何一疾翻成夢 어찌하여 한 번 병에 꿈결처럼 가셨는가,  
舉目西山淚不休 서산을 바라보니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네.

####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상주 연악서원과 연악구곡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논의하면서 연악서원의 전신인 지천(연악)서당과 이 서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악문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1552년 영천(靈川) 신잠(申潛, 1491~1554)이 상주 목사로 부임(1552~1554)하였다. 그는 지천서당(智川書堂)을 비롯하여 18 곳에 서당을 건립하여 상주의 교육을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 이 연악서당이 불타버리자 1702년(숙종 28)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박언성(朴彦誠)·김언건(金彦健)·강응철(康應哲)·조광벽(趙光璧)·강용량(康用良)의 덕행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서원을 창건하여 그들의 위패를 모셨다. 이 서원이 바로 연악서원(淵嶽書院)이다.

1622년(광해군 14·壬戌) 5월 25일부터 연악서재(淵嶽書齋)에서 가진 우복(愚伏)·창석(蒼石)·당시 상주 목사였던 현주(玄洲) 조찬한(趙縝韓) 등 15 명이 4박 5일 동안 연악문화에서 남긴 시문집 『연악문화록(淵嶽文會錄)<sup>43)</sup>』은 1638년 도천(道川) 황시간(黃時幹)의 후지(後識)를 포함하여 책자로 남게 되었다. 작품은 연구시(聯句詩) 5언(言) 38구를 비롯하여 5·7언 읊시 11제(題), 5언 절구 10수 및 서문(序文)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화록은 상산(商山)에서 나온 공동시집(共同詩集)으로서는 최초 시집이다.

41) 김문기, 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2. 250~260쪽.

42) 康應哲, 『南溪集』卷4, 「挽詞」.

43) 이 「淵嶽文會錄」은 『尙州文化研究』제5집(尙州大學校 尙州文化研究所, 1995. 12.) 權泰乙 교수의 간단한 解題와 함께 原文이 실려 있다.

그는 벼슬은 하지 못하였지만, 양촌(陽村) 오대五垞)에 있는 남계정(南溪亭)과 갑장산(甲長山) 아래에 있는 연악서당(淵嶽書堂)에서 머물며 글공부를 하고 시를 읊었다. 이 때 그와 같이 독서하고 상산문단(商山文壇)을 이끌어 갔던 분은 이천(李堧)·이준(李俊)·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조정(趙靖)·전식(全湜)·김광두(金光斗)·정이홍(鄭而弘)·김지복(金知復)·조광벽(趙光璧) 등이었다. 이들이 연악서당(淵嶽書堂)에서의 연악문회(淵嶽文會), 존애원(存愛院)에서의 강회(講會)와 문회(文會), 낙동강에서의 낙강범월시회(洛江泛月詩會), 남계정(南溪亭) 근방 낙지정(樂志亭)에서의 문회(文會)를 열어 당시 상주의 문화를 크게 진작(振作)시켰다.

연악구곡(淵嶽九曲)은 남계(南溪) 강응철(姜應哲, 1562~1635)이 상주시 청리면 지천동 지천(智川)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이다. 연악산은 정상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 계곡물이 흘러 내려 절경을 이루는데 연악산 서쪽으로 흐르는 계곡에 연악구곡이 있다.

남계(南溪)가 연악산 서쪽 10리에 연악구곡을 설정하고 아홉 굽이에 이름을 붙였다. 제1곡이 탁영담(濯纓潭), 제2곡이 사군대(使君台), 제3곡이 풍암(楓岩), 제4곡이 영귀정(詠歸亭), 제5곡이 동암(東岩), 제6곡이 추유암(秋遊岩), 제7곡이 남암(南岩), 제8곡이 별암(鰲岩), 제9곡이 용추(龍湫)이다.

<참고문헌>

## <尙州 淵嶽書院과 九曲文化>에 대한 토론문

李貞和(동양대 교수)

발표자께서는 지금까지 상주와 관련된 논저를 지속적으로 학계에 소개하신 바, 위의 논문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악서원의 학문 연원에 대해 구곡문화를 테마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셨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론자인 저는 상주의 학문 연원에 대해 아는 것에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표자께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신 논문을 받아든 순간부터 토론문을 작성하는 시간 내내 저의 학문이 매우 미천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므로 이점에 대해 발표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발표자께 여쭙어 볼 것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천(智川:淵嶽)서당(書堂), 연악문회(淵嶽文會), 연악서원(淵嶽書院), 연악구곡(淵嶽九曲)의 생성과 변화를 통하여 당시 선비들이 지향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둘째, 상주는 경상도(慶尙道)라는 지명이 생겨났을 정도로 경상도에서 가장 큰 고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신라 시대부터 이곳에는 인물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주 지역에서 배출된 학자들 가운데 연악서원에서 배출된 학자들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하였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연악구곡(淵嶽九曲)은 남계(南溪) 강응철(姜應哲, 1562~1635)이 상주시 청리면 지천동 지천(智川)에 설정하고 경영했던 구곡원림으로, 제1곡 탁영담(濯纓潭), 제2곡 사군대(使君台), 제3곡 풍암(楓岩), 제4곡 영귀정(詠歸亭), 제5곡 동암(東岩), 제6곡 추유암(秋遊岩), 제7곡 남암(南岩), 제8곡 별암(鰲岩), 제9곡 용추(龍湫)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곡문화가 연악서원 관련 학자들이 구현한 학문정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구윤리교육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서원학회 총무이사)